들어가는 말

옛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일어난 변화에 뒤따라, 2차대전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등분하던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또 전쟁에 진 죄로 동서로 갈라졌던 독일이 재통일 되었다. 이런 세계적 변화속에서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라는 죄 때문에 승전국 미국과 소련이 남북으로 갈라놓은 우리민족은 재통일하기에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작년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만든 것은 이런 환경에서 이룩한 첫번째 업적이다.

내일의 통일일꾼이요 통일된 민족의 주체가 될 남북한 청소년들은, 약 반세기동안 서로 대립하는 체제속에서 자라면서 사고방식과 행동기준에 상당한 차이가 생겼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그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이 다르고, 현실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환경도 달라서 그 속에서 사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은 다른 점이 많을 것이다. 남북의 청소년들이 상대방을 잘 이해하면서 장래의 통일일꾼으로 또 통일된 민족의 주체로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남한 어른들은 북한의 사회 현실과 북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잘 파악하여 남한 청소년들에게 통일교육을 해야 하겠다. 정부가 통일을 추진하면서 남북 청소년들이 남북한을 상호방문하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북한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동안 남한에서 이루어진 북한 청소년연구는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정치적 동원, 교육제도 등 주로 정치나 제도적인 면에 치중한 것같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주로 북한 청소년의 생활을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의 학교, 가정, 사회조직, 군대, 직장에서의 생활과 여가·문화생활에 초점을 두고 일상생활의 여러면을 조사하였다. 북한 청소년 생활에 대한 평가나 남한 청소년 생활과 비교하는 일은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생활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자기가 그 속에 살지 않는 사회를 연구하기란 쉽지 않고, 더구나 자기가 사는 곳과 정치체제가 다른 사회는 연구하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북한 연구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앞서 나온 북한 연구들은 대개 이용 가능한 자료가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전보다는 사정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심각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될수 있는대로 여러 종류의 자료를 모으려고 애썼다. 북한에서 발행한 신문, 잡지, 법령 등 1차자료와, 남한에서 나온 선행 연구논문들과 "북한"과 "통일연구"등 잡지와 통일원 연구물과, 남한사람, 해외교포, 외국인들이 쓴 북한 방문기, 특히 기자들의 북한관찰기를 모았다. 1988년 이후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을 연령과 직업이 다양한 사람 10명을 직접 만나서 북한청소년들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북한 연구에서 제기되는 또하나의 문제는 북한을 보는 시각에 관한 것이다.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오래 지속된 독재체제 때문에 반공이 중요한 지배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바람에 반공이란 시각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연구들이 지금까지 지배적인 경향이었다. 이렇게 시각이 제한되면서 연구주제도 주로 안보와 정치에 관계되는 것에 초점이 모아졌다. 최근에는 북한 연구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시각에서 북한을 보려는 노력도 나타났다. 그중에는 너무 북한쪽으로 기울어진 시각도 간혹 있지만 아직도 보수적인 시각이 더 우세한 것 같다. 이 연구는 북한을 민족통일의 다른 한쪽으로 보면서, 남한의 입장에서 평가하거나 남한과 비교하기보다는 북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를 취급할 때도 글 쓴 사람의 편견을 걸러내고, 좀더 객관적으로 쓴 사람의 글을 중요시 하였다. 북한사람의 입장에 서서 북한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우선, 북한 청소년정책을 조사했다. 청소년정책은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생활환경이 다르더라도 여러 곳의 생활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지침같은 역할을 한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청소년들의 사회생활은 학교에서 시작하므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학교생활의 기초가 되는 교육의 목적과 행정제도를 살피고 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서, 학교환경과 체계, 교육방법과 내용, 그리고 학교에서 경험하는 일상생활을 조사했다.

북한청소년들은 고등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대개 비슷하게 생활하지만, 그 후에는 대학, 군대, 직장이라는 세 갈래 길에서 제각기 자기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대학의 제도와 학습, 일상생활, 단체생활, 졸업과 취직, 김일성종합대학을 조사하고, 군사정책과 제도, 그리고 부대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알아 봤다. 언제 어디서나 인간에게 직장이란 매우 중요한 것인데 특히 북한에서는 직장이 의식주 배급과 연계되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북한청소년의 직장생활을 노동관리체계, 노동환경과 조건, 직장의 일상생활, 그리고 여성과 농민들의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북한은 계획경제에 토대를 둔 사회이므로 사람들은 다 여러 조직에 속하여 생활한다. 대표적인 청소년조직인 소년단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 생활을 들여다 봤다. 청소년 생활의 뿌리인 집안에서 부모와 자녀사이는 어떻고, 의·식·주 생활은 어떤지를 조사하고, 여가시간은 어떻게 보내며 어떤 문화생활을 하는지도 살펴 보았다.

이 연구보고서는 북한 청소년에 대한 학술논문이기보다는 생활상태를 조사한 것이므로 결론대신에, 맨뒤에 북한 청소년 생활의 요약과 함께 북한청소년에 대한 정책수립과 후속 연구에 참고할 사항을 적었다. 부록에는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을 면접조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실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Ⅰ. 북한 청소년 정책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북한 사회에서 국가정책이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남한보다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청소년들의 생활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북한의 청소년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남한의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살에서 24살까지의 젊은이로 정의하는데, 북한에서는 9살에서 13살까지의 아이들을 소년이라 하고, 14살에서 30살까지의 젊은이들을 청년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북한 청소년이 9살에서 24살까지를 의미한다면 소년 모두와 청년의 일부를 포함하는 셈이다. 북한의 소년들은 모두 소년단에 가입하고 청년들은 모두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에 가입한다. 소년단은 사로청의 지도를 받고 사로청은 조선로동당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그러므로 소년단과 사로청은 대상의 나이에 따라 그 구성원과 활동이 좀 다를 뿐 그 지향점은 똑같이 당의 정책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북한의 청년정책을 살펴보았는데, 사회과학출판사에서 1990년에 펴낸 「청년사업경험」에 근거하고, 1989년에 출판된 김정일의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와 1993년 사로청 8차대회에 보낸 김일성의 서한으로 보충했다.

1. 청년들의 단결

북한 당국은 "광범한 청년대중을 잘 교양하여 청년대열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 것은 각계 각층의 인민대중을 묶어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한다. 그것은 통일과 단결이 힘의 원천이고 조직적으로 단결되지 못한 대중은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일찌기 1945년 8월 20일 군사정치간부들에게 「행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했고, 또 같은 해 10월 29일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할데 대하여」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청소년들을 조직건설할 기본노선을 제시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였다.

그는 우선 하나의 청년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혁명이 승리한 다음 청년운동의 통일을 보장하고 모든 청년들을 새사회 건설에 적극 동원하기 위하여서는 각계각층의 청년들을 망라하는 하나의 대중적인 청년조직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로동당, 1985:86). 만약, 청년조직을 정당별, 직업별, 계층별로 만들거나 핵심조직과 대중조직을 따로 세운다면, 청년들의 계급적 분열과 정치조직 분열이 생길 것이며, 그렇게 되면 노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정치적 후비대를 대중적 토대위에 튼튼히 세울 수가 없고 새사회 건설에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광범한 청년들을 하나로 결속하기 위하여서는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하여야 합니다"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그동안 공산청년동맹, 무산청년동맹, 해방청년동맹, 농민청년동맹, 학생동맹 등으로 나뉘었던 청년조직을 1946년 1월 17일 민주청년동맹(민청)으로 통합했다. 이것은 각계각층의 청년들을 다 포함하는 대중조직이었다.

북한의 사회혁명이 심화발전하여 새로운 단계에 이르러서 청년조직은 거기에 맞게 더욱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1964년 5월에 민주청년동맹 제5차 대회에서 이 조직을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으로 개편하고, 김일성은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당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어 개인 상공업자와 개인 농민들이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되고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 로동청년으로 됨에 따라 민주청년동맹을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여기에 광범한 근로청년들이 망라되어 조직생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1984:29). 이리하여 북한에서는 조직바깥에 있는 청년은 한사람도 없으며 모든 청년들이 사로청에 망라되어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 사실 북한에서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조직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정치조직에 망라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정치생활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일상적인 생활적 요구로 되고 있습니다"(김정일, 1989:12).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2. 주체혁명의 계승자

어느 민족이나 그 민족의 장래는 청년들이 어떻게 배우고 훈련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청년들을 잘 교육시키는 일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김정일은 청년의 소중함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이며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청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며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따라 민족의 흥망과 인류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김정일, 1989:1). 해방후 북한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임무가 막중하므로, 그들에게 정치사상 교양과 지덕체교육을 강화하여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 사회주의 혁명의 계승자로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1) 청년들의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

북한에서 청년정책이나 사회운동은 김일성의 교시에서 시작된다. "광범한 청년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벌려 그들의 사상수준을 높여야만 혁명투쟁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고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앞당겨 완수할 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1979:76). 이 교시에 따라 북한 청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선봉대와 돌격대로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게 정치사상 교양을 튼튼히 하는 것이 사로청의 기본 임무가 되었다. 김정일은 "문제는 청년들이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사명을 옳게 자각하고 투쟁에 적극 떨쳐 나서도록 하는데 있습니다"(김정일, 1989:3)고 주장했다.

일본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잔재를 없애고, 한국전쟁의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청년조직과 사상적 교양내용도 바뀌게 되었다. "사상사업은 마땅히 우리나라 혁명발전의 매 시기와 계단에서 나서는 혁명과업들에 따라 그 주되는 임무와 방향과 내용이 정해져야 하며 광범한 대중의 의식수준과 현실생활에 맞게 진행되어야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합니다"(조선로동당, 1980:289). 이 교시에 따라 해방직후에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펼쳐서 일제 잔재인 노예적 근성과, 이기주의, 향락퇴폐주의와 봉건유교도덕에 근거한 낡은 생활유습을 버리고, 계급의식과 혁명의식에 근거한 건국사상의식을 심어주었다. 또 한국전쟁시기와 전후 피해 복구시기에는 미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고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해독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민족주의 의식을 심어주어 사회주의를 위한 건설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였다.

그후 1955년 12월 김일성은 당선전선동 일꾼들에게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란 연설을 하고, 다시 1956년 11월 민청 제4차대회에서 「민청단체들 앞에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연설하면서 주체사상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청년들의 정치사상 교양사업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주체사상, 당정책, 일제시대의 민족독립운동 전통, 사회주의사상 등이다. 김일성은 주체사상과 청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청년들은 주체사상의 가장 열렬한 신봉자, 옹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심장은 언제나 주체사상으로 고동쳐야 하며, 청년들의 몸에는 오직 주체사상의 붉은 피만이 흘러야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여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김일성, 1993:12).

북한 노동당의 정책은 청년조직과 활동의 지침이 되고 사회주의 혁명투쟁에서 전략과 전술이 되므로, 그 내용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청년조직은 당의 후비대이므로 청년들은 당의 정책에 따라야 한다. "청년들은 우리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할 굳은 각오를 가지고 당을 견결히 옹호 보위하여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당의 근위대, 결사대가 되어야 합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나타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야 합니다"(김정일, 1989:15).

혁명전통을 교양시키는 자료에는 일제시대 민족독립운동가들의 회상기,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소설과 영화,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 혁명 박물관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일제시기의 혁명전통은 북한권력의 정통성의 뿌리가 되므로 특별히 강조되어,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까지 만들어졌다. 사회주의 사상교육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유주의, 무규율성이 비판되고 로동계급의식과 집단주의, 사회주의식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가 강조된다.

이런 내용의 사상을 심어주는 방식도 여러 형태를 취하고 또 변화하고 발전되었다. 기본적인 형식은 선전과 선동이다. 선전사업은 논리정연하고 진실되게, 알기쉽고 설득력 있게, 청년들의 심리적 특성에 맞도록 하고, 선동사업은 감동적으로 기백있게, 구체적인 정황과 계기에 맞게 기동적으로 하는 것이라 했다.

그다음, 청년을 위한 교양망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도록 하였다. 해방직후에는 민청이 농촌, 어촌, 공장, 기업소, 학교에 선전망을 조직하고 독보, 해설담화 등의 방식으로 정치사상 교양사업을 진행하였다. 이것이 청년학교 형식으로 발전하여 학습강사의 깨우쳐주는 강의와 청강자들의 논쟁적인 토론과 문답방법으로 학습했다.

학습총화제는 필답과 구답, 문답식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여러가지 모임을 통해서도 사상교양이 이루어졌다. 민주청년, 소년신문, 청년생활, 소년단 등 청소년들을 위한 신문과 '안중근 이동박문을 쏘다', '성황당',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등 혁명적 문학예술 작품도 중요한 사상교양의 수단이 되었다.

2) 청년들의 지덕체 교양을 강화

북한은 전인민의 인테리화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도덕은 북한 교육의 기본이고, 체력은 국방력과 노동력의 토대로 생각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한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청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능력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것은 사로청 조직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조선로동당, 1984:208). 청년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과학습을 잘 하게 하는 것과 근로청년들이 일하면서 공부하여 과학기술지식의 폭을 넓히도록 돕는 것의 두 분야가 있다. 우등, 최우등 학생들이 날로 늘어나서 우등, 최우등 학급과, 우등, 최우등 학교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방법으로는 읽은책 발표모임, 글쓰기 사업, 과학연구 발표회, 창작품 전람회, 과학기술 강연회, 과학기술 토론회 등을 조직하고 진행시켰다. 그리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청년을 돕기위해 도처에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전문학교를 세웠다. 그밖에 모든 학습자를 위해서 평양에 인민대학습당을 짓고, 전국의 도, 시, 군 및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도서관을 지어주었다.

공산주의 도덕교양의 핵심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 잘 나타난 것처럼 집단주의 원칙이다. 김정일은 집단주의 원칙을 "사람의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됩니다"(김정일, 1989:6)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주체사상의 핵심은 수령과 지도자동지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이다.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사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동지애를 높이 발휘하며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잘 지키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살도록 청년들을 교양한다. 도덕적 교양의 방식으로는, 강연과 이야기모임이 있고, 도덕과 관련된 문학예술작품들의 감상토론회와 결의모임, 그리고 공산주의적 도덕생활의 긍정적 모범을 만들어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방법과 겉으로 나타난 결함을 고쳐주는 방법 등이 있다.

청년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건강한 체력을 갖도록 학교체육을 강화하고, 청년들 속에서 체육이 대중화, 일상화되도록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인민체력검정에 적극 참가하고, 사로청은 과외체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청년학생들이 체육소조를 조직하여 활발하게 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영하도록 돕는다.

학생청년들이 지덕체교양을 강화하는 데는 사회문화 교양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은 매우 크다. 방송, 출판물, 영화의 내용을 혁명적인 것으로 일관시키며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 학생들이 사회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다 교육이 되고 교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조선로동당, 1986:397). 지덕체교양이 잘된 청년은 결국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것이다. "청년들은 배우기 좋아하고 일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며 동지와 집단을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돕고 이끌며 고락을 같이 해 나가는 고상한 도덕과 혁명적 생활기풍을 높이 발양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의 생활에는 투쟁도 있고 노래와 춤도 있어야 합니다"(김일성, 1993:13).

3. 사회주의 건설의 돌격대

"청년들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위대한 혁명역량입니다. 생기발랄하고 혈기왕성하며 용감한 청년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위대한 사회적 변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1985:397)라는 김일성 교시에 따라 청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에서 돌격대로 역할하도록 육성하여, 구체적으로 경제건설과 국토방위에서 선봉대가 되게 하였다.

1) 청년들을 경제건설의 선봉대로

해방직후 북한에서는 일제가 파괴한 경제를 빨리 복구하고 그것을 새로운 토대위에서 발전시켜야 할 절박한 과업이 있었다. 이 어려운 과업의 해결에는 혈기왕성한 청년들을 동원하는 일이 필요했다. 그래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동맹단체들은 청년들로 하여금 경제건설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기들의 헌신성과 창발성으로써 근로자들의 모범이 되도록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1979b:483). 먼저, 청년들이 일제식민지 통치의 유산인 고용살이 근성을 떨쳐버리고,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이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의식을 가져야 했다. 청년조직들은 청년들에게 독립된 조선 건설에서 그들이 서야 할 위치와 임무에 대하여, 나라의 주인된 긍지와 책임감에 대하여, 경제 복구작업에서 맡아야 할 돌격대 역할에 대하여 선전사업을 펼쳤다.

특히 경제건설의 어려운 부분에서 청년들이 돌격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로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야 하며 공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자기들의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일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1982:321). 탄광과 광산, 임업과 수산, 도로항만 건설과 운수, 농촌경리 부문 등이 가장 힘든 부문이었다. 그래서 건장하고 혈기왕성하며 용감한 청년들이 이 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청춘의 지혜와 정열을 바쳐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자는 것이었다.

1947년 근로청년들 속에서 청년작업반운동이 흥남비료공장에서 시작되어, 그해 11월 함경북도 궁심탄광의 민청갱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이 운동은 전국의 탄광, 공장, 기업소 청년들의 호응을 받아 청년작업반, 청년직장, 청년갱들이 여기저기에 생겼다. 그리하여 1950년 5월에 이르러 청년직장과 청년작업반은 2,100여 개로, 민청호란 이름을 가진 기관차, 선박, 용광로, 갱들은 수천 개로 늘어났다. 덕분에 1949-1950년 2개년 인민경제계획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전쟁의 폐허에서 인민경제를 재생시키는 작업에서 청년복구대는 큰 일을 해냈다. 특히 1만여 명의 청년학생들로 조직된 수도청년복구대는 정연한 조직체계와 지휘체계를 갖추고, 청년거리, 김일성광장, 대성산유원지, 대동강호안공사들을 빠른 시간안에 완공하여, 수도 평양이 다시 살아났다.

청년돌격대는 탄광 부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는 그 경험을 토대로 수산업 부문에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1958년 김책수산업소 71호선의 선원 11명은 기술학습을 열심히 한 후, 1959년초에 출어해서 보통 1년에 150일 이상 작업을 못하던 것을, 317일 동안 출어작업하는 기록을 세웠다. 「청년들은 다 어려운 일을 맡아 나서자!」, 「청년들은 바다로, 탄광으로, 산림으로!」 라는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당의 구호에 따라, 제1차 7개년경제계획기간(1961-1967)에만도 150여만 명의 청년들이 앞다투어 탄광과 광산, 임산과 수산, 동력기지건설장과 제철, 제강 공업부문 등 어려운 직장에 진출하여 큰 업적을 남겼다. 같은 기간에 청년작업반, 청년직장, 사로청호의 숫자가 1만 4천여 개에 이르고, 이런 영예로운 청년조직에 포함된 청년의 숫자가 24만 5천여 명에 달했다.

청년들은 경제건설의 힘든 육체노동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기술혁신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청년들은 인민경제 부문에서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보수주의와 투쟁하며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1981:194)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청년들은 기술 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술학습회, 기술전습회, 기술강연회, 기술과학토론회, 기술경험발표회, 창의고안품전시회 등을 조직 실행하였다. 그 결과 1959년에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참가하여 일부 과목에 합격한 로동청년의 수는 5,300여 명이나 되었고, 46,000여 명의 청년들은 기술기능수준을 한 등급 이상씩 높였다. "청년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야 하며 자기의 초소에서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김정일, 1989:15)라는 교시에 따라 최근에는 청년들이 3대혁명 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맡았다.

2) 청년들을 조국방위의 선봉대로

북한당국은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여 총들고 민족독립운동을 하던 전통과 미국제국주의에 항거하여 한국전쟁에서 용감히 싸운 경험을 가졌다고 보는 북한 청년들에게 조국방위에서도 중요한 임무를 떠 맡기고 있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들이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로동적위대와 붉은 청년근위대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전국을 요새화하며 군수공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에서도 앞장서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조선로동당, 1984:55). 청년들에게 이런 임무를 맡기는 것은 청년들이 인민군대의 기본역량이라 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고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청년들은 건장한 체력과 혈기왕성하고 대담무쌍한 기질과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까지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희생성, 용감성"을 가졌다고 믿는데 있다(채종완, 1990:90). 그래서 청년들에게 가르치기를,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민족군대를 가져야 하고,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것은 조선공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크나 큰 영예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의 군사노선 관철에 청년들을 동원하는 사업을 벌였다. 당의 군사노선이란 군대의 간부화, 현대화, 전인민 무장화, 전국요새화이다. 그리하여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현대화를 위하여 청년군인들이 강인한 혁명정신과 기묘한 전술, 무쇠같은 체력, 백발백중의 사격율을 소유하고, 부대안에 강철같은 군사규율을 세우는 것을 요구한다. 특히 노동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는 북한 노동당의 인민적 무장력이며 유사시에 인민군대를 도와 싸워야 할 예비병력이다. 이 조직에 가입한 청년들은 현대적 군사과학 기술지식을 습득하고 여러가지 현대적인 무기들과 전투기술 기재들을 능숙히 다룰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4. 청년조직의 강화

북한 청년정책의 핵심이 모든 청소년들을 모아 하나의 청년동맹으로 조직해서 그들을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건설에 쓸모있는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볼 때, 청년동맹이란 조직을 강화하고 그 조직이 중심이 돼서 전개하는 청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청년동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이 높아야 청년들이 생기발랄하게 움직이고, 동맹이 맡은 과업 즉, 청년들을 정치사상으로 교양하고, 혁명적 조직으로 결속단련시키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잘 동원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은 사로청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은 우리나라의 모든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우리 당의 청년전위로 키우는 혁명의 학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교입니다. 청년들은 사로청원의 높은 긍지와 영예를 가지고 사로청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야 합니다"(김정일, 1989:19).

북한의 청년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동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이므로, 동맹안에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있어야 하며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동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추구했다. 그리하여 대오안에 종파분자와 분열주의자들이 없어야 한다.

둘째, 청년동맹은 대중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적 핵심을 튼튼히 꾸려야 하며, 그것을 위해 초급간부 대열을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간부는 청년들의 교양자, 조직자이며, 청년사업의 지휘성원들이기 때문이다.

셋째, 청년동맹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 당에서 중시하는 부문과 단위들의 간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하고 능력있는 일꾼들을 선발배치함으로써 그 부문사업을 개선 강화해야 한다.

넷째, 규율은 조직의 생명이며 전투력의 원천이므로, "민주청년동맹에는 강철같은 규율이 있어야 합니다"(조선로동당, 1979:20). 동맹원들 속에서 규율교양을 강화하고, 동맹규약학습을 열심히 해야 하며, 규율과 함께 조직관념을 가지고 조직생활을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맹원들에게 그들의 성격과 취미, 소질과 능력, 수준과 책임성 등에 알맞는 과업을 주어야 한다.

다섯째, "사로청이 자기 앞에 맡겨진 영예롭고 무거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려면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1984:62). 그리고 위가 아래에 내려가는 체계, 모든 일꾼들이 청년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는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Ⅱ. 초·중등학교 생활

어느 나라든지 청소년정책을 실현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관은 학교이다. 북한도 앞에서 살펴본 청소년정책을 초·중등학교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 같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집을 떠나 처음 몸담게되는 조직도 학교이므로, 북한청소년의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초·중등학교생활을 살펴보았다. 학교생활은 국가의 교육방향에 따라 기본적인 틀이 짜여지므로, 먼저 북한교육의 목적과 교육행정제도를 살핀 다음에, 교육환경과 교육체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교육방법과 교육내용, 학교일상생활의 순서로 알아보았다.

1. 교육 목적과 행정

북한 교육의 일반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각종학교교육의 목적을 알아보았다. 그리고나서 북한의 교육행정제도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1) 일반 목적

북한은 전 인민의 인테리화라는 정책아래 교육에 큰 힘을 기울였다. 1972년부터 유치원 높은반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합하여 11년의무교육제도를 세워서, 만 5살부터 15살까지의 청소년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그리고 무상으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북한교육의 기본정책은 1977년 9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로 발표 되었다. 여기서 북한 교육이념의 전제는,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할 과업이 있고, 이 과업의 성취에는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해야 하는데, 사상적 요새의 점령을 위해서는 교육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북한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키우는 사업"이며, 결국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며, 그것의 기초로 사람들은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온갖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이겨내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발전시킬 수 있다. 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과학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인간의 전반적 발전의 중요한 조건이며 과학적 세계수립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또 건장한 체력은 인간의 지적 및 물질적 활동의 육체적 담보이므로 건장한 체력없이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제43조에서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고 하여 교육의 기본 목적을 명시하였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에서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1) 공산주의는 놀고 먹는 사회가 아니므로 노동을 사랑하며 즐기며 이에 자각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2) 개인주의 낡은 사상, 자본주의사상을 철저히 뿌리뽑고 김일성유일사상으로 무장된 사람. 3) 자기 개인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오직 사회 전체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 4) 공산주의의 승리를 확신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 낙관주의를 갖는 사람(김일성, 1975).

2) 각급학교의 목적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양성한다는 기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지 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펴 보자.

탁아소와 유치원의 교육은 학교교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기초를 닦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은 다음과 같이 조기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 보육교양법은 우리 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적인 새인간으로 키우고,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로동계급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조기교육의 필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어린이들을 사회의 주인으로,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어릴때부터 문화적인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보육교양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키우면 어려서부터 조직생활과 규률생활에 버릇되고 집단주의사상과 공산주의 도덕품성이 싹트게 되며 지적 발전과 육체적 발육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북한은 1년의 유치원교육을 비롯하여 4년의 인민학교교육과 6년의 고등중학교교육을 포함한 11년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하여 통합된 일반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목적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공산주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1959년 10월 28일에 발표된 '내각결정 제 2호'에 뚜렷하게 언급되어 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초적 일반교육 및 생산노동을 통한 기술교육을 받게 하고 나아가 육체노동에 대한 존경심과 공산주의 도덕에 기초하여 육체적·심리적으로 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발달시키는 데 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도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을 제시하였다. "초등교육과 중등일반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사물현상의 일반적 개념과 본질, 그 변화발전법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며 특히 수학, 물리학, 생물학 같은 기초과학분야의 일반지식을 가르치는데 기본을 두어야한다." 단지 초등교육은 기초지식교육을 중점으로 일반교육에, 중등교육은 이러한 초등교육의 기초위에 기술교육에 치중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고등교육은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구비한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목적은 1947년 10월 김일성대학 1주년 기념식에서 김일성이 행한 연설 "청소년 사업에 대하여"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 이 대학의 목적은 과학·기술 및 정치의식으로 무장한 국가의 일꾼으로 길러서 그들이 민주주의적 조국과 우리 인민들의 번영건설에 이바지하게 함이다. 위대한 수령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실한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유일사상 교양을 첫자리에 놓고 교수교양사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적 인테리로 믿음직하게 키운다.

3) 교육 행정

북한의 교육행정은 중앙집권적인 형태이다. 교육행정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지도, 감독, 평가하는 노동당과 그 정책을 집행하는 정무원이 이원적인 체계를 이루고, 당과 교육행정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북한은 노동당이 권력구조의 핵심을 이루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노동당은 당대회가 형식상 최고지도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당중앙위원회가 당사업을 관장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중앙위원회에 속한 정치국과 비서국이 사업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전담한다. 정치국은 당대회의 결정에 따라 당의 정책을 수립하고 노동당의 사업을 결정하며 지도한다. 비서국은 당의 중추기관으로서 각 부서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정현수·이동선, 1990:143). 그리고, 비서국 산하의 각 부서가 영역별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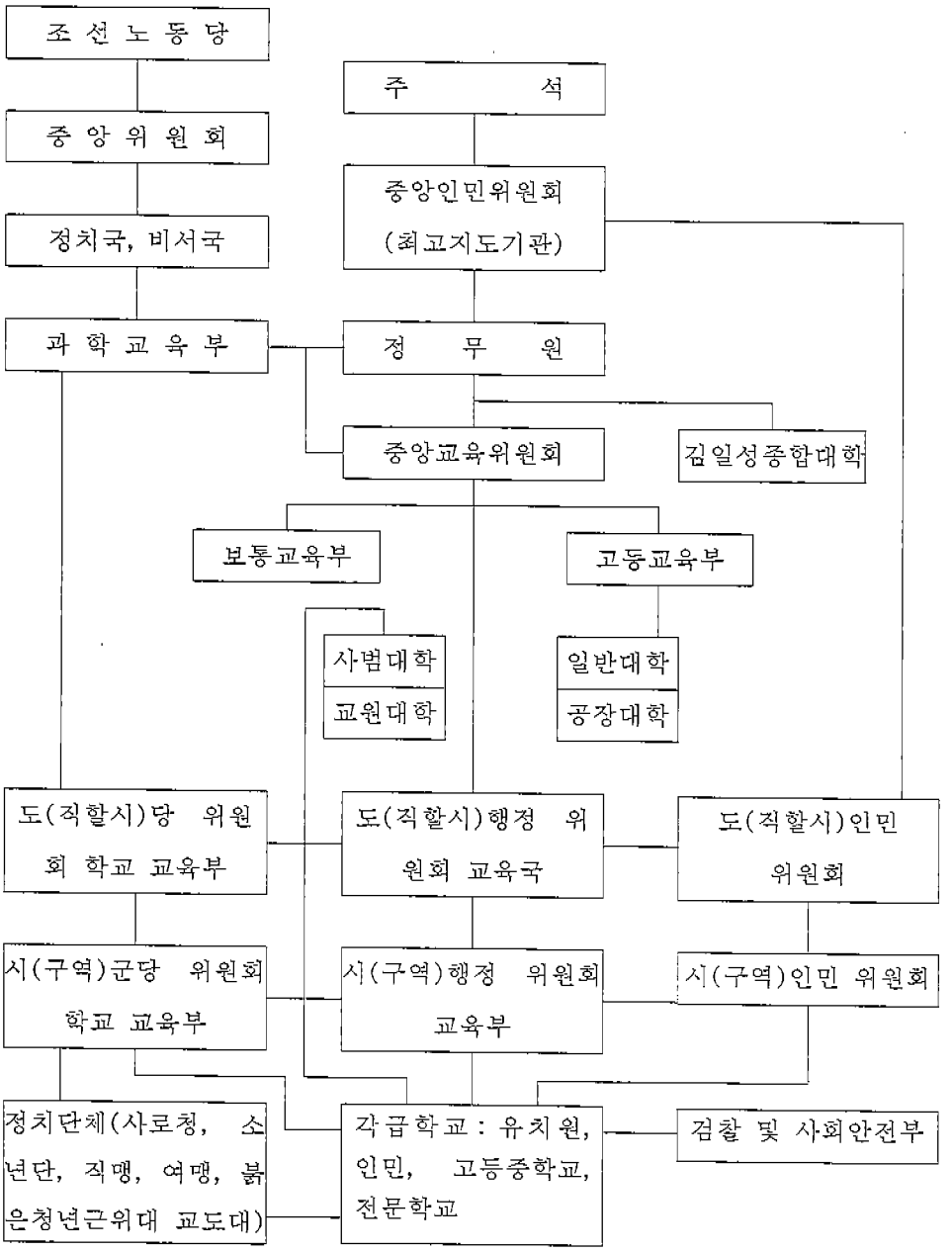
교육정책 역시 당중앙위원회가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을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한다. 정치국이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비서국이 교육의 당면 과제를 결정하여 그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그리고, 비서국 산하의 과학교육부가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집행지침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을 지도하고 통제한다.

교육행정은 정무원의 교육위원회가 관장하는데, 교육을 비롯하여 출판과 도서를 관리하고 교육에 관한 예산편성과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교육위원회 밑에는 교육기자재공급총국, 보통교육부, 고등교육부 등 1국 2부가 있다. 보통교육부는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비롯하여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고등전문학교 등 정규적인 각급 학교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고등교육부는 일반대학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정무원이 직접 관장한다. 지방행정조직으로는 각 도(직할시)행정위원회와 시(구역)·군 행정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지방교육의 행정을 지도하는 교육국과 교육부가 있다. 지방교육기관은 지방행정기관의 한 부서로 되어 일반행정에 예속되었다. 시·도 행정위원회 밑의 교육국은 단과대학을 비롯하여 공장대학, 농장대학·어장대학 등 산업체부설학교의 행정을, 시·군 행정위원회 밑의 교육부는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고등전문학교, 근로자고등중학교 등의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중앙의 행정조직이 당과 정무원의 이중적인 체계로 된 것처럼 지방교육행정도 당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도당과 군당밑의 교육국과 교육부가 해당 지역의 교육행정을 지도·감독하고, 학교내의 학교당위원회는 각급 학교의 운영을 직접 지휘한다(양태진·이서행, 1983:166-167). 그밖에 시·도·군 단위의 인민위원회를 비롯하여 당의 외곽단체인 사로청, 검찰, 사회안전부도 각급 학교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통일연수원, 1988:413).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표 1〉 교육통제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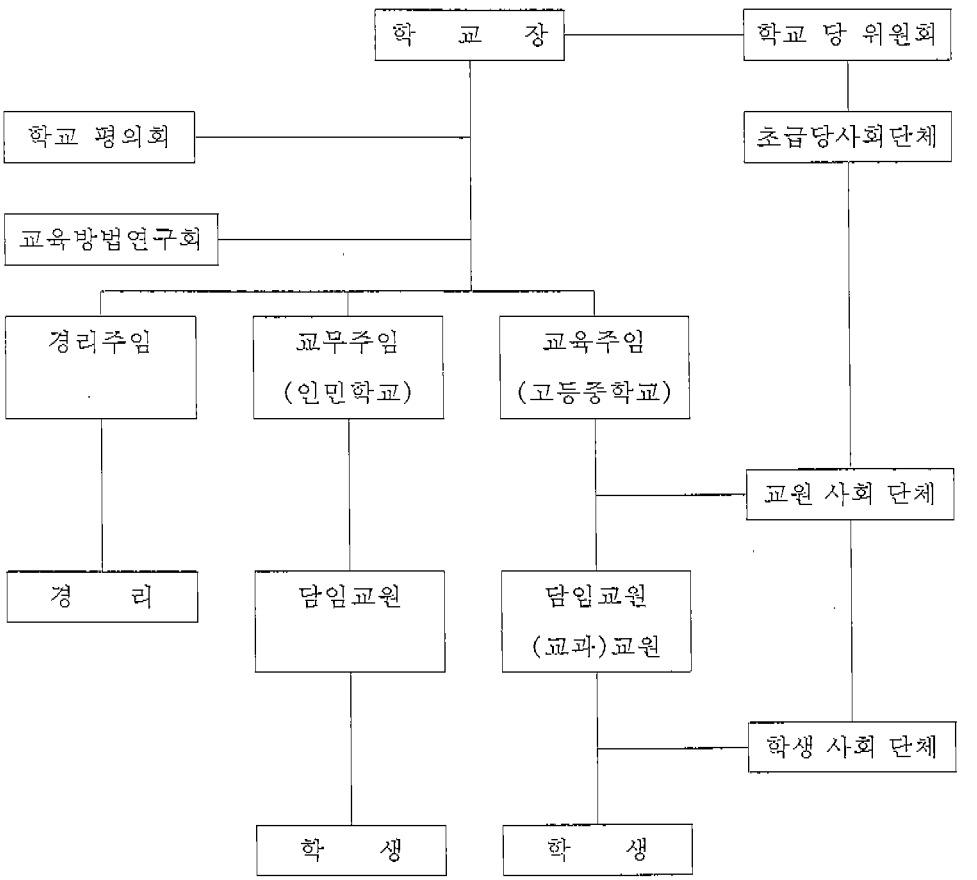


자료 : 김순배(1993), 북한의 교육; 통일연수원(1993), 민주통일론 : 북한 실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원적인 교육행정체계에 따라 모든 학교는 학교교육 관련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행정조직과 이 행정조직을 지도·감독하는 정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 참조). 학교기구는 학교장밑에 학교평의회, 교육방법연구회, 경리주임과 교무주임(교육주임), 교사, 그리고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당기구는 학교당위원회 또는 초급당위원회, 초급당사회단체, 교원사회단체, 학생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장은 학교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위원회 집행위원의 한 사람이 되고, 당위원회 책임자는 대개 교무주임이나 당지도위원이 된다.

〈표 2〉 학교경영 조직표



자료 : 국제관계 공동연구소(1975), 북조선연구 : 45.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4) 학교장과 교사

학교장의 기본임무는 학교사업에서 당정책을 관철하며 교수교양사업의 질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학생들을 전면적으로 발달된 열렬한 애국자로 육성하는 데 있다(김동규, 1990:345). 이를 위하여 학교장은 교원의 자질향상사업, 학교계획화사업, 교수교양사업에 대한 지도, 학교시설관리와 경리사업의 조직, 학교교육회 사업강화, 학교내 제도와 질서확립 등 학교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학교장은 학교행정 전반에 대해 당의 통제을 받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제한되어, 학교내 모든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당에서 파견되어 나온 당세포 및 지역사회단체 간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육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매월 1회이상, 그리고 학기 및 학년초, 학기말에 1회이상 반드시 학교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과 평가를 맡고 있는 학교평의회를 소집하여 교직원과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등에게 관련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군중적인 결의를 얻어야 한다(국제안보연구소, 1986).

학교당위원회는, 첫째 당의 교육이념 및 교육정책의 관철, 둘째 교직원 및 학생들의 정치생활 지도통제와 감독, 셋째 학교내 유일사상 체계의 확립, 넷째 교육행정 일체에 대한 당적인 지도통제, 다섯째 학교내 사업단체에 대한 지도 등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이항구, 1988:210). 당위원회는 교사와 학생의 구별없이 모든 당원을 대상으로 1개월에 1회 학년별, 학급별 당원총회를 개최한다. 당원총회에서는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지시된 사항의 집행결과를 결산하며, 당원들의 활동과 생활에 대하여 비판을 하게 된다. 이 회의에서는 교사와 학생 구별없이 상호비판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당위원회의 책임자는 당원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들의 활동과 생활을 통제하는 데서 학교장의 권한을 능가한다.

학교장은 학교관리의 형식적인 책임만 지고, 학교장 밑에 있는 당위원장, 일명 정치부교장이 학교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하고, 학교의 관리·운영과 교육내용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로서 "교수사업을 잘 하고 과외학습과 과외활동을 잘 지도"하여 학생들을 열렬한 애국자, 조국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임무를 가진다(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977).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원은 교육방법연구회, 교재토론회, 교수안토의, 교수경연, 교수교양 경험발표회, 교편물 전람회, 교수참관 등을 통하여 교원의 자격과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교원은 가정과 연계하여 학부형의 관심과 열성을 높이고 학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 한명이 다섯 가정을 담당하는 5호담당 선전활동을 통하여 학부형을 지도하고 있다(김 동춘, 1990:164).

교원의 또 다른 임무는 후대의 교육사업을 잘 하기 위하여 먼저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노동화하여 혁명적 실천활동을 학생과 군중속에서 직접 수행하는 일이다(북한연구소, 1983:1298-99). 먼저, 교원들은 학교평의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외에 일반주민들이 가입하는 직업동맹, 여성동맹, 노동당, 사로청과 같은 여러 정치사회단체에도 가입하여 각종 정치교양사업, 노력동원, 사회봉사, 정치사회단체활동 등 다양한 과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모든 교원은 공산주의교양, 당정책학습, 혁명전통학습 등의 각종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원일 경우에는 공산주의 교양과 김일성유일사상 학습활동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월 1회이상 당총회를, 주 1회이상 학습회를 개최하여 비판을 통한 사상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지역봉사의 하나로 인민학교교원은 '인민반'의 학습강사로, 고등중학교교원은 리동의 선전원으로 정치학습과 근로자중학교의 교원역할도 하여야 한다.

교원은 크게 교과목수업을 담당하는 교원과 해당학교의 소년단 또는 사로청조직생활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지도원으로 분류된다. 인민학교 교원은 전과목의 수업을 담당하게 되고, 고등중학교 교원은 전공과목을 따로 담당하게 된다. 대부분의 교원들은 학교내에 조직된 교육방법연구회에 가입하는데 학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교특성에 맞는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조직이다. 이 연구회는 학년별로 조직되어 정치실무에 자질이 있고 조직능력이 있는 해당 학년의 교원이 분과책임자가 되어 운영한다. 각 분과에서는 공통된 주제에 관한 연구와 교수의 경험을 발표하는 모임 등을 조직하여 선진학교의 경험을 섭취한다.

소년단과 사로청지도원은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키우고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양과 통제를 책임지면서 단체활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체학습과 생활지도를 담당한다. 지역 사로청위원회는 당 또는 사로청에 가입된 교원중에서 특별히 당과 사업에 열성적인 자를 소년단지도원으로 임명한다. 각급 학교 사로청활동은 해당학교 사로청위원장이 담당하는게 보통인데, 사로청 지도사업 담당교원을 시·군(구역) 사로청위원회에서 임명하여 배치하기도 한다(서동익, 1987:75). 소년단과 사로청이 함께 조직된 고등중학교에서는 소년단지도원은 사로청지도원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교사들 사이에 자격과 근무연한 등에 따라 위계가 생기는데 학교청소년단체 지도원들의 지위가 일반 교원보다 높다.

북한은 여성 교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1961년 3월 내각지시는, 인민학교 교원은 85퍼센트를, 고등중학교는 50퍼센트, 기술학교는 35퍼센트, 고등기술학교는 25퍼센트를 여성교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여 그후 여성교원이 해마다 증가하였다(북한연구소, 1983:1298).

2. 교육 환경과 체계

여기서는 학교시설, 교육비용, 학교수, 학생수 등 교육환경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 북한의 학교체계를 일반학교, 특수학교, 사회교육학교로 나누어 조사했다.

1) 교육환경

학교에는 교실, 실험실습실, 도서실 등 일반적인 기본 시설 이외에 김일성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연구실과 단체활동을 위한 소년단실, 또는 사로청실이 있다. 김일성연구실에는 김일성의 석고상을 비롯하여 김일성선집, 김일성의 '덕성실기'와 '배움의 천리길', 김정숙의 '항일빨치산 투쟁기' 등 김일성과 그 일가에 대한 책들이 갖추어져 있다. 운동장에는 철봉, 평행봉, 철조망 등 국방체육기재가 설치되어 있고,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송구장 등이 있으며 학교건물 옆에는 실습터전인 밭과 가축사육장이 있다.

학교 현관과 교실, 복도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와 이를 닦는 청소용구가 들어 있는 정성함, '지·덕·체'와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자'라고 쓰인 구호판, 학년별, 학급별, 그리고 분단별 경쟁도표 등이 걸려 있다.

학교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하므로 중앙에서 계획하고 분배한다. 그러나 경제사정의 악화로 평양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도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가축사육, 폐품수집 등으로 비용을 마련하거나, 학부모들에게서 기부금이나 물품을 기증받는다. 학교는 해당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농장, 기업소, 기관들과 학교후원단체를 결성하여 이들의 지원과 협조를 얻는다. 이들 후원단체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설비중에 교육사업에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학교에 보내어 그 학교의 경제적, 교육적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었다(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977).

11년제 무상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는 없고 학용품은 무료로 공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교복, 교과서, 학용품 등을 싼 값으로 산다. 교과서를 비롯한 학용품은 아무 때나 개인별로 구입할 수 없으며, 학년초에 학교에서 발부하는 구매표를 받아 상점에서 구입하거나, 학교에서 단체로 구입하여 나누어 주기도 한다.

인민학교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약간의 학용품과 의복, 신발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기차통학생에게는 무임승차권을 발행한다(북한연구소, 1983:1275). 3명이상의 학생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교복대금을 15퍼센트 정도 할인해 주며, 겨울에는 외투가 무료로 배급된다.

북한은 인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방이후 학교시설을 계속 증설하여 왔다(표 3 참조). 지난 45년간 7,699개의 학교가 증설됨으로써 해방당시 1,426개의 학교가 1990년에는 약 6.4배에 해당하는 9,125개의 학교로 늘어 났다. 각급 학교별로 보면, 해방직후 인민학교가 1,372개교, 고등중학교가 50개교, 대학교가 4개교로 총 1,426개교였다. 1990년에는 인민학교가 4,790개교, 고등중학교가 4,062개교, 대학교가 273개교로써 총 9,125개로 늘어 났다. 지난 45년동안 인민학교는 3.5배, 고등중학교는 81.2배, 대학교는 68.3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등중학교와 대학교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학교의 양적 확대는 해방직후 1945년과 50년사이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후에는 아주 근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각급 학교별로 보면, 인민학교는 1950년 이후 큰 변동없이 조금씩 증설되고 있으나, 고등중학교와 대학교는 1960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1958년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이 실시되면서 고등중학교 시설을 급격히 확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연도별 학교급별 학교수

연도별 학교급별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45 -1990 증가율
인민학교	1,372	3,882	3,681	4,145	4,024	4,320	4,700	4,700	4,760	4,790	3.5
고등중학교	50	1,103	1,329	3,344	3,276	3,568	3,861	4,100	—	4,062	81.2
대학교(주)	4	15	37	76	98	129	150	170	234	273	68.3
총학생수	1,426	5,000	5,047	7,565	7,398	8,017	8,711	8,970	—	9,125	6.4

주) 1. 방송대학 및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포함한 수치임

자료 : 북한연구소 (1983), 북한총람 : 1280—1284

통일원 (1991), 남북한 사회·문화 지표 : 116—128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지난 45년동안 북한 교육은 양적 확대로 교육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분단직후 1945년에 89.8만명에 불과하던 학생수가 1990년에는 524만명에 달하면서 지난 45년 동안 약 5.8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표 4 참조). 학생취학율 역시 점차 늘어 나서, 1945년 전체인구의 9.7퍼센트에서 1990년 24.1퍼센트로 확대되었다.

〈표 4〉 연도별 학생수

(단위 : 1,000명)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45-1990 증가율
총학생수	898	1,908	1,916	2,112	2,025	3,281	4,129	4,442	4,780	5,238	5.8
총인구	9,257	9,622	9,359	10,789	12,252	14,002	16,172	18,170	19,995	21,720	2.3
학생비율(%)	9.7	19.8	20.5	19.6	16.5	23.4	25.5	24.5	23.9	24.1	

주) 1945년, 1950년 총인구는 자료부족으로 1946년, 1949년 인구로 대체하였음.

자료 : 북한연구소(1983), 북한총람 : 1280－1284

통일원(1991), 남북한 사회문화 지표 : 16－18, 118－130

각급 학교별로 보면 지난 45년동안 인민학교 학생수는 약 2.2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등중학교와 대학교 학생수는 각각 177.4배와 104.7배라는 엄청난 증가율을 보인다(표 5 참조). 학생수는 해방후 급격하게 확대되어 1945년과 195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이후에는 둔화되었다. 전쟁기간중 거의 모든 학교가 폐쇄되었으므로 학생수가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 그 뒤 전후의 재건을 서두르고 새 교육체제를 정비함으로써 학생수는 다시 증가하였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표 5〉 연도별 학교급별 학생수

(단위 : 1,000명)

연도별 / 학교급별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45 -1990 증가율
인 민 학 교	878	1,474	1,462	957	1,152	1,528	1,715	1,748	1,900	1,908	2.2
	(97.8)	(77.3)	(76.3)	(45.3)	(56.9)	(46.6)	(41.5)	(39.3)	(39.7)	(34.6)	
고등중학교	17	419	437	1,079	717	1,682	2,322	2,438	2,600	3,016	177.4
	(1.9)	(22.0)	(22.8)	(51.1)	(35.4)	(51.3)	(56.2)	(54.9)	(54.4)	(57.6)	
대 학 교	3	15	17	76	156	71	92	256	280	314	104.7
	(0.3)	(0.7)	(0.9)	(3.6)	(7.7)	(2.1)	(2.3)	(2.8)	(5.9)	(6.0)	
총학생수[2]	898[4]	1,908	1,916	2,112	2,025	3,281	4,129	4,442	4,780	5,238	5.8

주) 1. 휴직자 포함한 총 재적학생수임

2. 북한 총학생수는 전문학교, 기술학교 등을 제외한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대학교 학생수만을 포함한 것임

3. ( )은 총학생수에 대한 각급 학교 학생수의 비율 %

4. 1945년 대학생수는 자료부족으로 1946년 대학생수로 대체하였음.

자료) 북한연구소 (1983), 북한 총람:1280－1284

통일원 (1991), 남북한 사회문화지표:118－130

인민학교는 해방이후 1950년까지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1960년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 후 인민학교 학생수가 계속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율은 둔화되어 거의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해방이후 전체 학생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던 인민학교 학생의 비율이 1970년이후 계속 감소하게 되었다. 이는 취학연령 인구의 교육수요가 모두 충족되고 인구증가율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고등중학교와 대학교의 학생수도 역시 해방직후 약 5년간 가장 많이 증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하였다. 이는 일제의 조선인교육 억압정책에 의해 중·고등교육의 기회를 제한하였던 제도가 해방후에 폐지된 것을 주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중등교육개발정책에 따라 1958년에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이 실시되면서 고등중학생수가 크게 증가하여 1960년에는 인민학교 학생수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1965년에는 감소하였다가 1970년이후, 특히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 후 계속 증가하여 인민학교 학생수를 초과하고 나아가 전체 학생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대학생수 역시 다른 학교와 거의 비슷한 변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가추세의 기복이 심하다. 대학생수의 전체 학생수에 대한 비율이 해방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65년-70년 사이에 일시적으로 대폭 감소하고 그 이후에 다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학생수에 대한 대학생의 비율은 대학교육이 대중화하는 세계추세 속에서는 매우 낮다. 1990년 기준으로 북한의 총대학생수가 31.4만명으로 인구 1만명당 1백 44.6명에 불과하다(남한은 1만명당 2백 62.9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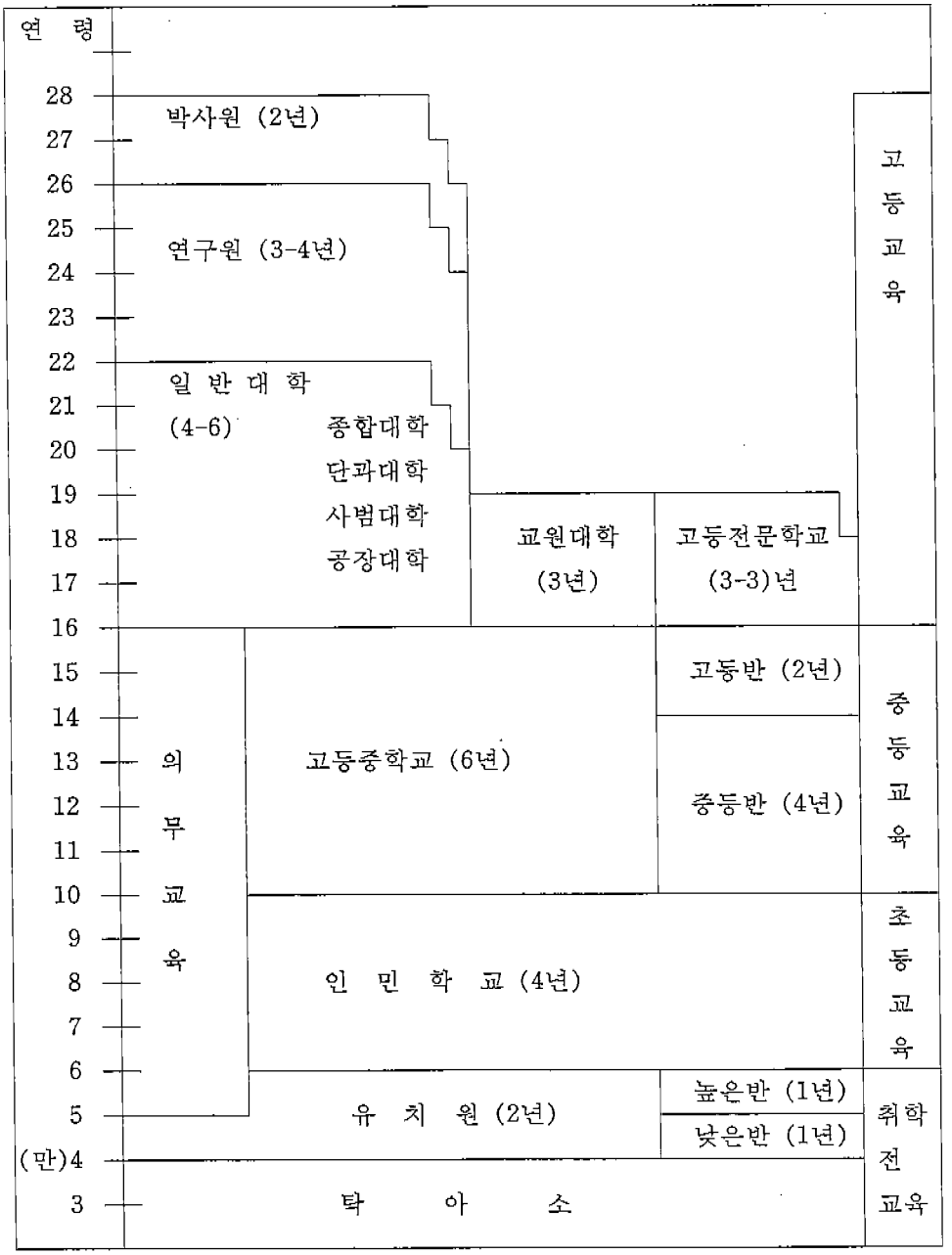
2) 교육 체계

북한 교육체계는 북한정권 수립후 몇 차례의 개편을 거쳐서 1975년에 완성된 기본 골격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유치원을 포함하는 각급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교육제도 위에, 특수교육제도와 사회교육제도를 첨가하는 복선제형식을 취한다.

북한 교육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일반교육제도는 정규적인 학교교육을 의미하며 유치원 2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 연구원 3-4년, 그리고 박사원 2년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6 참조).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중학교는 4년의 중등반과 2년의 고등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학제구분상 별로 큰 의미는 없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표 6〉 일반교육 체계



자료 : 김동규(1990), 북한의 교육학:127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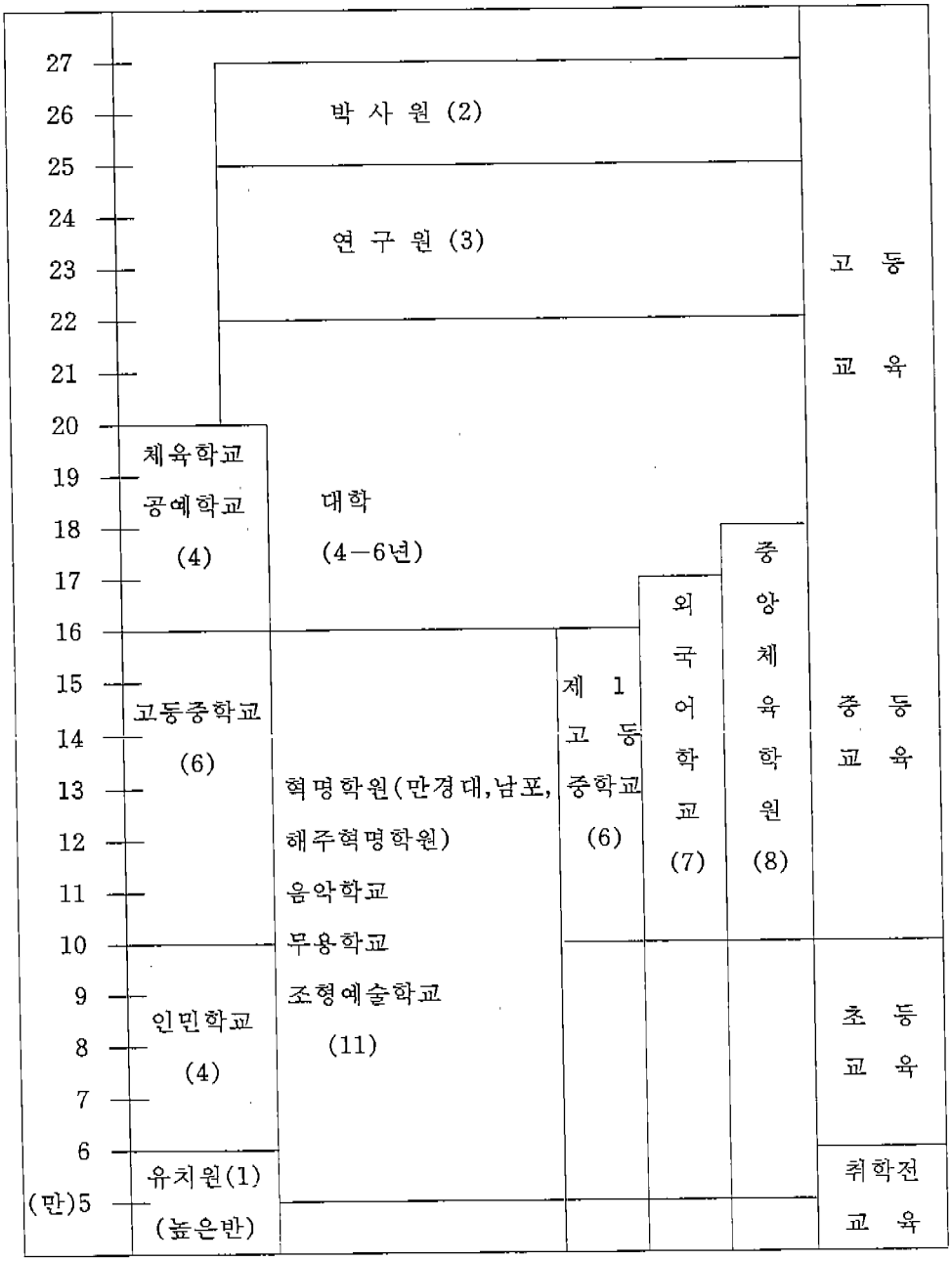
대학교는 종합대학, 단과대학, 전문대학으로 나누어졌다. 종합대학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 등 3개교가 있으며, 그밖에는 공업대학, 의학대학, 외국어대학, 농수산대학, 경영대학, 국제관계대학, 사범대학, 영화대학, 음악대학, 무용대학 등 전문계열의 단과대학이다. 이들 단과대학은 지역별 조건과 산업배치에 따라 각 도에 산재되어 있다. 2-3년제 고등전문학교와 3년제 교원대학 외에 대부분 대학은 4년제이다. 북한의 최고 대학인 김일성대학은 인민과학부가 4년, 사회과학부가 5년, 자연과학부가 6년제로 되었다.

특수교육 제도로서 무용, 음악, 조형예술, 공예, 체육, 과학, 외국어 분야 등의 특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조기 특기학교가 있다(표 7 참조). 이들 특수학교는 입학시에 엄밀한 신분조사가 시행되고, 일반학교에서 전학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출신성분이 좋은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를 일반학교와 별도로 선발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특수학교 졸업후에는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받기 때문에 입시경쟁이 치열하다. 졸업생의 대부분은 해당분야의 대학에 진학하며 대학 졸업후에도 해당분야에서 활동을 한다.

예술분야의 조기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음악학교, 무용학교, 조형예술학교는 유치원의 '높은 반'과정부터 고등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과정인 11년제로 되어 있다. 제1고등중학교는 전문적인 과학기술자들의 조기양성을 위한 6년제의 과학영재 교육기관으로 평양 제1고등중학교(1984년 창설)를 비롯하여 전국에 약 12개교가 있다(통일원, 1992a:335). 제1고등중학교는 인민학교 졸업생중 과학기술분야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수학, 물리 등 과학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초현대적인 시청각교재와 실험실습실을 비롯하여 기숙사, 수영장과 체육관 등 문화후생시설을 완비한 북한내에서 최상급수준의 학교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표 7〉 특수교육 체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외국어학교는 인민학교 졸업생중 외국어에 소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7년제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대외부문의 인재양성에 주력한다. 체육학교와 공예학교는 고등중학교 졸업자중 체육과 공예부문의 특기자를 선발하여 4년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단계의 특수학교이다. 전문체육인 양성기관중 중앙체육학원은 8년제로 인민학교 졸업생중 체육특기자를 선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국가대표 후보선수를 양성하는 데 주력한다(통일원, 1992a:370).

이러한 전문계열의 특수학교 외에 혁명유자녀와 특권층 자녀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시키는 혁명학원이 있다. 혁명학원은 원칙적으로는 항일투쟁 및 한국전쟁에 참가하였던 소위 혁명투사의 유자녀 및 고아들에 대한 특별우대교육을 실시하기위해 설치된 혁명유자녀학원이였으나, 최근에는 주로 당·정·군 고위간부 자녀들이 다닌다(박민제, 1993:112).

현재, 만경대혁명학원(평양시, 47년 10월 창설)을 비롯하여 남포혁명학원(남포시, 1951년 1월 창설, 1980년대에 강반석 혁명유자녀학원에서 개칭), 해주혁명학원(해주시, 1958년 9월 창설), 평양외국어학교(평양시, 1958년 9월 창설, 평양외국어혁명학원에서 개칭) 등이 있다. 만경대혁명학원과 해주혁명학원은 남학생, 남포혁명학원은 여학생만을 교육시키게 된다. 이들 혁명학원은 교육과정은 11년제이나, 외교관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평양외국어학교만은 인민학교 졸업생중 외국어소질이 있는 자들을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7년제 교육기관이다(박민제, 1993: 4). 해주학원에는 4년제 대학, 남포학원에는 3년제 정치대학이 부설되었다.

혁명학원은 당·정 간부 등 직업혁명가 양성기관으로 다른 학교와 달리 인민무력부에 소속되어 있다(통일원, 1992a:335).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장교복차림으로 군대식 집단생활을 하면서 기초군사교육과 혁명역사를 집중적으로 교육받는다. 학생들에게는 인민군 중좌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며, 학교 및 일상 생활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박민제, 1993b:114). 졸업후에는 최우선적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이나 당·정기관의 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부 및 군대의 장교로 선발되며, 특히, '만경대혁명학원'은 당·정핵심간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귀족학교로 불리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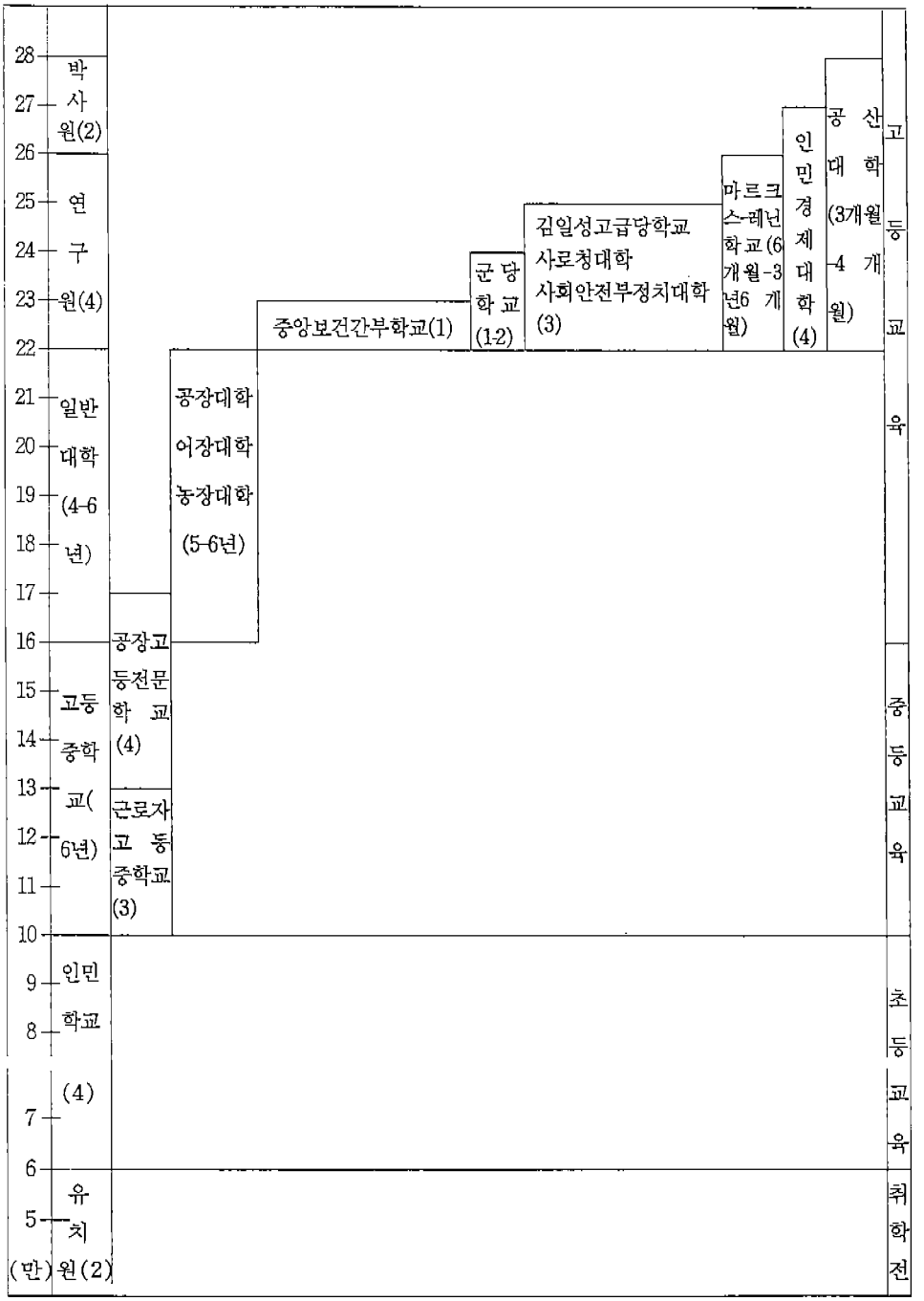
사회교육제도로는 정규학교 외에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로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 어촌과 광산 등의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직능교육을 실시하는 산업체부설학교들이 많다. 정규적인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3년제의 근로자 고등중학교와 4년제 공장고등전문학교가 있으나, 현지교육의 성격을 가지는 5-6년제의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 노동생산대학이 대부분이다. 이 학교들은 해당 공장·기업소의 자금으로 관리·운영된다. 교원은 공장·기업소간부들이 맡고 실험·실습기재는 공장시설을 이용하며 교과목은 해당 공장·기업소 또는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택하는 등 교육활동 전부가 소속공장의 자체운영으로 이루어 진다(김형찬 외, 1990:249). 교육은 학생들의 작업에 따라 주·야 2부제로 운영되며, 졸업자에게는 일반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다. 이들 학교의 대부분은 학교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과 방법이 매우 낙후되었기 때문에 대학이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의 기능·기술향상을 위한 기술훈련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장학교 외에 현직 당·정·경제기관 간부들의 자질양성을 위하여 1개월에서 4년까지 다양하게 편성된 재교육기관이 있다. 여기에는 당중앙위원회 직속인 마르크스-레닌주의학원을 비롯하여 김일성고급당학교, 금성정치대학 등이 있고, 지방간부의 재교육을 위한 도(직할시)단위의 공산대학과 시·군단위의 당학교가 있다. 정무원 부서 및 주요단체별로 인민경제대학, 사로청대학, 사회안전부 정치대학, 중앙보건 간부대학, 중앙교육간부 정치학교 등과 같은 특수교육기관이 있다(북한 연구소, 1983:1292-1294). 이중 김일성 고급당학교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 학원은 중앙당과장급이상과 정무원 부장급 및 인민군 상장이상의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한 북한 최고의 당간부 재교육기관이다.

이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 및 일반인들에게 대학과정을 이수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표 8〉 사회교육 체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김일성방송대학(1973년 4월 15일 김일성 61회 생일 기념으로 창설)이 있고, 대부분의 대학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대학이 설치되어 있다.

3. 교육 방법과 내용

북한에서 학교는 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 사회주의 교육학 기본원리에 따라 청소년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며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사명을 가진다. 이 절에서는 학교의 교육방법으로 사회주의교육방법, 학교수업, 교육평가를 알아보고, 교육내용으로 사상교육, 일반교육, 노동교육, 군사교육을 살펴보았다.

1) 교육 방법

사회주의 교육방법의 원칙은, 첫째 깨우쳐 주는 교수교양, 둘째 이론과 실천교육의 결합,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셋째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의 강화, 네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다섯째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이다(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977). 깨우쳐 주는 교수방법은 학생들 자신이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 교수내용을 깨닫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자립과 창발성을 길러주는 방법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야기식 설명, 문답식 토론과 논쟁, 직관교육과 실물교육, 해설과 설복의 방법, 긍정적인 모범의 감화 등이 있다.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의 결합은 책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을 실험실습을 통하여 실천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다.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은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을 생산노동에 참가시켜 그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대한 견학과 실습, 노력동원의 형태가 있다.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의 강화는 학생들의 단체활동과 교수사업을 밀접히 연결시켜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방법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소년단과 사로청 조직활동을 통하여 사상적 교양을 받고 혁명적 단련을 쌓도록 한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사회정치활동을 통하여 현실에 적용하여 사회주의건설에 직접 이바지 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은 사회주의 교육의 중요한 특징이며 학교의 조직적인 교육을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과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가정의 부모교육을 비롯하여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등의 사회교양기관을 통한 교육과 방송, 출판사, 영화 등 대중매체의 활용 등이 속한다.

학교전,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은 탁아소와 유치원의 학교전교육에서,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대학교의 학교교육을 거쳐, 근로자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교육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교육방법의 원칙에 근거해서 학교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방법에는 집단의 원리, 경쟁의 원리, 비판의 원리, 공개적 상벌의 원리, 통제와 자제의 원리 등이 있다(북한연구소, 1983:1328-1330; 곽노익, 1986: 372). 집단의 원리는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방법으로 활용된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아래 집단생활을 강화한다. 생활과 교육이 각종단체와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 지도록 한다.

경쟁의 원리는 인간은 재촉하지 않으면 나태해지므로 항상 치열한 경쟁속에서 일에 몰두하게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학업성취와 과외활동을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경쟁심을 가지게 하고, 경쟁에 졌을 때는 비판을 받는다.

비판의 원리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반성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개인 스스로가 대중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공개하고 비판하게 하는 자아비판과 타인으로 하여금 한 개인의 잘못을 비판하게 하는 상호비판이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공개적 상벌의 원리는 보상과 칭찬은 즐거움을 주고 벌은 고통을 준다는 인간의 심리적 본능을 이용한 원리로서 바람직하다고 의도하는 방향의 행동을 강화하려고 한다. 상벌은 대중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하며, 다양한 형태의 상벌이 있다.

통제와 자제의 원리는 언행이 사고를 결정한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규정된 언행을 계속 반복하도록 하여 언어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토론회, 성토대회, 군중집회, 행사등을 통하여 공산주의적 언행을 반복하게 하여 공산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강화한다.

수업활동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입식과 강의식 방법이 주로 쓰인다. 집단토론과 비판, 문답식, 시범학습, 개별지도법, 그리고 글짓기와 노래를 통한 학습방법이 쓰이기도 한다.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거나 현장견학, 현장학습 등이 첨가되기도 한다.

평가는 주로 시험을 통해서 한다. 공식적인 학기말시험 외에 주간, 월간시험이 있다. 시험을 보는 과목, 학년 및 학기가 정해진 규정이 있다(문용린, 1987:24-27). 인민학교 1-2학년은 시험이 없으며, 인민학교 3-4학년과 고등중학교 전학년이 시험을 치른다. 시험치는 과목이 절반도 안 되어 될수 있는대로 시험을 억제하는 것 같다.

시험은 낙제, 보통, 우등, 최우등의 4단계로 채점하고 성적은 공개한다. 학급당 1-2명 정도가 학교장 표창장을 받고, 과목별 성적이 우수한 자나 부진한 자는 과목별 소조에 들어가 특별지도를 받는다. 성적이 아주 나쁠 때는 처벌을 받기도 하며, 그 학생의 선생과 학부모도 연대책임을 물어 비판을 받기 때문에 선생과 학생들은 우등 이상의 성적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가끔 과목별·학년별 도단위 학술경시대회가 열려 우승자에게는 도당 책임비서의 표창장이 수여된다.

학업성적향상과 사상투쟁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경쟁을 실시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소년단의 모범분단운동과 천리마학급, 또는 천리마학교칭호쟁취운동,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영예의 붉은기 쟁취운동 등을 들 수 있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다.

2) 교육 내용

교육내용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이 발전함에 따라 달라졌으나, 의식개혁을 위한 정치사상교육을 중심으로 삼고, 유능한 사회인을 양성하기 위한 일반교육, 경제건설을 위한 노동교육, 신체단련 및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정치사상교육은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공산주의 도덕과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가진 혁명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사상교육의 내용은 크게 김일성우상화에 관련된 내용과 공산주의사상에 관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박 용현, 1973:90-93). 김일성우상화에 관한 내용은 주로 주체사상 및 유일사상, 김일성의 혁명활동과 투쟁사, 김일성의 유년시절, 김일성의 국내외 지도활동, 김일성일가의 혁명활동 등을 포함한다. 공산주의사상에 관한 교육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변증법적 유물론,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모순성과 공산주의 사회체제의 우월성, 혁명정신, 계급의식, 집단의식, 사회주의 애국의식,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정신, 사회주의적 준법정신 등 공산주의 이론과 도덕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삼는다(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977).

정치사상교육은 학생의 성장과정에 밀접히 관련되어 낮은 나이에서 높은 나이로, 낮은 교육단계에서 높은 교육단계로 올라가면서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학년 및 학교급별로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 학교와 학년수준이 낮을 수록 김일성우상화 관련내용을 감정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반면에, 높아질수록 북한의 우월성, 혁명교양, 계급투쟁, 적화통일 등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이론이 강조된다. 정치사상교육은 교육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학교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 군대, 마을, 가정단위의 교육에서까지 강조한다.

일반교육은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서 그 활용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교육이다. 여기에는 기초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교육과 전문교육이 포함된다. 기초교육은 사회의 성원이면 누구가 다 알아야 할 지식과 기술을 11년제 의무교육인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서 가르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어, 수량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와 사용능력, 자연사물과 현상들에 대한 개념과 본질, 변화와 발전에 관한 법칙의 이해와 관찰능력, 의식주와 직장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습득, 개인과 사회와 국가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신체단련, 그리고 사회규범과 사회윤리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문학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1인 1기의 예술적 기량과 풍부한 미적 정서를 기를 수 있는 예능교육이 포함된다(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977). 전문교육은 기초교육을 바탕으로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고등교육 단계에서 가르쳐서 사람돌을 능력있는 기술자,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한다. 특히, 수학, 물리학, 화학 등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교육이 강조된다. 전문교육은 당의 노선과 정책에 따라 교수하고 연구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강조한다.

인민학교에서는 4년동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 시절"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어린 시절"을, 비롯하여 국어, 수학, 체육, 음악, 도화공작(미술), 자연, 외국어 등 총 9개 과목을 가르친다. 교과목 수업시간중에서 국어가 33.1%로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수학으로 24.2%, 그 다음에 체육, 음악, 도화공작 등 예·체능과목이 각각 8.8%, 자연이 6.4%, 그리고 김일성의 어린 시절과 김정일의 어린 시절이 각각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등중학교에서는 6년동안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활동 및 혁명역사를 비롯하여 국어문학, 수학, 외국어 등 총 21과목을 가르친다. 교과목 수업시간중 수학이 19.0%로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국어·문학이 11.4%, 외국어가 8.8%, 물리가 8.1%의 순으로 비중이 크며 선택과정, 미술, 제도가 가장 비중이 작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교과목은 통합적인 방식이 아니라 교과영역별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학교는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57.3%이고, 고등중학교는 수학·과학과목이 39.8%에 국어·어문학계열이 23.9%로 합이 63.7%가 되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두 학교 모두 도구과목에 치중하는 셈이다. 정치사상 교육은 인민학교가 8.8%, 고등중학교가 9.9%로 전체 교과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고등중학교에서는 인민학교에 비하여 과학과목과 외국어의 비중이 각각 6.4%에서 20.8%로, 1.1%에서 23.5%로 월등히 커진 반면에 예·체능의 비중이 26.4%에서 7.8%로 매우 작아 졌다. 최근에 영어가 제1외국어가 되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영어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박민제, 1993a:102). 영어교육 방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기마다 영어단어외우기, 외국어경연대회 등을 각 지역별 또는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고등중학교에서는 인민학교 과정에 없는 여학생 실습, 기계조작실습, 전자기계실습과 같은 과목을 두어 기술교육을 강조한다.

노동교육은 노동애호정신을 심어주고 노동계급사상을 고취시켜, 학생들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각종 노력동원에 의욕적으로 참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교육은 현장실습을 비롯하여 의무노동, 사회봉사 등 노력동원 형식으로 이루어 진다. 노동교육은 과목학습을 통하여 이론적으로도 가르치고, 또 이론과 실천의 결합,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통해서, 교과서에서 배운 기초적인 지식과 기계설비, 노동도구를 다루는 기술을 실천을 통해 확인시킨다. 학교내 시설에서 실습도 하고 인접한 공장, 기업소, 협도농장 등 생산현장에 가서 현장학습도 한다. 고등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은 졸업실습으로 해당부문의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약 3개월간 직접 생산노동에 참여한다(통일원, 1992b:334).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한다'는 구호아래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시간의 노동을 부과한다. 1959년의 내각결정 18호에 따라 인민학교 3-4학년 학생은 연간 2-4주, 고등중학생은 6-8주, 대학생은 12-14주간 노동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의무노동기간에는 학생들은 학교수업은 하지 않고 농장,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만 하게 된다. 의무노동은 당중앙위원회의 계획아래 소년단과 사로청 조직을 통하여 진행된다.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방과후나, 휴일, 방학중에도 동원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노력동원은 1개월이상의 고정노력동원과 2-3일정도의 임시노력동원이 있으며, 주로 농촌지원활동, 경제건설사업, 좋은일하기운동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북한연구소, 1983:1275-1277). 고등중학생들은 봄(4월중순에서 7월 중순)과 가을(9월초에서 10월중순)의 농번기때 약 2-3개월동안 농촌의 바쁜 일손을 돕기 위해 농촌지원활동을 나간다. 이 기간에는 수업을 하지 않고 인근 농촌에 나가 합숙생활을 하면서 모내기, 김매기, 풀베기, 퇴비만들기, 관개작업, 추수 등을 하게 된다. 농촌지원사업 이외에 생산이 지연된 공장, 기업소에 파견되거나 도로 및 철도보수공사, 도시 및 공공건물 건설장, 탄광건설장 등 경제건설 현장에도 동원된다.

인민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꼬마계획이나 외화벌이운동, 좋은일하기운동을 통하여 나무심기, 나무열매따기, 송진짜기, 산나물과 약초캐기, 파지·파철·파유리 줍기, 기타 폐품수집 등을 한다. 꼬마계획에 따라 학교마다 일정한 목표량이 할당되는데 1인당 연간 파고철 20kg, 파유리 9kg, 파종이 5kg, 송이버섯 10kg, 싸리상자 2개 정도가 된다(서동익, 1987). 꼬마계획은 방학이나 휴일에도 계속하게 한다. 학생들은 학교내 교실증축 및 수리, 운동장확장, 부설공사 등 학교시설물을 지을 때 동원되며, 학교경비(고등중학생에 한함)를 비롯하여 운동장정리, 교구 및 비품수리, 땔감준비같은 교내의 잡다한 일도 돕는다.

군사교육은 사회주의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군사지식을 배워 전투에 앞장설 수 있는 결사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에게 조국방위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군사교육은 국방체육과 군사훈련으로 구성된다.

국방체육은 국방, 체육, 노동의 3가지 요소를 다같이 충족시키기 위해 창안된 독특한 체육활동이다(김동규, 1989:91). 인민학교에서 고등중학교까지 편성된 체육시간은 사상교양의 강화와 군사력증강이라는 측면에서 국방체육위주로 바뀌었다. 국방체육의 목적은 김일성유일사상과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여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단련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국방체육은 시(군)행정위원회의 체육구락부 주관하에 학교별 체육교사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주 2-3시간의 교과시간과 과외체육시간, 매주 토요일 체육의 날을 활용하여 실시한다(곽노익, 1986:347). 국방체육종목에는 철봉, 달리기, 높이뛰기, 넓이뛰기, 집단체조, 배구, 농구 등 체력단련을 위한 기초종목을 비롯하여, 제식훈련, 체력단장애극복(외나무다리 건너기, 담넘기, 철조망 통과), 수류탄 던지기, 허수아비 찌르기, 행군(오천보달리기, 만경대달리기, 산악행군, 야지구보, 보행훈련) 등 초보적인 군사훈련종목이 포함된다.

이러한 국방체육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인민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일요일 및 기념일, 그리고 정기적으로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강인한 체력단련을 시키고 있다. 정례화된 주요 스포츠행사로는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기념행사의 일환인 만경대체육경기대회와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해양체육월간, 동계체육월간 등이 있다.

군사훈련은 크게 학교내의 군사훈련과 입영훈련으로 분류한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중등반은 소년단 주관하에 각종 과외활동을 통하여 예비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고등중학교 고등반은 준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 조직을 통해 특별훈련을 실시한다.

인민학교학생과 고등중학교 중등반 학생들은 집총요령 및 조준훈련등 병기조작을 비롯하여 모의사격연습, 응급처치, 제식훈련과 포복, 숙영지에서 밥을 짓는 법 등을 배운다(김순배, 1993:162). 소년단원들중 출신성분이 좋고 유능한 간부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년들을 선발하여 소년근위대를 조직하여 특별군사훈련을 시키며, 모범 소년단원들을 선발하여 연 1회 15일동안 소년단 야영훈련소에 입소하여 등산, 해양체육, 수영, 뱃놀이 등 준군사 집체훈련을 실시한다(양태진 · 이서행, 1983:207).

고등중학교 고등반학생들은 붉은청년근위대에 가입하여 학교내에서의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입영집체훈련을 연간 약 290시간 받게 된다(북한연구소, 1983: 1320). 붉은청년근위대는 김일성의 친위대, 당의 전위대, 그리고 군초급간부 보충을 위한 후비대, 결사대로서 반혁명 요소적발, 전체 사회단체들의 사상교양 · 전투력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은 정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치학습을 비롯하여 전술학(제식훈련, 경계, 야영, 전술), 화기학, 화생방 등 군사학습과 훈련을 받는다. 특히, 시(군)단위별로 설치된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소에서 연 1회 1개월씩 방학중에 입소하여 현역군관의 지휘아래 실탄사격을 비롯한 실질적인 군사훈련을 받는다(북한연구소, 1983:1320).

4. 학교 일상생활

여기서는 북한학생들이 학교에서 지내는 일상생활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반편성과 수업시간, 학생생활규칙, 하루시간표, 과외활동의 순서로 알아보았다.

1) 반편성과 수업시간

학생들은 학습을 위한 학급과 정치사회활동을 위한 정치단체인 소년단 또는 사로청으로 이중 조직되었다. 학급과 정치단체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교육의 기본 단위인 학급은 보통 6개의 분단으로 나누어 지고,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는 분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각 분단은 그 분단을 상징하는 분단기와 분단책임자를 가진다. 학급을 운영하는 학생기구는 학급반장, 학급기수위원, 분단장이 있고, 단체활동을 위한 기구는 분단위원장, 기수위원, 분조장들이 있다. 이들의 서열은 별 3개에 줄 2개인 견장을 다는 분단위원장, 별 3개에 줄이 하나인 학급반장, 별 2개에 줄 2개인 기수위원, 별 2개에 줄 하나인 학급기수위원, 별 1개에 줄 2개인 분조장, 그리고 별 1개에 줄 하나인 분단장의 순으로 된다(서동익, 1987:56). 이들 학생간부는 당·정 간부나 당원의 자녀로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도학생중에서 선생이 입후보자를 지명하고, 학생들이 찬반투표를 하여 뽑는다. 학생의 학업성적이 좋고 나쁘다는 것보다는 학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그들의 지위결정에 더 큰 역할을 한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는 도시지역은 1-2개 동마다, 농촌지역은 1-2개 리단위로 하나씩 설치되었다. 인민학교는 학교규모가 작고 분교가 많은 것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특징이며, 고등중학교가 병설된 곳도 있다. 인민학교는 대부분 남녀공학이며, 학교규모가 작은 시골이나 1-2학년은 남녀합반이 많으나, 남·여학생을 다른 반으로 편성하는게 보통이다. 고등중학교는 남녀공학이 거의 없고, 남자학교와 여자학교로 분리되었다.

한 학년은 평균 5-6학급으로 나누어지고,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40-50명 정도이나 도시, 농어촌, 산촌 등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입학할 때에 편성된 학급 및 담임교사는 졸업할 때까지 바뀌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북한의 신학기는 9월이기 때문에 입학식은 9월에, 졸업식은 2학기가 끝나는 7월에 가진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모두 9월 1일에 1학기가 시작되어 12월 29일쯤에 끝나고 겨울방학이 시작된다. 그러나 2학기의 일정은 두 학교가 다르다. 인민학교는 2월 15일부터 2학기가 시작되어 7월 24일쯤에 끝나고, 고등중학교는 2월 1일에 시작되어 8월 11일쯤에 끝나서 고등중학교가 4주가량 더 길다. 연간 교육기간은 인민학교가 39주이고, 고등중학교가 43주이다.

수업시간은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중등반이 45분에 15분 휴식, 고등중학교 고등반이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이다. 하루 수업시간은 평일의 경우 인민학교가 5시간이고, 고등중학교는 6시간이며, 토요일은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중등반이 2시간, 고등중학교 고등반이 4시간이다. 인민학교 수업은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2부제로 실시하는데도 있다.

주당 수업시간은 인민학교가 21-25시간, 고등중학교가 27-34시간이 된다 (표 9 참조). 그러나 북한에서는 교과활동 이외에 단체활동, 과외체육, 실습, 견학, 생산노동 등 다양한 과외활동이 부과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 길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표 9〉 주당 수업시간 수

(단위 : 시간)

학 년	인 민 학 교	고등중학교
1	21	27
2	21	31
3	24	31
4	25	34
5		34
6		34

자료 : 통일원(1992a), 북한개요:332-333

2) 학생 생활규칙

학교생활은 대단히 조직적이고 엄한 규율을 따라야 한다. 특히, 결석·지각·조퇴에 대한 징계가 엄하다. 학생들 앞에서 창피를 주거나 부모에게 알려야단맞게 하는 정신적인 징계외에 물질적인 징계도 시행한다. 한달에 한번 결석하거나 3번 정도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하루 식량을 뺀다. 물론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는 예외로 친다.

아래에 제시한 학생생활규칙은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규정하였다(김형찬, 1988:105-107). 학생이 이 규칙중 어느 하나라도 어길 때에는 어긴 정도에 따라서 벌을 받는다. 벌의 종류는 조심, 경고, 엄중한 경고 및 퇴학 등이다.

1) 지식있고 문화인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학생은 정확하고 유효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과 사회주의 조국의 이익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2) 학생은 결석하거나 늦거나 조퇴하여서는 안되며, 언제나 열심히 공부하여야 한다.

3) 학생은 학교 교장과 교사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4) 모든 학생은 등교시 교과서 및 다른 학습자료를 가지고 와야 하며 수업이 시작되면 교사가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필요한 수업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5) 학생이 등교시에는 항상 신체(특히 머리·얼굴과 손)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6) 학생은 자기의 좌석과 교실 주위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7) 수업이 시작되면 학생은 의자에 똑바로 앉을 것이며 수업시간에는 교사의 허락 없이는 교실을 출입할 수 없다.

8) 수업시간에는 학생은 똑바로 앉아서 교사의 설명과 다른 학생들의 대답에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잡담이나 하품을 하거나 낮잠을 자서는 안되며 장난을 하여서도 안 된다.

9) 교장이나 교사가 교실을 떠날 때나 들어올 때는 학생은 곧 일어나서 명령이 없어도 경례를 하여야 한다.

10) 수업시간 중에 학생이 교사의 질문에 대답을 할 경우에는 똑바로 서서 할 것이며 대답후에는 교사의 허락을 받고 앉아야 한다. 학생이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손을 들고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1) 숙제는 일기장에 써야 하며, 부모에게 보여야 한다. 모든 숙제는 학생 자신이 해야 한다.

12) 학생은 교장과 교사를 존경하여야 하며 학교 외에서 교장과 교사를 만날 때에는 모자를 벗고 인사해야 한다.

13) 학생은 어른들을 존경하여야 하며 어른을 만날 때에는 겸손하고 정중하여야 한다.

14) 학생은 교사나 교장이 동반하는 손님에게 정중해야 한다.

15) 학생은 나쁜 말이나 폭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16) 학생은 학교당국이 지정하지 않은 극장에 출입하여서는 안 되며 지정된 시간 외에 극장에 가서는 안 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17) 학교나 사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잘 보존하여야 하며, 학생은 누구에게 속하든 간에 모든 물건을 조심히 사용하여야 한다.

18) 약하고 병든 사람과 어린이 및 노인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베풀고, 모든 가능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학생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디에서나 자리를 양보하여야 한다.

19) 학생은 부모님을 존경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도움을 드려야 한다. 학생은 또 동생을 사랑하여야 한다.

20) 학생은 자기집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 학생은 자기의 옷·신발·침구·일상용품, 또 자기에게 속하는 모든 것을 잘 정돈하여야 한다.

21) 학생은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당국자가 요구하면 언제나 제출하여야 한다.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22) 학생은 자기의 체면뿐만 아니라 자기반과 학교의 체면도 생각하여야 한다.

3) 하루 시간표

북한에서는 엄격한 조직이 모든 생활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활동들도 조직화·집단화되어 있다. 성별, 연령, 사회계층, 지역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들의 하루생활은 일반적으로 당에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6시경에 아침잠을 깨우는 어머니의 소리에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방송실과 연결된 스피커가 벽에 걸려 있는 가정에서는 스피커에서 울려 나오는 혁명음악소리에 잠이 깨어 일어나기도 한다. 하루일과는 소년단이나 사로청의 지도로 마을청소나 가로청소를 하면서 시작된다. 청소가 끝난 후, 아침식사를 하고,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준비하여 학교로 간다. 남학생은 단색 바지와 흰색 셔츠를 입고, 여학생은 파란 스커트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에 빨간 리본을 단다. 소년단원들은 교복에다 붉은색 바탕으로 된 삼각형태의 소년단스카프를 목에 매고 가슴에 소년단뺏지를 단다. 고등중학생은 인민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복 형식의 교복을 입는다. 사로청회원은 사로청뺏지를 달고 사로청맹원증을 소지하며 붉은청년근위대원은 빨간표지를 왼쪽 가슴에 단다. 그리고 학생들은 모두 김일성뺏지를 단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수업은 오전 8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개 7시에서 7시 30분사이에 집을 떠난다. 도시에서 학교가 먼 학생들은 버스로 통학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걸어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학교로 걸어 간다. 학생들은 동네의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인원확인과 복장검사를 한 후에 함께 등교한다. 개인행동을 했을 때는 상급생이나 담임교원에게 벌을 받는다. 학급장이나 학생조직장의 지휘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줄을 서서 합창을 하면서 학교로 간다.

학교정문에 도착하면 소년단이나 사로청위원회 간부들로 구성된 규찰대가 공부할 준비상태, 머리와 복장검사, 특히 김일성뺏지 착용여부에 대한 검열을 한다. 모임장소에 모이지 않고 혼자서 학교에 온 학생은 규찰대에게 벌을 받느라고 학교 정문에 서 있게 된다.

학교의 일과는 아침모임시간에서 시작된다. 전교 학생들이 학급별로 줄을 서서 하루에 5리씩 '배움의 천리길'달리기를 한다. 달릴 때는 두 패로 나누어져, '배움의 길', '천리길'이라는 함성을 번갈아 지르면서 학교운동장까지 달린다. 그 다음에는 인민보건체조를 하고, 학교장이 전날에 일어난 비관 대상거리를 발표하고 훈계한다. 이 때 잘못한 학생들은 강당앞에 나가 비판과 벌을 받는다. 일주일에 한번씩 청결위생검열도 하게 된다. 학급장이 인원점검을 한 후, 줄을 서서 교실로 들어 간다.

학교수업은 인민학교가 하루에 4-5시간, 고등중학교 중등반은 6-7시간, 고등반은 6-8시간 정도 한다. 수업시간은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중등반은 45분 수업에 15분 휴식이며, 고등반은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이다. 오전수업이 끝나면 12시부터 점심시간인데, 집이 가까운 학생들은 집에 가서 먹고 오기도 하나, 대부분은 집에서 준비해 온 곽밥(도시락)을 먹는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담임교원의 지도하에 일일 또는 주간 생활총화 시간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가진다. 이 시간에는 하루 또는 한 주일 동안의 생활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결의와 각오를 발표한다.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반성하기도 하나, 대부분 학급반장이나 줄반장들이 적은 것을 발표하여 비판한다. 생활총화가 끝난 후, 자율학습 또는 과외학습이 시작되어 집체복습과 개별적인 학습, 그리고 학업성적이 부진한 자들에 대한 집중학습이 이루어진다. 복습끝에는 시험총화가 있어 그 총화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늦게까지 교실에 남아 있어야 한다.

집에 돌아간 학생들은 제 집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역별로 구성된 학습반별로 숙제를 한다. 학습반은 동네마다 집이 가까운 7-8명의 학생으로 조직되며, 이를 책임지는 학습반장이 있다. 학습반은 순번제로 매일 다른 집에 모이며, 숙제뿐만 아니라 꼬마계획을 비롯한 외화벌이운동도 함께 실행한다. 학생들은 학습반활동이 끝나면 동네 친구들과 논다. 고등중학생은 과외활동이 너무 많아서 저녁 늦게(대개 저녁 7시, 토요일은 4시경)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 시간이 거의 없다. 남자들은 주로 군사놀이, 아바이놀이, 별놀이, 페땅까기, 쥐구멍파기, 다리뛰어 넘기, 말타기, 소타기, 섬지키기, 제기차기를 하거나 편을 나누어 축구경기를 하고, 여자들은 줄넘기, 자갈차기, 숨바꼭질, 씨차기, 공기놀이 등을 하거나, 짝궁들끼리 모여 옛날이야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논다. 대부분 학생들은 가정을 돌볼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고 없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청소, 땔감과 식수마련, 설겆이, 토끼풀 모아오기 등 크고 작은 집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 시간이 많지 않다.

4) 과외 활동

교과활동이 끝나면, 소년단이나 사로청이 주관하는 과외활동을 한다. 과외활동은 소년단 또는 사로청이 작성한 월별, 주별, 일별 사업계획서에 따라 학습, 근로봉사, 각종 회의와 모임참석 등 다양하게 이루어 진다(표 10 참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표 10〉 주별 기본활동 계획표

요일	활 동 내 용	비 고
월	사회봉사의 날	노력동원, 계몽선전
화	회의의 날(각종회의 참가)	간부회의 수시
수	문화의 날(영화감상, 문학, 회상기)	김일성우상화 영화, 노래, 문학보급
목	보건위생의 날(환경 미화)	청결, 위생검열, 노력동원 대치
금	기술연마의 날(공장견학 실습)	노력동원 대치
토	체육의 날(각종 체육)	준 군사훈련
일	오전 자습, 오후 자유시간	대학생 기숙사생활

자료:통일원(1976), 북괴군 정신전력에 관한 연구.

학습회는 김일성주의 연구반학습회를 비롯하여 당역사 연구반학습회, 김일성의 교시와 역사학습회, 회상기학습회, 김정일덕성학습회, 신문독보회, 시사해설회, 그리고 수시로 제기되는 당지시학습회 등이 있다. 정치사상학습의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전국 학습경연대회를 자주 개최하고, 학생들에게 김일성 노작과 교시 등 학습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읽도록 한다.

학과목별 연구모임, 독후감상발표회, 연극 및 영화감상회, 창작발표회, 시낭송회, 미술전람회, 담화회, 전투영웅들과의 대화 등 분야별 서클활동모임과 보고회가 있다. 학생들은 보통 이러한 서클 2개이상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이밖에도 학급회의를 비롯하여 소년단 또는 사로청의 총회와 위원회, 소년단연합단체대회, 사로청초급일꾼대회, 붉은청년근위대회, 소년선봉대회, 각종 보고회 및 군중궐기대회 등 많은 회의와 집회가 있다.

만경대의 김일성생가를 비롯하여 주체사상탑, 당창건사적비, 인민군열사탑,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탑, 김일성동상, 천리마동상, 김일성광장, 혁명박물관, 수령연구실, 조국전쟁기념관, 군중문화회관, 어머니전람관, 민주선전실 및 구락부, 도서관 등 기념물에 답사 경배하고 사회교양기관을 견학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전국 각지에 펼쳐져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 혁명전적지와 사적지 등의 답사행군은 회상기연구발표모임, 글짓기모임, 시낭송모임, 혁명영화학습, 충성의 선서모임, 우등불모임, 횃불행진, 군사경기, 밥짓기 등 다양한 행사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으로 광복의 천리길, 배움의 천리길, 백두산 천리길, 백두산스키 답사행군, 충성의 답사행군, 청소년 출정행사 등을 들 수 있다.

공화국 창건일(9월 9일)을 비롯하여 김일성생일(4월 15일), 김정일생일(2월 16일), 노동당 창설일(8월 28일), 소년단결성일(6월6일), 사로청창립일(1월 17일) 등의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대규모 마스게임 및 집단체조, 카드섹션 등을 한다.

봄(4월-6월)과 가을(9월-10월) 농번기때 농촌지원에 동원될 경우에는 학생들은 1-2개월 동안 수업을 전폐하고 지정된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해당농장의 회관이나 직업반실 및 교양실 또는 자체적으로 구비한 천막에서 집단숙식을 하게 된다. 작업은 동원된 농장에 따라 달라지나, 모내기, 풀베기, 퇴비만들기, 거름주기, 추수 등 여러가지 농사일을 하게 된다. 학생들의 하루일과는 일반농민들과 별 차이없이 보통 새벽 5-6시경부터 저녁 6-7시까지 하루 평균 10시간이상을 작업하게 된다. 개별적인 자유행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휴식시간에조차 규율을 지켜야 한다. 작업반과 작업반사이에 노력경쟁을 벌여 맡겨진 책임량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모두들 전력을 다하게 된다. 농사일이 끝나면, 계속해서 총화와 학습, 우등불모임, 강연, 예술경연, 영화학습 등 조직별모임 또는 집체모임이 있다. 그러므로 밤 11시경에야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농촌지원활동 외에 공장, 기업소, 건설장 등에 동원되어 노동을 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방학이라도 가정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여름방학은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겨울방학은 12월 30일에서 2월 14일(고등중학교는 1월 31일)까지이다. 이 방학기간에는 정규교과목에 대한 학습은 없으나, 학기때보다 한두시간 늦은 아침 8시나 9시에 등교하여 노력동원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나 학교행사참여 등 각종의 과외활동을 하고 오후 3-4시경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고등중학교 학생은 8월 15일부터 학교에 나와 농촌지원사업 때문에 못 배운 과목을 하루에 10시간이상의 보충수업을 받는다. 방학중의 보충수업과 과외활동은 의무적이며, 몸이 아플 경우에는 진료소장의 진단서를 끊어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름방학 때에는 해수욕장에 가고, 겨울방학 때에는 스케이트장에 가기도 하며, 친척집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적인 시간은 사전에 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고, 일부 특수계층에 한정되어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Ⅲ. 대학 생활

북한청소년들은 의무교육인 고등중학교를 마치면 대학, 군대, 직장의 세 갈래 길에서 진로가 결정된다. 세가지 진로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길이 대학진학이지만, 고등중학교 졸업생중에서 10-20 퍼센트만 그런 행운을 얻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대학제도와 대학에 입학하는 절차를 살펴보고, 다음에 학습생활과 일상생활, 그리고 사로청, 교도대 등의 단체생활을 조사했다. 또 졸업에 필요한 조건과 그후에 취직하는 절차를 살펴보고, 북한대학의 대표적인 김일성종합대학에 관해 알아보았다.

1. 대학제도와 입학

북한에서는 교육전반에 걸친 지휘, 통제, 평가를 노동당에서 관장한다. 학교교육의 주무부서로는 중앙당에 과학 및 학교교육부가 있고, 시·도·군에는 학교교육부가 있다. 당 교육기관들은 원칙적으로 학교교육에서 제기되는 정치문제만을 지도하고, 교육행정 일반에 관한 사항은 중앙에서는 정무원 교육위원회 밑의 보통교육부와 고등교육부, 지방에서는 시·도·군 행정위원회 교육국이 담당한다.

대학에는 당이 파견한 전임 당책임비서가 4부총장중의 제1부총장이 되어 실권을 장악하고, 대학당위원회나 학부당위원회를 통하여 대학의 관리운영과 교수교양의 내용를 통제한다.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기자재와 교육시설 등의 확장도 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대학에는 대학평의회가 있는데 "대학의 중요행정사업과 학업 및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협의기관"으로서 대학보직자, 부속시설 책임자, 대학내 당조직 및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대학평의회는 1개월에 한번 이상, 학기 및 학년초, 학기말에 모여서 "매학년도 및 매학기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전 대학사업 또는 학부 및 강좌 사업의 총결보고를 청취"하고, 입학, 진급, 졸업 및 급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비생 선정과 과학연구사업 계획안 등을 심의한다(대륙연구소, 1990, V:93-94).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할 수 있는 고등교육과정은, 2-3년제 고등전문학교, 인민학교와 유치원 교원을 양성하는 3년제 교원대학, 고등중학교 교원을 기르는 4-6년제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이 있다. 교육연한은 김일성종합대학 등 일부 국책대학이 4-6년, 의학대학이 6년, 기타 대학이 4년제로 되어 있다. 그 밖의 주요 고등교육기관으로, 산업체부설대학, 통신학부, 특수대학 등이 있다.

공장대학, 농장대학, 수산대학, 광산대학 등은 4-6년제인데 이 학교를 설치한 공장, 기업소, 농·어장, 광산등의 자체자금으로 관리운영되는데 중앙의 해당 경제관계부서가 지도한다. 교직원은 해당 직장의 기술진이 주로 담당하고 타대학 강사도 있는데 기술자와 기사양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최초의 7개년 경제계획의 달성을 위해 공장대학을 많이 설치했다.

통신학부는 의대, 예능계 및 사범계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 설치되었다. 직장 근무자를 위한 통신교육망의 확대에 주력하여 교원의 현지파견, 년 2회 등교수업 실시 등으로 교육시설과 교원의 부족을 극복하면서 낙후되고 부족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애쓴다. 특수학교로는 당·정기관 및 인민경제 각 분야의 간부양성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 중앙당 소속 김일성 고급당학교, 마르크스-레닌주의 학원, 송도 정치경제대학, 인민경제대학과 각 시·도 당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산대학이 있다. 또 사로청 간부양성 및 재교육 기관으로 사로청대학, 공안기관인 사회안전부의 간부양성 및 재교육 기관으로 사회안전부 정치대학이 있다. 이들 특수학교는 비정규 실무학교로서 정치사상교육에 역점을 둔다. 최근에는 극도로 부진한 경제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여러 대학을 세웠다. 평양 무역대학과 원산 경제대학, 상점지배인 양성기관인 평양 상업대학, 서방의 과학기술을 얻고 국제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평양과 청진 외국어대학, 외교관 양성기관인 국제관계대학, 과학자 양성을 위한 평양 이과대학 등이 있다(윤형덕, 1981:19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23; 통일원, 1986:5-6).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의 숫자는 빠른속도로 늘어서, 1980년 대학교가 170개였는데 그중 공장·농장학교가 80개이고, 1985년 대학교가 234개, 1990년에는 273개, 1992년에는 280개가 되었다. 그리고 체육, 예술, 기술계 전문학교가 1992년 현재 600여개가 되었다(통일원, 1992:231; 1992b:395)

대학원 수준인 박사원은 학사학위를 주는 연구원 3년, 박사학위를 주는 박사원 2년의 총 5년제로 되어 있는데, 박사학위를 주는 곳은 정무원의 각 부처와 각위원회 직속의 과학원, 사회과학원, 의학과학원, 교육과학원, 농업과학원과 김일성 종합대학등 4개의 대학뿐이다(통일원, 1985: 27-28).

북한에서 대학에 입학하자면 학력에 관한 시험으로 자격고사와 입학고사를 봐야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출신성분과 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우선 정무원 국가계획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와 방침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 정무원 교육위원회는 대학입학자격고사의 합격범위와 각 시·도 대학생 추천위원회에 학교별 소요인원을 배정한다(윤형덕, 1981: 28).

대학입학자격고사는 1980년부터 실시되었는데, 매년 구월 정무원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당해년도 고등중학교 졸업생 전원에게 전국적으로 같은 날자에 실시한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외적 자격을 보면 "당의 유일사상 체계가 확고히 서고 계급적 각성이 높으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통일원, 1985: 25)

대학입학고사에 합격한 사람들은 입학원서, 학력증명서, 신체검사표에다 소속 기관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6월중에 해당지역 행정위원회 학생모집과에 제출한다. 해당기관이나 학교의 대학추천위원회는 가족의 출신성분, 본인의 정치·사회생활, 학업성적 등을 종합 심사해서 추천서를 쓴다. 교육자와 사회단체대표자들로 구성된 시·군 대학추천위원회는 군대·직장·학교에서 추천한 사람들의 신원조사를 실시해서 당적 성분이 불량한 자를 제외한 추천명단을 도·직할시 대학추천위원회에 제출한다. 시·군 대학추천위원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회는 고등교육부에서 내려온 「대학추천원칙」이라는 부령에 따라 판단하는데, 부령은 당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내려보낸다(서동익, 1987:148). 도·직할시 대학추천위원회는 다시 심사해서 해당 대학으로 넘긴다. 이때 추천인원수는 대학정원의 약 2배가 된다(윤형덕, 1981: 28-30)

대학입학지원자는 1, 2, 3지망까지 희망학교와 학과를 선택할 수 있지만, 중앙의 인력계획이 우선시되므로 배정받은 대학에서 입학시험을 치게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시·군행정위원회 학생모집과를 거쳐 본인과 소속 기관장이나 학교장에게 문서로 통지된다. 대학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가족과 친족의 출신성분이 약 3분의1, 사로청을 통한 노력동원이나 정치사회단체 생활 평점이 약 3분의1, 그리고 입학시험성적이 약 3분의1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별 입학시험은 주관식 필답고사와 철저한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는데, 필답고사는 학교별, 전공별로 차이가 나지만 체육, 당정책사, 외국어, 수학, 물리는 공통과목이다(윤형덕, 1981:30-31). 귀순자 김성은 대학생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내가 다닌 남포전기설계대학에는 학생이 모두 1,200명이 넘는데 그중 여자가 300명 정도였다. 대학교 입학 경쟁률은 보통 8:1이라고 하는데, 간부 자녀등, 대학갈 성분이 되는 애들은 5:1에서 6:1정도 되는 것 같았다. 전국 학생 인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경우엔 고등학교 졸업할 때 300명이 졸업했는데(옥수남자고등중학교), 13명이 지원해서 7명이 합격했고 7명 중에 전문학교를 4명이 가고, 3명은 5년제대학 예비과에 갔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의 출신별 유형을 보면, 제대군인이 약 70%, 직장재직자가 약 20%, 그리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온 직통생이 약 10% 된다고 한다(윤형석, 1981:25). 직통생은 인문사회계열에 더 많고, 직장이나 군대출신은 이공계열에 더 많다고 한다. 이런 사정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때문에 북한 대학생들은 대개 나이가 많다(서동익, 1987:148). 직통생들이 절반 이상되는 대학이나 학과들이 있는데 외국어대학, 체육대학, 예술부문 대학과 물리학, 수학, 전자공학 등 과학자와 기술자 양성학과이다(윤형덕, 1981:30)

2. 학습과 일상생활

북한에서 신학기는 9월1일에 시작되고, 수업시간은 1학기 17주와 2학기 18주로 연 35주이고, 주당 38-40시간을 수업하며, 4년제 대학은 5,320시간 내지 5,600시간이 된다. 이중에서 영어가 약 5%, 사상교양과목이 약 15%, 군사교육이 약 18%, 그리고 전공과목이 약 60%가 된다. 시험은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보는데, 필답고사와 구두시험이 있고, 성적은 최우등, 우등, 보통, 낙제로 나눈다(윤형덕, 1981: 31) 북한은 학점제가 아니고 학급제로 운영하며, 시험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품행이 우등이상이 아니면 진급이 안된다(통일원, 1976:83; 1993:144). 북한 대학생들의 공부부담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김성의 증언이다.

> 거기서는 사람이 공부안하고는 못배긴다. 일주일에 한번씩 시험을 쳐가지고 그 성적이 적혀있는 시험지를 전교에다 붙여 놓는다. 남녀공학이니 챙피하다. 그리고 또 한 과목만 낙제를 하면 진학이나 졸업을 못한다. 심리적 압박으로 도중에 나가는 친구들이 많다. 제대군인들이나, 고등학교까지 공부 하나도 안하고 놀다가 부모님빽으로 들어온 애들은 조직에서 계속 비판받고 하니까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아무리 높아도 나간다. 제대군인들은 10년동안 군복무하다가 오면 알던 것도 모르게 된다. 대학에서 한 3학년정도 되면 전공이 힘들다. 우리는 3학년부터 하루 30분자기운동을 한다. 우리는 또 설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도면을 많이 작성하니까 계산을 많이 하고, 논문 하나 쓰려면 계산서가 따로 있어야 하는데 전자계산기를 안쓰고 손으로 하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고, 도면을 하나 채우려니까 조립도 필요하고, 논문을 하나 쓰면 도면만 최소한 54장이 된다. 그렇게 해야 하니까 하루에 30분자기운동을 한다.

10점을 채우고 그 학년을 나오면 김일성 장학금 45원 주는게 있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자기가 당원이든 아니든 성적이 좋으면 특수지역에 가기도 하고, 대학에 남을 수도 있고, 다른 대학교수도 되고, 물론 성분도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성분만 좋아서는 안 된다.

대학교수들은 학교안팎의 각종 당회의, 사로청과 연맹등 사회단체회의, 교수평의회, 그밖의 정치적인 행사에 참가해야 된다. 또 주간학부 수업외에 야간과 통신학부 수업을 맡고, 공장대학 등에 현장파견, 출강까지 겸하기 때문에 많은 교수들이 과중한 교수시간을 담당한다. 북한의 대학교과과정에서 외국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최근들어 각급 학교에서 영어, 노어, 일어등의 외국어 교육을 대폭 강화하였다. 남북 분단 이후 노어교육만 강조하다가,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노어와 영어를 같은 비중으로 가르쳤다. 1965년에 12개 외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어대학교를 평양과 청진에 세우고, 외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외국어 사범대학도 세웠다(윤형덕, 1981:34-35).

1975년부터는 영어가 제1외국어가 되고 노어는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와 같이 제2외국어가 되었다. 1978년부터는 1일 3회 각 30분씩 유선방송망을 통해 영어강좌 방송을 실시했다. 1979년부터는 영어사전, 녹음 테이프, 참고서 등 각종 외국어 학습교재를 대량 제작 보급하고, 고등중학교에서는 주당 2-3시간의 영어교육을 3-4시간으로, 대학에서는 주당 3시간을 5시간으로 연장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고등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마다 영어단어외우기, 외국어 경연대회를 지역별로도 하고 전국적으로도 실시했다.

이같은 외국어교육 강화 방침은 84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된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에서 김정일이 외국어교육의 질을 높일 것을 강조하고, 또 85년 2월 「평양제1고등학교」를 시찰한 김일성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외국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데서 시작되었다. 특히 1984년 미국과 일본 등 서방세계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겨냥하고 합영법을 제정한 후, 외국어 특히 영어교육의 저변 확대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통일원, 1985:106-109). 최근 외제 물건을 취급하거나 외국에 여행할 기회가 많다는 이유로, 대학생들 중에 무역, 상업대학이나 학과와 함께 외국어대학과 학과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학생이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 대학에 들어가면 학과와 반이 정해지고, 반이 정해지면 책과 교복이 지급되며 기숙사가 정해진다. 대학생은 기숙사에서 단체생활을 하며 공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집이 가까운 사람은 집에서 다닐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대학에서 조직·관장하는 여러가지 행사에 참가하기가 어렵고, 행사에 빠지면 비판을 당하거나 심할 경우 퇴학을 당하게 되므로 기숙사생활을 택하게 된다.

기숙사는 학교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3-4평되는 방을 4-5명이 같이 쓰고, 기숙사생들은 기숙사증을 발급 받아서 출입할 때 확인받는다. 기숙사마다 학생들의 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질서지키기, 조용히 공부하기, 도박금지, 기숙사에 이성출입금지, 청결유지 등을 감독한다. 관리위원회는 층별로 책임자를 임명하여 아침에 시간 맞춰 일어나기, 아침운동, 구역별 청소하기 등을 지도한다. 기숙사안에는 탁구대, 장기판 같은 편의시설도 갖추어졌다.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학급별로 같이 하는데 식권을 사용하고 기숙사비는 식비를 포함해서 한달에 12원 50전이다(서동익, 1987:153-155; 통일원, 1976: 50).

대학생들은 일과표에 따라 생활하는데, 아침 8시부터 강의실에 모여 학급단위로 30분동안 독보회에서 로동신문, 로동청년 등을 읽는다. 8시반부터 오후 1시까지 오전학습을 하고나서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오후학습을 하고 저녁을 먹는다. 저녁을 먹은 다음 기숙사위원회를 중심으로 1시간 동안 하루일과에 대한 생활총화를 통하여 자아비판 등 공개적인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 복습·예습하고 10시반에 잠자리에 든다(윤형덕, 1981:38-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39)

대학교 높은반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규찰대가 있어서, 대학당위원회에서 정한 학생세측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한다. 학생들은 외출할 때 교복과 교모를 착용하게 되어있고, 연에도 공개적인 행위(키스, 포옹, 손잡기 등)은 금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기고 규찰대에 발각되었을 때는 비판을 받게 된다(통일원, 1976:52; 서동익, 1987:156). 다음은 귀순자 김성의 증언이다.

> 북한대학에는 출학과 퇴학이 있는데 퇴학은 학교다니다가 성적, 몸이 불편해서 그만두는 거구 출학은 쫓겨나는 거다. 대학 5년동안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연애걸다가 잡혀서 학생총화에서 비판받기도 하고, 사상투쟁에서 걸려서 쫓겨나기도 하고, 한, 친구는 패싸움하다가 공모자가 되어가지고 교화소에 들어가서 출학당하고, 그런 것들이 대학다닐 때 추억으로 남는다.

대학의 체육활동은 국방력과 노동력의 기초로 인식되어 국가관리하에 계획 운영된다. 학교체육은 축구, 배구, 농구, 철봉, 평행봉, 탁구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민족체육이라고 널뛰기, 그네뛰기, 줄당기기 등을 실시한다. 학교체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집단체조이다. 집단체조는 체육의 대중화와 주민들을 단합시키는 방법으로 인민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실시하고, 그 규모는 큰 때는 몇 만명까지 참가한다.

북한에는 국방체육이 있는데 국방, 스포츠, 노동의 3가지 요소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 창안해 냈다고 한다. 그 종목에는 사다리오르기, 유도, 레스링 등 기본종목 외에 겨울에는 2-3일간 숙영지훈련과 눈길을 야간에 행군하기 등이 있고, 여름에는 장거리 수영과 수구대회가 있다. 국방체육과 소속 선수들은 스카이다이빙, 모형항공, 무선통신 등 전문적인 종목들을 연습한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육체적 기민성, 용감성, 인내심, 투지등을 발휘키키기 위해 지상, 해양, 공중으로 대별하여 약 40여종목을 가르친다. 예를 들면, 지상종목에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는 행군, 고지점령, 벼랑오르기, 외나무건너기, 숙영지점령 등이 있고 해상종목에는 2킬로미터 수영, 총들고 한손으로 헤엄치기, 뗏목묶어 강건너기, 부상병싣고 강건너기, 각종 배타기 등이다(통일원, 1985:88-94).

3. 단체생활

북한 교육이념의 집단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의 과외활동은 대학당위원회와 사로청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대학당위원회는 그 아래에 학부당위원회, 학년초급당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학부별 각 학년의 당세포에 당분조가 조직되어 있다. 사로청대학위원회는 당대학위원회의 지도를 받고 하부조직으로는 사로청학부위원회, 학년초급단체, 학급의 반장, 부반장으로 구성되어 대학생들의 방과후 행사를 지도한다.

학생들은 학과수업이 끝나면 원별, 주별, 일별로 작성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로청간부가 지도하는 단체활동에 참가한다. 예를 들면, 사회의무노동제에 따른 노력동원, 3대혁명소조활동 등 각종 노력경쟁운동, 국방체육, 학과실습, 정치선전과 선동모임, 비판모임 등에 참가한다. 단체생활에 참여하고 나서 사업총화와 생활총화를 매일, 매주, 매월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은 학업성적도 좋아야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정치생활의 평점이 좋아야 사회진출 시기에 혜택과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들의 주간 행사계획을 한번 살펴보자. 월요일은 "사회봉사의 날"이므로 노력동원이나 계몽선전활동에 참여하고, 화요일은 "회의의 날"이므로 정치사상강연회에 참가한다.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정했으므로 노동자 계급성과 혁명의식을 고취하는 영화, 노래, 문학과 관련한 활동에 참여하고, 목요일은 "위생의 날"이니 실내외를 청소하고 환경과 신체에 대한 위생검열을 받는다. 금요일은 "기술연마의 날"로 공장, 농장, 어장, 목장, 광산 등에 가서 견학과 실습을 하고, 토요일은 "체육의 날"이므로 각종 체육행사를 하는데 국방체육을 많이 한다(윤형덕, 1981:52-54)

북한의 학생의무노동제도는 인문·사회계 대학생은 연 12주, 기술계는 14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주 동안 사회노동에 참가하도록 규정하여, 사로청이 주관하는 공업노동 4주, 건설노동 4주, 농업노동 4주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기간에는 학과수업을 안하고 종일 노동만 한다. 이 밖에도 사회의 재해복구나 대학자체의 시설확장 공사 등 방과후에 수시로 3-4시간씩 의무노동에 동원된다(통일원, 1976: 45-46; 윤형덕, 1981:53-56; 서동익, 1987:158-159).

북한에서는 써클활동을 소조활동이라고 부르는데 문예소조로는 문학, 연극, 예술, 음악, 무용 사진 등의 써클이 있고, 체육소조에는 구기, 육상, 빙상, 산악부가 있다(통일원, 1976:49).

북한 대학생들은 "대학생이란 말 그대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당은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고 학습을 잘 하라고 대학에 보냈습니다. 학생들은 학습제일투쟁으로 나가야 합니다"고 한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만페이지 책읽기 운동을 시작했다. 한 예를 들어, 김형직사범대학 어문학부 사로청위원회는 이 운동을 단순한 독서활동이나 학습활동이 아니라 주체의 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산지식을 체득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운동으로 진행했다. "수령님의 고전적 로작에 대한 학습과 당정책 학습에 선차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공부문 참고서적과 문예서적"을 더 많이 읽도록 지도하였다. 학부사로청위원 한사람이 국문과 4학년 1반 초급단체에 가서, 우선 한주일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그 실천 사항을 매일 적는데 날자, 책제목, 페이지수, 학습방법, 간단한 내용과 느낀점을 담은 독서일지를 쓰도록 지도했다.

또 학부사로청위원회는 매주 금요일을 만페이지읽기운동 총화의 날로 정하고, 매월과 매주에 초급단체 사업계획에 그날 하여야 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총화의 날에는 읽은 책 발표모임을 꼭 포함하는데, 모든 사로청원들이 그 주에 읽은 책들중에서 어느 한 제목을 선택해서 분석적으로 책의 기본 내용과 배운점을 발표하게 하였다. 이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들이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충성을 다하려는 신념을 굳건히 간직하며 원대한 목표와 높은 이상을 가지고 그를 실천하기 위한 학습에 전투적으로 달라붙도록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다.

북한 대학생활에는 대학생 교도대를 통한 입영 집체훈련도 포함된다. 교내 훈련은 대학의 당조직에 준하여 대학을 연대로, 학부를 대대로, 학년을 중대로, 학급을 소대로 편성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간씩 정기적으로 훈련한다. 화기학과 원자학 등 군사학과 정치학습 등의 이론과 제식훈련과 국방체육 등 실기에 치중하여 대학당위원회가 현역군인을 교관으로 삼아 실시한다.

입영집체훈련은 정규군대처럼 편성하여 훈련소장은 대좌, 정치부와 군사부 여단장은 상좌, 대대장은 중좌 등 현역을 교관으로 삼고, 부소대장, 특무장, 분대장은 학생 간부로 구성한다. 대학생들은 각 도에 있는 상설 대학교도대 훈련소에 입소하여 1년에 1회 2개월 씩 3년간 집단훈련을 받는다. 어떤 학교에서는 2, 3학년 때 3개월씩 하는 데도 있고, 인문계와 기술계 학과 사이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한다. 입영훈련의 내용은 공격, 방어, 유격 등 전술훈련, AK소총, 기관총, 박격포, 고사포 등 사격훈련, 화생방, 독도법 등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실시한다.

군사훈련은 당 군사부에서 작성된 학생군사교육 강령에 따라 정무원 교육위원회와 인민무력부가 상호 협력하여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 근거해서 교육위원회는 도·직할시와 시·군행정위원회 교육국을 통하여 각 학교의 교내 군사훈련을 관장하고, 인민무력부는 전투훈련국을 통해서 입영집체 훈련을 관장한다.

입영집체훈련을 할 때는 각 학과별 전문 분야에 따라 군종과 병과를 구분하고 학생들을 재편성해서 훈련을 실시한다. 예를 들면, 농·수산, 사범, 예능, 경공업 분야의 학생들은 보병으로, 이·공계 대학생은 포병, 건설과 광산계열 대학생은 공병, 전기와 체신대학 학생들은 통신병, 철도와 운수계통 학생은 수송병, 의대와 약대 학생은 의무병과로 구별 편성하여 병과훈련을 실시한다. 대학생 군사교육에 따른 병역상의 혜택은, 대학생의 70%가 입학전에 군대를 제대한 사람이고, 기타 학생들도 직장생활과 대학생활에서 현역 복무에 상응한 군사교육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종합군사학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인민군 예비군관(소위)자격을 부여한다(윤형덕, 1981:42-45; 통일원, 1985: 79-81).

4. 졸업과 취직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면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졸업논문이 통과되어야 한다. 학생이 논문제목을 선택하고 학과장이 허락을 하면, 대개 6-12개월 걸려서 논문을 쓴다. 다 쓴 논문과 참고문헌을 제출하면 논문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연구, 계산과 묘사의 정확성, 대학교 전 학년의 성적, 지도교수의 평가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졸업논문은 다른 교수와 학생들에게 공개되어 질문에 답변해야 된다(김동규, 1989:83-84)

다음은 대학 졸업장에 대한 귀순자 김성의 증언이다.

> 졸업장에는 첫 장에 이름 쓰고, 어느 대학, 어느 과가 있고, 학교도장이 동그랗게 찍혀 있다. 또 조선인민공화국 정무원, 졸업 제 몇호라고 되어 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책같이 되어 있다. 다음 장을 펼치면 사진이 붙어 있고, 이름 있고 생년월일 있고, 전학년 성적이 있다. 졸업시험 성적은 또 따로 있다. 졸업시험, 졸업논문들, 그것에 몇점 받았다는 것까지 다 있다.

대학을 졸업하면 전공에 합당한 자격을 받는데 제1교원대학 졸업자는 인민학교 교원, 제2교원대학 졸업자는 유치원 교양원, 제1사범대학 졸업자는 고등중학교 고등반(5-6학년) 교원, 제2사범대학은 고등중학교 중등반(1-4학년) 교원 자격을 준다. 의과 대학은 의사자격, 농수산계를 포함한 이공계 대학 졸업생은 전공에 상응한 기사자격을 주고, 인문·사회·외국어 및 예·체능계 대학에서는 전문가 자격을 준다. 종합군사학 졸업시험 합격자에게는 2-3년제 대학에서는 인민군 예비하사관, 4-6년제 대학에서는 인민군 예비군관 자격을 준다. 대학원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연구원에서는 3-4년 과정을 마치고, 전공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분야에서 2년이상 연구생활을 하고 학위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주고, 학사자격을 가지고 박사원에 등록하여 2년이상 연구실적을 가진 사람이 박사학위 시험에 합격하면 박사학위를 준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학 졸업예정자들은 졸업 6개월 전에 직장배치에 필요한 서류(이력서, 자술서, 신원진술서, 취직희망서, 총장 및 사로청 위원장의 개인평정서, 신원보증서, 건강진단서 등)를 구비한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 김형직사범대, 평양의과대학 등 중앙적 규모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대학의 인문계는 중앙당에, 자연계는 정무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지방적 규모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대, 농대, 의대, 사대 등은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한다. 각 기관에서는 간부급 지도원을 해당학교에 파견하여 총, 학장, 사로청위원장 및 졸업예정자와 직장배치를 위한 개별면담을 가진다. 중앙당, 정무원, 시·군인민위에서 심사 결정한 직장배치 내용은, 대학졸업식이 끝난후 그자리에서 어느 도에 배치되었다는 것만 발표하고 배치장을 교부한다.

직장배치심사에서, 첫째 기준은 가족배경과 당성, 둘째가 사회단체생활 평점, 세째가 학업성적이기 때문에, 당·기관 간부의 자제들은 평양과 대도시의 행정관료로 진출하고, 비간부 당원의 자제들은 지방, 중소도시의 하층기관, 기업소, 기술분야, 학교 등으로 가고, 비당원자제들은 공장, 농장, 벽지학교, 광산 등에 배치된다.

당세포조직과 사로청조직에서는 대학 4년을 총화하는 생활총화를 실시하고 나서 조직을 해산한다. 졸업자는 각종 증명서와 이동증을 발급받는데, 당원은 당이동증, 사로청원은 사로청이동증, 군사이동증, 공민증 퇴거, 식량정지증명서, 여행증, 위생통과증 등을 받고나서, 당에서 지정한 배치지로 가게 된다 (윤형덕, 1981:63-64;통일원, 1986:20-21;서동익, 1987:167-168).

5. 김일성 종합대학

북한대학의 대표격인 김일성 종합대학의 학교생활을, 소설가 황석영씨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미국에 사는 안동일기자의 북한방문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안동일, 1992:62-81;황석영, 1993:89-97). 평양 모란봉 뒤쪽 용남산 언덕에 자리잡은 김일성 종합대학은, 1989년 현재 졸업생 숫자가 6만여명인데 정무원내 부부장급(차관급) 이상 간부의 절반정도가 이대학 출신이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 대학과는 달리 이대학은 정무원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어 교과교육내용만 타 대학과 같이 교육성 지침을 따른다.

이 대학의 5대 사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제국주의 잔재를 불식할 것.

둘째, 조국건설을 위한 애국심과 민주사상을 고취할 것.

셋째, 정치의식을 함양하고 국내외 정세를 연구하며 인민정부의 정책을 지지할 것.

넷째, 과학과 기술을 익히는 한편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으로 무장할 것.

다섯째, 높은 국가적 자부심과 혁명적 열성으로 인민을 지도하는 국가의 기간 요원이 될 것.

이 대학은 총장아래 4명의 부총장이 있다. 제 1부총장은 대학내 당조직과 학생단체를 관장하고, 교무부총장은 교무행정을, 과학부총장은 연구활동을, 경리부총장은 물질적인 교육조건 보장을 책임진다. 총장의 고문기관으로 대학평의회가 있는데 학부장, 행정부서 책임자, 당과 사회단체 책임자들로 구성된 대학의 최고 협의기구이다. 그밖의 주요직책으로는 대학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있는데 몇 년 전까지는 제1부총장이 겸임했으나 최근에 따로 선출했다. 대학당위원회, 학부당위원회, 학년초급당위원회, 학과당소조 등과 연계되어 있고, 당전위조직인 사로청을 지도한다. 사로청은 30세 이하의 학생전원을 포용하고 학생들의 과외활동과 과외학습지도, 공산주의 도덕과 품성 함양을 책임진다. 대학내 당기구에서 열리는 회의나 행사에서 당원인 학생들은 교수들과 동등한 당원자격으로 참여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현재 김일성 종합대학은 총 156만 평방미터의 캠퍼스부지에 총건평 40만 평방미터의 교사가 서 있다. 건물은 크게 본관 교사, 1, 2호 교사, 과학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건물동으로 나누어진다. 과학도서관은 이 대학의 최고 시설물로 1만 2천평방미터 규모에 1,200석의 열람실을 갖추고, 20여만 종 200만여 권의 장서가 있다. 이 도서관은 평양인민대학습당과 함께 북한에서 최대 규모의 장서를 자랑하는데, 인문·사회과학 계통의 장서가 주종을 이루고, 자연과학 이공계통 도서는 인민대학습당에서 더 많이 소장했다고 한다.

이 대학의 강의는 과목에 따라 작은 강의실에서 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강의가 종합강의나 특강식으로 대단위로 이루어진다. 제2교사 2층과 3층에는 각기 300-500명이 한꺼번에 강의 받을수 있는 계단식 강의실이 서너군데 있다고 한다. 정면에 미닫이 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커다란 칠판 두개가 분할되어 있고 양쪽에 작은 칠판이 있으며, 마이크 시설을 갖추었고 책상은 학생 두명씩 짝지어 앉게 되었다.

이 종합대학은 단과대학과 학과의 중간이라 할 수 있는 15개의 학부에 51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고, 15개 학부는 역사학, 법률학, 경제학, 조선어문학, 철학, 외국어문학, 수학 및 역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리학, 지질학, 원자력학, 자동화학, 재교육학부 등이다. 또 51개학과는 600여개의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과마다 4-6학년이 있고 어떤 학과는 사람이 많아 여러개의 반으로 나누어졌다. 박사원과 8개의 부속연구소가 있고, 총 학생수는 1만 2천명이고 4천여명의 교직원이 근무한다. 이 대학의 수업년한은 어문학 등 인문과학 계통이 4년, 사회과학계통이 5년, 자연과학 계통은 6년으로 되어있다.

이 대학에는 야간강좌와 통신강좌도 있다. 야간강좌가 개설된 학과는 경제학부의 정치경제학과와 계획경제학과, 조선어문학부의 조선어학과 등 3개 학과가 있다. 그밖의 재교육학부에서 야간강좌가 개설되기도 하는데, 학교를 마친지 여러해가 지나 학습한 내용을 잊었거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최신학문을 수강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 대학졸업생에 한해 개방된다. 최근 개설된 재교육학부의 강좌는 주로 자연과학 계통 학과였다. 통신강좌는 3개의 역사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계통학과, 3개의 철학계통학과, 2개의 경제계통학과, 2개의 자연과학계통학과, 신문학과, 수학과, 법률학과, 조선문학과 등 14개 학과가 개설되었으며, 김일성 방송통신대학으로 독립해서 부르기도 한다.

박사원은 연구원 3년, 박사원 2년 과정으로 총 5년제로 되었다. 학사, 박사, 원사학위는 김일성대학, 사회과학원 등 몇개의 교육기관에서만 수여할 수 있는데, 연구원, 박사원의 연한이 정확히 구분된 것도 아니며, 또 과정만 마치면 학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과정을 마친 다음에도 논문과정까지 수년이 걸린다. 원사는 박사보다 높은데 자신의 학문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은 원로들에게 준다. 교수직에는 조교, 교원(3급에서 1급까지 분류), 부교수, 교수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교수, 박사, 원사 칭호를 모두 갖는 경우는 드물다.

이 대학의 연간 수업일수는 35주로, 1학기 (2월-7월) 17주, 2학기(8월말-12월) 18주이고, 주당 수업시간은 38-40시간이라고 한다. 총 수업시간은 6년제인 자연과학계통은 5,400시간 내지 6,600시간인데, 전공과목은 3,150에서 3,350시간이 할당되고, 일반교양과목에 1,050시간, 군사학에 약 900시간 할당된다. 일반 교양과목은 조선노동당투쟁사(280시간), 세계노동당사(140시간),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200시간), 정치경제학(110시간), 영어, 노어 등 외국어(320시간) 등이다. 이 학교의 수업방법은 어느 분야나 학과토론을 통하여 발표와 비판을 거듭하면서 진행되고, 교수는 여기에 참가하여 방향만 제시한다. 수업외에도 학과토론이나 학술발표회, 논문의 발표검토회 등으로 서로 학습결과를 주고 받는다(황석영, 1993:91; 안동일, 1992:72). 시험은 학기말에 보는데 실기과목이 아니면 구두시험을 본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최우등(9-10), 우등(7-8), 보통(5-6), 낙제(4점이하)로 구분된 평가에서 규정의 수준에 미달한 학생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유급이 인정되고 있다(정연수, 1989: 445).

김일성종합대학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고급중학교,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유한자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로서 인민경제 각 분야에서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는 현직 일꾼

(2) 고급중학교, 전문학교, 노동학원, 유자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학습과 사회사업에서 우수한 자

(3) 고급중학교 또는 전문학교 중퇴자로서 조국보위 또는 경제건설사업에서 다년간 단련되었고 고급중학교 및 전문학교에 부설된 단기강습반에 망라되어 해당학교장으로부터 대학입학 응시자격을 받은 자

(4) 대학 또는 기술전문학교에 부설된 초급중학교 및 기술학교 교원양성반 졸업자

(5) 기사급 검정시험에 3과목 이상 합격한 자(정연수, 1989:441-442)

이 대학의 입학전형은 매월 10월말 전국의 고등중학교와 군부대와 직장 등에서 입학 지원자를 추천받는데, 그 숫자는 정원의 5배 정도가 된다. 추천된 사람들은 1월에 필답고사를 치는데, 과목은 수학, 영어, 국어, 물리, 혁명역사, 화학 등 6과목이며 과목당 10점 만점이다. 구답시험이라 불리는 면접과 건강을 테스트하는 체육시험이 있다. 전형방법은 도시와 지방간의 격차를 생각하고, 또 지방학생들과 제대병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이들에게 총점의 25% 까지 웃점수를 준다고 한다. 요즘에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가지 않는 학생(직통생)의 입학율이 높아지는데, 우수한 학생을 계속 학업에 전념케 해서 과학발달을 도모하겠다는 당국의 방침 때문이다. 현재 이대학은 신입생 중 제대군인보다 직통생이 더 많고, 외국어 문학부는 100%가 직통생이고, 자연과학계통은 6대4 정도로 직통생이 더 많고, 사회과학계통은 아직 4대6 정도로 직통생이 더 적다고 한다(안동일, 1990:76-78).

이 대학 학생의 90% 이상이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침 8시부터 30분간 독보회에서 로동신문, 로동청년 등을 읽고, 8시 30분에 시작해서 19시까지 학습을 마치고, 1시간동안 각종 집회, 1시간동안 생활총화시간을 가진다. 학생들은 사로청을 통하여 정치생활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과외소조에 들어 문예활동은 물론 학문분야도 소조를 중심으로 더욱 보충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당정책연구모임, 강연회, 좌담회, 독서회에 가고 각종 연구지나 팜플렛을 발간하고, 예술공연도 보러다닌다고 한다(황석영, 1993:91-92).

북한 대학생의 80%이상이 매월 15원이상의 장학금을 받는다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평의회가 추천하는 「김일성장학금」(월 30원)
(2) 남한출신과 북송교포에게 주로 지급되는 「사로청장학금」(25원)
(3) 고아 등 무의탁자를 위한 「무의탁장학금」(17원)
(4) 사범대와 교원대생을 위한 「국가장학금」(15원)
(5) 간부양성기관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특수장학금」(재직시 본봉) (안동일, 1990:445-446)

또 1년에 한달은 공장과 농촌에 나가 생산실습을 하는데, 자신을 노동계급적인 새로운 지성인으로 수양하는 기회다. 졸업후에는 각 공장기업소나 농촌에 배치되어 최소한 3년이상 현장 경험을 하게 된다(황석영, 1993:93).

이 학교 교복은 짙은 곤색인데 여학생은 투피스를 입고 안에는 하얀 브라우스를 받쳐 입는다. 이 대학에 여학생은 약 25%가 되는데, 대부분 같은 학교 졸업생과 결혼한다고 한다.

북한 학생들은 남한 문학책을 더러 본다. 창작과 비평, 실천문학 같은 계간지와 신동아도 읽는다. 시, 소설로는 황석영의 객지와 장길산, 김지하의 황토, 고은의 조국의 별, 신경림의 농무,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 등을 읽고 백낙청과 염무웅의 평론집도 본다고 한다(황석영, 1993:94,97).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Ⅳ. 군대 생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인민군이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만 16살이 되는데 곧바로 군대에 가면, 만 20살에 군대에 가는 남한보다 4년이나 더 일찍 군대에 가는 셈이다. 여기서는 북한군대의 제도와 정책을 살피고 나서, 군인의 부대생활을 알아 보았다. 먼저, 군대의 성격과 정책, 군사기구와 정치조직을 살펴보고, 다음에, 사병의 모집과 훈련, 부대배치와 교육, 일상생활과 내무반생활, 후생복지와 상벌, 그리고 제대와 그후의 진로를 알아 보았다.

1. 군사 정책과 제도

1) 군대의 성격과 정책

북한군의 기본적인 성격은 항일 빨치산의 혁명전통을 계승한다는 것과 당이 이끄는 사회주의혁명의 무장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북한군은 사회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령과 당의 창과 방패 역할을 수행한다.(통일원, 1992:456-459;북한연구소, 1983:1440-1445)

북한 권력구조 하에서의 군의 위상은 헌법이나 당규약에 나타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1972년 12월 27일 채택) 제93조에 의하면 주석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고 되어 있다. 노동당 규약(1980년 10월 13일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에서는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가 당군사 정책수행 방법을 토의 결정하여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제27조)고 되어 있다. 인민군대는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며(제46조), 인민군 총정치국과 중앙기관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은 당중앙위원회 직속으로 군대는 그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담당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제52조)고 되어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즉 당이 군을 지휘통제하는 것이다(대륙연구소,1991:51-52).

당의 무장력이라는 말은 북한군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당의 방침과 당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자격이 있는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남한의 군대가 국방의 의무와 권리에 의해 소집된 인원들로 구성된 것과는 다르다. 즉 북한군은 당이 정하는 기준에서 군인들을 선발하는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군인선발기준을 가지고 있다. 북한 인민군은 출신성분과 당성이 인정되는 핵심계층과 기본계층의 자녀들에게만 입대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당연히 적대계층의 자녀들에게는 인민군에 입대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서동익, 1987:101).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먼저 당의 무장력이라는 북한군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북한군의 전체적인 군사정책과 제도를 살펴본 후에 북한 청소년들의 군대생활을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 청소년들의 군대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군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사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4대 군사노선에서 나타나는 국방자위정책이다. 이것은 북한 헌법 제60조에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둘째는 3대혁명역량론과 주체사상이론이다. 북한의 군사정책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한반도의 사회주의혁명에 있다는 것에서 3대혁명역량론과 주체사상이론을 북한 군사정책의 근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북한연구소, 1983:1440).

먼저, 국방자위정책에 대해 김일성은 "자위적 국방건설이란, 주권을 장악한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국방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지도적 지침"이라고 하면서 "자위노선의 본질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혁명무력으로 자기나라를 보위하며 모든 군사문제를 주도,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북한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군사자위노선을 강조한다(국토통일원, 1992:449).

이러한 지침의 구체적인 실천방도로 체계화된 것이 바로 4대군사노선이다. 즉 1963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전인민의 무장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이다. 전인민의 무장화란 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계급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이며, 전지역의 요새화란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시설을 축성하여 철벽의 군사요새로 건설한다는 것이고, 전군의 간부화는 인민군 대열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유사시에 모두가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군의 현대화는 인민군대를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무장시키며, 최신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적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우선 3대혁명역량론과 군사정책의 관계는 북한내 자체 혁명역량의 구축, 남한내 동조혁명역량의 부식, 국제적 지원혁명역량의 획득이라는 3대혁명역량론에 의해 군사정책이 수립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주체사상과 군사정책의 관계는 북한의 혁명이념인 주체사상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 입장과 창의적 입장에서 주로 자체의 힘으로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자주성과 창조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군사정책에 있어서 국방자위정책이 수립된다는 데 있다.

2) 군사기구와 정치조직

북한의 군사기구는 당조직을 통한 정치지도체계와 정권기관을 통한 군사지휘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는 군사간부가 당내에서 각자의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민군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이다. 인민군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는 군사간부의 당내의 정치적 지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부위원장,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등 주요 군사간부는 노동당 정치국위원 또는 노동당 군사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원회 위원을 겸직한다.

한편, 1980년 10월 노동당 6차대회에서 선출된 정치국위원과 중앙위원회 위원중에는 군사간부의 비율이 더 높아나고 있으며, 1992년 4월에 개정된 북한헌법 제111조, 113조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으로 무력의 사실상의 최고지휘를 보장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현재 북한에서는 모든 정책수립에서 군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국토통일원, 1992:460).

그러나, 북한의 정치지도 체계와 군사지휘 체계의 세력변화에도 불구하고 당과 군의 관계는 군의 당에 대한 종속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혁명수행을 위해서는 당의 강력한 군사력이 필수적이며 인민군이 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지배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당과 군의 관계 때문에 군대내의 정치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김일성은 인민군대 안에서의 정치사업은 "당이 견지하고 있는 기본 방침이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치사업의 성패가 부대의 전투성과를 좌우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군대내의 정치조직을 통한 정치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군인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의 강화, 군인들 속에서의 계급교양 강화, 모든 군인들이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도록 교양 실시, 군인들의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신념고양 등을 강조"한다(북한연구소, 1983: 1481).

구체적으로 북한 군대의 유일사상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군내 정치조직을 살펴보자. 북한군내의 정치기구로는 군당위원회, 정치부, 중앙당 비서국에서 임명한 정치비서, 그리고 사로청 등이 있는데 이들은 전군 내부에서 당의 군에 대한 통제와 정치사업을 벌인다. 군대내 당조직의 목적은 "군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이며 혁명무력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높이 발휘토록" 하는데 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임무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군사업무의 당지도, 당대열의 확대강화, 당의 군사노선지도 강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의적 애국교양강화, 사로청조직의 강화, 경계태세 및 전투태세 준비고무, 당 인민원과 전사들 간의 단결정신고양 등이다(북한연구소, 1983:1482).

3) 군사교육과 인사관리

북한의 군사교육은 "당에 무조건 충성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치사상 교육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개별능력보다는 집단능력의 배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치사상교육의 내용은 주민교육과 마찬가지로 혁명적 세계관 형성을 중심으로 "적개심 배양과 통일사명감 고취"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그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군은 강력한 중앙통제하에 일원화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군사훈련은 정규군의 군사학교에서의 교육과 일반부대교육 및 준군사조직의 훈련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군사 훈련국의 일원화된 강력한 통제를 받는다. 둘째, 북한군은 당에 '무조건' 충성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상 및 정치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오직 당을 위해 복종하는 '혁명전사'로 육성하는데 훈련의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군내의 정치조직을 통한 통제와 감시를 실시한다. 셋째, 북한군의 군사교육은 개별능력보다 집단능력의 배양에 역점을 둔다. 따라서 모든 교육훈련은 개인의 기능향상보다 단체의 일원으로서 집단목표에 맞도록 단체적 훈련을 시키며 전반적인 단체목표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한다. 넷째, 북한군은 독자적인 전술교리발전을 위하여 자주적, 독자적인 전력배양에 중점을 두며 상황변화에 부응하는 교육목표를 설정, 새로운 교육을 단기간 내에 통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북한군은 4대군사노선에 입각하여 전인민의 무장화를 위해 노농적위대,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을 육성하며 그들을 정규군과 동일한 전력수준에 끌어 올리기 위하여 통일적인 군사교육을 실시한다(국토통일원, 1976:192-193).

북한의 인사관리제도는 당의 기본방침에 전적으로 예속된다. 그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군을 당과 수령인 김일성에게 예속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무장력 구성의 결정적 요인은 사람이며 군대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전투력은 군인들의 사상의식에 결정적 역할을 미치므로 따라서 군인사권을 당이 철저히 장악해야 한다"고 교시한다. 그래서 북한군은 군내의 정치간부 조직을 통해 군인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북한연구소, 1983:1499).

구체적으로 인사이동, 진급제도, 보직, 신병분류 및 배치, 군관양성 및 배치, 초기근무(超期勤務)하사관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인민군에 있어서 개별 인사이동은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성이 희박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계속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기타 결원보충 등의 경우에 부득이 군관과 하전사의 인사이동을 단행한다. 인민군의 진급제도는 직접적인 당의 정책적 인사관리의 영향을 받는다. 즉 군관회의에 진급심의권을 부여함으로써 당원 우선의 편향적 승진을 실시하는데, 진급시 고려되는 사항은 근무연한, 근무성적, 출신성분, 군당생활, 복무규율준수 등이다. 인민군의 진급상의 특징은 인사이동 및 제대를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있어 보직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진급도 늦은 편이다. 그리고 진급대상자를 사전에 상위직에 보직시킨 후 수개월간 근무상태를 관찰하고, 평가한 후 진급추천을 한다(북한연구소, 1983:1499-1450).

북한 귀순자 김남준에 따르면 북한군의 계급체계는 다음과 같다. 사병은 전사, 상등병, 하사, 중사, 상사, 특무상사 등 6계급이고, 군관은 하급군관인 소위, 중위, 상위, 대위, 상급군관인 소좌, 중좌, 상좌, 대좌, 장령급인 소장, 중장, 상장, 대장, 원수급인 차수, 원수 등 14계급이다. 인민군 소대장직에 있다가 귀순한 김남준은 전사에서 특무상사로 진급하는 데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북한군의 보직관리제도는 출신성분이 좋고 당성이 강하며 임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차상위직에 임명하는 '직무위주제도'이다. 그래서 보직은 부대 소요에 의하며 간부참모의 인사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당의 동의가 따라야 한다. 대체로 동일계통의 직무에만 보직시키며 진급 후에도 같은 계통으로 근무시켜 전문화를 꾀한다. 그래서 인사이동은 최대한 억제하고 동일부대에서 장기간 근무시켜 전투핵심요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신병분류 및 배치에 있어서 북한군은 각 사단 예하의 단위부대에서 신병교육을 마친 신병들에 대해 사단대열과가 각 개인의 학력, 민간경력, 신체조건 및 개인 특기 등을 고려하여 병과를 분류하고 직무를 부여하여 일선부대에 배치시킨다.

군관양성제도는 3년 이상 현역사병으로 복무한 자 중에서 군당위원회의 사상심사를 마친 후 연대장 추천과 시험을 거쳐 군관학교의 소정교육과정을 이수시켜 임관시키는 '일반군관제도'와 당, 정, 군의 고위간부 자제들 가운데에서 차출, 임관시키는 '정치군관제도', 부족군관 보충을 위하여 중사급 이상의 하사관을 단기교육시켜 군관으로 임용하는 '현지임관제도', 정치, 기술, 예술, 사법 등의 분야에 군관이 필요할때 민간인 중에서 선발하는 '발탁군관제도', 대학생을 대학노농적위대에 편입시켜 군사훈련을 받게 하고 졸업과 동시에 예비역 소위로 임명하며 전투시에는 현역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대학생예비역군관제도' 등이 있다. 그리고 북한군의 군관교육은 인민무력부의 연간교육강령에 의거 군관후보생교육, 군관보수교육, 훈련 및 교리연구 등을 실시하며 소정교육을 이수한 신임군관은 반드시 해당병과부대 소대장직에 보직된다(북한연구소, 1983:1501-1502).

북한군의 특별한 제도는 초기근무(超期勤務)하사관제도이다. 초기근무하사관제도는 기술계통의 하사관을 장기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 자격은 기술능력이 우수한 자로 출신성분이 좋고 당성이 강한 자라야 하며, 보통 중, 상사 및 특무상사 중에서 임명된다. 이들의 근무기간은 의무복무기간 만료일로부터 1-5년까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사관은 초기근무를 희망하지 않으며 부대지휘관의 권고 또는 설득을 통해 근무를 지원토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초기근무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결혼 및 영외거주의 허용과 소위 봉급에 해당되는 급료를 지급하며 군관으로 현지 임관되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4) 민병조직

북한의 정규무력이라고 하면 물론 인민군이지만, 이 외에도 예비전력인 준군사조직이 존재한다. 가장 대규모인 '노농적위대', 그 다음으로 청소년을 조직하고 군대교육을 실시하는 '붉은청년근위대', 사회안전부 산하의 '인민경비대', 그리고 제대군인과 사회인, 대학생으로 조직한 '교도대'가 있다.

노농적위대는 41세 이상 60세까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직장 및 행정단위별 부대로 편성된다. 노농적위대의 교육과 훈련은 당군사부의 재가를 받으며 인민무력부 전투훈련국의 지도 하에 소대단위로 실시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지시 감독은 각 시, 군 군사부 지도원에 의해 수행된다. 훈련은 노동시간 외에 매일 1-2시간씩 연간 50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북한연구소, 1983:1540). 노농적위대의 기본임무는 민방위업무와 함께 직장 및 주요 시설의 경계는 물론 지역방어, 대공방어이다. 전시에는 예비병력으로 동원되어 후방작전에 참가하여 정규군보충, 군수품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노농적위대는 주말이나 월말에는 야외훈련, 연말에는 정규군과 함께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한다(북한연구소, 1983:1508).

붉은청년근위대(이하 근위대)는 사로청원과 고등중학교 5-6학년 남녀학생들(14-17세) 중에서 성분이 좋은 자녀들로 조직된다. 근위대는 김일성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양성시키며 정규무력의 후비대로서의 교육목적을 갖는다. 이들의 교육시간은 입영집체훈련이 2년간 336시간, 교내교육이 2년간 240시간으로 총 576시간이며 대체로 방학기간 중 해당 시, 군소재 근위대 야영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는다. 훈련내용은 사격, 전술훈련 및 장애물극복훈련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외에 사격학, 규정학, 병리학, 반(反)화학 등의 이론교육도 받는다. 여학생은 남학생과 동일한 군사훈련을 받으며 통신, 구급, 간호, 행정보조가 주 임무이다. 특히 근위대는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하여 북한 지배층을 사수하는 친위대로서 전투력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유사시에는 군대 하급간부 보완을 위한 후비대, 결사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인민경비대는 군에서 제대한 청장년 중에서 일정한 인원을 15일간씩 교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조로 동원하고 조직한다. 주요 임무는 중요지역 및 철도, 해안의 경비를 담당하는 것이다. 인민경비대의 하전사는 정규군 초모(招募)대상자(징집 혹은 소집대상자) 중에서 선발되어 사회안전부 신병훈련소에서 3-4개월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군관은 경비대 하사관 중에서 선발되어 인민경비대 군관학교의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인민경비대는 사회안전부 5국에 소속되어 있으며 산하에 철도경비처, 12개도(직할시) 경비처가 있으며, 철도경비처 예하에는 철도경비대가 있고, 각도(시) 경비처에는 국경경비대대, 시설경비대대, 해안경비기지 등이 있다(국토통일원, 1992:478).

교도대는 북한의 민간군사조직의 핵심체로서 만 17세 이상 40세까지의 주민(여자 17-30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지역(행정단위)과 직장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당해지역 위수담당 정규군 군단장 관할하에 있게 된다. 훈련시간도 년간 500시간에 달하여 현역에 준하는 훈련, 편성 및 장비를 보유한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대학생을 정규군의 병종, 병과의 초급장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공분야별로 편성한다. 이것이 바로 대학교도대이다. 대학교도대의 교육목적은 김일성 수령에 충직한 혁명의 전위대가 된다는 데 있다. 그래서 남녀 전 대학생을 학교규모에 따라 대대 및 연대급으로 편성하며 전공분야에 상응한 군종과 병과로 구분하여 병과장교 배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교육시간은 입영집체훈련을 2개월간 연445시간 하며 교내교육은 2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북한연구소, 1983:1541;통일연수원, 1992:225).

입영시에는 인민군 내무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교내훈련을 포함하여 평상시에는 기숙사위원회의 통제 하에 집단생활을 한다. 여학생도 남학생의 군사훈련내용과 유사하며 전술훈련은 기초적인 내용만 이해시키고 주로 구급법, 간호학, 산악행군 등에 중점을 둔다.

이처럼 북한은 인민을 무장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인민이 혁명적 군사사업의 주인이므로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조직 동원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군사관에 기초하여 주민을 동원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2. 부대생활

1) 전사의 모병과 훈련

위에서 우리는 당의 무장력인 북한군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북한군 전반에 대한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지금부터는 북한군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군대생활을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의 청소년들에게는 군대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지 않는다. 군대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핵심계층과 기본적으로 당성이 좋은 계층의 자녀들에게 주로 주어진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징집 혹은 소집 영장이란 말이 사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초모장(招募狀)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초모장이라는 말은 당이 개인의 출신성분과 당성을 믿고 인민군대에 돌어와 생활할 수 있도록 초치(招致)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귀순자 장기홍에 의하면 북한 당간부들은 자녀들을 군대에 안 보내려고 한다. 주로 대학으로 보낸다. 왜냐하면 대학에 가게 되면 대학기간 5년 중 6개월간 교도기간이라 해서 군사교육기간이 있는데, 대학기간에 그것만 마치게 되면 대학 졸업때 예비역 소대장 자격을 주면서 군대에 갔다 온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입대는 무리배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입대한 후 추천 형식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대학으로 보낸다. 한편 북한에서 가장 군대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농민의 자녀들이다.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대우가 낮은 농민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당증도 받을 수 있고 거의 8년 동안 입을 것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군대에 가려고 하는 것이다. 한 장의 초모장이 작성되어 개인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북한연구소, 1983:1505-1506; 서동익, 1987:101-104; 통일원, 1976:200).

북한의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회안전부 분주소(남한의 파출소)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14세 이상의 청년들의 신원을 파악해 군(시) 군사동원부에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군(시) 군사동원부는 군사동원카드를 작성한다. 군사동원카드는 가계표라고도 불리는데 가계표는 16절지 크기의 양식화된 인쇄물로서 가족사항(친가 6촌, 외가 사촌까지 기록됨), 신체조건(신장, 흉터, 체중, 시력, 혈압 등), 생활환경 등 기타 특이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게 된다. 예비신체검사는 16세 대상자를 2차에 걸쳐 군(시) 인민병원에서 실시한다. 이때 신장 150cm 이하, 체중 43kg 이하, 시력 0.5 이하, 혈압 150 이상, 각종 질병환자(치질, 임질, 매독, 폐결핵, 늑막염, 색맹, 정신병자 등)는 불합격 된다. 그리고 정책적 수혜대상자도 초모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혜대상자를 북한에서는 '수애대상자'라고 부르는데, 교육자, 신임군관합격자, 대학진학대상자, 산업체필수요원, 사회안전부입대요원, 무장공작원 등을 의미한다. 군(시) 군사동원부는 이런 수애대상자, 신체검사 불합격자, 그리고 성분불량자를 제외한 나머지 합격자를 도(직할시) 군사동원부에 보고한다.

합격자 외에 현역 소집에서 제외 또는 보류된 자는 교도대, 노농적위대 등에서 훈련을 받는다. 또한 성분불량자는 후방복무단, 건설단 등에 투입하여 복무시키고 대학생의 경우 필수과목인 군사훈련을 이수하게 하여 졸업시험합격자에 한해 예비역군관 및 하사관으로 임명하여 민병조직에 편입시킨다.

도(직할시) 군사동원부는 이 자료(합격자)를 인민무력부 군사동원국에 제출한다. 인민무력부 군사동원국은 이 인원을 당해연도 초모가용 인원으로 간주하고 종합적인 명단을 작성해 인민무력부 대열보충국에 통보한다. 대열보충국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당해연도 제대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각 부대의 인원요청을 고려하여 군종(軍種), 병과별, 부대별, 시기별 병력보충계획을 수립해 군사동원국과 각 부대에 통보한다. 군사동원국에서는 대열보충국에서 넘어온 병력보충계획과 각 도별 가용병력 인원을 참고하여 초모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서를 군(시) 군사동원부에 내려 보낸다. 군 군사동원부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초모장을 작성한다. 그리고 초모대상자의 소속기관에 집결 일자 및 장소가 기록된 초모통지서를 통보한다. 통보는 대략 3-6개월 전에 전달되나 군입대를 빙자한 근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속기관에서는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보통 입대 5-15일 전에 개인에게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개인은 개인의 사정에 의한 연기원을 낼 수 없다. 중환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군(시) 군사동원부에 집결한다. 군(시) 군사동원부는 이때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민증을 회수하고 이들을 도(직할시) 군사동원부 초모집결소로 이동시켜 2-3일간 대기하며 입소준비를 시킨다.

이때 도(직할시) 군사동원부는 2차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2차 신체검사는 도 중앙병원에서 실시한다. 불합격자는 귀가조치되고 합격자는 초모소에서 군종별(軍種別) 및 군단별로 분류되며 군단에서 파견된 인솔군관에 의해 대열이 편성된다.

대열편성이 끝나면 보급품이 지급되는데, 이때 AK소총, 철모, 방독면을 제외한 일체의 기준피복과 개인장구가 다 지급된다. 개인이 소지하였던 사물(옷, 돈 등)은 개인별로 포장한 후 수취인을 기록해 놓으면 도 군사동원부에서 일괄해서 본가로 우송한다.

대열편성과 보급품지급이 끝난 입소장정은 군단대열과에서 파견된 소좌급 군관의 인솔 아래 주로 기차로 이동한다. 부대에서 가장 근접된 기차역에서 내린 초모장정들은 도보로 각 군단 및 사단 직속 신대원(신병)훈련소로 이동하여 신대원훈련을 받는다.

신대원훈련은 일반보병일 경우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북한군은 시기와 주변정세에 따라 융통성을 보이기 때문에 일관성은 없다. 그래도 붉은청년근위대 시절 현역 보병이 이수해야 할 기본훈련을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신대원훈련을 줄여서 받아도 전사생활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한다. 신대원훈련은 군단직속 훈련소나 사단에서 잠정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훈련중대에서 실시한다. 각 훈련소나 훈련중대의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일반적인 신대원훈련 실태는 다음과 같다(서동익, 1987:104-106; 북한연구소, 1983:1530-1531). 훈련소 편성은 훈련소 소장(상급군관인 중좌), 정치지도원, 중대장(하급군관인 대위), 소대장, 분대장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중대에는 중대장과 정치지도원, 사관장(특무상사), 위생지도원 등이 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속된다.

교육과목은 매 연초 인민무력부에서 하달되는 훈련강령에 의거해 실시된다. 보병의 경우 각 과목별 교육내용은 유일사상체계, 혁명역사, 김일성교시를 배우는 '정치학', 위수, 내무, 검열에 대해 배우는 '규정학', AK소총, 기관총, 발사관, 수류탄, 방독면 등에 대해 배우는 '병기', 각개 병사 동작, 위장을 배우는 '전술', 조준자세, 실탄(3발)사격을 배우는 '사격', 행진, 경례, 집총시 대열 및 36개 동작을 배우는 '대열훈련', 도수체조, 기계체조, 장애물극복훈련 등을 배우는 '체육' 등이다.

교육보조자료는 교안, 괘도, 사격기재(조준표, 표적), 모형수류탄 등을 사용한다. 교안은 소대장이 작성하며 괘도는 인민무력부 교육국에서 작성하여 전부대에 일괄 배포한다.

1개 중대는 100-120명 단위로 구성되며 1개 병실(내무반)을 사용한다. 급식은 쌀과 강냉이쌀이 50대 50으로 혼합된 1호급식이며 무기장구는 AK소총, 철모, 방독면, 보병삽, 탄창주머니, 수류탄주머니, 총창(대검), 배낭 등이 지급된다.

신대원은 입대전에 이미 노농적위대, 학도군사훈련 등을 통해 기초 군사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통상 1개월(보병을 기준해서)훈련기간을 거치나 성적이 미달한 경우 다시 1개월을 연장하며 신대원교육이 종료되면 5-6명씩 조를 편성하여 김일성초상화, 석고상 앞에서 군인선서를 한 뒤 군인신분증(통일전사증)을 발급받는다. 이 때부터 군인으로서의 복무기간계산이 되며, 또한 군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

2) 부대 배치와 교육훈련

신대원훈련을 마친 군관과 전사는 각 개인의 신체조건, 학력, 민간경력, 개인특기 등을 참작하여 병과와 직무를 주어 장차 개인이 근무할 부대에 배치된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군인사'라 한다(서동익, 1987:109). 인사관리는 노동당의 지도감독 아래 인민무력부 총참모부가 관장한다. 단위부대별로는 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단이나 사단장의 지도감독 아래 참모부가 수행한다. 참모부에는 군관들의 인사를 취급하는 간부과와 전사들의 인사를 취급하는 대열과가 있다.

단위부대내 간부과와 대열과는 인민무력부 대열보충국의 신병분류계획에 의거해서 저격, 경보, 정찰, 포병, 보병 등으로 병과를 분류해 보직(補職)을 부여한다. 북한군의 보직제도가 직무위주제도이기 때문에 보직은 개인의 출신성분, 당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참작하여 우수한 자는 1-2계급 상위직에 배치한다. 하전사의 경우는 부대간 병력조정, 특수부대요원으로의 차출, 부대개편, 사고자 등의 처리 외에는 가급적 입대 후 최초에 배치된 부대에서 제대할 때까지 계속 동일 보직에 근무시키며 직무의 전문화를 추구한다.

북한인민군의 인사관리 중 특징적인 것은 군관과 전사 사이의 중간간부(하사관)를 바로 선발하지 않는 점이다. 남한의 경우 군의 중추적 실무를 전담할 하사관을 별도로 선발하여 전문화교육을 시킨 후 보직을 주는 데 비해 북한은 이런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다. 북한군의 경우는 하사 중에서 출신성분과 당성, 그리고 기술능력이 우수한 자를 선발해 1-5년간 더 근무하게 하는 초기근무제도(超期勤務制度)를 채택하였다. 초기근무하사관으로 선발된 하사는 엄격히 말해 노동당의 동의 아래 임명된 장기복무 기술하사관인데, 해당자에게는 결혼과 영외거주권을 주며 소위수준의 봉급과 현지 임관기회를 간혹 부여한다. 초기근무하사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주로 해, 공군 및 지상군의 기갑, 병기, 통신 등 기술분야인데, 이들로써 군의 전문화를 추구한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전사들 중에서 출신성분과 당성이 투철한 자를 선발해 정규과정의 하사관교육을 이수시키는데, 하사관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진급발령이 내려오지 않는다. 이 경우 특진은 제외된다. 하사관 교육은 각 사단 하사관양성소(학교)에 들어가 받는데 교육기간은 6-10개월이다. 그러나 하사관양성소를 수료했다고 해서 반드시 진급발령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인민군은 직무계급제도(職務階級制度)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었다 해도 공석이 있어야만 정식 보직명령이 내려온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신병교육을 이수한 신병들은 군인자격을 부여 받고 배속부대에 근무하면서 주기적인 부대교육훈련을 받는다. 부대교육은 사격과 특수훈련 외에 정치학에 큰 비중을 두고 실시한다. 부대교육의 목표는, 첫째 군사훈련강령 목표의 달성, 둘째 당 및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앙양, 셋째 현임무 수행능력의 배양 및 상위직 임무수행 능력부여, 넷째 합동작전숙지 및 능력향상 등이다(북한연구소, 1983:1532).

교육주기는 제1기가 동절기로서 12월부터 5월까지이며 이때의 교육기간에는 기초군사훈련과 각개전투훈련, 분-소-중대단위 전투훈련을 실시하며, 또한 중대 야영훈련과 사단급이상 대부대기동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작업기간에는 영농, 노력동원, 진지보수공사 및 2기 교육준비 등을 실시한다. 제2기는 6월부터 11월까지로 교육기간 중에는 대대, 연대훈련과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며, 작업기간에는 추수, 월동준비, 연말교육평가, 내년교육준비 등을 실시한다. 귀순자 김창화는 교육훈련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신발이 튼튼하지 못하여 발이 아픈 것이고, 여름에 비올 때 우비가 없어서 옷이 몽땅 젖는 것과 겨울에 내무반의 난방장치가 불충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각 병과별 부대교육은 보병전투부대, 포병부대, 전차부대, 공병부대, 통신부대, 화학부대 등 각 부대의 임무수행에 맞게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특수부대의 경우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이라는 북한의 군사전략에 의거하기 때문에, 남한지역에 대한 군사정찰, 후방교란, 파괴 등의 임무수행을 위해 편성된 특수부대요원에게는 해당임무수행에 적합한 특수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민경중대는 휴전선 경비를 주임무로 최전선에 배치되는 특수부대로서 교육기간은 연 6개월이며 이를 다시 3개월씩 나누어 3개월을 교육주기로 연2회 교육을 받는다. 이들의 교육목표는 당의 유일사상으로 정신교육 강화, 고도의 사격술능력 보유, 적의 대량살상무기로부터의 방호법 숙지, 예기치 못한 지형과 기상조건에서도 임무수행능력 부여, 인공 및 자연 장애물의 설치 및 제거와 이용법 숙지, 적 후방지역에서의 활동능력 배양, 통신연락방법 숙지와 북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귀 능력 배양, 각종 무술연마, 수영 및 도하훈련으로 침투능력 확보, 적(敵) 화기와 전투장비의 조작능력 부여 등이다(같은 책:1537).

3) 일상생활과 내무생활

병과와 보직이 결정되어 부대에 배치되면 그날부터 인민군복무조례와 배치된 부대의 일과표에 따라 근무하게 된다. 인민군의 일과표는 인민무력부가 하달한 규정을 기본으로, 각 부대의 부대장들이 부대실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인민군의 일과표에 포함된 공통된 내용은 대체로 기상, 조기체조, 세면 및 청소, 시사보도청취, 아침대열검사, 조식, 상학준비검열('상학'이라는 말 속에는 '교육을 실시함'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오전상학, 중식, 오후상학, 조준훈련, 무기청소, 석식, 오락시간, 자유시간 및 중대장 총화시간, 저녁점검, 취침 등이다(북한연구소, 1983:1519-1521; 서동익, 1987:111-116).

일과표는 각급 부대 병실(내무반) 현관에 부착되어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소대장 및 사관장(과거에는 특무장), 직일관(당직사관)의 통제 아래 지켜진다. 기상 5분 전에 중대 또는 독립소대 직일관은 사관장, 부소대장, 분대장을 먼저 기상시킨다. 분대장 이상의 하사관들은 사관장의 지시에 따라 먼저 용변을 본다. 이렇게 분대장 이상의 하사관들을 먼저 기상시킴으로써 전사들의 기상은 빨리 진행된다.

기상구령에 따라 모든 전사들은 모포를 좌측으로 길게 펴놓고 분대장의 "분대 모일준비" 구령에 따라 바지, 발싸게, 신발을 신는다. 다시 분대장의 "제 몇분대 일렬종대 모여" 구령에 따라 분대별로 정열한다. 분대장은 "분대 나란히 차려, 분대 날 따라 구보로 가" 구령을 내리고 화장실까지 인솔한다. 화장실 앞에 도착하면 분대장은 "분대 제자리 구보로 서" 하고 난 다음 "헤쳐"하고 구령을 내린다. 이 구령에 따라 분대원은 용변을 본다. 용변이 끝난 후 분대장은 다시 "분대모여" 구령을 내린다(서동익, 1987:112).

아침운동(조기체조)구령이 떨어지면 사관장의 지시에 따라 달리기와 아침체조를 실시한다. 아침운동은 내무정돈을 위한 인원을 제외한 모든 하전사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참석해야 한다. 몸이 불편한 자는 사전에 중대 위생지도원의 진찰을 받아 특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아침 달리기는 4-6km 거리를 집단적으로 실시하며, 달리기가 끝나면 연병장에서 인민군체조를 실시한다. 조기체조는 통상 중대단위로 진행되며 조기체조의 집행자는 중대 특무장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의 위임을 받은 제1소대 부소대장이 집행할 경우도 있다. 조기체조는 달리기 20분, 체조 10분으로 실시된다. 이때에는 모자를 쓰지 않으며 상의를 벗는 것이 통례이나 영하 15도 이하일 경우는 특무장의 재량에 따르기도 한다. 영하 20도 이하일 때 또는 연료채취, 운반작업 등 특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기체조를 취소할 수 있다.

세면 및 청소 시간에는 각 분대별로 할당 구간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며 세면을 한다. 중대 특무장, 부소대장, 분대장은 병사들의 기상전에 먼저 세면을 실시하고 병사들의 청소와 세면을 감독한다.

시사보도 청취시간에는 라디오와 유선방송을 통하여 정치부에서 지시하는 중요한 뉴스와 사단, 군단내의 전투속보 등을 의무적으로 들는다. 들려줄 만한 뉴스나 속보 등이 없을 때는 독보회로 대체된다. 독보회는 김일성의 교시, 노작, 덕성실기, 신문을 집단적으로 읽으며 '조직분공발표회' 등을 통해 독보내용을 대중 앞에 발표한다.

아침대열검사는 중대단위로 진행되며 중대 특무장이 집행한다. 이 시간에는 하전사들의 복장상태, 이발, 위생, 건강상태 및 당일 복무준비상태 등을 점검한다. 군인들은 지정된 수첩, 손수건, 거울, 빗, 바늘, 볼펜 등 필기류와 휴지, 담배, 성냥 외에는 다른 물건을 휴대할 수 없다. 다른 물건을 휴대했을 때는 회수당한다. 상관의 지시 아래 각 분대장들이 직접 검열을 실시한다. 검열 후에는 "제 몇 분대(또는 소대)는 아침검사 중 몇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나타난 결함은 머리 긴 동무 몇명, 거울 없는 동무 몇명, 분대장(또는 소대장) 누구누구"하고 결과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사관장은 "나타난 결함을 상학준비 전에 또는 취침전에 시정하라"고 지시를 내린다. 전사들은 짬을 이용해 시정해야만 잠을 잘 수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아침식사는 아침대열검사를 마친 뒤에 하며, 점심과 저녁식사는 각각 오전 오후의 교육훈련이나 작업을 마친 뒤 1시간동안 실시한다. 식사는 중대특무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제1소대 부소대장의 인솔로 보통 중대단위로 실시하며 병사들은 특수한 파견근무시를 제외하고는 식사도구를 지참하지 않는다. 중대의 경우 식당의 관리책임자는 중대 특무장이며 운영자는 취사장이고 인원장악 및 급식상황은 그날 중대 직일관(直日官)이 관장한다. 대대의 경우 식당관리 책임자는 후방부 대대장이며 운영은 대위급의 양식관리원이 담당한다. 그러나 요즘 북한군은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량문제는 북한사회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군과 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 대한 약탈과 습격사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조선일보사, 1993:464-465).

상학준비검열시간에는 그날의 훈련준비에 대한 검열을 받는다. 각 지휘관들은 병사들이 하루 훈련계획과 내용을 알고 있는가? 훈련기재는 준비되었는가? 사상적으로 동원자세가 되어 있는가? 등을 검열한다. 검열이 끝나면 중대단위로 열병행진을 한다. 이것이 끝나면 오전상학에 들어간다.

조준연습시간에는 축소거리(10m)와 실제거리(80-100m)에서의 지상목표, 공중목표 등에 대하여 서서쏴, 끓어쏴, 앉아쏴 자세로 조준연습을 한다. 무기청소시간에는 오후교육훈련이 끝난 후 30분간 그날 훈련시에 사용한 무기를 소(小)분해 한다. 중분해와 대분해는 개개 병사들이 할 수 없다. 무기소제는 소대단위로 분대장의 감독 하에 실시하고 소제가 끝나면 소대장 또는 부소대장에게 검열을 받는다.

복습시간에는 그날 배운 훈련내용을 암기하고 소화를 해야만 잠자리에 누울 수가 있다. 다음 날 상학준비도 이 시간에 한다. 복습에 대한 검토는 분대생활총화시간에 실시된다.

오락시간은 소대, 분대교육훈련 총화 후 약 1시간동안 진행된다. 내무규정에 의하면 오락시간에는 군가 및 가요보급, 악기연주보급, 오락회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대당총회, 소대세포총회, 사로청총회 및 위원회 그리고 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시로 하달되는 당정책학습, 회상기학습과 토론, 전투실기학습회 등에 시간을 빼앗긴다. 대체로 군가보급 또는 가요보급, 오락회 등은 1개월에 3-5회정도 진행될 뿐이다.

자유시간은 규정상에는 30-50분간의 세면, 세탁, 편지쓰기 등의 자유시간을 정해 놓았으나 오락시간의 경우와 같이 각종 회의시간으로 대부분 시간을 빼앗긴다. 중대장총화시간에는 하루의 일과를 분석하여 나타난 결함을 시정하고 , 상호비판을 통하여 긴장감을 유지시키며 결점의 시정방법을 제시한다.

저녁점검시간에는 병실을 청소하고 침상 앞에 일렬횡대로 정렬하여 직일관, 사관장 등이 점검을 시작한다. 직일관, 사관장 등은 인원점검과 병실청소 상태점검 외 개인숙지사항 등을 확인한다. 개인숙지사항은 사관장이 대개 '김일성의 교시'나 '인민군 군무자 10대 준수사항'을 외워 보라고 한다.

인민군 군무자 10대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민군 군무자들은 언제나 군사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둘째, 인민군 군무자들은 언제나 자기의 무기에 정통하며 그를 잘 관리한다. 셋째, 인민군 군무자들은 어떠한 조건하에서든지 군사명령을 철저히 집행한다. 넷째, 인민군 군무자들은 당 및 정치조직들에서 준 분공을 어김없이 집행한다. 다섯째, 인민군 군무자들은 국가기밀, 군사비밀, 당조직비밀을 엄밀히 지킨다. 여섯째, 인민군 군무자들은 국가의 사회주의법 및 질서를 철저히 준수한다. 일곱째, 인민군 군무자들은 군사, 정치훈련에 어김없이 참가하여 열심히 공부한다. 여덟째, 인민군 군무자들은 인민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재산을 털끝만치도 다치지 않는다. 아홉째, 인민군 군무자들은 국가재산과 군수물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그를 절약하기 위해 투쟁한다. 열째, 동지들을 친형제와 같이 사랑하며 군대내에 상, 하 일치단결의 미풍을 철저히 세운다.

이런 암기사항을 못 외운 전사는 취침구령이 내린 후 다시 일어나 미숙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부분을 암기하고 자야 한다(서동익, 1987:115).

취침은 여름과 겨울을 막론하고 22:00부터이며 여름의 취침시간은 야간 7시간, 주간 1시간이다. 취침 후 10분이 지나야 용변을 보거나 다음날 아침검사에 임할 준비 등을 할 수 있다. 취침질서는 매우 엄격하고 구령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분대장, 부소대장, 특무장의 감시를 받는다.

북한인민군의 내무생활은 기본단위가 소대이며, 소대단위로 병영을 갖고 있다. 각 소대 부소대장이 내무반장을 맡고 중대 특무장의 지휘 아래 내무생활을 운영하며 중대 내무생활의 책임자는 특무장이 맡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상일과에 준하며 토요일은 중식 후에 세탁, 이발, 목욕, 일광소독, 체육 등을 한다(북한연구소, 1983:1519).

국가휴식일을 제외한 기간은 각 사단별로 '휴식일'을 정하여 실시하는데, 일요일에는 각자의 의사에 따라 세탁, 이발, 묘욕, 일광소독을 실시하고 기타 시간에는 체육 또는 영내 휴무를 실시한다. 그러나 체력단련, 무기수입, 체육훈련 등으로 외출은 거의 불가능하며, 다만 때때로 단체영화관람, 독보회, 군중문화오락 등이 실시될 뿐이다. 특히 군사분계선 근방 근무부대는 일요일이 없고 비번일 때에 한해 세탁, 이발 등을 실시한다.

기타 외출, 외박, 휴가 제도에서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에는 규정상 외출, 외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의 묵살된다. 후방부대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단체행동을 해야하며 군사기밀 유지상 민가투숙은 못하고 지정된 여관이나 협동농장에 투숙한다. 그러나 훈련준비와 세탁, 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외출, 외박의 혜택은 크게 받지 못한다. 휴가는 표창휴가나 특별휴가 등으로 제한을 받고 있어 사실상 일반휴가는 없는 것이다. 북한군은 1970년대부터 하전사의 외출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사병의 사적인 외박은 전면 거부되고 있으며 가족의 면회, 임무연락, 표창자 등에 대해서는 제한된 외박을 허락한다(북한연구소, 1983:1510).

반(反)김일성 전단을 뿌리고 93년 8월에 탈출한 인민군중위 임영선씨의 수기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인민군에도 휴가가 있고 면회도 있다. 나는 군관이 된 후로 1년에 한 번 정도 고향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된 휴가가 아닌 3-4일 정도의 짬을 내어 비공식적으로 다녀오는 것이다. 하물며 하전사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없다. 인민군의 휴가는 규정에만 있다. 면회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해지고 있다(조선일보사, 1993:457).

귀순자 김창화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10년동안 제대하기 전에는 집에 못 갔다. 80년대 초부터는 휴가제가 생겨서 1년에 1개 중대에서 착실한 사람 15명 정도는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66년 이후에는 장기복무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3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당원과 초급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정기휴가를 실시한다. 휴가기간은 주로 15일 정도이다. 휴가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출발전에 2일간씩, 연대 예하대는 연대본부에서, 사단직속부대는 사단본부에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내용은 여행시 주의사항, 귀가후 협조사업, 군사기밀 및 공중도덕준수, 휴가수속 내용, 민폐금지 내용, 군과 민의 단결을 위한 내용 등이다.

북한군은 이러한 외출, 외박, 휴가 등의 제한 때문에 그 대신으로 연1회의 휴양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휴양은 군관을 대상으로 사단 이상 정치부의 휴양계획에 의거해서 하계절(5월-10월 중)에 군단휴양소에서 실시한다. 휴양소에서는 침식을 제공하며, 연극, 영화, 무용 등도 감상할 수 있고, 병원시설도 준비되어 있다. 장령의 경우 1개월, 중-대좌는 20일, 소좌 이하는 15일간씩 휴양기간을 부여하며 하전사는 부대배치 후 2년이 경과해야 한다. 휴양소의 선정은 지휘관의 최종결정으로 정하게 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4) 후생복지와 상벌

북한에서 군인에 대한 대표적인 후생사업은 군인 및 군인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군인상점이다. 군인상점은 대대급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독립중대 및 민경중대 안에도 필요에 따라 설치해서 운용한다. 군인상점은 주당1회 소대, 중대단위로 1-2명씩 차출하여 지휘관 허락하에 단체매입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군인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군관가족을 위한 생활필수품 공급장소이다. 군인상점은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가 주둔하는 곳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군인상점의 관리요원은 군인가족 및 자녀를 채용한다. 그 운용은 후방총국 산하의 군사상업국에서 관장하며 그 예하에 지역별 군인상점관리소, 사단, 연대, 대대 군인상점을 두며, 군장품, 다과류, 학용품, 통조림, 주류, 기타 생활편의품을 취급한다(북한연구소, 1983:1512).

기타 후생시설로 목욕탕과 이발소, 세탁소가 있다. 목욕탕은 등한시 되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 대대급에 30여명 수용규모의 목용탕을 설치하고 있다. 이발소는 연대급 이상 단위부대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대급 이하에서는 이발기구를 이용한 자체이발을 실시한다. 따라서 군관들은 민간인 이발사가 배치되어 있는 연대 이발소를 이용하며 그 관리는 연대후방부에서 담당한다. 세탁소는 소대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고 군관부인이나 하전사들이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군내의 사회보장제도로는 대상자들에 대한 직업보장과 물질적 보조, 그리고 국가시설에의 수용 및 시설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업보장은 제대군인을 포함한 명예군인 및 군무자 후방가족 또는 유족들을 그들의 소질, 희망동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직업을 알선한다는 것이다. 물질적 보조는 군인의 후방가족, 노동력 상실자, 양육자를 상실한 경우에 연금 또는 보조금지급과 식량, 연료 등을 공급하는 데 있다. 국가시설에의 수용 및 시설 사용은 상이군인들과 유자녀 또는 무의탁 불구자 및 고아들에 대하여 기능을 습득시켜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보장시설로는 전장에서 공훈을 세워 명예군인으로 추천되어 제대한 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군인학교와 무의탁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명예군인들을 위한 보양소 및 정양소가 있고, 노동력이 다소 있는 상이군인을 위한 상이군인 생산기업소가 있으며 애국열사 및 전사자들의 유자녀를 취학시키는 유자녀학원이 있다(같은 책:1513).

인민군의 상벌은 구체적으로 상훈과 징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훈의 종류는 개인보다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명예칭호, 훈장, 메달 및 기장, 휘장, 표창 등이 있다. 인민군 내의 상훈의 특징은 상훈의 혜택이 장기간 지속되며 물질적 보상이 수반되고, 개인 및 가족에게 최고의 명예심을 고취시키고 당 가입과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이다. 상훈자에 대한 특권은 대의원추천, 명예칭호자의 외국여행 우선권 부여, 연금과 상여금지급, 무임승차권 부여, 형벌의 취소 및 감형, 금전 및 물품의 지급, 승진 및 진급의 우선권 등이다.

인민군의 징계는 군내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제화되어 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연대급 이하 단위부대에 영창제도를 두어 엄격한 개별적 징계를 가하여 오다 '붉은기중대운동'이 시작된 1960년대 초 이후에는 형식상 영창제도를 폐지하면서 대신 사상교화주의로 전환하였다. 처벌대상도 개별적인 처벌에서 소대, 중대 등의 단위까지 과오를 묻고 상호감시를 하며, 통상적인 지휘계통의 처벌과 아울러 당 또는 사로청에서의 자아비판과 책벌 등이 실시된다. 북한은 하사관급에까지 징벌권을 허용하며 전시에는 즉결처분 권한까지 허용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주의, 경고, 엄중경고, 작업, 당번, 외출금지, 강직, 강등, 강제제대, 당원의 권한정지, 출당, 징역, 사형 등이 있으며 특히 군, 당 및 체제에 관한 범죄자는 사단급 이상에 설치된 군법회의에 회부된다. 인민군의 군법회의는 2심제이나 대체로 1심으로 끝나며, 구두로 선포되는 주의와 경고를 제외한 일체의 기록을 영구히 남겨 제대 후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책:1516).

5) 제대와 그후의 진로

인민군복무조례에 따르면 일반 하전사의 복무연한은 육군 3년6개월, 해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과 공군은 4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상 만들어 놓은 규정일 뿐 거의 준수되지 않는다. 일반 하전사의 실제 복무연한은 8년에서 10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이다. 북한 청소년들은 제대할 때 대다수가 27세에서 28세가 되어 장기복무에 젊은 시절을 다 보내게 된다. 군관은 70년대 중반까지 규정에 상관없이 성분불량자와 병약자, 군법회의에서 처벌을 받은 자, 특명을 받은 자 등 특수한 경우 외는 원칙적으로 제대를 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김정일 수권체제 확립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 세대교체 과정에서 나이 많은 자, 학력 및 경력미달자들을 대폭 제대시키고 있다(서동익, 1987:143).

제대의 종류는 만기제대, 과령제대, 감정제대(의병, 의가사제대, 성분불량제대)로 구분된다. 만기제대는 8-10년 간의 정상적인 복무를 마치고 하는 제대이고, 과령제대는 8-10년 간을 다 채우지 못했어도 연령이 초과되어 하는 제대이며, 그리고 감정제대는 신체적 결함으로 더 복무할 수 없는 자나 정치범과 반당 종파분자로 가족이 교화소나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추방되는 경우와 성분재조사사업에서 악질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자에 한해서 강제로 쫓아내는 제대를 의미한다. 특히 성분제대자는 해당직장의 노농적위대에 편입되어 45세까지 지정된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다(북한연구소, 1983:1507).

제대절차는 인민무력부 대열보충국의 조정 아래 사단대열과에서 집행한다. 사단대열과는 인민무력부 대열보충국의 동의가 떨어지면 대상자에게 3-6개월 전에 알린다. 제대명령을 받은 자는 사단이나 군단에서 제대식(제대명령서와 식량정지명령서를 발부 받는다)을 마친 뒤 군사동원국으로부터 파견된 인솔자를 따라 각 도, 시, 군 군사동원부와 사회안전부를 거쳐 군사증과 공민증 교부수속을 한다. 이때 사단대열과에서는 제대자 중 핵심당원 몇명을 골라 대학에 추천하거나 입학시킨다. 나머지 대다수는 출신지역 군사동원부로 이첩된다. 제대군인 중 대학에 입학되는 젊은이는 대개 1개 사단에 10명 내외이다. 그것도 대학입학시기와 맞지 않으면 일단 임시직장에 배치 되었다가 대학 입학시기가 도래하면 들어가게 된다.

규정에는 제대군인의 적성과 전문기술, 그리고 희망직종을 고려하여 1차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고향지역 직장, 2차 고향근접지역 직장, 3차 타 도시 직장으로 제대군인을 배치한다고 제도화하고 있으나 북한의 현실이 제대군인의 다양한 개인적 희망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자율적인 선택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대명령서와 식량정지명령서를 받은 제대군인들은 부대에서 나온 호송군관을 따라 출신지역 도, 시, 군 군사동원부까지 집단적으로 이동한 후 인계된다. 제대군인을 인수한 군사동원부에서는 제대등록을 마치고 그들을 다시 인솔하여 도, 시, 군 행정위원회 노동부(과)에 인계한다. 행정위원회 노동부(과)에서는 다시 제대군인들의 출신성분과 군대 근무기록들을 파악하여 당 지도원, 사무원, 산업체 필수요원, 간부양성요원 순으로 필요한 인원을 빼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집단적인 무리배치를 한다(서동익:145-146). 제대군인들은 내정된 직장에 가서 직업배치 수속을 완료한 후 귀가하여 수일간(15일 정도)의 휴식을 취한 다음 직장에 나간다. 식량배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러한 전과정을 거쳐 북한 청소년들은 제대와 함께 직장배치를 받는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V. 직장 생활

북한헌법 제15조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을 금하고 있지만, 16세이상자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구별이 없는 것 같다. 북한은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와 계획경제를 기초로 삼는 사회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직장생활도 노동관리체계라는 기본틀안에서 이루어진다. 노동하는 환경과 조건을 살펴 본 다음에 일상적인 직장생활을 살펴 보았다.

1. 노동관리 체계

우선 경제전반에 관한 관리 원칙을 살펴 보고, 다음에 공장과 기업소의 관리에 기초가 되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협동농장의 관리에 기초가 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살펴 보았다.

1) 경제관리 원칙

북한은 계획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원칙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 북한 경제사전에는 "사회주의 경제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을 경제 관리원칙이라 하고 다음의 네가지 원칙을 제시한다(사회과학원, 1985:709-712).

(1) 당정치사업 우선의 원칙

경제조직사업에서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위주로 지도·관리하고, 정치사업 즉 인간관계사업을 중요시한다는 원칙이다. 노동자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물질적 자극(material incentive)보다 정치사상적 자극(moral incentive)에 중점을 두고 각종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의 전개도 이 원칙에서 비롯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2)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 배합의 원칙

사업추진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와 행정지휘관의 실무적지휘를 잘 조화시킨다는 원칙이다. 해당경제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인 당위원회는 경제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것이 잘 집행되도록 지도. 통제하고, 노동자들은 당조직사업과 사상교양사업에 따라서 경제관리운영과 생산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행정지휘관은 당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유일적으로 지휘하며, 그 결과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진다.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를 잘 배합하기 위해, 생산과 관리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생산대중의 집단적 지혜와 힘을 모아 풀어간다는 군중노선을 내세우게 된다.

(3)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원칙

사업계획은 당의 노선과 정책에만 따라야 하고, 모든 경제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이 서로 잘 연관되도록 계획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기관본위주의나 지방본위주의 등의 문제를 없애고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이 원칙을 잘 지키기 위해 경제관리의 중앙집권적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4) 독립채산제 실시 원칙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반영하여 정치, 도덕적인 자극과 물질적인 자극을 결합한 관리방법이다.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는 공장과 기업소는 은행신용을 이용하고, 독자적인 대차대조표를 만들며, 물자구입과 판매에 어느정도 융통성을 가진다. 사업평가에서 화폐지표를 활용하고 이익금에서 국가몫을 먼저 공제하고 남을 경우, 공장이나 기업소의 운영상태를 개선하거나 노동자들의 물질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기업소의 노임자금과 기업소기금의 적립규모 등 모든 경제관리를 정확하게 규정화하고, 재정의무 수행에 대해 엄격한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또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국가계획의 엄격한 수행여부를 감독받고, 기업소의 운영실적과 노동자의 노동에 대해서도 물질적, 정치적 평가를 받는다.

이 네 가지 경제관리원칙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는데 공업과 농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2) 대안의 사업체계

북한의 공업관리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데, 1961년 12월 대안 전기공장에 대한 김일성의 현지지도에서 시작되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30조는 "국가는 생산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선진적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 체계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한다"고 규정하였다. 노동법 제26조에서는 "국가는 사회적 로동조직에서 대안의 사업체제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 공장,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로동조직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로력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북한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는 이만큼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이전에는 지배인 유일관리제도를 채택하여 지배인 개인의 독단과 주관이 개입되어 관료주의와 기관본위주의가 발생하고 기업관리에 하부직원의 직접적인 참여가 곤란하다는 결함이 지적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청산리방법을 구현한 것이 대안의 사업체계라고한다(사회과학원, 1985:533-36).

청산리방법은 1960년 2월 김일성이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 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할 것, 둘째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을 도와주도록 현지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 셋째 사업의 긴급성에 따라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게 할 것, 넷째 모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범을 창조하고 이를 일반화하며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종합할 것(북한연구소, 1983:971).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당위원회의 집단적인 지도체계,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생산체계, 중앙집권적인 자재공급체계, 종합적 후방 (소비물자) 공급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첫째, 공장 당위원회가 최고의 지도기관이 되어 공장을 관리운영하고 당원, 기술자, 노동자가 기업관리에 참가한다. 당위원회의 지도는 당정책에 따라 경제활동의 방향과 방법을 집단적으로 토의, 결정하고 그 집행을 지도·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장당위원회의 집단적인 지도체계는 노동자가 기업관리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보장하고, 기업관리에 관여하는 활동가는 정치적인 요구에 따라 경제과제를 수행하고, 경제관리에서 중앙집권제 원칙을 관철하게 한다.

둘째, 통일적,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에서는 공산당위원회 밑에서 계획작성, 생산 및 기술지도사업을 기사장이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자재공급, 후방공급사업 등 공장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 및 경제활동은 지배인이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생산현장에서는 기사장과 지배인의 지도를 받으며 직장장이 책임지고 작업반과 작업분조를 지도한다.

셋째, 중앙집권적인 자재공급체계에서는 전문적인 자재상사가 중앙정부의 단일물자 공급계획에 의거해 각 기업소와 공장에 자재를 공급한다. 이 체계의 특징은 공장과 기업소의 지도적인 활동가가 자재확보란 복잡한 업무에서 해방되어 설비와 관리, 생산조직과 기술지도에 전념할 수 있고, 중앙에서는 생산과 자재공급계획을 동시에 장악하게 되므로 생산지도를 강화 할 수 있고, 자재상사는 각 기업소간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고, 자재공급활동이 생산지도와 결부되어서 자재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종합적 후방공급체계에서는 지금까지 근로대중의 생활문제를 기업관리와 무관한 것으로 취급하여 부식물공급조차 매우 부진하게 된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동자구 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장후방공급 부지배인을 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원장으로 임명하여 기업소 노동자와 노동자구 주민에게 생활필수품 수요를 종합적으로 충당하게 한다. 이 체계의 특징은, 후방부서가 생산현장 노동자에게 노동보호 물자를 직접 공급하고, 직장의 상점과 식료품공급망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부식물을 직접 공급하게 하고, 독신자나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 주어, 노동자가 생산활동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북한연구소, 1983:586-589).

대안의 사업체계를 도입한 후, 첫째 개인지도가 집체적 지도로 바뀌어 생산자 대중이 기업관리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고, 둘째 정치학습과 경제기술학습이 합리적으로 병합되어 경제성과를 올렸고, 셋째 작업반, 직장, 공장들이 협동생산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넷째 노동자의 물질적 기반과 물자의 공급이 원활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북한연구소 1983:71-72).

3) 새로운 농업지도 체계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농업에 대한 기업적 지도체계를 의미하며, 1961년 12월 김일성이 평안남도 숙천군에서 현지지도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체계의 근본내용은 중앙(중앙농업위원회)에서 도(도농업경영위원회)와 군(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 이르는 일관된 체계를 중앙이 통일적으로 지도하면서 조선노동당의 농업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군농업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군내에 있는 농기계작업소, 농기계 공장, 관개 관리소, 자재공급소, 가축방역소 등을 직접 운영하여 농업협동조합들에게 더 잘 복무하게 되었다(아세아문제연구소, 1969-92 V: 575).

이 지도체계에서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아래 농업경영을 관리한다. 둘째,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을 늘 돕고 일체의 활동에서 정치활동을 행한다. 셋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칙이 구현되었다. 넷째, 농업생산과 경영을 과학적 기업적으로 지도 관리한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최대 우월성은 협동농장을 기업적으로 지도관리함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으로써 농업관리의 수준을 공업관리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기업적 지도관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업적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획의 작성부터 시작해서 생산의 조직, 기술의 발전, 자재의 보장, 노동자의 배치와 조직, 기업소의 재정활동 등 모든 기업활동을 직접 파악. 조직하고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조선노동당 1979:124).

기업적 지도방법에는 3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되는데, (1)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 (2) 농업경영활동의 계획화, (3) 농업의 조직운영 강화이다.

(1)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

농업의 생산공정은 기술수단을 이용하는 기술공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술공정에 대한 지도는 농업지도의 기본이 된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농업의 기술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해 지도기관 내부의 기구와 부서를 합리적으로 재편성하였다. 기계기술체계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 농업기계부를 설치하고, 군농업기계 작업소와 농기구공장을 직접 운영한다. 관개기술지도 체계는 군협동농장 위원회에 관개건설부를 두고 관개관리소를 운영한다. 생산기술 지도체계는 기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기술부와 과실, 잠업부, 수의 축산부 등의 기술집단과 협동농장의 기술자로 이루어지고 농업기술적 생산활동에 종사한다.

(2) 농업경영활동의 계획화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관할하에 있는 기업소와의 관계에서 항상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간다. 그래서 생산자의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를 막고, 당의 정책에 따라서 계획을 작성한다. 이렇게 농업의 계획화에서도 중앙집권적인 지도가 실현되었다. 또 계획기관이 항상 생산현장에서 계획화사업을 지도·통제하게 되었으므로 농민을 계획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3) 농업의 조직적 운영의 강화

협동농장경영은 독자의 경영체로서 개별적인 협동농장경영에서 상호간의 연계는 없으므로 경영의 산만성과 비조직성이 생겨나는 원인이 된다. 이 문제는 협동농장경영과 국영기업경영의 연계를 강화하는데서, 즉 국영 봉사기업(농업기계제작소, 농기구공장 등)과 협동농장의 통일적 연계에서 해결한다. 새로운 농업지도 체계에서는 협동농장경영의 조직화를 향상시킴으로써 공업과 같이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영활동 조직화체계가 확립되었다. 이 체계에 포함되는 것은 자재공급부문, 노동력관리부문, 재정부기에 대한 지도부문, 후반공급부문 등이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농업과 공업사이의 생산적 연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유기적 결합도 실천한다. 첫째, 농업생산과 관련된 물질적, 기술적 수단과 기술집단을 직접 장악하고 협동농장을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한다. 둘째, 농업경경에 대한 국가의 물질적, 기술적 원조가 결정적으로 강화되었다. 농업을 공업에,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에 점차 강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농업의 공업화가 실현되어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해 간다.

새 지도체계는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를 도입했다. 이제도는 농업의 생산단위인 분조에 토지, 노동력(10-25인) 농기구 등을 구비하고 국가계획에 따라서 분조마다 1ha(헥토아르)당 수확기준을 정하고, 책임량의 수행 상황에 근거해서 분조원들의 노동일수를 평가하고 노동일수에 따라 분배하는 노동과 생산의 조직형태이다. 이 제도는 1965년 5월 김일성이 강원도 충양군 현지지도를 통해 창설되었다. 이 제도는 농촌 집단생활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이전의 작업반(50-100명) 규모를 줄인 공동경영을 통하여 농민의 집단주의 정신을 강화시키는 조직형태다. 각 분조는 일정규모 농업생산의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일정면적의 전답과 축력, 그외의 생산도구는 고정시킴에 따라 농민의 생산활동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즉 인접한 세대를 원칙적으로 한개의 분조로 조직하여 농업집단생활의 세포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되게한다(편집위원, 1988:165-171).

앞에서 살펴본 노동관리체계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노동자들의 구체적 노동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2. 노동 조건

북한 청소년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이해하자면, 노동과정은 어떤식으로 조직되어 있고, 사회주의 노력경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그들의 노동시간과 임금같은 노동조건은 어떤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노동 조직

기업소나 공장에서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노동력의 낭비를 막아 사회 전체의 생산능률과 1인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노동조직이 필요하다. 북한 노동법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이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 수준에 맞게 능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30조)"고 규정했다.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지향점은 노동력을 점점 비생산부문에서 생산부문으로 옮기는 일이다. 노동법 제28조는, "로동행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부문 로력자수의 우선적 증대를 보장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 로력자수를 규정하는 원칙에서 로력을 배치하며 직접부문 로력의 비중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력의 효율적 사용과 낭비를 막기위해 로동법은 또, "국가기관, 기업소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로력이 남을 때에는 제때에 다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생산적 작업에 대한 림시 지원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34조)고 못박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로력을 마음대로 다른일에 동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35조)고 했다(대륙연구소, 1990, 4:260-269).

이런 노동조직의 합리화는 노동규율의 엄수, 책임량 달성의 원칙, 감독기능의 강화, 그리고 연대책임제와 함께 진행되어 생산력 증대가 이루어 질 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있게 되었다. 구체적인 노동조직을 살펴 보면 (3급기업소), 지배인과 기사장 밑에 3-4개의 직장이 있고, 각 직장은 다시 3-4개의 직공으로 나누어지고, 각 직공은 3-5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1개 작업반은 20-30명의 노동자로 이루어지는데 일의 성격에 따라 작업을 나누어 담당한다.

중앙에서 도·시·군을 통해 기업소에 생산책임량이 할당되면, 다시 기업소내에서 직장, 직공, 작업반 별로 목표량이 정해진다. 한 작업반이 다른 작업반을, 한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도와서 전체적으로 목표가 달성하기도 하는데, 낙오자에게는 책임추궁이 있고 낙오자를 도운자는 공로가 인정되어 좋은 평가를 받는다.

북한 노동조직의 특징은 다른 조직(교육, 군대, 행정)과 마찬가지로 항상 당조직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업소에서는 경영조직인 지배인과 기사장, 그리고 생산조직에 소속된 당원들로 당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여기서 여러가지 문제점과 작업방향 등이 토의된다(북한연구소, 1983:959-600).

북한직장에서의 상하관계는 철도, 탄광, 수산업 등 특수분야에서는 작업안전을 위하여 규율과 위계질서가 엄격하지만, 그밖의 분야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융통성이 있다고 한다. 당방침의 한계안에서 집단지배의 원칙이 적용되어 상사의 독단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정기적 승진이나 진급은 없고 기술직의 경우 시험을 통해 급수가 높아지고, 그외는 그 분야에서 쌓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 진급 요소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의사의 경우 6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의과대학을 갓 졸업하면 6급이고, 3년마다 급수시험을 쳐서 1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승진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작업반장까지의 승진이고 그 이상의 승진은 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한다.

2) 노력경쟁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북한이 부족한 자본과 낙후된 기술수준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노력동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생산증가와 물자절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작업반, 공장, 기업소를 단위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하여 전인민적 노력경쟁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이 북한주민을 공산주의 인간으로 개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노력성과는 개인, 작업반원, 공장직원들의 정치, 사상교양의 척도로 평가되고, 노력경쟁운동은 점점 확대 심화되었다. 대대적인 노력경쟁운동은 1950년대에 시작된 천리마운동과 1960년대에 널리 퍼진 속도전 운동이 있다.

(1) 천리마 운동

이 운동은 생산설비능력은 6만톤인데 실제로 12만톤을 생산했다는 강선제강소를 본보기로 삼고 시작되어, 대중들의 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사회주의적 노력경쟁운동이다. 이 운동의 본질은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 개조하여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묶어 세우며 그들의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한다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한홍구, 1989:113). 이 운동은 북한주민 전체의 혁신운동으로 급속히 확대 발전 되어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이 되었다.

천리마란 "하늘을 날고 천리를 달린다"는 전설의 말을 가리키는데, 북한정부는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려나가자"고 대중에게 호소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1957-61)을 강력히 추진해 나갔다. 이 운동의 결과로 1957년 북한 공업총생산은 전년에 비해 44%나 증가하고, 5개년 계획은 4년만에 달성하고, 60년까지 4년동안 공업총생산이 3.5배, 연평균 성장률이 36.6%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NK회, 1991:203). 천리마운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다. 첫째 모든 인민에게 계급과 혁명에 대한 교양을 실시하고 노동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둘째 공업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업, 건설, 운수, 사업,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삼았고, 셋째 개인이 아니라 생산단위인 작업반을 단위로 삼았고, 넷째 장기적인 군중운동이었다.

천리마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작업목표를 초과달성한 작업반에 "천리마작업반"이란 칭호를 주는 운동인데, 1959년 3월부터 강선제강소 진응원 작업반에서 시작되어 인민경제 각 분야에서 전 인민적 운동으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전파되었다. 이 운동에 참여한 각 작업반, 직장, 공장, 학교 등의 6개월간 사업성과를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합격하면 천리마칭호를 준다. 한 직장안의 여러 작업반이 모두 작업목표를 초과달성하면 천리마직장이 되고, 한 공장안의 여러 직장이 모두 초과달성하면 천리마공장이 된다.

이 운동의 중심과제는 첫째, 사람과의 사업(사상혁명)을 잘 하는 것이고, 둘째, 설비자재와의 사업(기술혁명)을 잘 하는 것, 셋째, 책과의 사업(문화혁명)을 잘 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급속히 발전하여, 1960년 2월에는 3000여개 작업반의 5만명이 참가하여 228개의 천리마작업반이 탄생했는데, 1977년에는 6만4천 작업반의 15만6천여명이 참가하여 1만3천 작업반이 천리마 칭호를 받았다. 이 기간에 천리마직장은 2천6백여 곳, 천리마공장은 4백여 곳이 되었다.

천리마작업반 중에서 다시 노력성과와 사상무장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리면 이중천리마 작업반이 되고, 이중천리마 작업반중에서도 특출한 작업성과와 공산주의 사상교양의 모범을 보인 작업반은 천리마영예상을 주었다. 천리마영예상은 1971년에 제정되어 그 첫 수여식이 그해 4월 14일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김일성이 직접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그후 해마다 김일성생일을 전후해서 시상되었는데 1972년에는 37개 작업반이, 1973년에는 40개 작업반과 14개 인민반에 수여되었다.

또 천리마학교 제도가 있는데, 사로청 중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직업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수여한다. 천리마학교 심사기준은 당의 교육노선과 방침의 관철, 교내 학생전원이 우등성적에 도달, 학교내 엄정한 규율확립, 무단결석자가 전혀 없고 95% 이상 출석률 보장, 학생들의 사회운동에 대한 헌신적 봉사, 무사고 등이다(북한연구소, 1983:972-77, NK회, 1991:203).

(2) 속도전 운동

천리마운동이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노선이라면, 속도전운동은 기본노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사업에서 벌이는 증산운동이다. 속도전이란 "모든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서", "최단기간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적 전투형식이며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라는 것이다(한홍구, 1989:144).

① 평양속도

이 운동은 5개년계획에 따라 추진된 1958년의 평양시 복구건설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그해 2월 수도건설노동자로, 1600여명이 모여 7천세대분의 자재와 자금으로 1만7천세대의 살림집을 짓기로 결의하자, 강선노동자들은 애초 계획보다 1만여톤이나 더 많은 철강을 생산해 평양으로 보내주기로 했다. 해주 승호리 세멘트공장에서는 1만2천톤의 세멘트를, 남도 유리공장에서는 15만 4천 평방미터의 판유리를 더 생산해서 평양 건설노동자들을 돕기로 결의하고 추진했다.

또한 주택건설에 조립식 방식을 새로 도입해서 이전의 방법보다 7.3배나 빠른 속도가 창조되었다. 평양의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은 1개월사이에 40리나 되는 대성산 유보도 공사를 끝내고, 대동강 호안 공사장에서는 5개월분의 작업량을 1개월만에 완수하였다고 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평양에서는 7천세대분의 자금과 자재로 2만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18개월만에 완성하고, 그밖에 옥류관, 옥류교, 교예극장, 청년궁전, 청년거리 등 기념비적 창조물을 건설하였다(북한연구소, 1983:977 -78).

② 비날론 속도

이운동은 1961년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비날론 공장건설에서 있었던 증산운동이다. 4월 1일 김일성이 현지지도한 때를 계기로 「4.1 돌격대」, 「8.28 돌격대」, 「백두산 돌격대」 등 200여 개의 건설돌격대를 조직하여 건설작업을 전장에서 전투를 벌이듯 치열하게 전개했다. 그 결과 하룻밤 사이에 1만 입방미터의 흙을 처리하고, 500-600톤의 콘크리트를 다졌고, 10만개의 벽돌을 쌓았다고 한다. 또 보통속도의 35배나 되는 조립속도를 창조하여 보통 10일 걸리던 생성탑 조립을 단 6시간에, 한달이상 걸려야 할 내장관 조립을 단 5시간에 완수하였고, 1년 걸려야 할 40미터 높이의 굴뚝을 13일 만에 쌓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았다고 한다. 비날론속도 운동에서는 하루계획의 100% 달성은 수치이고, 500% 달성은 수수하고, 1,000% 달성은 괜찮은 편이고, 3,500%를 넘어야 비날론 속도 칭호를 받았단다(북한연구소, 1983:978).

③ 70일 전투속도

이 운동은 6개년 계획을 당 창건 30돌(1975)이 되는 때에 맞추어 예정보다 일찍 끝내기 위해 1974년 10월 6일에 시작했다. 이 기간에 전국 총 공업생산은 약 1.7배로 뛰어 올랐고, 하루 생산량은 그전에 비해 평균 1.8배, 철광석은 1.8배, 유색 금속광은 1.6-2.8배, 트랙터는 3.6배, 화학비료는 1.4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1973, 1974년 두해의 연이은 풍작으로 6개년 계획 목표인 알곡 700만톤 생산을 일찌감치 완수했다. 북한은 70일 전투를 "천리마 진군을 다그쳐 온 우리나라 공업발전은 역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최고의 성장속도"라고 자랑하면서, 1975년 10월10일 당창건 30주년 기념일 이전인 75년 8월말에 6개년계획을 1년 4개월 앞당겨 완수했다고 선전했다(북한연구소, 1983:978-79).

이와 같은 속도전은 엄청난 노동강도를 요구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모든 것을 맨손으로 건설해야 하는 북한주민들은 한편으로 그 성과에 큰 자부심을 가졌으나, 또 한편 상당히 지쳐 있었다. 그래서, 북한 정부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대중자신의 사업이 되도록 사상사업과 정치사업을 우선시하여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주력했다(한홍구, 1989:140).

이밖에도 종합운동으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도시공장-기업소에서는 공장능력돌파운동, 별따기운동, 국안먹기운동, 농촌에서는 천삽뜨기운동, 허리안펴기운동, 아홉번 논김매기운동, 어촌에서는 300일 출어운동 등이 있었다.

3) 노동시간과 임금

북한 노동자의 하루생활은 노동, 학습, 휴식으로 나누어진다. "국가는 근로자의 노동생활 조직에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과 휴일과 학습을 옳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게 배합하여 근로자의 로동을 정규화하고 학습을 정상화하며 휴식을 잘 보장하여야 한다"고 로동법 33조에 규정했다. 순 노동시간은 1일 8시간씩 일주일에 48시간으로 로동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준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한다.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로동자들은 하루 로동시간을 6시간으로 한다"(16조). 그러나 실제로 하루에 8시간만 일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과중한 노동정량과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연장근무를 하게 되고, 매일 학습과 총화를 해야하므로 보통 12시간 정도 직장에서 지내게 된다.

사람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 북한 로동법에는 휴일과 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은 쉬는 날로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 날에 근로자들을 로동시킨 경우에는 한주일 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주어야 한다"(64조).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65조). 실제로 남자들은 휴가를 반납하여 임금을 더 받고, 여자들은 가을 김장철에 법정휴가를 신청해서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27조는 "로동의 양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이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 로동법 제37조는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했다. 즉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란 원칙을 세워 놓았다(대륙연구소, 1990, 1:26-57; 4:260-69).

임금은 정액지급제와 도급지급제가 있는데 노동자, 농민에게는 도급지급제가 적용되고, 의사, 교사, 사무원 등은 급수에 따른 정액지급제가 실시되고 있다. 도급임금제의 산출기준은 개인보다는 작업반단위로 노동기준량을 정하고 생산량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노동정량은 1년단위로 재조정된다고 한다. 정액지급제의 경우 직분과 급수에 따라 임금에 차이가 있는데 급수는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1급부터 8급까지 있어 급수가 높을수록 액수가 높고, 기술직은 3년에 한번씩 급수 진급시험이 있다고 한다.

1991년 현재 주요 계층별 임금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11〉 주요 계층별 임금수준

구 분	직 책	보 수
당·정기관	○당·정무원 부장	300-350
	○정무원 부부장급, 도인민위원장급	250-300
	○도인민위 부위원장 및 군인민위원장급	170-200
공장·기업소	○특급기업소 지배인	250-300
노동자·사무원	○1-2급 기업소 지배인 및 기사장	150-200
	○광부, 제철, 제련공	90-100
	○일반기계공, 운전기사	75-80
	○일반노동자	70-80
	○사무원	60-70
편의시설기관	○여관, 식당, 이발소, 상점 등 종사자	50-80

기본임금 외에 가급금이 있는데 연합가급금, 기술가급금, 항해가급금, 유해가급금 등이 있고, 식량, 부식, 의복, 공산품 등을 배급하는 현물대가도 있다. 북한에는 세금이 없으므로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빼지 않는다.

농민은 협동농장에서 1년간 농사에 투자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현물과 현금을 분배받는데 1인당 노동의 양과 질을 매일 평가한 노력공수의 총계로 결정된다. 협동농장이 1년간 생산한 총량에서 농사에 드는 공동비용(사료, 종자, 비료, 농기계임대, 수리비 등)을 뺀 나머지를 노력공수를 기준으로 분배한다. 1인당 연간 책임량은 350공수 정도이며, 노력공수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밭갈이 2,000평과 모내기 200평은 각각 공수 1.5, 퇴비운반 10달구지와 제초작업 150평은 각각 1.25, 파종 400평과 시비 100평은 각각 1.0, 새끼꼬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5kg은 0.75이다(통일원, 1992:286-88).

〈표 12〉에 의하면 북한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화폐수입은 약 6대 1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다(통일원, 1992:286).

근로자 수입의 실질구매력은 물가와 비교해야 알 수 있다. 북한에서는 경제계획의 필요에서, 노동투하량과 그 상품의 사용가치를 평가해서 가격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가격결정에서 대중소비품은 낮게, 사치품은 높게 정한다. 곡물가격은 이중곡가제를 실시해서 아주 낮게 정하지만 공급량이 부족해서 암거래 시장이 형성되고 거기서는 아주 비싸게 거래된다.

또 농민시장이 각 시·군 구역에 2개씩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터밭이나 가내 작업반에서 만들어진 채소나 사소한 생필품들이 거래된다. 주요 생필품 가격(1982년 현재)은 쇠고기(1kg) 7원5전, 달걀(10개) 1원 70전, 무우(1kg) 5월엔 20전 9월엔 10전, 된장(1kg) 18전, 냉면(1그릇) 50전-1원, 소주(1병) 2원 50전, 담배(갈매기 1갑) 1원이다(북한 연구소, 1983:962).

3. 직장 생활

북한의 11년제 의무교육이 끝나는 고등중학교 졸업반은 인생의 제1차 분수령과 같은 때이다. 그때까지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고 자라는 수혜적 입장에서 공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책무적 입장으로 바뀌는 시기이며, 또 대학진학, 군입대, 또는 직장취업이라는 세갈래 길에서 자기의 갈 길이 결정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이때에 진로가 결정되면 그것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70조는 "로동력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시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1) 직장 배치와 하루생활

북한 주민의 직장배치는 중앙집권적 계획에 따라 결정되고 각 부문별 수요대로 무리배치(집단배치)된다. 직장배치에서 제일 중요한 판단기준은 출신성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분과 당성이요, 다음이 건강, 능력, 성적이란다. 고등중학교 졸업예정자들은 졸업하기 3개월 전에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부에서 배부하는 서류(이력서, 자서전, 신원진술서, 취직희망서, 신원보증서)를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정서를 학교장이 작성하여 학교정치담당 부교장을 거쳐 다시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부로 넘어간다. 각 노동부는 이 문건을 심사하여 직장을 배치한다. 군제대자의 경우, 출신지역 시·군행정위원회 노동부에서 제대군인들의 출신성분과 군대 근무기록들을 파악하여, 당지도원, 사무원, 산업체 필수요원, 간부양성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여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는 집단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직장에 배치한다.

직장배치는 각 도단위로 이루어지며, 배치된 각 도에서는 지방 간부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좋은 직장에 배치되고, 연고가 없고 또 출신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탄광이나 협동농장에 배치되기가 쉽다고 한다. 일반서민에게 인기있는 직업과 직장은 자동차와 트럭운전수, 조리와 식료품에 관계되는 직장이고, 간부들의 자녀들에게는 최근에 늘어난 외국인용 호텔과 외환상점의 종업원 자리가 인기있단다(서동익, 1987:4장; NK회, 1991:146).

도시에서의 직장생활은 보통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작업반 단위로 출근확인을 한 후 약 30분간 독보회를 하는데, 로동신문의 사설이나 당의 지시문을 읽는다. 그후 작업 조직 및 배치가 개인, 분조, 작업반 단위로 실시되며, 50분 노동에 10분 휴식이 원칙이다. 오전 일과는 12시에 끝나고 1시 (가끔 2시)까지 점심시간인데 도시락을 싸오던가 집에 가서 먹으며 구내식당은 없다.

오후 6시에 기본 일과가 끝나면, 작업반 별 (또는 직장별)로 약 1시간 동안 작업총화가 있다. 작업총화란 직장지배인과 당비서를 중심으로 하는 하루 일과에 대한 평가와 반성인데, 직장뿐 아니라 학교, 군대 등 어떤 조직에서도 일반화된 일과이다. 그후 각종 회의나 학습이 진행된 뒤 사무원은 오후 7시, 노동자는 8시 경이면 퇴근하게 된다. 직장에서 지각이나 조퇴, 결근이나 병가 등은 엄격히 통제되는데, 지각 3일이 겹치면 하루 결근으로 계산해 식량 배급량에서 1일분을 공제한다. 무단 결근은 식량배급에서 결근일수 만큼 공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하고, 조퇴는 자기 책임량을 완수하고 나가야 한다. 병가는 진료소장의 진단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루 일과가 끝난 다음에는 누구나 하루 1-2시간씩 1주일에 2-3번 학습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대개 당정책 학습회, 김일성 교시 및 약전 학습회, 신문 독보회, 시사토론회, 그밖에 수시로 제기되는 당지시학술회 등을 하는데, 최근에 사상학습이 증가하고 가끔 기술학습이나 위생, 문화 학습도 한다.

북한에서 직장은 주민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식량과 의복 등 모든 물자의 공급과 주택 공급까지도 직장 단위로 배정되고 그밖의 모든 생활이 집단과 조직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부녀자들이 가내부업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 수입으로는 식량을 살 수가 없다.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피부양자가 아니면 각종 배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사람이 만 18세가 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전의 여성들은 대부분 직장에 다니게 된다(안계춘, 1989:40-42;통일원, 1993:134).

2) 여성의 직장생활

남녀 평등이 잘 이루어진 북한 사회라 하더라도, 직장생활에서 여자청소년들은 직종이나 임금 등에서 남자들과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북한은 전 주민의 노동계급화를 추구하면서 1958년에는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위한 정책으로 "인민경제 각부문에 여성들을 더욱 인입시킬데 대하여"라는 내각결정 84호를 공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여성들이 사업할 수 있는 남성로력을 점차 교체하며 앞으로는 여성들이 사업할 수 있는 부문에 증가되는 로력은 반드시 여성들로서 보충할 것, 여성들의 취업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탁아소, 유치원, 공동세탁소 등의 편의시설을 기관, 기업소의 기존 건물로 이용할 것인바 이것이 관련할 경우 기본건설 계획을 조절하여 신설 및 확장 할 것" 등이다(김애실, 1991:185).

이런 정책을 추진한 결과 여성 노동인력이 상당히 증가해서, 1956년에는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전체 노동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 였는데 1964년에는 38.5%가 되었고, 여자노동자수는 17만에서 80만 5천으로 늘어 약 4.7배가 되었다. 같은 기간에 남자 노동자 숫자는 68만에서 128만 7천으로 늘어 약 1.9배가 되었다. 북한 전체 노동자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서 1988년에는 49.0%가 되었다고 한다(같은책:187).

전체 여성노동력의 증가에 따라 여성 전문가 및 기술자도 많이 늘었다. 1963년에는 전체 전문기술자 중에서 여자가 14.6%이던 것이 1989년데는 37%로 놀었고, 그 숫자는 4만 3천에서 45만 7천명으로 늘어나서 약 10.6배가 되었다. 같은 기간에 남자 전문기술자는 25만 1천에서 60만 4천으로 늘어서 약 2.5배가 되었다. 이만큼 여성 전문기술자들의 증가비율이 컸다(같은책:195).

북한 여성의 직업노동 참가율은 도시와 농촌, 미혼자와 기혼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업과 신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대도시와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낮다. 대도시에서는 여자들이 공장, 식당접대부, 점원 등 비교적 가벼운 노동을 하기 때문에 노동 참여율이 높고, 농촌에서는 협동농장에 강제로 배치받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다고 한다. 기혼여성의 70-80%가 직업을 갖지 않고 미혼여성의 노동참가율이 90%를 넘는데, 처녀가 결혼을 하면 10명중 6-7명은 직장을 그만둔다고 한다. 기혼여성은 직업을 갖지 않아도 가내작업반에서 일감을 가져와 신발을 만들거나 삯바느질을 하여 돈을 벌 수 있고, 18세가 넘은 미혼여성들은 직업이 없으면 식량배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 남편의 직위나 신분이 높아서 정무원 부부장 (차관급)이상이나 기업소 소장(사장급)이상이 되는 여성들은 직업을 갖지 않고 일반 사무원이나 노동자의 배우자들은 대부분 직업을 가진다는데, 남편의 소득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 같다(김애실, 1991:193).

북한의 법령은 노동에서의 남녀평등과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 56조는 공민의 노동할 권리와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따른 임금을 보장하고, 남녀 평등권 법령 1조는 여성의 평등권을, 3조는 동등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노동권과 동등 임금권을 규정하였다. 사회주의 로동법 31조는 여성노동을 위한 탁아소, 유치원의 설치나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의 설치를, 37조는 사회주의 분배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를 보장했다. 로동법 59조는 여성노동의 보호와 유해노동금지를, 66조는 산전산후 휴가 등을 규정하였다. 이런 규정들은 실제로 잘 시행되고 있으며, 산전 산후 휴가는 법령 규정의 77일보다 더 많은 150일이 주어진다고 최근 귀순한 사람들은 말한다. 북한이 자랑할 만한 여성노동의 모범적 조건은 탁아소와 유치원 시설이다. 1991년 현재 6만여 개의 탁아소와 유치원이 166만 명의 아동을 수용하였다는데 직장여성 대부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윤미량, 1991:205).

그러나 여성 노동력은 주로 임금이 싼 직업에 집중배치되기 때문에 노동의 질에 따른 임금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다. 1970년대초에 여성인력은 인민학교 교사(80%), 경공업부문(70%), 농업부문(60%)에 집중되었고, 고등중학교 교사(35%), 임업(30%), 광산과 탄광의 지하노동(20%), 중공업부문(15%), 대학교수(15%)에도 진출했다. 그런데 여성들이 많이 배치된 인민학교교사와 경공업부문의 평균임금이 70-80원선이고, 평균임금이 150-200원 되는 기업소 지배인이나 대학교수직에는 여성이 적게 배치되었다(김애실, 1991:194; 윤미량, 1991:202).

북한 여성의 직업생활에서 가내작업반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내작업반의 설치배경을 살펴보면, 북한의 경제정책이 기간산업과 중공업분야에 중점을 두다가 80년대에 들어서 주민생활 향상과 직결된 경공업분야에 정책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84년에 「8.3인민소비품 생산확대운동」을 벌이면서 북한 전역의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가두인민반 등 모든 생필품 생산단위들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기혼여성들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하는 가내작업반을 두게 되었다(김애실, 1991:211).

"북한에 가내작업반이 많습니까?"라는 질문에 귀순자 김성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북한에서는 정년퇴직이 여자는 56세, 남자는 62세인데 농촌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내작업반의 일을 한다. 직물기계로 쉐타도 짜고, 선풍기와 플라스틱 그릇도 만들고, 뜨개질로 장갑도 짜고, 천조각을 모아 벙어리장갑도 만든다. 주로 직장에 못 나가는 여자들이 가내작업반을 이용한다. 그리고 시집가기 전에 노는 여자는 없다. 누구나 다 직업이 있다.

가내작업반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탄광같은 곳에서는 갱내안전모와 채반등을 생산하고, 도시의 백화점이나 종합상점에서는 거의 모든 생필품을 생산하고 자체의 직매점을 통해 구역내 주민들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상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농촌지역에서는 터밭을 개간한다거나 닭, 돼지, 염소등을 사육하여, 콩나물, 도라지, 두부, 염소젖, 고기가공 등과 같은 부식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협동농장이나 공장에서는 그 공장의 폐설물과 부산물 또는 유휴자재등을 이용하여 옷걸이, 편물, 일용잡화, 신발 등을 생산하였다.

공장이나 인민반에서는 근로자들이 부업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구역별로는 직장이 없는 70-80%의 기혼여성들과 노인들을 대거 흡수하여 생산에 종사케 한다. 참가인원은 서너명에서 수천명이 되기도 하고, 20-30개의 작업조를 가지고 100-500명이 참가하기도 한다. 인원수는 점점 더 늘어서 평양 선교구역의 경우 5천여명이 6천여 종류의 생필품을 생산한단다. 특히 인민반이나 공장에서는 생산품의 20%를 국가에 바치고 80%는 자체내에서 매점을 통해 팔 수 있어서 열심히 일할 의욕을 돋구어 준다(윤미량, 1991:212).

3) 농민의 직장생활

남자와 여자 청소년들의 직장생활에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도시와 농촌 사이에도 청소년들의 직장생활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북한도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하면서 농민의 숫자가 상당히 줄었다. 1946년에 농민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전체 직업인의 약 4분의 3인 74.1%를 차지하였다가 농업의 집단화가 완료된 뒤 1960년에는 절반도 못되는 44.4%로 줄었다가, 1987년에는 약 4분의 1인 25.3%가 되었다(박길성, 1992:163).

북한은 개인농업을 협동조합화하는 일을 1958년에 완료하여 토지, 농기구, 가축 등 생산수단 일체를 협동조합 소유로 하고, 대형 농기계나 수리시설은 국영 농업기계제작소나 관개관리소가 보유·운영하면서 농장의 요청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후 1962년에는 김일성이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농업정책의 기본을 제시했다.

농민문제와 농촌문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야만 종국적으로 해결된다"고 주장했다(아세아문제연구소, 1969-92 Ⅵ:304).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둘째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셋째 농촌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 수준에 부단히 접근시키고,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연결을 강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에 무한히 접근시켜야 한다고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같은책, 304-331)

협동농장은 군당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의 정치.행정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를 받으며, 리단위로 약 3,700 개의 협동농장이 조직되었다고 한다. 1개 협동농장은 평균하여 약 300가구가 약 500정보의 토지를 경작하며 개인농가는 20-30평의 터밭에서 채소등 농사도 짓고 닭, 돼지등 가축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의 협동농장은 농사활동의 기초단위로 약 8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되고, 공동소유의 농기구를 사용하여 작업반 단위로 집단적 노동을 수행한다. 한 작업반은 다시 5-6개의 분조로 나뉘는데 한 분조에 7-8개 세대의 15-20 농장원으로 구성된다.

협동농장의 결산분배제도는 대개 추수와 탈곡이 끝나는 11월 이후에 실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된다. 1년간 현물 및 현금 총수입에서 국가납부와 생산적 지출을 공제하고, 협동농장 자체의 공동축적기금과 공동소비기금을 빼고, 대개 총생산물의 40-45%가 되는 나머지를 가지고 각자의 일년간 노력일에 따라 분배한다. 여기서 생산적 지출은 총생산액의 약 29-32%가 되는데 종자, 사료, 비료, 농기계작업, 관개사용, 농기구 구입등에 든 비용을 포함하고, 공동 축적기금도 농장 자체가 추진하는 시설 확장기금을 말하며 총생산액의 약 10%가 되고, 공동소비기금은 사회문화기금, 원호기금 등을 포함한다. 또 노력일은 농장기준 작업 정량표에 따라 평가된다. 분배량 결정 방법은, 첫째 기본적인 분배, 둘째 작업반 우대제 실시하에서의 분배, 셋째 분조 도급제 적용시의 분배 등 3가지 방법이 있다(통일연수원, 1993:115-117).

농사는 보통 1년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생활모습이 달라진다. 북한에 이년동안 유학한 소련청년이 북한 농촌생활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농사는 보통 3월에 시작되는데 벼못자리와 채소온실 만드는 일을 먼저한다. 벼못자리는 논의 한 귀퉁이에 아취형으로 구부러진 막대기들을 세우고 그 위에 비닐이 팽팽하게 덮여지는데 그 높이는 약 40cm가 된다. 짚으로 만든 돗자리를 수직으로 세워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주위를 파서 배수로를 마든다. 그 다음 양수기를 작동시켜 묘판에 물을 대준다. 4월에는 시금치가 수확되고 옥수수밭을 일군다. 5월이 되면 모내기가 시작되는데 학생들이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논에 나와 농부를 돕는다. 모내기를 기계로 하는 곳도 있고 손으로 하는 곳도 있다. 5월 중순이 되면 배추가 수확된다. 6월이 되면 김매기가 시작되어 들판 길가에는 구호판들이 꽂혀 있는 데 구호내용은「모두 모내기 전투로!」에서「모두 잡초 김매기 전투로!」 또는「제초작업에 만전을!」로 바뀐다. 논둑에는 채소와 콩을 심고, 옥수수 밭도 김메기한다. 이때쯤 논에 비료를 주는데 한손에 비료가 담긴 양철통을 들고 다른손으로 그 가루를 논에 뿌린다. 날아다니는 해충 제거방법으로 남포불을 사용하는데, 통나무막대 위에 물이든 양철통이 붙어 있고, 그 위에는 기름잔이 있어서, 밤에 기름잔에 불이 켜지면 벌레들이 날아왔다가 양철통 물속으로 떨어진단다. 7월에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는 양배추를 수확하는데, 양배추는 옥수수밭 근처에 따로 심든가, 한고랑엔 양배추를 다른 고랑엔 옥수수 하는 식으로 심기도 한다. 8월이 되면 피사리를 하는데 농부들은 허리춤에 바구니를, 손에는 낫을 들고 논으로 들어가 보통 키 이상으로 자란 잡초를 잘라 바구니에 담는다. 8월말이면 옥수수를 수확하는데, 옥수수 줄기는 잘라서 거두어 들인다. 수확기에 농작물을 훔치는 좀도둑이 많아서 망루대를 만들어 감시한다(쿠르바노프, 1990:98-106).

북한 농민의 하루생활은 소속된 협동농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일과는 비슷하다. 북한 농민들은 대부분 새벽에 마을의 종소리나 사이렌에 따라 기상하여 지정된 장소에 작업반이나 분조별로 집합하여 15-30분 동안 조회를 한다. 조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작업도구를 준비하고 다시 나와 분조마다 할당된 작업량에 따라 출근전 작업을 한다. 그후 집에 돌아가 아침밥을 먹고 8시까지 농장에 출근해 분조별로 작업량을 할당받는다. 오전 작업은 12시까지인데 중간에 10시쯤 15분간의 휴식시간이 있다. 오후 3시까지 점심식사 겸 휴식시간이고, 오후 작업은 7시경에 작업총화를 해서 그날 각자의 노력공수가 발표되는 것을 듣고 집에 간다. 농장원도 거의 매일 정치학습이나 회의에 참가하는데 도시와 비슷하다. 다만 농장원들은 일요일 대신에 열흘에 한번씩 휴식일 (1, 11, 21일)이 있어 쉬고, 그날에 농민시장이 열린다(통일원, 1993:135-136).

북한 농민의 생활을 직접 보고온 재미교포 안동일 기자의 북한 여행기에서 협동농장의 구체적인 삶을 살펴보자(안동일, 1992) 평양 교외에 있는 사동구역 오류리 오류협동농장의 농장관리위원회 기사장 황승구씨(35세)와 농장 남새분조장 최학도씨(42세)의 설명에 의하면, 이 농장은 평양시에 남새(채소)를 공급하는 주요 농장이다.

이 농장은 인구 4천명에 432세대의 922명의 농장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평양시내의 다른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18세이하의 어린이, 학생과 60세 이상의 노인(여자 55세이상)들이 있어 농장원 수가 인구수보다 상당히 적다. 농장원 922명 가운데 남자가 415명이고 여자가 507명으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로 여자가 더 많다. 연령별로 보면 18세에서 45세까지가 580명이고 45세 이상 중노년층이 340여명이다. 농장원에는 속하지 않지만 경험이 많은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큰 도움을 준단다.

이 농장은 알곡분과, 남새분과, 잠업분과, 과수분과, 축산분과로 나누어지고, 6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되었다. 여기는 없지만 큰 농장에는 기계화 작업반이 따로 있단다. 각 작업반은 전문 분야가 있어서 그 일만 주로 한단다. 한 작업반은 5-6명의 분조로 나뉘고 한 분조는 이웃에 사는 7-8세대의 15명 정도 농장원으로 구성된다.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 기준이지만 모내기철이나 가을걷이 등 바쁠 때에는 더 많은 시간동안 일한다. 농사일은 분조가 함께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분조원들이 모여서 함께 일터로 나가 아침 8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12시까지 오전 일을 마치고, 점심식사와 휴식을 취한다음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오후일을 한다. 점심은 각자 집에 돌아가 먹는다.

북한에는 농업기사제도가 있어서 전문기술자를 우대하는데 1급에서 6급까지 있단다. 이곳 기사장 황씨는 농대를 나오고 3급기사인데 남포가 고향이다. 기사장은 "사무실에 앉아서 전체 농장의 기술관리 등을 지도한다"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드물단다.

소득분배의 원칙은 협동농장 독립채산제이고 일은 분조가 중심이지만, 작업반 우대제라고 해서 분배는 작업반을 단위로 한다. 작업반 우대제란 일종의 인센티브제인데, 한 작업반이 그해 생산목표량을 달성했을 때는 전체 수확량의 10%를 그 작업반 농장원들이 보너스 형식으로 분배하고, 나머지 수확량을 농장단위로 계산해서 다시 분배받는다. 농장원들의 분배는 분조관리제이고 공수라 불리는 노동량 측정단위에 의한 개인 노동량에 따르기 때문에 균등분배가 아니다. 매일 저녁 분조장이 분조원들의 노동량을 평가하는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노력공수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불공평의 여지는 없단다. 예를 들자면, 농장마다 노력공수표가 있는데 어느 산비탈의 밭갈이는 맑은 날과 비오는날은 각각 몇 공수, 어느 논의 김매기와 모내기는 각각 몇공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수 등 기준이, 농장마다 몇차례의 검정과 정정을 거쳐 성문화되어 있다고 한다.

가을수확이 끝난뒤 농장의 총생산물을 정해진 가격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해서 전체 농장원이 얻은 노력공수로 나누어, 이 농장의 1노력공수는 얼마라는 현금가치가 나오면, 각자의 노력공수를 곱해서 분배받는다. 한 농장의 1노력공수당 현금가치가 곧 그 농장의 생산성 임금수준이 되므로, 작업반뿐만 아니라 농장 전체의 단합이 장려된다.

오류농장의 경우, 1988년에 1정보당 벼수확이 8톤 4베기 82키로그램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남새는 연간 3만 9천톤을 생산해서 1노력공수의 현금가치는 4원 90전이었단다. 농장원당 평균 분배액은 3,400원이었고 농장원이 여럿인 어느 세대는 2만원 가까이 분배 받았다고 한다.

농민들의 소비생활을 보면, 쌀, 알곡 등은 배급제이고, 의료비와 교육비는 개인부담이 거의 없고, 주택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극히 적은 사용료(월 4-5원정도) 만 내면 된다. 분배받은 돈은 옷이나 부식물 구입에 쓰고, 그밖에 가구류, 세탁기, 냉장고, 라디오, TV 등 고급 생필품이나 사치품을 사는데 쓴단다. 도시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월 100원 정도인데 농장원의 일년소득이 3천원 이상이라면 대단한 수입인 셈이다. 아마도 오류협동농장은 평양교외에 있는 모범농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 농장원의 평균 수입은 그렇게 높지 못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촌 생활수준은 도시에 비해 여러가지 면에서 뒤떨어 졌다고 인정한다(안동일, 1992:38-50).

남포시 강서군의 잠진농장은 쌀의 질이 좋기로 이름난 곳이다. 이 농장은 25개 작업반에 900여명의 농장원이 소속해 있는 대형농장의 하나로 평양·남포일대에 쌀을 공급해주는 곡창지대다. 25개 작업반 가운데 알곡 작업반이 15개, 남새 2개, 과수 3개, 축산 1개, 잠업1개, 기계화 1개, 보수 1개, 밭작업 1개로 구성되었다. 이 농장의 기계 보급률은 전국 평균인 100정보당 8대보다 높아 650정보에 60대의 트랙터를 보유하였다. 이 농장 기사장은 " 기계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지만 사용권은 농민이 가진다"고 하고 "꼭 기계화 작업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원 뿐만 아니라 대부분 농민들이 한두 가지씩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습득했다"고 말했다. 이곳 리당비서 임창욱씨는, 이 농장에서는 요즘 1년에 1정보당 화학비료를 2톤이상 사용하고, 살충제가 충분히 공급되어 논의 97%에 화학적 김매기를 했다고 한다. 1988년에 이 농장의 생산성이 높아 정보당 9.2톤의 벼를 수확했고, 농장원당 평균 수입은 3,200원이었다고 한다. 도로 양쪽의 도랑위에는 목재버팀목을 세워놓고 콩을 키우고 있었는데, 한 농부는 일년소출이 한 800키로그램쯤 되며 이 콩밭은 일종의 터밭이라고 했다(같은 책:51-54)

북한에서 귀순한 김성은 터밭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원래 북한에서는 토지법상, 농촌에서는 20평방미터까지는 자기개인소유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있는 집도 많다.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배당한 생산량도 많았는데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없으니, 새땅찾기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새 땅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하니까 등록을 안 시켜놓고 터밭에서 생산한 것으로 협동농장의 생산량을 채우려고 한다. 터밭은 개인 것이고, 무등록으로 되어 있어 사람들이 집둘레에 옥수수라든가 채소라든가 조금씩 심는다. 사람들이 몰래 철길이라든가 비탈길 농촌 터밭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다가 몰래 옥수수도 심고 콩도 심고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Ⅵ. 조직사회 생활

현대사회는 조직에 의해서 작동되고, 통제되고, 그리고 조직 자체가 일상생활 환경이 되어 있는 사회이다. 조직은 개인활동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되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집단들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갖가지 조직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고 이와 같은 집단의 조직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써 사회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의 중심축은 이러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강조되는 자본주의에서 개인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생활하지만, 항상 하나 이상의 조직에 속해 있거나 그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조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사적 소유가 근본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개인보다는 집단이 강조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사회생활은 더욱 더 개인보다는 조직이나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북한사회의 경우 조직생활을 떼어놓고 북한주민의 생활을 이해하기는 힘들다. 김일성은 조직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그들 속에서 혁명적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입니다. 누구나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될 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조선노동당, 1968:468－469).

북한 주민은 당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조직의 구체적인 일원으로서 생활하게 되며 청소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와 사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회주의를 양적인 척도를 가지고 조직의 영향 정도를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그 조직의 성격에서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특히 조직의 발생근원면에서 그 차이가 뚜렷해 지는데, 자본주의는 조직발생의 근원이 자생적이고 다원적인데 비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조직은 그 발생근원이 당이나 국가 주도적이고 획일적이라는 데에 있다. 청소년의 경우를 보면 남한에서는 학교 외의 공식화된 청소년조직은 주로 '청소년 단체'라고 불리우며 그 조직목적과 활동내용이 다양할 뿐 아니라 가입여부도 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북한의 청소년조직은 연령에 따라 "소년단"과 "사로청"이라는 단일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청소년은 교육받는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의무적으로 청소년조직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은 그 장단점을 논하려는 것은 아니며, 북한 청소년의 생활속에 청소년조직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북한 청소년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소년단과 사로청의 조직과 활동이 먼저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두 조직 자체의 목적과 활동내용의 분석은 북한 청소년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조직생활이 북한청소년의 생활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며, 우선 조직집단의 개념과 기능을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조직'이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적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집단", 또는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중하게 구성 또는 재구성된 사회적 단위 혹은 인간집단", 또는 "어떤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과 개인이 상호교류하는 구조화된 과정"등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조직의 개념으로 볼 때 어떤 집단이 공식적으로 조직되기 위해서는 집단이 추구하는 '공동목표(common goal)'가 있어야 하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만들어지므로 '의도적 설립'이 있어야 하고, 조직적 통합을 위하여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조정과 권위체계'가 있어야 한다(송복 외, 1991:206-207). 또한 이러한 조건에 기초하여 조직의 활동내용이 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조직현황'으로 분류하고, 조직 속에서 조직원으로서의 북한청소년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를 '활동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헌법 제49조에 '북한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서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명시하여 전 주민이 조직에 가입하여 생활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역시 소년단과 사로청에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히게 한다.

북한의 청소년은 학교수업 외의 활동, 즉 과외활동을 소년단이나 사로청의 조직을 통하여 하게 된다. 북한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하루 1-2시간 집단체조훈련, 혁명전적지·혁명사적지 답사, 소년단 야영 등을 수행해야 하며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이밖에 붉은청년근위대 야영훈련과 생산노동 등에도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김성일, 1990:42).

당의 지도아래 엄격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 소년단과 사로청은 수시로 개최되는 전체 집회나 대회를 통해 활동의 기본방향을 설정받고 구체적 단위조직의 활동을 하게 된다. 소년단과 사로청은 어릴 때부터 김일성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실천하는 훌륭한 공산주의자를 양성하는 단체이다. 그 주요활동은 첫째 김일성에 대한 충성 및 사상교육활동, 둘째 실제 노동현장에 동원되는 노력동원 및 사회봉사활동, 그리고 셋째 신체훈련 및 문화예술활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그 강조점을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사로청의 경우에는 소년단과 달리 대외적인 활동도 매우 중시하고 있으므로 사로청은 대회활동을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 청소년들이 학교 외의 사회조직생활에 본격적으로 첫발을 들여놓는 것은 소년단이다. 그리고 만 14세가 되면 사로청에 가입하며 동시에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에 가입한다. 그래서 먼저 소년단의 조직현황과 활동내용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사로청의 조직현황과 활동내용을 살펴보겠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1. 소년단 생활

1) 조직 현황

여기서는 소년단의 조직목적과 조직이 설립된 배경을 알아보고, 현재의 조직상태와 조직의 구조를 살펴보겠다.

(1) 조직의 목적

소년단은 청소년을 우수한 사로청원과 당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46년 6월 6일 창설되었다. 소년단의 구체적인 설립목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키우는데 있다(정치사전, 1973:1017)." 소년단 입단서약서, 소년단원의 구호, 소년단의 임무(북한연구소, 1983:1315-7), 소년단의 지도지침(통일원, 1976:28) 등에 나타난 소년단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소년단은 어릴 때부터 우수한 공산주의자를 양성하기 위한 공산주의 후비대로서 출발하였다. 소년단의 입단서약서에는 "나는 소년단에 가입하여 공산주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할 것을 서약합니다"로 되어 있고 서약서 선서의식을 실시한다(통일원, 1976). 또한 소년단원의 구호는 "공산주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이며, 소년단행사때마다 구호를 복창한다. 경례를 할 때에도 오른손을 머리위 정면으로 높이 치켜들면서 "준비하자"라고 소리치며 상대방도 같은 방법으로 손을 들고 "항상 준비"라고 소리친다. 여기에는 공산주의 후비대로서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소년단의 지도지침에도 "혁명적 세계관으로 무장,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양성할 것"을 강조한다.

둘째, 소년단은 미래의 우수한 공산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속에서도 노동을 중시하는 공산주의의 꼬마건설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단의 임무는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가 될 것,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껏 돕는 꼬마건설자가 되어야 할 것"(1973년 2월 소년단 제2차 열성자대회 결의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소년단의 지도지침은 "…노동을 사랑하고 공동재산애호 기풍을 진작할 것, 학급별로 소년단체 10정보이상 조성, 토끼 2000마리 이상을 사육할 것, 방학동안 소년선전대조직, 당정책해설의 일꾼으로 활용할 것" 등을 강조한다. 즉 생활속에서 구체적인 노동과 사회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셋째, 어릴 때부터 김일성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주입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소년단의 임무는 "김일성에 끝없이 충직한 아들 딸이 되어야 할 것"은, 또 소년단의 지도지침은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킬 것"을 요구한다.

넷째로 제국주와,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감과 투쟁심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 소년단의 임무를 보면 "계급적 원쑤를 끝까지 미워하며 그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야하는 용사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한마디로 소년단은 북한정권에 충성하는 장래의 훌륭한 사회주의자를 어릴 때부터 생활속에서 육성하자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조직의 설립 및 현황

소년단은 현재 약 350만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북한연구소, 1983: 1317). 소년단의 가입대상은 만 6세부터 만 13세까지의 어린이이며, 인민학교 1, 2학년(만 6-7세)어린이는 열성이 있는 일부 어린이만 가입하고 3학년(만 8세)이 되면 전학생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소년단 입단시에 작성하는 서약서와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1977년 년 4월 16일 이후 선서에는 '대를 이어 충성'의 문구가 추가되었다(북한연구소, 1983:1917).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표 12〉 소년단 입단 서약서

나는 소년단에 입단하여 공산주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 3 학년 홍길동 1993년 10월 6일

〈표 13〉 소년단 입단 선서

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끄시는 소년단에 입단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원수님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원수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 나가는 … 원수님께 끝없이 충실한 근위대, 결사대로 억세게 자라날 것을 굳게 맹서합니다.

소년단의 입단식은 김일성 생일(4월 15일) 또는 소년단 창설기념일(6월 6일)을 전후하여 지역별 소년단 연합대회에서 이루어진다(북한연구소, 1983: 1317). 소년단 입단식은 군당위원회 간부들이 진행한다. 입단식 행사절차는 맨먼저 김일성 찬양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 입단하는 학생들이 대열 앞에 나가 김일성의 충직한 아들딸이 되어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맹세문을 낭독한다. 그리고 당간부들이 나와서 소년단 넥타이와 뺏지를 달아준다.

소년단 넥타이는 붉은색 바탕으로 된 삼각형태이며 이것은 모든 사람을 붉은 사상으로 물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입단을 하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년단 조직의 일원으로 각종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된다(김학준 외, 1987:51-2). 북한에서는 개인별 경쟁은 자본주의의 사고방식이라고 기피하면서 집단간의 경쟁, 즉 여러 소년단 조직간의 경쟁을 통하여 능률을 올리려고 시도한다. 소년단의 모범분단운동에서 집단경쟁을 유도하여 사상교육은 물론 노력동원의 능율을 올린다. 이러한 집단조직생활은 청소년으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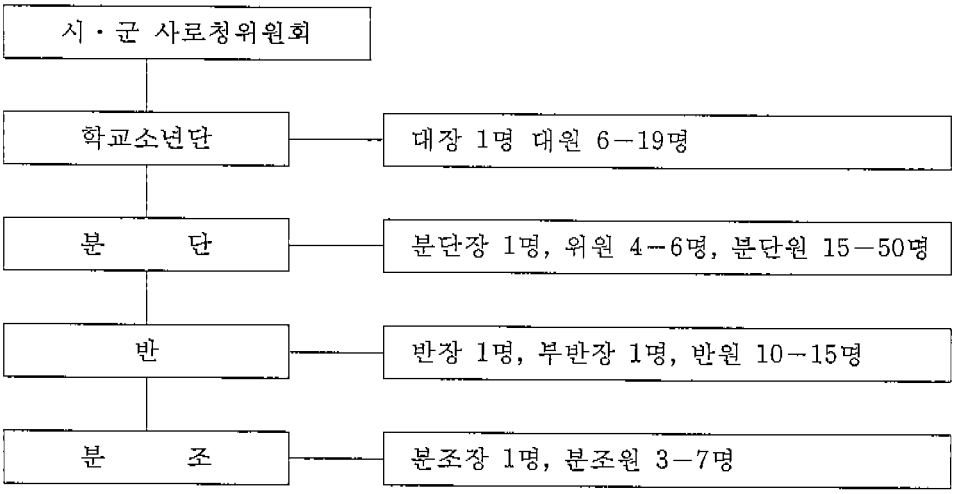
로 하여금 주체적인 자기주장보다는 집단에 함몰되어 복종하고 충성하는 가치관을 심어준다고 귀순자 이창수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남한 아이들은 자기가 뭘 하고프다, 내가 뭘 하고픈건 해야한다는 식의 권위의식이 많은데, 북한 아이들은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물론 복종하고 시키는대로 하면서도 그런데서 한번 벗어나고프다라는 생각은 들기도 한다."

(3) 조직 구조

소년단은 독자적인 기구는 없으며 노동당의 위임에 의하여 사로청중앙위원회가 지도한다. 소년단들은 지역별, 학교별로 조직 운영된다. 따라서 소년단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는 당 또는 사로청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중 특별히 당사업에 열성적인 자를 선발하여 지역 사로청위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소년단 지도원으로 임명되어 담당케 하고 있다. 학교소년단 밑에는 학년별로 분단(분단장, 위원 4-6명)이 있고, 학급별로 반(반장 1, 부반장 1, 분조원 10-15명)이 있다. 소년단은 소년단 깃발, 소년단 휘장, 붉은 넥타이, 소년단원들의 경례 등 소년단의 상징, 의식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소년단원으로서의 명예감과 성실성, 조직생활에 대한 충실성 등 자긍심을 길러주고 있다(김갑철 외, 1990:283). 소년단의 조직은 〈표 14〉와 같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표 14〉 소년단 조직



자료:북한연구소(1983), 북한총람 : 1317.

2) 활동내용

(1) 김일성에 대한 충성교육

소년단은 수시로 개최되는 각종 집회를 통하여 김일성에 대한 충성교육에 중점을 둔다. <표 15>와 같이 소년단의 주요집회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통하여 끊임없는 충성과 사상성 함양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도단위에서 「소년단야영소」를 설치하고 모범 소년단원을 대상으로 하절기(6-9월, 10일간)를 이용, 「김일성의 어린시절학습」을 비롯한 해양훈련·등산·행군 등을 실시함으로써 김일성에 대한 충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977년 6월 김일성의 「혁명사적지」로 지정된 포평을 비롯, 장자산·만풍호 등지에 연간 연인원 1만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3개의 대규모 소년단야영소를 만들어 사로청·소년단 조직이 주축이 되어 김일성우상화 학습의 일환으로 매년 '배움의 천리길'을 실시하고 있다. 배움의 천리길은 양강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표 15> 소년단 주요 집회

일 시	내 용
1966. 3.28	소년단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는 사로청중앙위원회의 호소문 발표
1968. 6.27-28	전국소년단 지도일꾼 혁명전통 연구토론회 진행
1969. 4.15	김일성 57회 생일기념 소년단 평양시 연합대회 진행
1973.10. 3	소년단 제2차열성자대회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
1976. 6. 5	「소년단」창립 30돌 기념 「전국연합단체대회」 개최, 「김일성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 혁명가로서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할 것」을 다짐케 함.
1977. 4.16	소년단연합단체대회, 소년단입단서약서에 「대를이은 충성」 문구 추가, 소년단원 수자가 350만이라 발표
1979. 6. 6	소년단 창립 33주년 기념식 ① 당정책을 해설 선전하는 「꼬마 선동가」가 될 것, ② 김일성이 가르치는 길을 따라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며 공산주의 혁명가로 될 것, ③ 당과업을 「무조건 수행」하며 「조직과 집단」을 위한 경쟁을 강화할 것.
1980. 4.15	김일성 69회 생일을 맞아 소년단 연합단체대회 개최, ① 김일성과 당중앙에 대를 이어 충성할 것, ② 김일성의 「청소년시절 따라 배우기운동」을 적극 추진, 「주체형의 혁명가」로 무장할 것 등을 결의케함
1981. 6. 6	소년단 창립 35주년 기념 중앙보고회개최, ①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에 끝없이 충실준비하며, ②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건설자로 튼튼히 준비할 것, ③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 운동」을 힘있게 벌일 것, ④ 남한어린이들을 「구원」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것, ⑤ 소년단조직생활을 철저히 할 것 등을 강조

자료:북한연구소(1983), 북한총람 : 1316.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도 후창군 포평에서 평양의 만경대에 이르는 길을 칭하는 말로서, 김일성이 조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하여 1923년 3월 26일 만주의 팔도구를 출발하여 이 길을 도보로 행군했다고 하는 김일성 유년시절 혁명역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외에도 백두산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백두산 스키답사 행군 등이 있다(북한연구소, 1983:1316; 김갑철 외, 1990:284).

1975년부터는 소년단의 역할을 한층 높이기 위해 소년단원들에게 '김일성 소년영예상'을 대량 수여함으로써 김일성사상에 대한 절대성을 다짐케 하고, 맹목적인 충성심을 주입시켜 김일성사상 일색화운동과 사회주의 건설사업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선동하기도 했다(북한연구소, 1983:1316).

그리고 북한에서는 종래 김일성생일(4·15)이나 소년단창립일을 기해 축하행사의 일환으로 소년단연합대회를 개최해 왔는데, 1975년 이후 김정일의 생일(2.16)을 계기로 연합대회를 앞당겨 개최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대를 이은 혁명과업 완수'를 강조하는 등 김정일 후계체제에 따른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년단은 학교에서 과외활동으로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실 운영(각급학교 단위로 설치, 방과후 조편성에 의해 이용)', '김일성 혁명활동연구모임(담임교사 주관 김일성혁명활동토의, 월 2회)', '김일성 혁명활동연구 소조(김일성 혁명활동 토의선전, 매일 1회)', '소년선전예술대 경연(김일성을 소재로 시, 노래, 이야기 등 경연모임)', '1만페이지 책읽기운동(김일성 노작 및 교시 1만페이지 읽기)' 등의 활동들을 주도하고 있다(북한연구소, 1983:1315).

(2) 노력동원 및 사회봉사 활동

북한은 청소년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실제로 노동을 경험하게 한다. 1959년 3월 2일 '내각결정 18호'에 의해 의무노동제를 법제화하여 인민학교의 경우 연간 2-4주 동안에는 수업을 전폐하고 노동만 하게 되어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방과후 4-5시간씩 의무노동에 동원되기도 한다(김학준 외, 1987). 노동은 주로 노력동원으로 이루어지는데 1950년부터 시작된 '좋은 일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하기 운동'으로 불리우는 소년단의 노력동원은 위생근위대 활동, 녹화근위대 활동, 소년단림과 사로청림을 조성하는 운동, 사회주의건설 지원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들이 주동이 되어 그간 실시해 온 구체적인 주요 활동 내용은 크게 꼬마계획과 외화벌이의 둘로 나눌 수 있다.

꼬마계획은 북한의 경제계획연도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할당된 노력동원을 하게 된다. 공장이나 기업소, 또는 협동농장에 인민경제지표가 하달되면 이와 때를 같이 해서 파고철, 파유리, 파종이, 송이버섯 등을 수집하도록 한다. 꼬마계획의 할당량은 1인당 연간 파고철 20kg, 파유리 9kg, 파종이 5kg, 송이버섯 10kg, 싸리 상자 2개 등으로 규정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배급쌀을 공제하든지 또는 일일총화에서 비판을 받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 훔치는 등 많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 농번기에는 소년단을 중심으로 농촌지원사업(년 2-4회)으로 3-5개월에 걸쳐 모심기, 제초작업, 판개작업, 추수 등에 동원된다(감학준 외, 1987:52).

외화벌이는 한 사람이 토끼를 길러 연간 4마리를 바치는 것을 말하는 데 특히 이러한 일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사로청 기관지인 로동청년은 소년단이 국가에 헌납한 토끼고기와 모피의 양을 정기적으로 보도하기도 한다(제빈, 1991:113).

그외에도 소년호 열차, 기중기, 자동차, 비행기, 탱크, 트랙터 등의 헌납운동, 녹화근위대, 모범위생근위대 활동, 각 학교마다 10정보 이상의 소년원림 조성, 산나물 수집 등의 노동에 동원된다. 또한 소년선전대를 조직 당정책 선전이나 선거운동도 한다. 다음은 귀순자 한성호가 증언한 선거운동의 예이다.

> 피킷같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다같이 홍보에 참가해서 '찬성 투표하자'고 선전한다. 맨 앞에서 2명이 이렇게 들고가면 한학급에 한 4명씩 열줄 40명이 줄을 서 가면서 선거노래를 부른다. 노래라는 것이 지금 나오는 팝송처럼 재미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건데, 피킷을 맨앞에다 들고 학교가 있는 주변을 돌면서 홍보활동을 한 1시간 2시간정도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또한 소년단 규찰대는 학생은 물론 어른도 통제할 수 있는데 일종의 사회정화운동에 동원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귀순자 한성호의 규찰대에 관한 증언이다.

애들이 길에 한 200m 또는 100m에 2명씩 배치되어 규찰활동을 한다. 학생들도 통제할 수 있고, 어른들까지 통제할 수 있다. 어른들도 일반 외출복이 아니고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조금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지나가면 애들이 손을 흔들면서 그 어른을 몇십미터 쫓아 가서 '아저씨 이름 뭐예요?', '직장이 어디에요?' 하고 물어서 대답을 적는다. 주로 김일성 뺏지가 없는 사람, 깔끔한 외출복이 아니고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어른인데도 불량하게 머리가 긴 사람 등을 단속한다. 규찰대에 걸리면 길가는 사람이나 같이 가는 사람들 한테도 창피를 당한다. 규찰대 아이들이 조사한 것을 선생님한테 갖다 바치면 그 선생님이 또 종합을 해가지고 또 어디다 보고를 한다. 그게 반영되는 지 그냥 시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학생들은 반영된다고 생각을 한다.

(3) 체력훈련 및 문화예술 활동

북한은 체육을 '신체를 다방면으로 발달시키며 집단주의 정신과 혁명적 동지애, 굳센 의지, 규율준수에 대한 자각성과 책임성, 고상한 사상과 도덕적 품성을 배양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체육에 대한 북한의 이와같은 개념규정은 체육이 개인적 취미활동이기보다는 정치성과 혁명성에 결부된 국가적 목표 추구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학준 외, 1987:183-4).

인민학교 학생들은 매일 조회시간부터 '배움의 천리길' 달리기를 한다. 학급별로 줄을 서서 하루 5리씩 뛰는데, 달릴 때는 두 패로 나누어 앞엣 열이 '배움의 길'하면 뒤엣 열이 '천리길'하면서 달리기를 한다. 그 다음 인민보건체조를 하고 나서 하루일과를 시작한다(김학준, 1987:58). 이처럼 북한이 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육을 중시하는 데도 북한청소년의 체격과 체력이 영양부족때문에 매우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이우홍, 1990:18-22). 세계보건기구가 1979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평균수명은 54세로 아시아 평균수명 59세를 밑돌고 있으며, 여성의 초경이 평균 20세이며 15-20세의 청소년에 여드름이 나는 사람이 적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북한당국도 북한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의 체격과 체력이 빈약한 것을 알고, 80년대에 들어와서 김정일의 지시로 각 학교에 철봉을 설치하고 여기에 매달려서 키를 키우는 운동을 벌였으며, 각종 체육활동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체력단련을 위해 과외시간에 여러가지 체육행사를 한다. 도별로 매주 토요일을 '체육의 날'로 정해 각종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천보 달리기'를 실시하기도 한다. 보천보 달리기란 매일 방과후 1킬로식 구간을 설정하여 총 100킬로에서 200킬로를 달리는 훈련이다. 각종 기념일에는 집단정신 구현을 위하여 수백에서 수만명을 동원하여 대규모 집단체조를 실시한다. 그리고 준군사훈련인 국방체육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줄타오르기, 수영도하훈련, 산야횡단, 강행군, 남자는 봉체조, 여자는 예술체조를 매일 30분 정도 실시한다. 그외에도 각종경기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체력단련 및 집단의식을 고취하고 있다(통일원, 1976:102).

북한의 문예정책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공산주의 인간학에 입각한 창작활동과 문예작품에서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 원칙을 적용하고 예술의 대중화와 작품의 계획생산 등을 내세워 개인의 예술활동을 당이 통제하고 있다(정문연, 1987:335). 따라서 대부분의 문화예술활동은 개인보다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활동은 그 내용에 있어 더욱 통제를 많이 받고 있다. 각종 공연, 영화상영, 전시회 등은 노동당이나 정부당국이 일방적인 연간행사계획에 의해 집행하고 있으며, 소년단도 문화예술활동의 공연자로 동원되거나 참관하게 된다. 영화감상회는 월 2회이상, 미술전람회, 예술경연대회, 체육경기대회는 매년 1회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다(김학준 외, 1987:88).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소년단은 <표 16>의 예에서 보듯이 소년단 기념일이나 국가 기념일에 집단공연을 통하여 조직의 단합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다지는데, 이러한 행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 진다.

<표 16> 소년단 문화예술 활동

76년	6.11	소년단 창립 30돌 기념 전국 학생소년예술소조 공연
	2.16	제 1 차 전국청소년 충성의 축전(김일성 관람)
	-5.15	
	4.15	김일성 64회 생일경축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충성의 노래 모임 소년단 전국 연합단체대회
	6. 5	소년단 창립 30돌 기념 전국 연합단체대회 전체소년단원들 김일성 축하문, 김일성에 대한 맹세문 채택
78년	6. 6	소년단 창립 32돌 기념 전국 학생소년예술소조 종합공연

자료:통일원(1979), 조선노동당 주요외곽단체의 조직 및 활동 : 283-89.

2. 사로청 생활

1) 조직 현황

(1) 조직의 목적

사로청은 "항일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조직된 청년들의 공산주의적 대중적 혁명조직으로서 조선 로동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며 우리 혁명의 직접적인 계승자"로 조직되었다(통일원, 1979:185). 사로청의 조직목적은 "로동당의 영도 밑에 북조선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사회과학출판사, 1983:562)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사로청은 "청년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히 세우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계승하여 당대렬을 끊임없이 보충하고 당 및 국가 기관의 간부후비를 양성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청년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할 력사적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통일원, 1979:185).

김일성은 "우리 조선 청년들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일하든지 언제나 로동당의 령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 이것은 우리나라 청년조직들과 모든 청년들의 활동에서 기본으로 되어야 합니다(조선노동당, 1968:103)."라고 하여 당에 대한 충성을 조직의 기본 원리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위에 사로청은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있다(통일원, 1979:299-301)

북조선 청년동맹은 청년들의 대중적 사회단체이다. 북조선 민주청년동맹은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선봉적 민주청년들을 자기대열에 단결시킨다.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의 맹원은 자기 조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을 자기의 최대 임무로 인정한다.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은 그 실천활동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과업을 수행한다.

1. 본 동맹은 맹원과 전체 청년들에게 정치적 자각과 전면적인 문화수준을 제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들이 조국 민주건설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자기인민에 대한 애호사상을 배양한다. 본 동맹은 우리조국의 민족적 재생을 저해하는 반동적 일제 및 봉건적 사상 잔재를 청년들의 의식에서 근절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본 동맹은 청년들에게 미치는 반동적 반인민적 제국주의사상의 부패한 영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근로자들의 선진적이며 과학적인 진보적 민주주의 사상으로 청년들을 교양한다.

2. 본 동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와 그 정강 주위에 전체 민주청년을 결속시키며 청년들의 투지를 민주개혁의 전 조선적 공고 광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와 부강한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국가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한 투쟁에로 인도한다.

3. 본 동맹은 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의 민족통일전선에 속하며 민주개혁의 전 조선적 실시와 그 광대 공고화를 기하는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의 모든 시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한다.

4. 본 동맹은 우리 국가의 기본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모든 원칙을 철저히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5. 본 동맹은 민족 경제를 부흥발전시키며 그것을 조선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의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6. 본 동맹은 청년들에게 우리 조국의 복리와 번영을 위한 노력에 대한 애착심을 배양한다. 본 동맹은 청년들을 생산증산 전쟁에 적극 강화시키며 인민경제의 각 분야에서의 생산능률의 정상적인 제고를 조성하며 선진기술과 작업의 선진방법을 습득함에 청년들을 방조한다.

7. 민주주의적 민족문화의 부흥과 문화수준의 향상을 촉진시키며 또 청년들의 체력과 정신을 단련하는 대중적 체육문화를 솔선하여 발전시킨다.

8. 본 동맹은 남조선청년들도 북조선청년들과 같이 동일한 자유와 권리를 정치, 경제 및 문화생활 부분에서 보장받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옹호는 애국자들의 신성한 의무로 된다. 본 동맹은 인민군대의 복무를 고상한 영예와 의무로 인정하면서 인민군대를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으로 청년들을 교양한다. 본 동맹은 청년들에게 군사지식과 군사기술을 소유하도록 방조한다.

10.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은 세계민주청년동맹의 정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국제주의 정신으로 청년들을 교양하며 조선청년들과 세계민주청년들과 전세계민주청년들의 선봉대인 쏘베트 청년들과의 단결의 공고를 전력을 다하여 협동한다. 본 동맹은 인민의 공고하고 장구한 민주주의적 평화를 위하여 민주와 진보를 위하여 반동과 파시즘을 반대하는 그들의 투쟁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에서 세계의 자유를 애호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원조하도록 청년들을 조직한다.

이처럼 사로청의 행동강령은 첫째 정치적으로 봉건적 사고와 자본주의 제국주의 사상을 척결하고 남조선해방을 위해 연대투쟁하고 정부와 헌법수호 및 통일전선을 지지하고, 둘째 경제적으로 민족경제부흥과 인민의 번영과 복리를 추구하며, 셋째 체력과 문화창달에 앞장서며, 넷째 군사적 무장과 국제교류에 앞장서는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국제사회참여까지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행동강령 아래 사로청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표 17> 사로청의 임무

○ 학생들에 대한 공산주의적 도덕품성 교양
○ 공산주의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정치학습 조직
○ 학생의무노동 조직 및 감독
○ 기술혁명으로 생산능률 제고
○ 체력증진
○ 공공재산의 수호정신 고취
○ 반제·반일 투쟁의 선전선동
○ 김일성 혁명전통 교양사업 지도
○ 계급교양사업 지도
○ 학생들의 교외활동 지도
○ 소년단에 대한 지도

자료:북한연구소(1983), 북한총람 : 1317

이처럼 사로청은 북한의 당면시책이나 김일성, 김정일의 지시 등의 관철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위한 대회,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맹원들의 분발과 충성심 제고를 촉구한다. 또 "청년을 김일성에 충성하고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 나아갈 주체위업의 계승자"(노동신문, 1981년 10월 22일자)로 키우고,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근본적 우월성을 똑바로 인식시켜 그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기 위해 몸바쳐 싸워나가도록 교양한다"(로동신문, 1989년 8월 24일자). 사로청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며 당의 후비대로서 군대, 공장, 기업소 및 농어촌에서 정치사상을 교양하며 각종 노력동원의 중추적 역할을 맡기 위해 조직되었다(송춘석, 1991:13).

(2) 조직의 설립 및 현황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은 1946년 1월 17일, 김일성의 직접지도하에 맹원수 252,500여명, 대표자 47명으로 강령 및 규약을 채택하고 "조선민주청년동맹 북조선 위원회의 결성에 대하여"라는 김일성 연설과 함께 '북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발족되었다(통일원, 1979:192). 1946년 6월 24일 세계민주청년연맹에 가입하였으며, 그뒤 1951년 1월 남조선민총을 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통합 결성하고, 1964년 5월 12일 5차 대회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통일원, 1979:185). 사로청은 현재 400만명에 달하는 맹원들을 확보하고 있다(김갑철 외, 1990:242). 사로청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층은 14-30세로 되어 있으며, 고등중학교와 대학에 다니는 학생 또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30세가 될 때까지 맹원으로서 활동한다.

사로청에 가맹하기 위해서는 '청원서' 와 '소년단위원회 및 동맹원 1명의 보증서'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가맹청원서에 대한 심사는 초급단체총회에서 실시하며 가맹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군 동맹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확정된다(북한연구소, 1983 : 1317-8). 가맹이 승인된 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언약을 해야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나는 조선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맹원으로서 항상 조선로동당과 김일성에게 무한히 충직하며 혁명 선배들처럼 일하며 배우며 조국의 통일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울 것을 조직과 동지들 앞에서 엄숙히 맹세한다(북한연구소, 1983:1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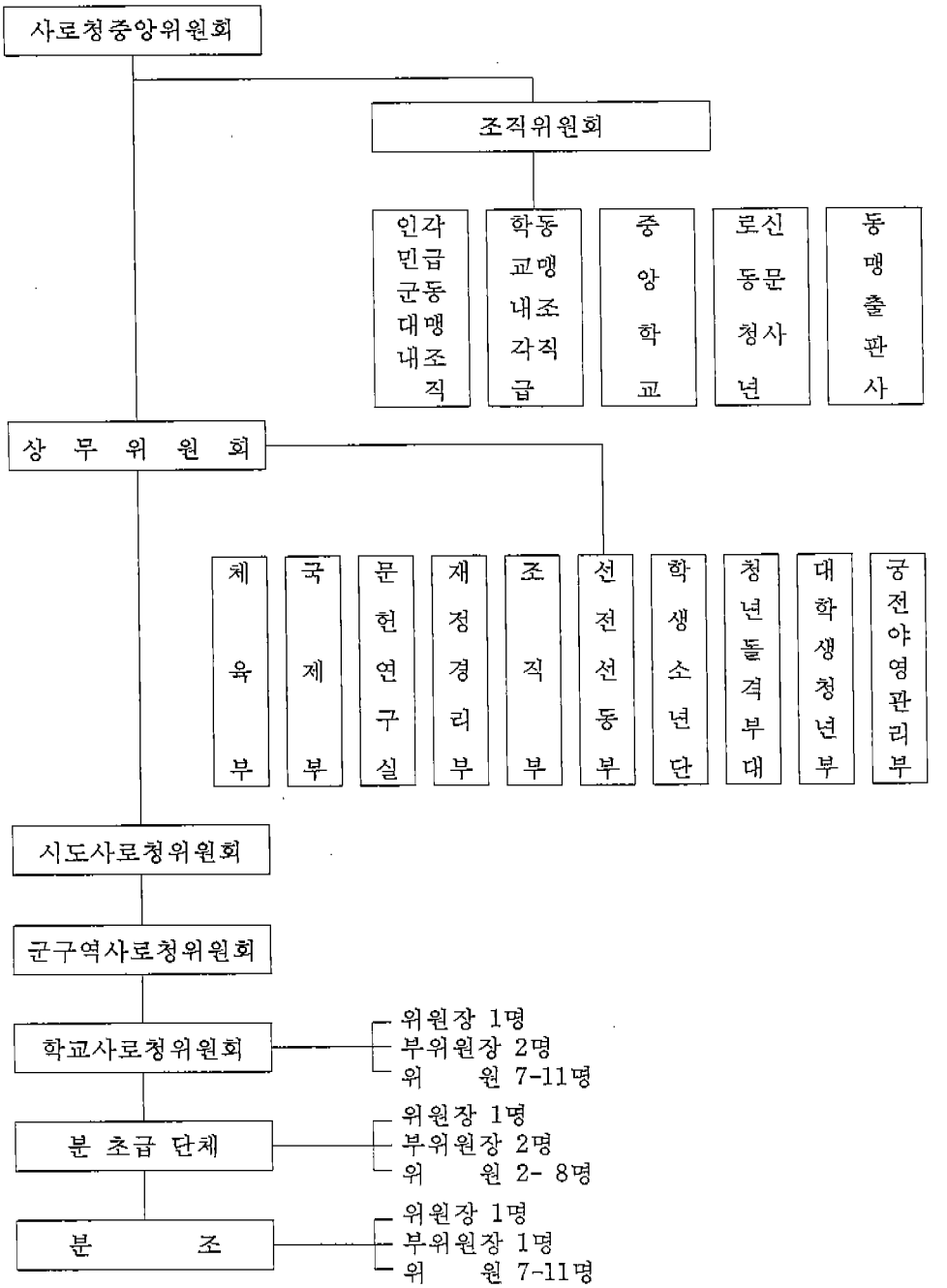
사로청은 조직의 목적에 따라 첫째 정치사상교양, 둘째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노력동원, 셋째 조국보위사업과 통일을 위한 투쟁, 넷째 소년단사업 책임지도, 다섯째 1946년 6월 24일 세계민주청년연맹에 가입한 이후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국제청년운동 전개, 다섯째 사로청대학, 사로청학교(도·시·군)를 통한 간부양성 등의 사업을 한다. 그밖에 신문으로 "로동청년", "새날", "소년신문", 잡지로 "청년생활", "새세대", "새희망"을 비롯한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사회정치문화활동 기지로서 평양 학생소년궁전과 청년극장, 청년공원야외극장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명승지들에 여러 개의 중앙소년단야영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도, 직할시, 사로청단체들에서도 청년회관,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등을 운영한다(통일원, 1979:190).

(3) 조직 구조

학교내 사로청 조직의 구조를 보면 <표 18>과 같이 사로청중앙위를 중심으로 확고한 수직적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사로청활동이 이루어지는 각급학교에 대한 지도사업은 해당학교 사로청위원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구역 사로청위원회가 사로청지도사업 담당교원을 임명 배치하기도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표 18> 사로청 조직



자료:북한연구소(1983), 북한총람 : 1318.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2) 활동 내용

(1) 김일성에 대한 충성교육

계속되는 김일성우상화 선전과 과다한 노력동원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무사안일과 능률저하를 막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켜 정치사상적으로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 보위케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상교양학습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노동현장마다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연구발표모임」을 만든다.

<표 19> 사로청의 주요 사상교육 활동

76년	1.22 -2.3	광복의 천리길 51돌 기념 학생청소년들의 답사행군
	2.16 -4.15	제 1 차 전국청소년 충성의 축전(김일성 관람)
	4.15	김일성 64회 생일경축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충성의 노래 모임
78년	3.10 -4.16	제 2 차 전국 청소년들의 충성의 축전
	3.16	배움의 천리길 55돌 기념 중앙강연 보고회
	4.10	모범적인 사로청 단체와 사로청원들에게 김일성 청년영예상 수여
	7.17	평양시 학생들에게 김일성 청년영예상 및 소년영예상 수여

자료:통일원(1979), 조선노동당 주요 외곽단체의 조직 및 활동 : 283-89.

사로청도 소년단과 마찬가지로 각종 대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김일성에 대한 충성교육을 한다. 사로청의 주요 집회와 행사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시를 통하여 끊임없는 충성과 사상성 함양을 요구하고 있다. 한 예로, 1989년 사로청은 김정일의 생일에 맞추어 정일봉까지 책을 읽으면서 행진하여 정치, 교육, 기술서적 1만6천 페이지를 해마다 읽는다는 목표아래 수령과 지도자 동지의 뛰어난 저술을 깊이 연구하며 정리하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16이란 숫자는 김정일의 생일과 관련시킨 것이다(제빈, 1991:101). 이러한 김일성의 유일사상 고취와 교육은 <표 19>에서 보듯이, 첫째로 김일성 생일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축제나 충성결의형식의 모임 등을 통하는 것과, 둘째로 사로청이나 소년단의 기념집회에서 편지나 교시 등의 하달을 통하는 방법, 셋째로 김일성 유적지를 답사하는 방법, 넷째로 각종 포상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2) 노력동원 및 사회봉사 활동

학교내 사로청 지도사업중 중요시되는 것은 소년단의 모범분단운동과 천리마학급 또는 천리마학교 칭호쟁취를 위한 경쟁운동이다. 이와 같은 경쟁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전학급, 전학생 또는 전학교의 우등 및 최우등화가 강조되며, 노력동원에서도 다른 학교 또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독려되고 있다. 귀순자 한성호는 사로청의 노력동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사로청에서 우리가 이번 10월달에 무엇 무엇을 하겠다 하고 결의를 하면, 10월초에 한학년에 10개학급이면 분단장이 10명 있는데, 10명을 모아놓고, 그걸 주입시킨다. 10월달에 우리 김일성 사상공부 얼마, 어느정도 몇시간 해야되고, 파지를 몇 백 kg, 화병은 몇개, 병은 몇개 모아야한다고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학급마다 파지 몇 K, 병 몇개, 파동, 파철을 얼마 모아오라고 할당을 한다. 분단장이 가서 선생님과 전체학급을 모아놓고 우리 이번달에 이거 이거를 해야한다고 지시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주 월요일에는 화병놓기를 해야겠다 하면 아침반이 공부 끝난 다음에 점심먹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고 모여가지고 선생님이 집에 안보내고 오늘은 네사람이 화분화병을 2개씩 가져오라고 하고 안 가져오면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 그때부터 가방은 학교에 맡겨둔다. 가방들을 모아놓고 한 아이가 지키고 나머지는 다 집이 부근이니까 애들이 집으로 뛰어간다. 집에 없으면, 아는 사람집에 가든지, 친척집에 가서 가지고 오든지, 그래도 없으면 훔치기도 한다.

북한은 1959년 3월 2일 '학생사회의무노동제를 실시할데 대한 내각결정 제18호'를 채택한 이후 고등중학교 이상 학생에 대한 강제노동을 실시하고 있다(김성일, 1990:39). 고등중학교는 년간 4-8주, 고등전문학교는 년간 10주, 대학은 12-14주 간 의무노동에 동원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법정 의무노동 시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동원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73년 9월부터 6개년 계획의 조기달성을 위해 고등중학 5년 이상은 정상 수업을 철폐하고 공장, 광산, 건설현장 및 농어촌에 들어가 '현장학습'('짬짬이 시간을 내어 공부')을 해가면서 노력봉사에 동원된 바 있다. 소년단의 경우는 토끼기르기와 파지·파철·파유리 줍기 등 어린이들에게 맞는 노력동원을 하고 있으나, 고등중학교의 경우는 주로 농촌지원사업과 경제건설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농촌지원사업은 계절별로 거름주기에서부터, 옥수수껍질까기, 옥수수영양단지심기, 모내기, 김매기, 풀베기, 그리고 추수전투 등을 하는데 하루 일과는 농민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런 작업에서 농민과 학생을 경쟁시켜 능률을 올리게 하며 질 경우에는 비판도 한다. 귀순자 이창수는 꼬마계획과 농촌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동네마다 학습반이 다 있는데 오늘은 누구네 집가서 공부하고 내일은 누구네 집가서 공부하고 한바퀴 돌면서 공부한다. 숙제를 같이하고, 그다음에 꼬마계획 하러 가는데 길바닥 가다가도 파철 쪼그만거 철조각 있으면 돌고가고 그런식으로 하는데, 나도 그것 때문에 신의주 타이어공장에 고무 가지러 한번 갔었는데 타이어 만들고 찌꺼기 내다 버리는거 주워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수매를 했다. 수매하면 수매증을 주는데 수매증과 돈을 학교에 바쳐야 한다.

모내기는 아침에 5시반에 일어나 가지고 세수하고 이빨닦고, 7시에 식사하고 7시 반에 나가서 8시부터는 모내기를 시작한다. 모내기 시작하고 일을 하는데 학생도 무조건 도급제이다. 모판에 모종 묶은 것 얼마만큼 옮기고, 또는 강냉이 영양단지 얼마큼 옮기면 휴식하는 식으로 일량이 정해져 있다. 또 오늘은 얼마큼 해야한다라는 하루의 일량도 정해져 있다. 애들은 모내기 나가서 보람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 재미라는 것은 자원물자 나올 때이다. 자원물자라고 모내기 나간 아이들이 배고파하니까 부모들이 빵도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는데 실지 잘사는 사람 같으면 쌀가지고 떡도 많이 해서 보내겠지만 식량사정이 뻔하니까 두세명을 선발해 가지고 배낭같은 것을 메고 저녁에 집집마다 다 돌면서 음식을 얻어온다. 쌀이 여유 좀 있는 집은 떡도 해주고, 쌀 여유가 없는 사람은 집에서 전을 해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 춥다고 아버지의 동복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속내의 보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있다.

사로청은 <표 20>에서 보듯이 사로청의 주요 집회를 통하여 이러한 노력동원을 독려하고 있다.

<표 20> 사로청 주요 노력동원과 사회봉사 활동

78년	10.28	평양시 청소년 학생들의 충성의 모임에서 녹화근위대, 유지림근위대 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갈 것을 결의
	11. 4	함흥 등 각지에서 청소년 학생들의 충성의 결의 모임에서 10.22 유지림과 경제림 조성에 대한 교시관철을 결의
	11.8-9	사로청 중앙위 제14차 전원회의 해당결정서 및 전체 사로청원들과 소년단원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자료:통일원(1979), 조선노동당 주요 외곽단체의 조직 및 활동 : 283-89.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외에도 학교경비, 땔감준비 등 많은 노력경쟁에 동원된다.

(3) 신체훈련 및 문화예술 활동

사로청의 강령에 의하면 사로청은 청년들의 체력과 정신을 단련하는 대중적 체육문화를 솔선하여 발전시키는 것을 주 임무중의 하나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단과 마찬가지로 여러 체육행사를 통해서 집단적인 체력훈련을 하고 있다. 특별한 노력동원 지시가 없을 때는 학교가 파한뒤 달리기, 체조, 군중무용 등 주로 체육경기로 과외활동을 한다.

북한에서의 체육활동은 군사훈련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유치원 어린이에게는 전쟁놀이, 인민학교 아동들에게는 제식훈련과 포복, 체육경기나 체육활동에 수류탄 던지기 등 어린학생 때부터 군사훈련의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고등중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은 1970년 9월 12일 창설된 '붉은청년근위대'에 가입하여 2년간 총 576시간의 군사훈련을 받게 되었다. 붉은청년근위대의 입대절차는 입대연령이 된 학생들을 신체검사한 다음 합격자를 군 동원부장에게 전달하면 다시 심사하여 지시를 내린다. 붉은청년근위대의 임무는 김일성친위대, 군초급간부 보충을 위한 후비대, 결사대로서 반혁명요소 적발, 전체 사회단체들의 사상교양, 전투력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김학준 외, 1987:81-82).

그리고 소년단과 사로청의 북한 청소년들은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국방체육이라는 체육활동을 한다. 군 행정위원회의 체육구락부 주관 하에 각 학교별 체육교사가 주 2-3시간 체육시간과 과외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데 '장애물 극복(외나무다리 건너기, 담넘기, 철조망 통과)', '수류탄 던지기', '허수아비 찌르기', '강행군' 등이 있다(이항구, 1978:255).

고등중학교에서는 학업 외에 분야별 학습활동을 하는데 학과별 연구서클, 예능서클, 독후감 감상발표회, 영화감상회, 혁명전적지 답사, 창작발표회, 시낭송회, 미술전람회, 담화회, 전투영웅들과의 대화 등인데 학생들은 이런 서클에 2개 정도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런 활동들을 통하여 청소년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나름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마다 편차가 심하고 서클가입이 자유롭지 못하다(김학준 외, 1987:68).

<표 21> 붉은근위대 학습과 훈련

시 간	입영집체훈련 : 연 168시간(2년간 336시간) 교내교육 : 연 120시간(2년간 240시간)
학습과 훈련 내 용	정치학습 67시간(40%) : 혁명사, 김일성노작 등 전술학 50시간(30%) : 제식훈련, 경계, 야영, 전술 화기학 34시간(20%) : 화기조작, 실탄사격 기타 17시간(10%) : 화생방, 체육 등 계 : 168시간(100%)
학습과 훈련 방 법	훈련조 : 기당 400-500명 시 기 : 방학중(8월) 장 소 : 시·군·근위대 훈련소 교 관 : 현역군관 장 비 : AK소총(전원지급) 복 장 : 근위대복장 착용

자료:북한연구소(1983), 북한총람 : 1320.

학생들의 과외활동 중에 가장 활발한 것은 '수령 연구실' 활동이다. 이 연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출신성분이 좋아야 하고, 정치생활에서 모범이며 학업성적도 뛰어나야 한다. 이들은 학생들 속에서 당정책 선전선동활동을 담당해야 하며, '우등불 모임', '혁명전적지 답사', '혁명 및 역사 박물관 견학', '모범분단', '천리마학급 쟁취운동' 등을 지도해야 한다(이항구, 1978: 252). 학과 경연대회는 매년 1-2회, 영화감상회는 월 2회 이상, 창작발표회는 매년 2회, 강연회는 월 2회, 미술전람회, 예술경연대회, 체육경기는 각각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이항구, 1978:252).

앞에서 살펴본 소년단과 마찬가지로 사로청의 문화예술활동도 각종 기념일이나 대회에서 노동당이나 정부당국의 일방적인 연간행사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사로청은 <표 22>와 같이 각종 대회나 국가 기념일 등에 집단공연을 하면서 조직의 단합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다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문화예술행사가 없을 때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단위의 서클활동이 이루어진다.

<표 22> 사로청 주요 신체훈련과 문화예술 활동

76년	2. 7	인민군 창건 28돌 기념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경축공연
	4.20	금성청년출판사 창립 30돌 기념 보고회
	12.14	새날소년동맹 결성기념 보고대회
78년	1. 1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설맞이 모임
	1.15	새날창간 50 돌기념 중앙보고회
	7. 2	평양학생 소년예술단 음악무용 종합공연

자료:통일원(1979), 조선노동당 주요 외곽단체의 조직 및 활동 : 283-89.

(4) 대외 활동

북한 사로청의 행동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적인 사상적 교류를 중시하여 대외적인 활동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설립초기 46년 6월 24일 세계 민주청년연맹에 가입한 이후 주로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 등의 청년조직과 교류를 맺고, 제국주의 타도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공동투쟁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남한에 대해서도 주로 군사훈련의 중지와 반정부투쟁의 고취, 학원탄압의 중지, 미제국주의에 대한 비난 등의 성명서 발표 및 집회등을 자주 하였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표 23> 사로청 주요 대외 활동

76년	3. 2	사로청 대표단 쿠바 제11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국제준비위원회 제2차대회 참석
	4.24	제3세계 나라 청년들의 투쟁지지 평양시 학생 집회
	4.25	사로청 대표단과 전아프리카 청년운동 대표단 알제리아 전국청년동맹 대표단 회담
	6.21	일본사회당 청년활동가 대표단 환영 평양시 청년학생집회
	7.16	평양학생소년 예술단 조사단 동경방문
	7.12	사로청중앙위와 조선학생위원회의 군사훈련거부를 촉구하는 남조선 청년학생들에게 편지
	8. 3	사로청 대표단 알제리아 방문
	10.17	타도 제국주의 동맹결성 50돌을 맞이하여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총성의 노래모임
	11.12	학원탄압을 규탄하는 사로청중앙위 성명발표
	12.10	모잠비크 해방전선 청년대표단 북한 방문
	12.13	서울대학생들의 데모지지, 학원탄압 규탄하는 평양시 대학생 웅변모임
78년	3.14	한미연합 작전훈련에 대한 사로청중앙위 성명발표
	4. 7	사로청 대표단 일본방문
	4.26	사로청과 콩고 사회주의 동맹간의 친선협조 합의서 조인
	7.27	조국 해방전쟁 승리 25돌 기념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웅변모임
	9. 2	재일조선학생 소년예술단 공연
	10.26	사로청 대표단 소련레닌공청 창립 60돌 기념행사에 참석
	11.17	사로청중앙위와 조선학생위원회 구속학생 석방요구 성명발표

자료:통일원(1979), 조선노동당 주요 외곽단체의 조직 및 활동 : 283-89.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Ⅶ. 가정과 여가 생활

집단조직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북한의 청소년들은 대개 <표 24>와 같은 일과시간표를 갖는다. 모든 집단조직생활을 끝내고 북한청소년들이 가지는 자유시간은 하교를 하는 저녁 6시경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0시에 취침을 한다고 보고 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한다면 평일에는 약 3시간 정도의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내어준 숙제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충분한 개인적 시간을 가진다고 보기는 힘들다. 학교 숙제는 학습에 관한 것도 있지만 걸레를 만들어 오라든가 고철을 수집해 오라든가 하는 공부 외의 과제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를 파하고 집에 돌아온다 해도 개인적 시간을 많이 가지지는 못한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 청소년들에게 이 여가시간은 소중한 것이며 나름대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표 24> 청소년의 일과표

일과 \ 교급별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기 상	06:00
식 사	07:00
등교 및 오전수업	08:00-12:00
중 식	12:00-13:00
오 후 수 업	13:00-15:00
자습, 소년단 및 사로청활동, 체육 및 군사훈련	15:00-18:00
석 식	18:00-19:00
자 유 시 간	19:00-22:00
취 침	22:00

자료:통일원(1976), 북괴군의 정신전력형성에 관한 연구, 1976.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본장에서는 북한청소년들이 소년단이나 사로청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생활 외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활모습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청소년들의 주 생활공간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이다. 특히 먼거리의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북한 사회에서 학교생활 외에 청소년들의 생활무대는 주로 가정과 지역사회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특징이 아직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영위해나갈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가정의 보호하에 성장하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했을 때, 북한 청소년의 생활에서 가정은 무시하지 못할 생활공간이자 중요한 삶의 양식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우선 북한 청소년의 가정생활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 생활

북한에서 가정이란 무엇인가? 1972년 12월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63조'는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대륙연구소, 1990:I-27). 여기서 '가정'이란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하는" 사회의 세포를 지칭한다. 북한에서는 가정을 결혼과 육친적 관계에 기초하여 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생활단위라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구분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가족을 사회구성의 기초단위, 사회의 '세포'로 파악하고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윤희·박현선, 1990:251).

북한은 결혼을 가족구성의 '출발적 계기'로 보고 혈연을 가족조직의 '확대적 계기'로 보고 있다. 가족의 범위는 가족 상호간의 부양권리의무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이윤희·박현선, 1990:252).

첫째, 부부인데 이는 가족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이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반드시 부양의무가 있어야 하지만, 이혼한 부부사이에 일시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더라도 이들을 가족관계로 보지는 않는다. 또한 실제로 부부생활(사실혼)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부모와 자녀사이다. 혼인신고를 했건 안했건 모자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가족이라 할 수 있다. 그밖의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양친의 친자녀와도 똑같은 가족성원이 된다.

셋째, 친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는 부양의무 여하에 따라 가족성원이 된다.

넷째, 기타 관계에 있어서도 부양문제를 중심으로 가족성원이 된다.

북한은 가족의 경제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사적인 가사를 사회적 산업(가사의 사회화) 으로, 자녀 양육과 교육을 사회적 공무(자녀양육의 사회화)로 한다는 유물사관적 가족이론의 영향을 받아 가족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본다(이윤희 · 박현선, 1990:252-253). 첫째로 자녀출산의 기능이다. 둘째로 노동력을 사회에 공급하는 기능이다. 셋째로는 자녀 양육과 교육의 기능이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사회적인 공무로 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면서도 '공산주의적 교양'을 실행하는 것을 부모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공동생활의 기능이다. 가족의 경제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한편 경제적 공동생활을 가족관계의 중요한 기반으로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가정속에서 청소년은 어떤 존재인가 ? 이를 알기 위해서는 주민통제를 강조하는 북한당국이 가족에 대해 어떤 정책을 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가정내에서의 청소년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가족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단계는 해방후부터 1960년대까지이다. 북한정권은 1917년 러시아혁명직후의 조치를 본받아 봉건적 가족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가족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여성의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고 호적제도를 없애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구조와 동족집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단의 조상숭배 관념을 없애고자 하였다(통일원, 1991:28). 그후 북한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전쟁복구와 사회주의 공업화정책을 위해 산아장려책을 펴고 여성해방을 명분으로 여성인력의 노동력화를 추구하여 부부관계를 사회주의 동료관계로 변화시키는 시도를 하였는데 <표 25>는 그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25> 가정의 혁명화 단계

혁명단계	주요혁명내용	여성해방강령	가족변화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단계 (1945.8-47.2)	민주개혁 (남년평등권)	법적, 제도적 해방	가족의 변혁
사회주의 혁명단계 (1947.2-58.8)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	사회적해방 (근로여성화)	가족의 안정화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단계(1958.8-현재)	3대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완전해방추구 (여성의 혁명화 가정일부담 해방)	가족의 강화 및 혁명화

자료:이윤희·박현선(1990),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과정 연구", 북한통일연구논문집:289

둘째단계는 60년대 이후 70년대 말까지이다. 60년대 이후 북한의 가족정책은 가정의 혁명화를 통한 전체사회의 혁명화를 강조하여 가정이 사회주의 혁명이론의 학습장으로 역할 할 것을 기대하였다. 다음은 1961년 어머니대회에서 김일성이 한 연설이다.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사회교육의 기초가 되고 사람을 교양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가정은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 등 육친적으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사회의 세포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차적으로 교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학교나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교양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기의 아이들을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양성해 낼 중대한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지금 도처에서 새형의 인간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자녀들에 대한 교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신이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되어야 합니다(북한연구소, 1977;429-430에서 재인용).

이러한 목적을 위해 북한은 1961년경부터 '어머니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어머니학교의 운영은 오늘날 북한의 여맹사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머니학교는 초기에는 가정주부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위생 및 자녀교육에 관한 일반상식의 교육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최근에는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당의 로선, 정책, 혁명역사, 조직생활규범, 과학문화, 위생지식, 자녀교양에 관한 것을 모든 여성들에게 의무적으로 배우게 하였다(북한사회론, 1977:628).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 당국은 가정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1968년 3월 14일 교육부문 일꾼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김일성은 가정보다 사회교육단체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가정교육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유치원과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교양받는 시간이 얼마 안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많은 시간을 유치원과 학교에서 보내면서 교양을 받으며 학교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군대와 사회에서 교양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교양되며 따라서 중요하게는 교육기관들과 당조직들 및 근로단체들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당로선과 혁명사상에 근거하여 사상혁명을 수행한다(연구부, 1982:60-61 재인용).

이러한 종래의 부정적 가족관이 변화하는 조짐은 1977년 9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나타났는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을 주시하면서 특히 청소년교육에 있어서의 가정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가정을 혁명화하고 가정에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 가정생활 자체가 학생들에게 혁명적인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시인하였다(연구부, 1982:61-62). 이처럼 북한의 가족정책은 한편으로는 봉건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색채를 없애려는 목적과 또 한편으로는 그 가족적 전통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혼재되어 일관된 가족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째단계는 80년대부터이다. 80년대이후 김일성 우상화작업이 강화되면서 가족성분은 사실상 절대적 힘을 갖게 되어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모습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 과거 호적을 없애고 친척과의 관계를 무의미하게 만들던 북한당국은 당원의 자격, 결혼, 자녀교육, 직업선택 등 모든 분야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90년 10월 24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족법'을 채택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통일원, 1991:17-21).

새로운 가족법의 특징은 종래의 가족정책에 비하여 가족의 전통적 측면을 상당히 인정했다는 점인데, 이는 김일성부자 세습이 공산주의 이론과의 모순점으로 지적되자 가족법 분야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통일원, 1991:16).

이러한 북한의 가족정책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북한은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구조와 동족집단의 조상숭배관념을 가족에서 배제하고, 그 대신 사회주의적 가족개념으로 대체시켰다(김학준 외, 1987:127). 이는 기존의 봉건적 전통과 자본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고 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족의 혁명화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기초단위로서의 가족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가족은 생산의 최저단위인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이론의 학습장이 된셈이다.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과정은 여성해방의 실현과정'이라는 슬로건 하에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장려하였고, 이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중요한 노동력 문제를 푸는데 기여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이 조직생활, 실천활동을 통해 교양되고 단련됨으로써 혁명화, 노동계급화되어 가정을 혁명화시킬 수 있었다.

둘째, 여성을 부엌으로부터 해방한다는 기치아래 어린이를 유치원, 탁아소에 맡기고 여성노동력을 사회에 투입시킨 정책은 북한의 가정에서 전통적인 모습과 정감을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여성들의 가사노동 부담을 '가사의 사회화'를 통해 덜어주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로 남아 여성들에게 이중부담을 안겨주고 말았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변화는 가정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과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청소년의 가정에 대한 인식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생활모습, 자녀의 장래와 관련된 가정의 역할 등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면을 청소년의 가정에 대한 인식,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정에서 주로 보내는 생활모습, 자녀의 장래와 가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가정에 대한 인식

앞에서 살펴본대로 북한의 가정정책은 북한가정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켰다. 도홍열이 월남자 및 귀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가정의 모습은 초기 단계에서 점차 가정분위기의 상실이 초래되면서 여성자신에게는 모성애가 유린되고 부모와 자녀들간의 거리감이 조성되면서 가정에서의 자녀교육기능을 무시하게 된다고 하였다. 탁아소와 유치원의 교양내용은 가정의 보조기능보다는 공산주의자 양성에만 초점을 두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특히 1970년대 이후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 구축과정에서 두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드러진다고 하였다(도홍열, 1978:110). 특히 1974년 4월에 제정된 '유아보육교양법'은 '모든 유아를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해 키운다(제 2조)'라고 선언하고 '모든 유아를 주체형의 혁명적이고 새로운 인간으로 키워 부인을 유아양육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한다(제 6 조)'라고 하여 어린이를 가정으로부터 소외시키게 되었다. 탁아소에서는 생후 2년 이상이 되면 간식을 줄 때마다 '원수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부모를 떠나도 살아갈 수 있으나 자부인 김일성 주석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식의 세뇌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포근한 삶의 안식처로서의 가정의 이미지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

<표 26> 가정생활과 여성의 역할

시 기	가 정 생 활	여 성 자 신
1953년	가정분위기파괴, 자식에대한애착심유발, 수고감소	모성상실
1954-60년	가정분위기삭막, 가정에 취미상실, 자녀들과 거리감조성	노동의 의무화, 초조, 불만, 고민, 직장생활가능
1961-65	전통가족제도파괴, 자식의부모불신, 효성상실	모성애 감소, 직장생활 강요, 젖먹이는 수고감소
1966-70	가정분위기 삭막, 편해짐	부담경감, 노력동원, 허전한 괴로움
1971-	자녀교육불충분, 모자간 정 파괴, 편해짐	자녀교육관심 희박, 편안함

자료:도홍열(1978), 북한청소년의 사회화실태, 국토통일원

이처럼 가정이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의 박탈은 가정교육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가정은 교육, 사랑, 안식처로서의 느낌보다는 청소년들이 먹고 잠자는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건조한 기능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2)부모와 자녀의 관계

북한가족법 제27조에 보면 '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교양을 잘하여 그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북한연구소, 1991:127)고 하여 자녀에 대한 사상교육의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제28조에 보면 '부모는 자녀의 건강한 신체의 발육을 책임지고 그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여 부모의 양육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8조의 말미에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로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하여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북한에서 가정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기능을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최소한의 가족의 기능은 실제 북한의 가정생활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녀로서의 정을 나누지 못하고 가정을 떠나 탁아소나 유치원에서 사상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를 느끼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부모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영향이 북한의 부모와 자녀관계를 어느 정도 소원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귀순자 이창수의 증언이다.

> 탁아소에서 자란 애들과 집에서 자란 애들은 차이가 많다. 탁아소에서 자란 아이는 탁아소에 있는 보모들이 때리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겁이 많다. 집에서 자란 아이는 엄마 아빠가 곱다 곱다하니까 어리광도 부리지만 배짱이 있다. 또한 탁아소의 아이는 월요일에 맡겼다가 토요일에 찾아가니 부모의 정이란 것도 별로 없다.

북한의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남한의 경우와 비교해 보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첫째로, 부모와 자녀간의 애정은 남한의 부자지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경우 자식에 대한 애착은 매우 큰 편이다. 특히 교육열의 경우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자식과 부모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다. 그 이유는 우선 부모와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어릴 때부터 부모의 품을 떠나 탁아소에서 집단생활을 하게 되며, 자녀는 학교생활과 조직생활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모는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므로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부모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모는 학교숙제나 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정지도를 하는 등 기본적인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한처럼 적극적인 부모와 자녀관계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귀순자 이창수의 증언이다.

> 북한의 학생들은 집나가서 자는 경우가 많다. 집나가도 내버려 두는 부모들이 많다. 배고프면 들어오겠지 하는 식이다. 돈없고 쌀없고 어디가서 배고프면 친구집 가서 한그릇 얻어 먹고, 다음날엔 다른 친구집에서 얻어 먹고, 실컷 얻어 먹어 보라는 것이다. 한집에 두 번 못갈 것이고, 그 사람 집도 쌀 모자라고 그애가 한번 와서 먹고가면 그집 엄마가 좋아하지 않을 테고, 다음부터 오면 인상쓸거고 그러면 그집에 못갈 것이고 다른 집에 가서 또 며칠 있으면 인상 쓸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발로 돌아 올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부모와 자식간의 사상적 대립과 같은 일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모는 자녀가 가능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며, 자녀도 부모를 고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왜냐하면 부모를 고발해서 부모가 당으로부터 불이익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받으면 성분이 중시되는 북한에서 그것은 곧 자기자신의 불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부부간에는 이혼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상적 대립과 고발 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다음은 귀순자 김성의 증언이다.

> 아버지를 고발해서 아버지가 당간부에서 떨어지면 자기도 헤어날 길이 없다. 왜냐하면 성분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못하여 떨어지면 아들이 떨어진거나 같기 때문에 그런 바보짓은 안한다. 그렇지만 부부사이는 정치성 문제가 생기면 고발을 한다. 왜냐하면 이혼하면 성분에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자간이나 모자간이나 그럴때는 절대로 고발을 안한다.

셋째로,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북한에서도 교사는 사회적 지위가 높지는 않지만 남한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학부모가 아무리 간부라 하더라도 담임교사는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와 학부모는 자녀교육문제로 자주 만나기도 하며, 특히 학교시설을 제공받거나 보수하거나 할 때 학부모의 물질적 도움이나 노력봉사를 받기도 하는 등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학부형총회는 학기마다 있으며, 성적표는 각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학부형 총회에서 학부형에게 주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교사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는데 여교사의 경우는 스타킹, 옷, 화장품 등을 선물한다. 남교사의 경우는 집에 초청해서 술을 대접하기도 한다. 이처럼 북한의 부모도 학교를 중심으로 자기자녀에 대한 관심은 남한처럼 열성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가정생활 모습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의식주이다. 특히 한창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먹을 것은 가장 큰 관심사이다. 몇몇 귀순자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의 수기에서도 북한청소년들이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먹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물론 남한의 청소년들도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청소년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입는 것 역시 모든 청소년들의 관심사이다. 그동안 노동에 편리한 옷을 입던 북한도 최근 옷모양에 대한 관심과 유행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창 멋을 내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서 옷은 매우 큰 관심사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다수 북한 청소년의 경우는 그런 멋을 낼 만한 옷의 여유는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주택문제인데, 청소년들의 생활공간 문제이다. 주택사정이 좋지않은 북한의 대부분 청소년들은 자기 개인의 방을 가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그나마 여러 세대가 한 집에 살고 있어 자신만의 공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이러한 청소년의 의식주문제는 전체 북한 가정의 의식주문제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이러 한 가정의 의식주문제를 중심으로 북한 청소년이 가정에서 보내는 생활모습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식생활

북한은 1957년 11월을 기해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에게 식량배급제를 확대 실시하였다. 식량 및 생필품은 5계층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는데 계층은 주민들의 성분, 직위, 직종, 연령등을 기준으로 '매일공급대상', '일주공급대상', '이주공급대상', '월공급대상', '인민반공급대상'으로 구분되며 양과 질은 물론 규격까지 차등지어져 있다(통일연수원, 1992:3). 따라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청소년들의 식생활환경이 바뀌어진다. 다음은 귀순자 이창수의 증언이다.

> 학교에서나 친구와 놀 때도 계층차이가 많다. 야영이나, 놀러 갈 때 도시락이나 간식 가져 오는 것 보면, 누구는 도시락 한다발 덜컥 싸오는 사람도 있고, 누구네 집은 김밥을 쫙 사가지고 오고, 사이다 몇병, 사과, 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계란 삶아오고 그런식으로 해오는 아이도 있고, 아무 것도 가져오지 않는 아이도 있다. 다른 애들이 조금만, 조금만 하고 구걸하며 따라다니기도 한다.

매일공급대상, 1주공급대상, 2주공급대상은 중앙 당간부나 정무원의 관료이며, 북한주민의 대부분은 인민반공급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배급은 통상 15일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배급절차는 각 직장에서 발급하는 배급카드로 리, 동 배급소에서 수령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주민들에게도 쌀과 잡곡(옥수수)을 유상으로 배급하고 있으며, 쌀과 잡곡의 배합비율은 평양과 지방 그리고 신분과 시기에 따라 다르다. 보통 일반주민은 동배급소에서 성인 1일 7백g (백미와 잡곡비율은 3:7, 농촌은 1:9)의 식량을 '전쟁절약미'를 공제한 후 수령하고 그외 식품의 경우에는 '부식구매카드'에 의해 식료품상점에서 구입한다(통일연수원, 1992:4).

<표 27> 1인당 식량배급 기준표

구 분	0-4세	5-14세	15세 이상		
			일반노동자	중노동자	병, 노약자
g/일	300	500	700	800	400

자료:정신문화연구원(1987), 북한체제연구, 고려원 : 296.

북한의 김일성은 심각한 쌀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1982년 "쌀은 곧 공산주의다"라고 선언하여 식량증산과 절약을 강조하는가 하면 종래의 '의·식·주'라는 용어를 '식·의·주'로 바꿔 표현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도 "옷감이나 집같은 것은 없어도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식생활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식량부족은 특히 성장기에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하는 북한청소년의 경우에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영양부족현상을 나타나게 한다. 최근 이러한 식량 및 생필품 부족으로 인한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 여성근로자의 약 10%가 갖가지 부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여성들의 부업은 도시의 경우 재봉, 편물, 신발때우기 등 가내봉제업이, 농촌에서는 송이버섯, 고사리, 더덕, 두릅 등 산나물 채취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어촌 여성들은 해삼, 멍게, 조개, 미역, 명태 등 해산물을 채취하여 판매함으로써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특히 여성의 경우는 직장과 부업, 그리고 가사 등에 시달리어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여유가 더욱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남녀평등의 가족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장중심, 남존여비 사상이 음식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귀순자 장기홍의 증언이다.

> 집에서 먹는 음식은 일단은 아버지가 제일이다. 밥을 할 때도 옥수수는 밑에다 놓고 쌀은 위에다 놓아야 익는다. 아버지의 것을 먼저 푼다. 아들과 딸의 경우는 아들 것을 먼저 푼다. 반찬은 겨울에는 김치 한가지이다. 여름에는 오이, 가지, 냉국이고 가끔 명태를 먹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간식을 즐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농촌의 경우에는 85%가 산악인 관계로 배가 출출하면 산에 올라가 머루, 밤, 칡뿌리 등을 따거나 파서 먹기도 한다. 다음은 귀순자 김창화의 증언이다.

> 저녁은 집에 와서 먹는다. 숙제는 공부시간 중에 하고 부모님이 없어도 동네 아이들하고 논다. 가을이면 자루등을 들고 쥐구녕을 파러가기도 한다. 쥐가 옥수수를 쌓아놓으므로 쥐를 이용해서 서리를 하는 것이다. 때로는 아버지 돈을 훔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도 하는데 사실 도 소재지도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는 힘들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도시의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으로 청량음료나 아이스크림 등을 사먹기도 한다. 다음은 귀순자 한성호의 증언이다.

북한산 사이다는 단물이라고 한다. 외제 사이다는 없다. 외제는 지금 백화상점이라는데 가야 통용된다. 단물은 사카린을 어떻게 녹여가지고 하는 것인데… 아이스크림이라고도 하고 얼음보송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아이들 말로는 얼음보송이라고 한다. 얼음보송이라는 것을 자꾸 여기서 강조하는데 그건 이따금씩 쓰는 거구 아이스크림이라고 많이 쓴다. 더우니까 많이 사먹는데, 글쎄… 사이다는 괜찮은데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저 그렇다. 그 외에 얼음이 막대기에 얼어가지고 애들이 단물만 쭉쭉 빨아먹기도 하는데 여기꺼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 맛이 달달하다. 강냉이는 좀 쪄가지고 파는게 있는데, 고구마는 드물다. 과자같은 것은 식료품 상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으니까 뒤로 빼돌렸다가 먹기도 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사먹기 힘들다.

유치원생들은 빵이나 강냉이 등을 간식으로 주기도 하며 평양 등 대도시는 집에 돌아갈 때 사탕이나 과자를 주기도 한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인민학생들에게 우유를 한 컵식 배급하기도 한다. 생일때는 특별한 음식보다 보통 때 먹기 힘든 쌀밥을 해주기도 하지만 미역국을 먹는 일은 드물다.

(2) 의생활

북한 주민의 의생활은 그들 사회의 폐쇄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단조롭고 획일적이다. 최근들어 북한의 의복형태는 이러한 단조로움에서 탈피하려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하나 아직도 주민의 대부분이 노동에 동원되기 때문에 유행이나 멋보다는 노동에 편리한 활동적인 의상이 대부분이다. 북한은 의류 역시 신분에 따라 차등 공급하고 있다. 계층에 따라 중앙공급대상과 일반공급대상으로 구분해서 배급량과 품질을 달리한다(통일연수원, 1992:10-11).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따라서 청소년들도 그 부모의 지위에 따라 의생활에 큰 차이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귀순자 한성호의 학교체육복에 관한 다음 증언내용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체육단복이 특히 북에서는 부러움이 된다. 외제 체육단복이면 더욱 그렇다. 이따금씩 학교에서 공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사회의 생필품 자체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단체로 맞출 수가 없다. 대부분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 체육복은 팔지는 않지마는 안면을 통한 다든지 편법을 쓴다든지 해서 구입한다. 체육시간에 나오는 것 보면 다 다르다. 어떤 애는 아버지가 외국출장갔다가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애들이 체육복이 없어가지고 그냥 팬티만 입고 나오기도 하는데 남자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학생이 팬티를 입고 나와서 달리기를 하는 것도 봤다. 그런 정도면 어느정도 부족한지 상상이 갈 것이다. 체육복의 재질은 라일론 내지 화학섬유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고, 면같은 것은 귀하다.

<표 28> 의류공급 기준표

대 상	회 수	품목 및 수량	비 고
노 동 자	년 1-2 회	작 업 복 1착	무 상
학 생	년 2 회	교 복 1착	염 가
기 사, 교 원	3-4년 1회	양 복 지 1착	〃
4호 대상 이상	2년 1회	〃	반 액

*주 : 4호 대상자는 시·군지역 당비서, 시·군인민위 부위원장, 2급기업소 이상 당 부비서, 지배인, 기사장급 이상을 말함.

자료:통일연수원(1992),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 : 12

학생들은 매년 동복과 하복을 구입하는데 인민학교의 경우 하복은 7-8원,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동복은 10-12원정도이며 고등중학교 학생은 하복이 12-13원, 동복은 16-17원 정도이다. 3명이상 학생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교복대금을 15퍼센트 할인해주기도 한다. 그밖에 겨울에는 외투가 배급된다. 가격은 30-40원이다. 모자, 가방, 신발 등은 3-5원정도이다. 일체 복장은 수시로 아무 곳에서나 구입할 수 없으며 구입시기를 놓치면 일정기간 살 수 없다(이항구, 1978:249).

옷가지, 이불 등 생필품은 김일성 또는 김정일 생일이나 명절에 때맞춰 배급가격(시중가격의 20%)으로 나오기도 한다(황병선 외, 1993:197).

1960년대 중반까지는 '천리마 시대의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는 의상의 착용을 강조한 결과 복장이 획일화 되었으나 1960년대 말부터는 의복의 유행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의생활에 대한 북한당국의 태도변화는 1960년대 본격화된 북송교포의 옷차림과 1970년대초 남북적십자회담시 남한주민의 옷차림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통일연수원, 1992:13). 당시 김일성의 '교시'를 통해 도시주변 주민들에게 유색복장의 착용이 장려된바 있으며 이어 1970년대 중반 이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와 사람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옷의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평양피복연구소 주관하에 '춘추의류 전시회', '기성복 전시회' 등이 개최되고 일본등지로부터 직물류를 수입, 가공 수출함으로써 의복형태와 색상무늬 등이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통일연수원, 1992:13).

의상이 주민생활을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복의 색상과 다양화가 북한사회에 대한 대외적 인상을 좋은 방향으로 부각시킬수 있다는 판단과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에 따른 정당성확보의 필요성이 이러한 변화추세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여유는 대도시나 고급간부의 집안에 해당되는 것이고 대다수 북한주민은 부족한 의복으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교복과 집에서 입을 수 있는 옷 한두벌 정도가 고작인 것으로 보인다.

학교 체육복의 경우는 흰색옥단으로 통일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단체로 구입해서 보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 속옷도 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급에 의존하는데 충분히 제때에 배급되지 않아 철이 지나서 배급되는 경우도 많다. 무릅이 찢어진 것이나 양말이 터진 것은 기워 입는 것이 대부분이다.

(3) 주생활

현재 북한의 주택보급률은 65-70%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최근 핵가족화로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인민생활향상의 당면 핵심과제를 주택건설에 두고 평양·남포·원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통일연수원, 1992:17).

원칙적으로 북한주민들은 개인소유의 주택이 없기 때문에 계층과 직위에 따라 규격화된 각 등급의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배정받아 주택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주택배정의 형태는 크게 분류해 볼 때 부부장급 이상의 고급간부들이 거주하는 특호로부터 말단 근로자와 집단농장원에게 배정되는 1호주택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구분되는데 이는 주택배정을 계급과 성분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1호인 소규모 주택을 배정받는데 집단주택, 농촌의 초가, 농촌문화주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도시 집단주택의 경우, 규모는 방 1개, 부엌 1개로서 공동변소·공동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입주대상은 주로 일반노동자, 탄광노동자·사무원등이 있으며, 농촌 문화주택의 경우 그 규모 역시 방 1-2칸, 부엌 1칸의 연립주택형으로 공동수도·공동변소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하류급 주택은 전체 주택의 60%가량으로서 북한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주택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해소를 위해 최근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부족, 자재 및 장비,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주택난 해소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1980년기준으로 북한의 총가구수는 약 700만가구이며 1세대가 8.4%, 2세대가 69.5%, 3세대가 16.7%, 4세대가 0.5%이다(김학준 외, 1987:128). 2세대(시부모와 아들부부, 또는 장인과 사위부부) 동거 아파트가 대부분이며 3세대(1부모 2형제부부 또는 2남매 부부)도 흔하다(황병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외, 1992:198). 또한 공장이나 농장의 합숙소에 별거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나, 현재 살고있는 집이 협소하여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옮기려는 세대들이 많다.

이와 같은 주택사정으로 청소년들은 자신만의 공부방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좁은 집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생활가구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청년의 다음과 같은 인터뷰는 북한가정의 생활수준을 추측하게 해준다(김동현, 1992:122에서 재인용).

> 사람이 살려면 5장6부가 있어야 하듯 북조선에서 잘사는 사람의 징표로 5장6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5장이란 이불장·양복장·식장(찬장)·책장·신발장이고 6기란 텔레비젼 수상기·냉동기(냉장고)·세탁기·사진기·재봉기·질기(옷짜는 기계)를 말합니다. ○○시내의 가구 중 5% 정도만이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4) 자녀의 장래와 가정

북한 가정의 의식주에 관한 생활을 살펴보았지만 북한은 성분과 직위에 의한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계층의 존재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 그리고 장래문제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학생은 성적보다는 그 부모의 지위이며, 인정받지 못하는 학생은 부모의 성분이 문제가 되거나 낮은 사회적 지위때문이다. 또한 고급간부의 자녀는 대도시 등 좋은 지역적 환경과 여유있는 물질적 생활, 그리고 텔레비전과 같은 문화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또한 여러가지 특권을 통하여 영화관람이나 연극, 그리고 고급식당 등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진다. 따라서 북한의 청소년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보다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그 청소년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자신의 장래를 위해 비젼을 갖거나 노력하기 보다는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아드리는 체념적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다. 하기하랴 료는 북한 탐방기에서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인상을 "특히나 나의 인상으로선 청년이나 학생들에게 원기가 없었다. 패기라든가 청년다운 객기가 없었다. 궤도를 벗어나는 일도 없다"라고 하여 북한 청소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하기하랴 료, 1990: 131).

그러나 비교적 자신의 노력에 따라 장래가 결정될 수 있는 고급간부 집안의 경우에는 대학입시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인기있는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대학의 합격을 위해서는 혁명역사(필수)와 국어, 외국어(영어와 러시아어), 수학 및 선택 2과목(문, 이과) 등 6개 시험과목을 공부하느라 코피를 쏟아야 한다. 30점 만점에 24점이상을 맞아야 합격권에 든다(황병선 외, 1992:198).

2. 여가 생활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보내는 시간을 우리는 흔히 여가라고 한다. 여가는 "노동과 대비적인 관계에 있으며 하등의 구속을 받지않는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여가생활이란 특히 통제된 학교학습시간과 조직활동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생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청소년들이 충분한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귀순자 어성일의 증언이다.

> 북한애들은 학교생활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다. 공부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은 거의 없고, 학교조직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오랫동안 종사시키는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다. 어린애들한테 너무 일많이 시키는 것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한다. 북한에서는 애들이 크지 못하는 이유를 과학자들은 물론, 일반사람들도 잘먹고 잘 자랄 시기에 먹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어린아이들도 조직생활시키고 해서 못 큰다고 말한다. 어떤 부모들은 우리 때는 먹지는 못했어도 키는 많이 크지 않느냐, 그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러므로 학교에서 조직생활해가지고 피곤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들 한다.

북한 청소년들은 수업이 끝난 뒤에도 조직의 월별, 주별, 일별로 작성된 사업계획서와 주간행사표에 의하여 사로청 혹은 소년단 간부들의 지도 아래 집단적으로 생활해야 한다. 대개 월요일에는 사회봉사의 날로 노력동원에 나가는 날, 화요일은 각종 회의에 참가하는 날이며,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노래, 문학 등을 보급하는 날이고, 목요일은 위생의 날로 청소, 위생 검열이 있다. 그리고 금요일은 실습의 날, 토요일은 체육의 날이다. 또한 일요일은 휴일이지만 오전에는 흔히 집단적으로 자습시간을 가지며 오후에 비로소 자유시간을 가진다(이항구, 1978:255). 이처럼 북한청소년은 학업이 끝나도 소년단이나 사로청의 조직활동, 즉 과외활동이 완전히 끝나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국토통일원이 월남 귀순자 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이 여가시간을 '학습활동', '휴식'에 쓰거나, '여가를 가져본 적이 없다'에 응답하여 북한주민들이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일원, 1983). 다음 귀순자들의 증언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 일요일도 완전한 자유라고 볼 수 없고 국가계획에 미달됐다고 하면 청소년이고 어른이고 노력동원에 나가야 되고, 또 행사가 있을 때는 조직활동도 해야 되는 등 한달에 한두번 정도는 계속 동원됐다(어성일).

> 애들 때는 많이 놀고 싶은데, 못놀게 하고 조직생활과 규율로 딱딱 잡아놓고 하니까 매우 자유롭고 싶어한다. 자유시간을 주어도 특별히 할 것도 없지만 그냥 밖에 한번 나가고 싶은 것이다(이창수).

> 일요일에 아이들은 모임이 있지만 부모들은 직장에 나가야 한다. 1년 중 직장이 쉬는 날은 7-8일뿐이다. 주말이라는 말도 없다. 아이들의 경우도 오전에는 학교에 가서 사회노동을 하고 오후에 노는 경우가 많다. 부모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아이가 함께 놀러가는 경우는 북한 주민으로서는 생소한 것이다(김창화).

북한 청소년들이 보내는 여가생활의 공간은 가정을 중심으로하여 동네 등 지역사회가 대부분이다. 여가생활은 여러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으나 그 사회의 특징에 따라 그 분류기준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북한청소년들의 실생활을 중심으로 대체로 텔레비젼 시청이나 휴식 등의 '휴식적 여가생활', 연극이나 영화관람, 문예활동 등의 '문화적 여가생활', 운동이나 놀이와 같은 '취미적 여가생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조직생활 외에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에 발생하는 청소년문제를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휴식적 여가 생활

휴식적 여가생활이라고 하면 텔레비젼 시청, 비디오나 오디오의 시청이나 청취, 신문이나 잡지를 보거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는 등의 생활을 말한다. 그러나 부담없이 가볍게 휴식을 취할 만한 매체가 부족한 북한의 청소년들은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지는 않는다. 통제된 학교생활에서 벗어난 이 시간을 그런 휴식으로 보내기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단순히 돌아다니는 것 만으로도 즐거운 경험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은 그런 여유가 없다.

북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정에 돌아오면 학교에서 내어준 숙제를 하고, 또한 각종 '좋은일하기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 운동은 전국의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된다. 땔감이나 구멍탄 등을 나르며 청소를 하는 등 집안일을 돕는 등, 실제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인민반내 연금생활자 등 어린이에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인민반 소속 어린이들의 방과후 학습을 지도해 주기도 한다(제빈, 1991:113). 또한 학습반조직이 되어 있어서 소집단별로 학습을 하기도 한다. 한 개 조직이 5-6명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녁 8시쯤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인다. 그러나 반드시 매일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하는 것은 아니며 장소가 없다든지 모이기가 힘들 때는 취소하기도 한다.

물론 고위층 자녀의 경우에는 텔레비전 시청이나 영화관람 등 평범한 집안의 청소년이 하기 힘든 여가생활을 즐기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 청소년들은 학습이나 과제가 끝났거나 도와줄 집안일이 없을 때 보내는 휴식적 여가생활은 특별한 양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보급이 부족한 북한에서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휴식과 함께 취할 수 있는 독특한 생활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냥 친구들과 돌아다니거나 집에서 쉬는 정도가 보통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귀순자 김성의 증언이다.

> 고위층의 자녀들이 공부를 대체로 잘한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사니까 우선 보는 것이 많다. 두번째로, TV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TV에 외국에 대해서도 조금씩 나오고 외국영화도 나오고 해서, TV를 본 학생과 안본 학생과는 공부할 때 차이가 난다.

2) 문화적 여가 생활

북한은 문화활동과 문화공간이 개인의 자율성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생활의 패턴이 매우 단조로우며, 더욱이 각종 공연, 영화상영, 전시회 등은 노동당이나 정부당국의 일방적인 연간 행사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소수의 특수층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가족단위의 문화생활을 누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연합통신, 1991:100-101). 또한 대부분 집단 조직생활을 하므로 문화활동도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북한의 문예정책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공산주의 인간학에 입각한 창작활동과 문예작품에서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 원칙을 적용하고 예술의 대중화와 작품의 계획생산 등을 내세워 개인의 예술활동을 당이 통제하고 있다(정문연, 1987:335). 즉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를 해체하고 혁명문화와 주체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이다(김학준, 1987:213). 따라서 청소년의 경우에도 집단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으로 영화관람을 하든가 공연을 보러 가든가 하는 집단적인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관람이나 전람회관람을 한 후에는 반드시 감상회나 토론회 등을 갖게 하는 등 문화생활이 조직화되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북한당국이 북한청소년을 비롯한 북한주민의 정치사회화 도구로 사용하는 문화매체를 중심으로 문화환경과 현황, 그리고 북한청소년의 이용실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인쇄 매체

북한 신문의 최고지도기관은 노동당 중앙당 선전선동부 신문과이다. 정무원 소속의 출판지도검열국 신문과가 있어 신문발행에 따른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북한의 중앙지는 로동신문(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민주조선(정무원), 로동청년(조선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이며 지방지는 시·도당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평양신문 등 12개이다(공보처, 1993:146).

북한은 1989년 기준으로 약 300만부 발행의 16개 신문과 약 60종의 잡지가 나온다. 모든 가정이 신문 잡지 중 한가지를 의무적으로 구독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배포된다. 도시지역의 인민반은 보통 20-30가구로 구성되고, 40-50개의 인민반이 모여 하나의 구역주민을 이룬다. 이들 주민에 대한 지도는 동·리 인민위원회가 하는데 시인민위원회, 도인민위원회에 종속되어 있다(공보처, 1993:109). 신문은 인민반 반장에게 배달되어 다시 각 가정으로 배달된다(제빈, 1991:86). 그러나 종이 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은 최근 인쇄매체의 발행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는 연평균 1억 7천만부에 이르는 약 8천종의 책과 소책자가 나오는데 이중 1위는 물론 김일성과 김정일의 작품이다. 매년 2천만부, 약 140종의 작품들이 출판된다. 그밖의 사회정치서적은 약 300만부에 600종, 기술서적은 약 500만부에 1천종, 어린이 서적은 약 5천부에 500종이다. 그리고 예술부분을 포함해 외국서적번역은 200만부에 300종 정도다. 그외의 1억 3천만권 정도는 학교교육용 서적이다(제빈, 1991:87).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취미나 적성에 맞게 다양한 인쇄매체를 접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쇄매체의 발행부수가 적고,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서점 등 독서환경이 미흡하고, 또한 그 내용이 대부분 정치선전용이어서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 방송 매체

텔레비젼 방송국은 조선중앙, 만수대, 개성 3개국이며 라디오는 중앙의 중앙방송(대내외용), 평양방송(대남용) 2개국이며 특수방송으로 구국의 소리방송(대남선전용), 평양 FM방송(대남청소년심리전용) 2개국, 지방은 해주방송 등 11개국이다. 통신사는 조선중앙통신사가 있다(공보처, 1993:148). 북한에서 영화가 인기를 끄는 이유중 한가지는 텔레비젼이 많이 보급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TV수상기 보급률은 평양의 경우 60-70%이고 지방은 2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흑백 TV가 대부분으로 양적인 면에서는 물론이고 방영내용면에서도 극히 일부 시사적인 뉴스를 제외하고는 사상교양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TV문화가 아직은 초기단계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북한에서의 TV수상기 1대 가격이 3백-5백원의 고가인 만큼 일반 사무원이나 노동자의 평균 월급 70-100원 정도로는 구입이 어려워 본격적인 TV문화의 보급은 짧은 기간내에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당국은 TV문화의 향상을위해 TV방송국의 증설과 프로의 다양화, 컬러 TV수상기 보급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대영, 1990:65).

라디오는 각 가정마다 유선방송의 선을 끌어 스피커를 설치하고 주로 중앙방송을 청취하게 한다. 스피커선은 전신전화소에서 무료로 설치해주나 스피커는 상점에서 배정받아 구입해야 한다. 자체에서 만든 라디오는 생산시부터 중앙방송으로 다이얼이 고정돼 있고 수입, 또는 반입된 외제는 전량 국가보위부에 등록과정에서 중아방송으로 다이얼이 고정된다(김대영, 1990:65).

텔레비젼의 보급대수가 많지 않으므로 일반청소년들이 텔레비젼을 시청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 북한의 텔레비젼이 정치사상교육이나 교양교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육에 중심을 두고 있으므로 텔레비젼의 시청여부는 청소년들의 학교학습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의 경우도 대부분 정치선전용 내용으로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더우기 남한에서처럼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못되기 때문에 남한의 청소년문화에 라디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3) 영화, 미술, 음악

북한은 텔레비젼보다 영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 북서쪽 형제산구역 하당리에 조선예술영화촬영소는 북한 최대의 영화제작소로 1500명의 종사원이 있으며 감독 27명, 배우 200명이 전속되어 있고, 연평균 30편의 영화를 만들고 있다. 예술부총장 산하에 5개 창작단(백두산, 보천보, 삼지연, 왕제산, 대흥단)이 있고 각 창작단 마다 3개의 제작단이 있어 실제 영화는 총15개의 제작단이 만드는 셈이다(황병선 외, 1991:331-2).

영화관람은 북한 서민대중이 가장 즐기는 여흥이다. 영화관은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도 1개이상 마련돼 있으며 연극공연과 대중집회 장소로 사용되는 극장도 비교적 잘 돼 있다. 평양시내에는 전승영화관, 락원영화관 등 5백 내지 1천석 정도의 큰 영화관이 6개정도 있으며 일반도시의 경우 4-6개소씩 설치돼 있다. 예컨대 청진시에는 도립예술극장, 인민극장, 시예술극장 등이 있는데 극장규모는 대개 5백석 정도이다(김대영, 1990:65).

북한은 영화를 '직관예술'이라 하여 다른 공산국가와 마찬가지로 어떤 예술장르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 영화나 연극의 내용은 혁명사상을 고취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긍정적인 인물과 부정적인 인물을 등장시켜 부정인물을 응징하는 것이다. 영화와 연극은 김일성 항일투쟁 역사, 공산당의 위대한 정책노선, 사회주의 우월성, 반미사상 반일사상, 반동분자 숙청, 반동분자와의 투쟁 등이 주 내용이다. 부정적인 인물은 해방 전의 소재로는 일인과 지주, 해방 후의 소재로는 미국인이나 남한인 또는 보수적인 인텔리 등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내세우고 있다(김대영, 1990:65). 월 3회이상 영화관람을 한 후 반드시 영화 감상모임에 동원되어 사상적 영향과 감동 등을 토론하고 자기의 책임량 수행에 더욱 분발하겠다는 결의나 충성을 맹세하기도 한다(북한연구소, 1983: 1064).

영화관을 주로 찾는 층은 청소년들인데 이들은 월 2-3편 정도의 영화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과 같이 연소자 관람불가와 같은 구분은 없다. 다음은 귀순자 한성호의 증언이다. "아이들도 영화극장은 맘대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전반이며는 한 2-3시까지 학교에서 단련받다가 나가가지고 '영화관 가자' 그래가지고 애들끼리 영화관에 자유롭게 갈 수가 있다."

인기있는 영화는 대부분이 외국영화(소련등 동구 공산권 제작영화)로서 전쟁 및 폭력물 등이다. 그나마도 동구 개혁사태 이후 소련 등 동구 공산권의 영화는 거의 수입되지 않는 실정이다. 관람료는 외국영화 50전, 북한영화는 40전으로 비싸지는 않은 편이다. 인기가 있는 영화를 보려면 극장앞에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표를 사야할 정도라고 한다(김대영, 1990:65). 이처럼 인기가 있었던 영화로는 몇년 전에 루마니아에서 수입된 '깨끗한 손으로'라는 액션영화가 있었으며 특히 신상옥감독이 북한에서 만든 영화들은 대체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신감독은 북한체류중 '돌아오지 않는 밀사', '홍길동전', '사랑사랑 내사랑', '철길따라 천만리' 등 많은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중에서도 춘향전을 다룬 '사랑사랑 내사랑'은 특히 관객들이 많이 몰려 들었으며 주제가도 주민들 사이에 애창되고 있다. 최근에 평양에서 가장 인기있었던 영화는 '내고향의 처녀들과 초대장' 인데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상성이 들어있다(황병선 외, 1993:150).

청소년들의 영화배우에 대한 선망은 남한의 청소년과 같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단지 부러워하는 정도로 생각된다. 다음은 귀순자 어성일의 증언이다.

> 연예인에 대한 동경이 북한에도 있기는 있지만 여기처럼 광적인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자기네 하고는 생활범위가 많이 다르고 접할 기회가 부족하고 하니까 뭐 부러워하고 또 잘생긴 여자들이나 있으면 얘기는 많이 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지만 광적인 것은 없다.

북한미술은 한국전쟁후 전후 복구건설시기에 노력동원과 체제옹호의 작품 창작이 많았고, 1960년대에 들어서는 대형조각과 그림이 장려됨으로써 집체적 제작경향이 두드러졌다. 1970년대에는 각종 동상과 기념탑이 대량 제작되고, 혁명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그림들이 양산되었다. 음악은 최근 조국통일에 대한 주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장르는 순수기악보다 당정책을 주입하기 위한 성악곡에 치중하고 있다(김학준, 1987:216-7). 이러한 노래들은 집단조직의 모임을 통해 보급된다.

북한의 미술과 음악 역시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취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대한 주관적이고 독창적인 감동과 해석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의미에 역으로 맞추어가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이러한 문화예술환경은 북한청소년의 미적 욕구나 태도에 감동과 창조보다는 획일과 모방의 심성을 심어주게 된다.

(4) 관광, 공연관람 및 명절

북한청소년이 개인적으로 관광이나 교외로 놀러가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등의 문화생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평양에 사는 청소년의 경우는 평양시 관광명소인 만경대, 평양지하철, 창광원, 소년궁전, 9.15탁아소, 김일성대학, 만수대극장, 평양산원 등 대형시설물들을 관광할 기회가 있지만, 지방의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명소를 관람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소년단이나 사로청에서 우수한 열성 맹원에게 집단적으로 그런 기회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양에는 2천-3천석 규모의 대형공연장들이 10여개나 되는데 광복거리에 있는 평양교예극장은 일반교예, 수중교예, 빙상교예, 동물교예를 다할 수 있는 3천5백석 규모의 서커스 전문극장으로 89년 4월 완공되었다(황병선, 286-7). 이러한 공연장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 공연관람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은 쉽지 않다. 북한에서의 공연관람은 학습의 연장으로 대부분 집단적으로 지정된 프로그램을 관람하게 된다(김학준 외, 1987:183).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교외로 놀러가는 일도 거의 없다(김학준 외, 1987: 191). 시골의 경우에는 산이 많으므로 가까운 산에 가서 놀기도 하고, 산나물이나 열매를 따 먹기도 하지만 도시의 경우에는 등산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음은 귀순자 한성호의 증언이다. "평양시내는 많이 개발해가지고 산이 없다. 그러므로 놀 산도 없다. 그러니까 산에 가려면 평양시 외곽지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기엔 군대들이 지키고 있다. 차도 통제하고 있으니까 산에 간다는 생각조차 못한다."

그러므로 대부분 학교나 소년단 등의 집단적인 원적(소풍)이나, 행군 등의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할 뿐이다. 때로는 학교에서 과외공부로 가까운 산이나 공원 등에 견학가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은 한성호의 증언이다.

> 유원지에 가서 놀이기구를 탈 수도 있고, 생물공부도 좀 할 수 있다. 대성산 유원지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산림돌이 많으니까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것은 무슨 나무다 하고 대주면서 공부를 몇 시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애들하고 같이 놀이공원 비슷한 기구들을 타고 하루를 그냥 과외공부로 이렇게 시간을 내주는 경우도 있다. 놀이기구 타는 것은 애들이 얼마씩 가져오라고 하면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타온다. 아주 소량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가져오는 애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고위층이나 일반 청소년들도 부모를 따라 휴양소에 가기도 한다. 휴양소는 국영이며 일체 비용은 무료이다. 휴양소 입소인원은 분기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모범노동자나 열성당원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휴양소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표 29> 국경일과 기념일

이 름	국가명절	민속명절	기 념 일	휴 일 수
설날	1.1			2
음력설날		1.1(음)		1
김정일생일	2.16			2
기계절			2.20	
농업근로자절			3.5	
국제부녀절			3.33	
어부절			3.22	
보건절			4.5	
식수절			4.6	
체신절			4.8	
한식		4.6		1
김일성생일	4.15			2
조선인민군절			4.25	
국제로동절	5.1			1
철도절			5.11	
지질탐사절			5.15	
건설자절			5.21	
국제아동절			6.1	
조선소년단창립절			6.6	
지방공업절			6.7	
단오		5.5(음)		1
광부절			7.1	
탄부절			7.7	
임업노동자절			8.10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 름	국가명절	민속명절	기 념 일	휴 일 수
해방기념일	8.15			1
공군절			8.20	
청년절, 해군절			8.28	
도시경영절,교육절			9.5	
추석		8,15(음)		1
정권창건일	9.9			1
상업절			9.15	
금속노동자절			10.9	1
로동당창건일	10.10		10.14	
방송절			10월 두째일요일	
체육절			10.15	
방직공업절			11.1	
출판절			11.16	
륙해운절			12.6	
화학공업절				1
헌법절	12.27			

자료:공보처(1993), 도표로 본 북한의 오늘 : 150-51.

생활도 담당안내원의 지시에 따른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이런 혜택을 누릴 기회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가정을 떠나 교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소년단이나 사로청원에서 모범맹원으로 선발되어 야외훈련의 일환으로 갈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의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은 대대적인 행사로 치루어진다. 이 행사에는 각종 문화행사가 곁들어지는데 북한의 국경일과 기념일은 <표 30>과 같다. 총기념일은 40개이며 청소년관련 기념행사일은 국제아동절(6월1일), 조선소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년단창립절 (6월6일), 청년절(8월28일), 교육절(9월5일) 등이다.

3) 취미적 여가 생활

북한 청소년들이 즐기는 취미적 여가생활은 남한의 경우처럼 다양하지 못하다. 발달시기로 봐서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 보고싶은 시기이지만 그런 재능을 발휘할 시간적 여유나 정신적 여유, 또는 물질적 조건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귀순자 한성호의 증언이다.

> 거기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침울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 사회에서 취미생활을 즐기자 하는 식의 여유가 별로 없다. 영화관 가는게 아무래도 가장 큰 취미인 것 같고, 영화를 보고 집에 와서는 오후 6시부터 TV를 하니까 TV보고, 숙제 좀 하고, 애들하고 공 좀 차고, 뭐 자기 동네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이처럼 북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서는 북한청소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독서, 미술, 노래, 놀이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독서의 경우 북한 청소년은 그림책(만화책)을 가장 흥미있게 보는데 도서관이 군에 하나 정도 있고, 학교도서관은 없다. 또한 책도 많지 않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지는 않는다. 청소년이 읽을 수 있는 서적은 북한이 발행한 서적이며, 외국서적은 주로 기술서적, 일부 중국어, 노어 등 외국어로 된 문학작품 등으로 북한 당국의 검열을 받은 것에 한한다. 북한이 발췌하여 공개한 한국신문, 잡지, 소책자(한국의 비참한 사회상 등이 담긴 것) 등도 청소년이 볼 수 있다. 당의 신뢰도가 높은 연구원생급 이상은 국립도서관 특수자료실, 중앙당도서실 및 자료실, 남조선문제연구소 도서실 등에에서 열람가능하지만 청소년들이 쉽게 책을 구해서 읽기는 힘들다.

북한 문학활동의 기본노선은 창작방법에 있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원칙,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당성 계급성 인민성 강조, 당의 정책노선 및 정책관철 등이다. 따라서 흥미를 자극하는 작품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소년단이나 사로청에서 주관하는 김일성 노작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끔 재미있는 소설들이 유행하기도 하지만 독서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는 공산주의를 위하여 일하고 투쟁하는 모습, 공산주의를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이며 김일성의 초상화, 노동자의 노동광경, 전쟁(인민군이 승리하는 모습, 항일투쟁 등) 등이 대부분이며 단순한 풍경화나 추상화는 거의 없다. 그러나 미술을 좋아하는 청소년은 소년단이나 사로청에서 주최하는 미술대회에 입상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노래는 가사위주로 작곡되며, 가요내용은 김일성업적, 인민군찬양, 노동의 즐거움, 사회주의 우월성, 승리에 대한 신념 등이 주제이다. 때때로 많이 유행되는 노래가 있기도 한데 그 가사내용보다는 재미있는 멜로디 때문에 유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방송매체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유행되는게 대부분이다. 다음은 귀순자 어성일의 증언이다.

> 음악도 혁명가요로부터 찬양가, 송가 등 여러가지가 있다. 북한에서는 노래부르는 것도 지정되어 있는게 많다. 당생활총화나 사로청총화 등 행사때마다 지정된 곡을 부른다. 혁명과업수행을 지향하거나 사람들의 사상관습을 이끌어나가는 좋은 가요가 생겼다 하면은 중앙당 선전선동부 등에서 이달에는 어떤 어떤 혁명적인 노래를 배워야 된다고 지정해 주면, 지정곡을 일 끝난 다음에 노래학습으로 노래따라 배운다. 그 외에는 젊은층에서 외국에서 부르는 노래도 좀 부르고, 한국노래도 몰래몰래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한국노래인줄 모르면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몰래 부르고 배워주는 애들도 있다.

집단적으로 부르는 노래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친애하는 김정일 선생님 노래같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청소년들끼리 비공식적 모임에서는 재미있는 노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래, 춘향이 등 사랑과 관계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최근에 평양에서 유행하는 조기천(시인)이 작사한 '휘파람'은 '복순이네 집 앞을 지날 땐 이 가슴 설레어 나도 모르게 안타까이 휘파람을 불었네. 휘이-휘이 보고 또 봐도 그 모습 다시 보고 싶네'라는 가사와 같이 뜨겁고 진한 사랑의 호소를 서구풍 경쾌한 리듬의 대중가요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자기타 전자오르간 등 전자악기가 등장하면서 가수들의 노래가 우리와 비슷하게 발라드 풍의 창법으로 변하고 있고 디스코 리듬의 빠른 경음악 연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에는 만수대 예술단, 시립예술단이 인기였으나 최근에는 왕재산 경음악단과 보천보 전자음악단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황병선 외, 1993:105-117).

북한청소년들이 취미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친구들과 노는 경우,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주로 먹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북한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특히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외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물건은 '시계'인데 주로 일제시계를 가지고 싶어한다. 그리고 녹음기도 갖고 싶어하는 것의 하나이지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 고위층 자녀에게 해당될 뿐이다. 그런 물건은 선물로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북한에는 선물의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귀순자 한성호의 증언이다.

> 졸업하면 축하한다 이 한마디면 되지 졸업이고 생일날이고 선물을 안해준다. 선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안 서있다. 외국이나 출장갔다 오면 돈을 내서라도 부담을 느끼면서도 사오고 하지만, 추석날이고 설날이고 선물이라는 게 없다. 누가 좋은 것을 구했다하면 그걸 누굴 줄까 하다가 선물을 줄까, 선물주고 받는 일은 별로 없다. 아이들은 시계를 매우 갖고 싶어한다. 시계는 외제, 세이코라든지 오리엔트 등을 좋아 한다. 그러나 그런 고급품을 가지고 있는 애는 드물다. 소형녹음기는 신기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외국음악도 돌을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거 하나 가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는 게 엄청 소원이다. 그런 것은 능력이 있는 집에서나 사지 일반적으로 국내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 청소년들도 외모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생활전문 디자인 책자의 발간을 통하여 의류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패션감각을 일깨우고 있다. 이들 잡지에 의하면 최근 북한여성들의 머리모양은 머리를 뒤로모아 수국화 꽃송이처럼 부풀린 '수국화 머리'와 물결처럼 흐르는 '옥류머리', 전체적으로 파마한 뒤 짧게 자르고 헤어드라이어로 파장을 내여 완성한 '들국화 머리' 등이 있으며 이러한 머리모양은 평양, 원산, 개성 등 대도시 미용실에 사진이나 그림으로 전시되어 미용실을 찾는 여성들에게 권장된다고 한다(통일연수원, 1992:16). 청소년들도 이런 경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유행을 모방하는 것 같지는 않다. 여학생의 경우는 댕기나 리본 등의 정도에 관심을 가질 뿐이며 남자들도 머리모양에 신경을 쓸 정도이다. 그러나 심한 경우는 학교에서도 단속도 하고, 용의검사 등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귀순자 한성호와 장기홍의 증언이다.

학생들의 헤어스타일은 단속한다. 선생님들이 가위 가져와서 머리 자를 거라고 겁을 주기도 하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당기기도 한다. 머리 파마는 못하게 하고 기르던지 짧게 하든지 그건 상관없다. 머리스타일은 아무래도 유행이라는 걸 타가지고 한국전쟁때 남한에서 첩보활동을 했던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이름없는 여인들'이란 영화가 인기였었는데, 그 주인공이 기자인데 머리를 매우 길렀었다. 그게 엄청나게 유행이 되어 학생들이 머리를 한참 길렀다. 그래서 82-3년도 그때부터 장발단속을 하기 시작했다… 공부 끝나고 애들을 다 마당에 모아놓고 학급별로 줄도 틀리면 안되게 서서 '손' 하면 손 딱 내밀며는 손톱검사를 한다(한성호).

88년 내가 북한을 떠나기까지만 해도 나팔 바지가 유행이 되었는데 교복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에 안감을 대어 나팔바지를 만들어서 입었다. 머리는 길면 학교에서 단속해서 잘라 주기도 한다. 머리는 이발소나 동네에서 잘 깍아 준다. 복장이 이러한 아이들은 대부분 말썽꾸러기다. 북한의 학생들은 대부분 모자를 쓰는데 보통 교복에 달린 모자는 두줄로 바느질을 했는데 이런 아이들은 모자를 다 뜯어서 한줄로만 하고 신발의 경우는 끈을 나비모양으로 하기도 한다. 여학생의 경우 신발 등에 신경을 쓰고, 어린 여학생은 댕기나 리본에 신경을 쓴다. 그리고 화장은 평양은 조금 빠르겠지만 보통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2년정도 후에 한다(장기홍).

북한청소년들이 노는 모습은 우리나라 과거 1960-70년대의 모습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동네친구들이 모여서 별다른 도구없이 자연물을 이용하거나 몸으로 하는 놀이를 즐기고 있다. 다음은 귀순자 안혁과 김창화의 증언이다.

친구들끼리 동네에서 놀 때는 남자청소년은 몰아기치기, 소독치기, 공차기, 인사놀이, 외발 스케이트, 팽이치기 등을 하는데 모치기는 지주의 놀이라해서, 땅따먹기는 자본주의 근성을 심는 것이라 해서 못하게 하고 있다.(안혁).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줄넘기나 씨차기, 자갈차기, 말타기, 소타기 등을 한다(김창화).

이밖에 우리의 고스톱처럼 북한에서 유행하는 것으로는 '주패놀이'를 들 수 있다. 주패놀이는 트럼프의 일종으로 버스표 등을 걸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그저 재미로 하는 경우가 많다. 여자들은 윷놀이를 많이하며 노인들은 장기를 많이 둔다. 북한의 장기는 남한의 것과 똑같고 다만 말의 이름이 한자가 아닌 한글로 씌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바둑은 지난해부터 도입되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대영, 1990:65). 그러나 청소년들이 이런 놀이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4) 청소년 문제

어느 사회에서나 청소년 시기는 사회화과정에서 쉽게 일탈행동을 할 수 있는 심리적 이유기이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반사회적 일탈행동으로서 비행청소년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요한 사회적 현상의 하나이다. 북한사회에서도 청소년문제는 주요한 사회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청소년문제, 특히 청소년비행의 문제는 그 사회의 규범에 따라 청소년비행의 개념이 결정되므로 남한과 북한의 청소년비행을 비교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북한에서 문제되는 청소년비행을 중심으로 청소년비행의 실태, 원인, 그리고 북한당국의 대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실태

우선 북한에서의 청소년비행 실태를 보면 <표 30>과 같이 남한의 청소년비행과 그 유형에 있어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행의 유형을 타인에게

<표 30> 각종 범죄 현황

범죄유형	범 죄 내 용
정 치 범	당유일사상 지도체계 위배행위, 사회주의건설에 역행하는 행위, 당정책 순결성 훼손행위, 월경탈출행위
인신침해범	강간, 간음, 간통, 매음, 폭행, 상해, 살인, 낙태
경 제 범	절도·강도, 횡령, 사기, 암거래, 품귀상품 부정유출, 정량미달출고, 감량판매, 부정계량기 사용
청소년범죄	깡패, 절도·강도, 소매치기, 반당·반혁명 행위

엄종식(1988), "청소년문제", 통일한국 52권, 4월호 : 59-61.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비행", 주로 재산을 탈취하려는 "재산적 비행", 주로 남자에 의한 "성적 비행", 그리고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은둔적 비행"으로 나누어 본다면, 북한의 경우 청소년 비행은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행의 유형별로 청소년 비행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비행 중의 하나는 재산비행이다. 이 재산비행은 남한의 경우처럼 유흥비 마련이나 견물생심에 의한 우발적 비행이 아니라 결핍에 의한 비행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절도가 가장 많은데 가정집에 들어가 쌀을 훔친다든가, 남의 주머니 돈을 훔친다든가, 찬장을 열어서 밥을 뒤져 먹는다든가 하는 배고픔에 의한 비행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이는 그들을 돌봐줄 가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김창화의 증언이다.

> 지금은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몰려나와서 개성, 평양, 청진 등에 몰려 다니면서 도둑질과 쓰리를 한다. 쓰리는 서동무, 쓰리하는 사람은 바위본당, 도둑질은 물차기, 교도서 한 번 갔다오면 탕생 등이 약칭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소년의 조직범죄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청소년 폭력조직은 원산, 함흥, 남포 등 외국인 출입이 잦은 항구와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절도, 강간, 소매치기, 패싸움 등의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안정수, 1990:217-237).

북한 청소년들이 두번째로 많이 저지르는 비행중의 하나는 집단패싸움이다. 패싸움은 학교끼리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서클별로 일어나기도 한다. 다음은 귀순자 장기홍의 증언이다.

> 싸움을 할 때는 미리 약속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 몽둥이라든가 돌을 쌓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아둔다. 싸우다가 먼저 달아나는 패는 무조건 진 것이다. 진 팀은 죽는 것은 아니지만 머리가 깨지기도 한다. 진 팀의 경우, 진 것이 서러워서 밤에 상대편 집의 유리창을 깨기도 하는데 이를 토벌단이라고 한다.

물론 조직적인 서클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간부자녀가 두목이 되는 패거리가 상당히 많이 결성되어 있다. 그것은 간부의 자녀가 두목으로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성적비행은 드문 것으로 보인다. 그 기본적인 이유는 아마 학교시절부터 남녀가 철저히 구별되어 교육받기 때문에 이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성문제에 대한 귀순자 김성의 증언이다.

이성문제 얘기가 조금씩 들리긴 하는데 중·고등 학교때는 감히 생각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가 우선 다르다. 나같은 경우는 학생 때 여자 한번 보기가 힘들었다. 인민학교때는 남녀공학이었지만 여자반 남자반이 달랐다. 고등중학교 올라가면 아예 학교가 다르다. 그러기때문에 대학가서 시험칠때도 여자들 만나면 대개 고등학생들은 얼굴 빨개질 정도이다.

따라서 또래 이성간의 성적비행은 드물며 오히려 청소년이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성인에 의한 여자청소년에 대한 성적 추행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북한사회 전반에 일고 있는 성범죄의 추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북한에서는 접대부가 술을 파는 술집이나 창녀들이 집단거주하는 곳이 없어 외견상으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나 음성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간통, 강간 등의 성범죄는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의 외항선이 출입이 빈번한 항구도시에서 매음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있다(안정수, 1990:231). 북한사회에서 발생하는 간음·간통의 경우는 당·행정기관, 공장·기업소, 사회단체의 간부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끔 특수기관원의 신분을 사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칭하여 부녀자들을 위협 추행하는 사례도 있다. 매음은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대도시에서 행하여지고 있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청소년에게도 다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고, 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성이 상품으로 공개되어 청소년을 자극하는 분위기가 없으므로 남한처럼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은둔비행의 경우는 흡연, 음주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남한의 경우 청소년의 약물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 있고, 음주와 흡연도 상당한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비하여, 북한의 청소년들은 고등중학교 고학년의 경우 외에 그러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드, 대마초나 마리화나 같은 마약성 물질은 아예 구할 수도 없으며, 단지 아버지나 성인에게서 훔친 담배나 술 등을 호기심에서 경험한 경우는 있으나 사회문제가 될 만큼 퍼져 있지는 않다. 또한 음란서적이나 음란비디오 등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구할 수가 없으므로 그런 음란물에 대한 경험도 거의 없는 편이다.

(2) 원인

청소년 문제의 원인은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환경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심리적 측면은 주로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남한의 청소년이나 북한의 청소년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 원인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북한사회에서 청소년 비행의 특징이 주로 식량에 대한 절도임을 볼 때, 북한 청소년 비행의 가장 큰 사회환경적 원인은 물질의 결핍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량절도가 기호품이나 사치품이 아니고, 식량이란 점에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고 활동이 많은 시기이므로 많은 영양이 필요하나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보면 이러한 비행은 앞으로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다.

둘째로 북한 사회에서의 청소년 비행의 또다른 사회환경적 원인은 사회통제력의 약화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고도의 정치적 사회생활에 치중함으로써 정치적 범죄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범죄가 아닐 경우 설사 절도를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해서 체포된다 하더라도 크게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그 범행이 좀도둑의 성격이기도 하지만 민생보다는 정치적인 생활에 지나친 통제가 역으로 사회적 치안의 부재상태로 방치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귀순자 김영성의 증언이다.

> 옛날 청소년 보다도 좀 극악해 졌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웬만큼 나쁜 짓하고 붜 이래도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 도둑질을 했다고 해도 제 물건이 아닌 이상 그걸 붙잡거나 이러지 않는다. 왜냐하면 애네들이 화가 나고 싸움하게 되면 무조건 돌을 쥔다. 그렇길래 아무리 쬐끄만 아이라도 건드리지 않는다. 아이들이 상당히 포악하다.

셋째로 북한사회에서 청소년비행의 통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정의 통제력 결핍도 중요한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북한사회에서는 유아기에서부터 조직적인 정치사회화로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고 있지만 가정의 혁명화로 정서적인 가정생활이 결핍된데서 이러한 비행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쭉 통제되지 못한 정서적 불안정이 사회생활의 경험에서 어떤 차질이나 갈등을 초래하면 반발의 심리적 근거가 마련되고 사회제도가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는 한 일종의 비행심리가 근저에 잠재해 있어 기회가 허용되면 현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국토통일원, 1983: 33).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3) 대책

북한청소년의 비행에 대처하는 북한의 사회체제는 역시 조직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청소년일 경우,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돌아간다. 북한은 누구나가 조직생활을 하므로 그 부모가 다니는 직장의 당조직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당조직에서 그 학부형을 비판하게 된다. 가족혁명화를 추구하는 북한가족정책은 자기만 혁명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혁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원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신적으로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불이익을 준다. 교육규정에 의하면 학생이 한달동안 세 번 지각을 하면 하루의 식량을 제하게 되어있다. 인민학교학생들과 고등중학교 3학년까지 400그램 급식이고, 붉은청년근위대에 갔다오면 500그램인데 세번만 조퇴를 해도 하루 식량을 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배급을 타러와서 자녀가 문제를 일으킨 걸 알게 된다. 배급은 각자가 아니라 세대별로 타므로 학생이 처음 학교에 입학할 때 학교에서 배급권을 준다. 한번에 보름치를 타는데 400그램짜리 15칸이 있는데 만약에 하루를 결석하거나 세번 지각 했던가 하면 다음번 배급에 가서 하루치가 짤리므로 부모들은 그나마 모자라는 식량에 짜증이 나고, 자녀가 학교생활 잘 안하니까 속상하고 해서 이중적인 부담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학생은 부모에게 꾸중듣고, 학교가서 선생님한테 꾸중들고, 각 소년단 조직에서 비판받는 등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한 비행청소년은 소년교화소에 수용한다. 북한은 비행청소년들의 반사회적 비윤리적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잡아다가 노동과 교육을 통해서 일년동안 교정교육을 시켜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한다. 평양을 비롯하여 각 도 및 직할시 단위에 설치된 수용시설에는 주민 통제조직인 이른바 '인민반' 또는 '5호담당'조직 등을 통해 고발당했거나 사회안전부계통에서 적발된 불량·비행청소년들을 강제 수용, 일반사회와 격리시키면서 주로 강제노동을 통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일단 수용된 청소년들은 가족과의 면회도 허용되지 않는 등 일체 외부접촉을 금지당한 채 집단감금 생활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감수해야 하며 퇴소 후에도 광산, 탄광, 벌목장 등 중노동 노역장에 강제 배치되기도 한다(안정수, 1990:231-2).

북한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일탈행위가 자유주의적 사조의 유입을 통하여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각종 조직과 보도매체를 통한 청소년교양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부형회의를, 직장에서는 종업원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교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북한연구소, 1983:919).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맺는 말

여기서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북한 청소년 생활의 여러 측면을 요약하고,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참고할 사항을 제시하고,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참고할 사항을 제시하고,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요 약

1) 북한 청소년 정책

남한의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살에서 24살까지의 젊은이로 규정하는데, 북한에서는 9살에서 13살까지는 소년단에 모두 포함하고, 14살에서 30살까지는 모두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에 포함되므로, 북한청소년은 전체 소년단원과 일부 사로청원을 포함하게 된다. 소년단은 사로청의 지도를 받고 사로청은 노동당의 감독을 받으므로, 노동당의 청년정책이 곧 북한청소년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노동당의 청년정책은 1) 청년대열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 것, 2) 청년들을 주체사상에 근거한 혁명의 계승자로 육성하는 것, 3)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에서 돌격대로 육성하는 것, 4) 청년동맹을 강화하고 청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이다.

북한은 해방후에 생겨난 여러 청년 조직들 즉, 공산청년동맹, 무산청년동맹, 해방청년동맹, 농민청년동맹, 학생동맹 등을 하나로 모아서 1946년 1월 17일 민주청년동맹 (민청)을 만들었다. 이제 북한의 모든 청년들이 민청에 가입되어 조직 바깥에 있는 청년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후 북한 사회가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혁명으로 전진하면서 1964년 5월 민주청년동맹을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으로 개편하였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주체사상이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으면서 청년들을 주체혁명의 계승자로 육성하려는 정책이 세워지고, 청년들의 정치사상 교양사업이 강화되었다. 북한은 전인민의 인테리화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도덕은 북한교육의 기본이고, 체력은 국방력과 노동력의 토대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청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능력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것은 사로청 조직의 중요한 과업이 되었다.

북한은 청년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위대한 사회적 변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김일성 교시에 따라 청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에서 돌격대로 역할하도록 육성하여, 구체적으로 경제건설과 국토방위에서 선봉대가 되게 하였다. 탄광과 광산, 임업과 수산, 도로항만 건설과 운수, 농촌경리 부문 등이 가장 힘든 부문에 청년들을 적극 진출시켜 청춘의 지혜와 정열을 바쳐서 인민경제계획도 앞당겨 완수하게 하였다. 북한은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여 총들고 민족독립운동을 하던 전통과 미국제국주의에 항거하여 한국전쟁에서 용감히 싸운 경험을 가졌다고 보는 북한 청년들에게 조국방위에서도 중요한 임무를 떠 맡기고 있다.

북한 청년정책의 핵심은 모든 청소년들을 모아 하나의 청년동맹으로 조직해서 그들을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건설에 쓸모있는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동맹의 조직을 강화하고 그 조직이 중심이 돼서 전개하는 청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다. 다시 말하면, 청년동맹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이 높아야 청년들이 생기발랄하게 움직이고, 동맹이 맡은 과업 즉, 청년들을 정치사상으로 교양하고, 혁명적 조직으로 결속 단련시키며,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에 동원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 초·중등학교 생활

북한교육의 기본정책은 1977년 9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로 발표 되었다. 여기서 북한 교육이념의 전제는,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할 과업이 있고, 이 과업의 성취에는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해야 하는데, 사상적 요새의 점령을 위해서는 교육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북한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며, 결국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는 것"이며, 그것의 기초로 사람들은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교육의 원칙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로,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둘째로,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 셋째로,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여야 한다. 넷째로, 사회주의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은 정무원의 교육위원회가 관장하는데, 교육을 비롯하여 출판과 도서를 관리하고 교육에 관한 예산편성과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교육위원회 밑에는 교육기자재공급총국, 보통교육부, 고등교육부 등 1국 2부가 있다. 보통교육부는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비롯하여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고등전문학교 등 정규적인 각급 학교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고등교육부는 일반대학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정무원이 직접 관장한다.

지방행정조직으로는 각 도(직할시)행정위원회와 시(구역), 군행정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지방교육의 행정을 지도하는 교육국과 교육부가 있다. 지방교육기관은 지방행정기관의 한부서가 되어 일반행정에 예속되었다 시·도 행정위원회밑의 교육국은 단과대학을 비롯하여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 산업체부설학교의 행정을, 시·군 행정위원회밑의 교육부는 유치원, 인민학교, 고동중학교, 고등전문학교, 근로자고등중학교 등의 행정을 관장한다. 중앙의 행정조직이 당과 정무원의 2중적인 체계로 된 것처럼 지방교육행정도 당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도당과 군당밑의 교육국과 교육부가 해당지역의 교육행정을 지도·감독하고, 학교내의 학교당위원회는 각급 학교의 운영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직접 지휘한다.

북한의 일반교육제도는 유치원 2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교 3-6년, 연구원 3-4년, 그리고 박사원 2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중학교는 4년의 중등반과 2년의 고등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학제구분상 별로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유치원 높은반 1년을 포함하여 인민학교 4년과 고등중학교 6년의 11년을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다.

정규학교 외에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로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 어촌과 광산 등의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직능교육을 실시하는 산업체 부설학교들이 많이 있다. 정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3년제의 근로자 고등중학교와 4년제 공장고등전문학교도 더러 있으나, 현장교육의 성격을 가진 5-6년제의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 노동생산대학이 대부분이다.

이 학교들은 해당 공장, 기업소의 자금으로 관리, 운영된다. 교원은 공장, 기업소간부들이 맡고 실험, 실습기재는 공장시설을 이용하며, 교과목은 해당 공장, 기업소 또는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택하는 등 교육활동이 소속공장 자체적으로 이루어 진다. 교육은 학생들의 작업에 따라 주-야로 2부제로 운영되며, 졸업자에게는 일반학교졸업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다.

북한은 인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방 이후 학교시설을 계속해서 증설하였다. 지난 45년간 7,699개의 학교가 건설되어 해방 당시의 1,426개 학교가 1990년에는 약 6.4배에 해당하는 9,125개로 늘어났다. 지난 45년동안 북한 교육은 양적 확대로 교육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분단 직후 1945년에 89.8만명에 불과하던 학생수가 1990년에는 524만 명에 달하면서 지난 45년 동안 약 5.8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는 도시지역은 1-2개동마다, 농촌지역은 1-2개 리단위로 하나씩 세웠다. 인민학교는 학교규모가 작고 분교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고등중학교가 병설된 곳도 있다. 인민학교는 남녀공학인데 학교규모가 아주 작은 시골이나 저학년의 경우는 남녀합반이 있으나, 대부분은 남녀학생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각각 다른 반으로 편성한다. 고등중학교는 남녀공학은 거의 없고 남자고등중학교와 여자고등중학교로 분리되었다. 북한의 신학기는 9월이기 때문에 입학식은 9월중에, 졸업식은 7월중에 가진다.

11년제의 무상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는 없고 학용품은 무료로 공급되는 것이 원칙이나,실제로는 교복, 교과서, 학용품 등을 싼 값으로 산다. 교과서를 비롯한 학용품은 아무 때나 개인별로 구입할 수 없으며, 학년초에 학교에서 발부하는 구매표를 받아 상점에서 구입하거나, 학교에서 단체로 구입하여 나누어 준다.

사회주의 교육방법은, 첫째 깨우쳐 주는 교수교양, 둘째 이론과 실천교육의 결합 및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셋째 조직생활과 사회정치 활동의 강화, 네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다섯째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이다. 좁은 의미의 교육방법 즉, 학교교육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교육방법은 집단의 원리, 경쟁의 원리, 비판의 원리, 공개적 상벌의 원리, 통제와 자제의 원리 등이다.

학교교육은 교과목의 학습이 중심인 정규적인 수업활동과 생활경험이 중심인 과외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두 교육활동은 정규수업내용이 과외활동을 통하여 강화되는 식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엄격한 조직이 모든 생활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활동들도 대부분 조직화, 집단화되어 있다. 성별, 연령, 사회계층, 지역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들의 하루 생활은 당에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6시경에 아침잠을 깨우는 어머니의 소리에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방송실과 연결된 스피커가 벽에 걸려 있는 가정에서는 스피커에서 울려 나오는 혁명음악소리에 잠이 깨어 일어나기도 한다. 하루일과는 소년단이나 사로청의 지도로 마을청소나 가로청소를 하면서 시작된다. 청소가 끝난 후 아침식사를 하고,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준비하여 학교에간다.

남학생은 단색바지와 흰색셔츠를 입고, 여학생은 파란 스커트에 흰색 블라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우스를 입고 머리에 빨간 리본을 단다. 소년단원들은 교복에다 붉은 색 바탕으로 된 삼각형태의 소년단 스카프를 목에 메고 가슴에 소년단뺏지를 단다. 고등중학생은 인민복 형식의 교복을 입는다. 사로청회원은 사로청 뺏지를 달고 사로청맹원증을 소지하며 붉은청년근위대원은 빨간표지를 왼쪽 가슴에 단다. 그리고 학생들은 모두 김일성뺏지를 단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수업은 오전 8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개 7시에서 7시 30분사이에 집을 떠난다. 도시에서 학교가 먼 학생들은 버스로 통학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걸어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학교로 걸어 간다. 학생들은 동네의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인원 확인과 복장검사를 한 후에 함께 등교한다. 개인행동을 했을 때는 상급생이나 담임교원에게 벌을 받는다. 학급장이나 학생조직장의 지휘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학생들은 줄을 서서 합창을 하면서 학교로 간다.

학교수업은 인민학교가 하루에 4-5시간, 고등중학교 중학반은 6-7시간, 고등반은 6-8시간 정도 한다. 수업시간은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중학반의 경우 45분 수업에 15분 휴식이며, 고등반은 50분수업에 10분 휴식이다. 토요일도 평상시와 똑같이 수업을 한다. 오전 수업이 끝나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집이 가까운 학생들은 집에 가서 먹고 오기도 하나, 대부분은 집에서 준비해 온 곽밥(도시락)을 먹는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담임교원의 지도하에 일일 또는 주간 생활총화 시간을 가진다. 이 시간에는 하루 또는 한 주일 동안의 생활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결의와 각오를 발표한다.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반성하기도 하나, 대부분 학급반장이나 줄반장들이 적은 것을 발표하여 비판한다. 생활총화가 끝난 후, 자율학습 또는 과외학습이 시작되어 집체복습과 개별적인 학습, 그리고 학업성적이 부진한 자들에 대한 집중학습이 이루어진다. 복습끝에는 시험 총화가 있어 그 총화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언제까지 교실에 남아 있어야 한다. 교과활동이 끝나면 과외활동을 하게 되는데, 소년단이나 사로청이 작성한 월별, 주별, 일별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학습, 근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로봉사, 각종 회의와 모임참석 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집에 돌아간 학생들은 제 집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역별로 구성된 학습반에서 숙제를 한다. 학습반은 동네마다 집이 가까운 7-8명의 학생으로 조직되며, 이를 책임지는 학습반장이 있다. 학습반은 순번제로 매일 다른 집에 모이며, 숙제뿐만 아니라 꼬마계획과 외화벌이 운동도 함께 실행한다. 학생들은 학습반활동이 끝나면 동네 친구들과 논다. 고등중학생은 과외활동이 너무 많아서 저녁 늦게나(대개 저녁 7시, 토요일은 4시경)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 시간이 거의 없다. 남자들은 주로 군사놀이, 아바이놀이, 별놀이, 패땅까기, 쥐구멍파기, 다리뛰어 넘기, 말타기, 소타기, 섬지키기, 제기차기를 하거나 편을 나누어 축구경기를 하고, 여자들은 줄넘기, 자갈차기, 숨바꼭질, 씨차기, 공기놀이 등을 하거나, 짝궁들끼리 모여 옛날이야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논다. 대부분 학생들은 가정을 돌볼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고 없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청소, 땔감과 식수마련, 설겆이, 토끼풀 모아오기 등 크고 작은 집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 시간이 많지 않다.

3) 대학 생활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할 수 있는 고등교육과정은, 2-3년제 고등전문학교, 인민학교와 유치원 교원을 양성하는 3년제 교원대학, 고등중학교 교원을 기르는 4-6년제 사범 대학 및 일반대학이 있다. 교육연한은 김일성종합대학 등 일부 국책대학이 4-6년, 의학 대학이 6년, 기타 대학이 4년제로 되어 있다. 그 밖의 주요 고등교육기관으로, 산업체부설대학, 통신학부, 특수대학 등이 있다. 북한 고등교육기관의 숫자는 빠른속도로 늘어서, 1980년 대학교가 170개였는데 그중 공장·농장학교가 80개였고, 1985년 대학교가 234개, 1990년에는 273개, 1992년에는 280개가 되었다. 그리고 체육, 예술, 기술계 전문학교가 1992년 현재 600여개가 되었다.

북한에서 대학에 입학하자면 학력에 관한 시험으로 자격고사와 입학고사를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봐야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출신성분과 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대학입학 지원자는 1, 2, 3지망까지 희망학교와 학과를 선택할 수 있지만, 중앙의 인력계획이 우선시 되므로 배정받은 대학에서 입학시험을 치게 된다. 대학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가족과 친족의 출신성분이 약 3분의1, 사로청을 통한 노력동원이나 정치사회단체 생활평점이 약 3분의1, 그리고 입학시험성적이 약 3분의1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별 입학시험은 주관식 필답고사와 철저한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는데, 필답고사는 학교별, 전공별로 차이가 나지만 체육, 당정책사, 외국어, 수학, 물리는 공통과목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의 출신별 유형을 보면, 제대군인이 약 70%, 직장재직자가 약 20%, 그리고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온 직통생이 약 10% 된다고 한다.

북한에서 신학기는 9월1일에 시작되고, 수업시간은 1학기 17주와 2학기 18주로 연 35주이고, 주당 38-40시간을 수업하며, 4년제 대학은 총 5,320시간 내지 5,600시간이 된다. 이중에서 영어가 약 5%, 사상교양과목이 약 15%, 군사교육이 약 18%, 그리고 전공과목이 약 60%가 된다. 시험은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보는데, 필답고사와 구두시험이 있고, 성적은 최우등, 우등, 보통, 낙제로 나눈다. 북한은 학점제가 아니고 학급제로 운영하며, 시험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품행이 우등이상이 아니면 진급이 안된다.

학생이 여러단계의 심사를 거쳐 대학에 들어가면 학과와 반이 정해지고, 반이 정해지면 책과 교복이 지급되며 기숙사가 정해진다. 대학생은 기숙사에서 단체생활을 하며 공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기숙사는 학교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3-4평되는 방을 4-5명이 같이 쓰고, 기숙사생들은 기숙사증을 발급 받아서 출입할 때 확인받는다. 대학생들은 일과표에 따라 생활하는데, 아침 8시부터 강의실에 모여 학급단위로 30분동안 독보회에서 로동신문, 로동청년 등을 읽는다. 8시반부터 오후 1시까지 오전학습을 하고나서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오후학습을 하고 저녁을 먹는다. 저녁을 먹은 다음 기숙사위원회를 중심으로 1시간 동안 하루일과에 대한 생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활총화를 통하여 자아비판 등 공개적인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 복습·예습하고 10시반에 잠자리에 든다.

북한 교육이념의 집단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의 과외활동은 대학당위원회와 사로청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학과수업이 끝나면 월별, 주별, 일별로 작성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로청간부가 지도하는 단체활동에 참가한다. 예를 들면, 사회의무노동제에 따른 노력동원, 3대 혁명소조활동 등 각종 노력경쟁운동, 국방체육, 학과실습, 정치선전과 선동 모임, 비판모임 등에 참가한다. 단체생활에 참여하고 나서 사업총화와 생활총화를 매일, 매주, 매월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은 학업성적도 좋아야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정치생활의 평점이 좋아야 사회진출 시기에 혜택과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의 학생의무노동제도는 인문·사회계 대학생은 연 12주, 기술계는 14주 동안 사회노동에 참가하도록 규정하여, 사로청이 주관하는 공업노동 4주, 건설노동 4주, 농업노동 4주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기간에는 학과수업을 안하고 종일 노동만 한다. 이 밖에도 사회의 재해복구나 대학자체의 시설확장 공사 등 방과후에 수시로 3-4시간씩 의무노동에 동원된다.

북한에서는 써클활동을 소조활동이라고 부르는데 문예소조로는 문학, 연극, 예술, 음악, 무용 사진 등의 써클이 있고, 체육소조에는 구기, 육상, 빙상, 산악부가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면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졸업논문이 통과되어야 한다. 학생이 논문제목을 선택하고 학과장이 허락을 하면, 대개 6-12개월 걸려서 논문을 쓴다. 다 쓴 논문과 참고문헌을 제출하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연구, 계산과 묘사의 정확성, 대학교 전 학년의 성적, 지도교수의 평가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졸업논문은 다른 교수와 학생들에게 공개되어 질문에 답변해야 된다.

대학을 졸업하면 전공에 합당한 자격을 받는데 제1교원대학 졸업자는 인민학교 교원, 제2교원대학 졸업자는 유치원 교양원, 제1사범대학 졸업자는 고등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중학교 고등반(5-6학년) 교원, 제2사범대학은 고등중학교 중등반(1-4학년) 교원 자격을 준다. 의과 대학은 의사자격, 농수산계를 포함한 이공계대학 졸업생은 전공에 상응한 기사자격을 주고, 인문·사회·외국어 및 예·체능계 대학에서는 전문가 자격을 준다. 종합군사학 졸업시험 합격자에게는 2-3년제 대학에서는 인민군 예비하사관, 4-6년제 대학에서는 인민군 예비군관 자격을 준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직장배치심사에서, 첫째 기준은 가족배경과 당성, 둘째가 사회단체 생활평점, 셋째가 학업성적이기 때문에, 당·기관 간부의 자제들은 평양과 대도시의 행정관료로 진출하고, 비간부 당원의 자제들은 지방, 중소도시의 하층기관, 기업소, 기술분야, 학교등으로 가고, 비당원자제들은 공장, 농장, 벽지학교, 광산 등에 배치된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1989년 현재 졸업생 숫자가 6만여명인데 정무원내 부부장급(차관급) 이상 간부의 절반정도가 이대학 출신이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김일성 종합대학은 총 156만 평방미터의 캠퍼스부지에 총건평 40만 평방미터의 교사가 서 있다. 건물은 크게 본관 교사, 1, 2호 교사, 과학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건물등으로 나누어진다. 과학도서관은 이 대학의 최고 시설물로 1만2천평방미터 규모에 1,200석의 열람실을 갖추고, 20여만 종 200만여 권의 장서가 있다.

이 종합대학은 단과대학과 학과의 중간이라 할 수 있는 15개의 학부에 51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고, 15개 학부는 역사학, 법률학, 경제학, 조선어문학, 철학, 외국어 문학, 수학 및 역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리학, 지질학, 원자력학, 자동화학, 재교육학부 등이다. 또 51개 학과는 600여개의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대학에는 야간강좌와 통신강좌도 있다.

이 대학 학생의 90% 이상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침 8시부터 30분간 독보회에서 로동신문, 로동청년 등을 읽고, 8시 30분에 시작해서 19시까지 학습을 마치고, 1시간 동안 각종 집회, 1시간 동안 생활총화시간을 가진다. 학생들은 사로청을 통하여 정치생활을 하고, 자기가 하고싶은 분야의 과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외소조에 들어 문예활동은 물론 학문분야도 소조를 중심으로 더욱 보충한다.

4) 군대 생활

북한군의 기본적인 성격은 항일 빨치산의 혁명전통을 계승한다는 것과 당이 이끄는 사회주의혁명의 무장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북한군은 사회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령과 당의 창과 방패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군은 당이 정하는 기준에서 군인들을 선발하는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군인 선발기준을 가지고 있다. 북한 인민군은 출신성분과 당성이 인정되는 핵심계층과 기본계층의 자녀들에게만 입대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기구는 당조직을 통한 정치지도 체계와 정권기관을 통한 군사지휘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는 군사간부가 당내에서 각자의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민군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이다.

북한의 정규 무력이라고 하면 물론 인민군이지만, 이 외에도 예비전력인 준군사조직이 존재한다. 가장 대규모인 '로농적위대', 그 다음으로 청소년을 조직하고 군대교육을 실시하는 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 사회안전부 산하의 '인민경비대', 그리고 제대군인과 사회인, 대학생으로 조직한 '교도대'가 있다. 노농적위대는 41세 이상 60세까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직장 및 행정단위별 부대로 편성된다. 붉은청년근위대는 사로청원과 고등중학교 5-6학년 남녀학생들(14-17세) 중에서 성분이 좋은 자녀들로 조직된다. 인민경비대는 군에서 제대한 청장년 중에서 일정한 인원을 15일간씩 교대조로 동원하고 조직한다. 주요 임무는 중요지역 및 철도, 해안의 경비를 담당하는 것이다. 교도대는 북한의 민간군사조직의 핵심체로서 만 17세 이상 40세까지의 주민(여자 17-30세)을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북한은 인민을 무장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인민이 혁명적 군사사업의 주인이므로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조직 동원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군사관에 기초하여 주민을 동원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북한 청소년들에게는 군대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지 않는다. 군대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핵심계층과 기본적으로 당성이 좋은 계층의 자녀들에게 주로 주어진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징집 혹은 소집영장이란 말이 사용되지 않고, 그 대신 초모장(招募狀)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초모장이라는 말은 당이 개인의 출신성분과 당성을 믿고 인민군대에 들어와 생활할 수 있도록 초치(招致)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 북한에서 가장 군대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농민의 자녀들이다.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대우가 낮은 농민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당증도 받을 수 있고 거의 8년 동안 입을 것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군대에 가려고 하는 것이다.

신대원훈련은 일반 보병일 경우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북한군은 시기와 주변정세에 따라 융통성을 보이기 때문에 일관성은 없다. 그래도 붉은청년근위대 시절 현역 보병이 이수해야 할 기본훈련을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신대원훈련을 줄여서 받아도 전사생활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한다. 신대원훈련은 군단직속 훈련소나 사단에서 잠정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훈련중대에서 실시한다.

신대원훈련을 마친 군관과 전사는 각 개인의 신체조건, 학력, 민간경력, 개인특기 등을 참작하여 병과와 직무를 주어 장차 개인이 근무할 부대에 배치된다. 병과와 보직이 결정되어 부대에 배치되면 그날부터 인민군복무조례와 배치된 부대의 일과표에 따라 근무하게 된다. 인민군의 일과표는 인민무력부가 하달한 규정을 기본으로, 각 부대의 부대장들이 부대 실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인민군의 일과표에 포함된 공통된 내용은 대체로 기상, 조기체조, 세면 및 청소, 시사보도청취, 아침대열검사, 조식, 상학준비검열('상학'이라는 말 속에는 '교육을 실시함'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오전상학, 중식, 오후상학, 조준훈련, 무기청소, 석식, 오락시간, 자유시간 및 중대장 총화시간, 저녁점검, 취침 등이다.

북한인민군의 내무생활은 기본단위가 소대이며, 소대단위로 병영을 갖고 있다. 각 소대 부소대장이 내무반장을 맡고 중대 내무생활의 책임자는 특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장이 맡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상일과에 준하며 토요일은 중식 후에 세탁, 이발, 목욕, 일광소독, 체육 등을 한다.

국가휴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각 사단별로 '휴식일'을 정하여 실시하는데 일요일에는 각자의 의사에 따라 세탁, 이발, 묘욕, 일광소독을 실시하고 기타 시간에는 체육 또는 영내 휴무를 실시한다. 그러나 체력단련, 무기수입, 체육훈련 등으로 외출은 거의 불가능하며, 다만 때때로 단체영화관람, 독보회, 군중문화오락 등이 실시될 뿐이다. 특히 군사분계선 근방 근무부대는 일요일이 없고 비번일 때에 한해 세탁, 이발 등을 실시한다. 북한군은 1970년대부터 하전사의 외출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1966년 이후에는 장기복무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3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당원과 초급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정기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휴가기간은 주로 15일 정도이다.

북한에서 군인에 대한 대표적인 후생사업은 군인 및 군인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군인상점이다. 군인상점은 대대급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독립중대 및 민경중대 안에도 필요에 따라 설치해서 운영한다. 군인상점은 주당 1회 소대, 중대단위로 1-2명씩 차출하여 지휘관 허락하에 단체매입을 실시한다. 이것은 군인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군관가족을 위한 생활필수품 공급장소이다. 그 운영은 후방총국 산하의 군사상업국에서 관장하며, 그 예하에 지역별 군인상점관리소, 사단, 연대, 대대군인상점을 두며, 군장품, 다과류, 학용품, 통조림, 주류, 기타 생활편의품을 취급한다.

기타 후생시설로 목욕탕과 이발소, 세탁소가 있다. 목욕탕은 등한시 되어 왔으나 최근에 들어 대대급에 30여명 수용규모의 목용탕을 설치하고 있다. 이발소는 연대급 이상 단위부대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대급 이하에서는 이발기구를 이용한 자체이발을 실시한다. 따라서 군관들은 민간인 이발사가 배치되어 있는 연대이발소를 이용하며 그 관리는 연대후방부에서 담당한다. 세탁소는 소대단위로 설치되어 있고 군관부인이나 하전사들이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인민군 복무조례에 따르면 일반 하전사의 복무연한은 육군 3년6개월, 해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과 공군은 4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상 만들어 놓은 규정일 뿐 거의 준수되지 않는다. 일반 하전사의 실제 복무연한은 8년에서 10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이다. 군관은 70년대 중반까지 규정에 상관없이 성분불량자와 병약자, 군법회의에서 처벌을 받은 자, 특명을 받은 자 등 특수한 경우 외는 원칙적으로 제대를 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김정일 수권체제 확립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 세대교체 과정에서 나이 많은 자, 학력 및 경력미달자들을 대폭 제대시키고 있다.

제대의 종류는 만기제대, 과령제대, 감정제대(의병, 의가사제대, 성분불량제대)로 구분된다. 만기제대는 8-10년 간의 정상적인 복무를 마치고 하는 제대이고, 과령제대는 8-10년 간을 다 채우지 못했어도 연령이 초과되어 하는 제대이며, 감정제대는 신체적 결함으로 더 복무할 수 없는 자나 정치범과 반당종파분자로 가족이 교화소나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추방되는 경우와 성분재조사사업에서 악질 반동분자로 낙인 찍힌 자에 한해서 강제로 쫓아내는 제대를 의미한다.(같은 책:144) 특히 성분제대자는 해당직장의 노농적위대에 편입되어 45세까지 지정된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규정에는 제대군인의 적성과 전문기술, 그리고 희망직종을 고려하여 1차 교향지역 직장, 2차 고향근접지역 직장, 3차 타 도시 직장으로 제대군인을 배치한다고 제도화하고 있으나, 북한의 현실이 제대군인의 다양한 개인적 희망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제대군인을 인수한 도·시·군 행정위원회 노동부(과)에서는 제대군인들의 출신성분과 군대 근무기록들을 파악하여 당 지도원, 사무원, 산업체 필수요원, 간부양성요원 순으로 필요한 인원을 빼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집단적인 무리배치를 한다. 제대군인들은 내정된 직장에 가서 직업배치 수속을 완료한 후 귀가하여 수일간(15일 정도)의 휴식을 취한 다음 직장에 나간다. 식량배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러한 전과정을 거쳐 북한 청소년들은 제대와 함께 직장배치를 받는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5) 직장 생활

북한헌법 제 15조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을 금하고 있지만, 16세이상자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구별이 없는 것 같다. 북한은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와 계획경제를 기초로 삼는 사회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직장생활도 노동관리체계라는 기본틀안에서 이루어지며, 네가지 원칙이 있다. (1) 당정치사업 우선의 원칙: 경제조직사업에서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위주로 지도·관리하고, 정치사업 즉 인간관계사업을 중요시한다는 원칙이다. (2)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 배합의 원칙: 사업추진에서 당위원회의 원칙적 지도와 행정지휘관의 실무적지휘를 잘 조화시킨다는 원칙이다. (3)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 사업계획은 당의 노선과 정책에만 따라야 하고, 모든 경제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이 서로 잘 연관되도록 계획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원칙이다. (4) 독립채산제 실시 원칙: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반영하여 정치, 도덕적인 자극과 물질적인 자극을 결합한 관리방법이다.

이 네가지 경제관리원칙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관리 계가 수립되는데 공업과 농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북한의 공업관리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데, 1961년 12월 대안 전기공장에 대한 김일성의 현 지지도에서 시작되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1) 공장 당위원회의 집단적인 지도체계, (2)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생산체계, (3) 중앙집권적인 자재공급체계, (4) 종합적 후방 (소비물자) 공급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도입한 후 첫째 개인지도가 집체적 지도로 바뀌어 생산자 대중이 기업관리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고, 둘째 정치학습과 경제기술학습이 합리적으로 병합되어 경제성과를 올렸고, 셋째 작업반, 직장, 공장들이 협동생산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넷째 노동자의 물질적 기반과 물자의 공급이 원활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농업에 대한 기업적 지도체계를 의미하며, 1961년 12월 김일성이 평안남도 숙천군에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현지지도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지도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아래 농업경영을 관리한다. 둘째,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을 늘 돕고 일체의 활동에서 정치활동을 행한다. 셋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칙이 구현되었다. 넷째, 농업생산과 경영을 과학적 기업적으로 지도 관리한다.

기업적 지도방법에는 3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되는데, (1)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 (2) 농업경영활동의 계획화, (3) 농업의 조직운영 강화이다.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농업과 공업사이의 생산적 연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유기적 결합도 실천한다.

기업소나 공장에서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노동력의 낭비를 막아 사회전체의 생산능률과 1인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노동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노동조직의 합리화는 노동규율의 엄수, 책임량 달성의 원칙, 감독기능의 강화, 그리고 연대책임제와 함께 진행되어 생산력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인 노동조직을 살펴 보면 (3급기업소), 지배인과 기사정 밑에 3-4개의 직장이 있고, 각 직장은 다시 3-4개의 직공으로 나누어지고, 각 직공은 3-5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1개 작업반은 20-30명의 노동자로 이루어지는데 일의 성격에 따라 작업은 나누어 담당한다. 북한직장에서의 상하관계는 철도, 탄광, 수산업 등 특수분야에서는 작업안전을 위하여 규율과 위계질서가 엄격하지만, 그밖의 분야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융통성이 있다고 한다. 정기적 승진이나 진급은 없고 기술직의 경우 시험을 통해 급수가 높아지고, 그외는 그 분야에서 쌓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 진급 요소라고 한다.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북한이 부족한 자본과 낙후된 기술 수준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노력동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생산증가와 물자절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작업반, 공장, 기업소를 단위로 하여 전인민적 노력경쟁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대적인 노력경쟁운동은 1950년에 시작된 천리마운동과 1960년대에 널리 퍼진 속도전 운동이 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천리마운동은 생산설비능력은 6만톤인데 실제로 12만톤을 생산했다는 강선제강소를 본보기로 삼고 시작되어, 대중들의 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사회주의적 노력경쟁운동이다. 이 운동의 중심과제는 첫째, 사람과의 사업(사상혁명)을 잘 하는 것이고, 둘째, 설비 자재와의 사업(기술혁명)을 잘 하는 것, 셋째, 책과의 사업(문화혁명)을 잘 하는 것이다.

천리마운동이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노선이라면, 속도전 운동은 기본노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사업에서 벌이는 증산운동이다. 속도전이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서", "최단기간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적 전투형식이며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속도전은 엄청난 노동강도를 요구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모든 것을 맨손으로 건설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은 한편으로 그 성과에 큰 자부심을 가졌으나, 또 한편 상당히 지쳐 있었다. 그래서, 북한정부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대중자신의 사업이 되도록 사상사업과 정치사업을 우선시 하여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주력했다.

북한 노동자의 하루 생활은 노동, 학습, 휴식으로 나누어진다. 순 노동시간은 1일 8시간씩 일주일에 48시간으로 로동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서,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로동자들은 하루 로동시간을 6시간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 하루에 8시간만 일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과중한 노동정량과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연장근무를 하게 되고, 매일 학습과 총화를 해야하므로 보통 12시간 정도 직장에서 지내게 된다고 한다.

노동자의 임금은 정액지급제와 도급지급제가 있는데 노동자, 농민에게는 도급 지급제가 적용되고, 의사, 교사, 사무원등은 급수에 따른 정액 지급제가 실시되고 있다. 농민은 협동농장에서 1년간 농사에 투자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현물과 현금을 분배받는데 1인당 노동의 양과 질을 매일 평가한 노력공수의 총계로 결정된다. 1991년 현재 주요 계층별 임금수준은, 당·정무원 부장급은 300-350원, 군인민위원장급과 1-2급 기업소 지배인은 150-200원, 광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부와 제련공은 90-100원, 운전기사와 일반 노동자는 70-80원, 사무원 및 식당과 상점 직원은 50-80원이다. 북한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화폐수입은 약 7대 1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근로자 수입의 실질구매력은 물가와 비교해야 알 수 있는데, 가격결정에서 대중소비품은 낮게, 사치품은 높게 정한다. 곡물가격은 이중곡가제를 실시해서 아주 낮게 정하지만 공급량이 부족해서 암거래 시장이 형성되고 거기서는 아주 비싸게 거래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 70조는 "로동력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시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같다. 북한 주민의 직장배치는 중앙집권적 계획에 따라 결정되고 각 부문별 수요대로 무리배치(집단배치)된다. 직장 배치에서 제일 중요한 판단기준은 출신성분과 당성이요, 다음이 건강, 능력, 성적이란다.

도시에서의 직장생활은 보통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작업반 단위로 출근확인을 한 후 약 30분간 독보회를 하는데, 로동신문의 사설이나 당의 지시문을 읽는다. 그후 작업 조직 및 배치가 개인, 분조, 작업반 단위로 실시되며, 50분 노동에 10분 휴식이 원칙이다. 오전 일과는 12시에 끝나고 1시 (가끔 2시)까지 점심시간인데 도시락을 싸오던가 집에가서 먹으며, 구내 식당은 없다. 오후 6시에 기본 일과가 끝나면, 작업반 별 (또는 직장별)로 약 1시간 동안 작업 총화가 있다. 작업 총화란 직장 지배인과 당비서를 중심으로 하는 하루일과에 대한 평가와 반성인데, 직장 뿐 아니라 학교, 군대 등 어떤 조직에서도 일반화 된 일과이다. 하루 일과가 끝난 다음에는 누구나 하루 1-2시간 씩 1주일에 2-3번 학습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그후 각종 회의나 학습이 진행된 뒤 사무원은 오후 7시, 노동자는 8시 경이면 퇴근하게 된다.

남녀 평등이 잘 이루어진 북한 사회라 하더라도, 직장생활에서 여자청소년들은 직종이나 임금 등에서 남자들과 차이가 나는것 같다. 북한 여성의 직업노동 참가율은 도시와 농촌, 미혼자와 기혼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업과 신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대도시와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낮다. 기혼여성의 70-80%가 직업을 갖지 않고 미혼여성의 노동참가율이 90%를 넘는데, 처녀가 결혼을 하면 10명중 6-7명은 직장을 그만둔다고 한다.

북한의 법령은 노동에서의 남녀평등과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로동법 59조는 여성노동의 보호와 유해노동금지를, 66조는 산전산후 휴가 등을 규정하였다. 이런 규정들은 실제로 잘 시행되고 있으며, 산전 산후 휴가는 법령 규정의 77일보다 더 많은 150일이 주어진다고 최근 귀순한 사람들은 말한다. 북한이 자랑할 만한 여성노동의 모범적 조건은 탁아소와 유치원 시설이다. 1991년 현재 6만여 개의 탁아소,유치원이 166만 명의 아동을 수용하였다는데 직장여성 대부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준이란다(윤미량, 1991:205) 그러나 여성 노동력은 주로 임금이 싼 직업에 집중배치되기 때문에 노동의 질에 따른 임금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다.

남자와 여자청소년들의 직장생활에서 차이가 나는 것 처럼 도시와 농촌 사이에도 청소년들의 직장 생활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북한은 개인농업을 협동조합화 하는 일을 1958년에 완료하고, 1962년에는 김일성이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농업 정책의 기본을 제시했다. 협동농장은 군당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의 정치.행정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를 받으며, 리 단위로 약 3,700 개의 협동농장이 조직되었다고 한다. 1개 협동농장은 평균하여 약 300 가구가 약 500정보의 토지를 경작하며 개인 농가는 20-30 평의 터밭에서 채소등 농사도 짓고 닭, 돼지 등 가축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의 협동농장은 농사활동의 기초단위로 약 8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되고, 공동소유의 농기구를 사용하여 작업반 단위로 집단적 노동을 수행한다. 한 작업반은 다시 5-6개의 분조로 나뉘는데 한 분조에 7-8개 세대의 15-20 농장원으로 구성된다.

북한농민의 하루생활은 소속된 협동농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일과는 비슷하다. 농민들은 대부분 새벽에 마을의 종소리나 사이렌에 따라 기상하여 지정된 장소에 작업반이나 분조별로 집합하여 15-30분 동안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조회를 한다. 조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작업도구를 준비하고 다시 나와 분조마다 할당된 작업량에 따라 출근전 작업을 한다. 그후 집에 돌아가 아침밥을 먹고 8시까지 농장에 출근해 분조별로 작업량을 할당받는다. 오전 작업은 12시 까지인데 중간에 10시쯤 15분간의 휴식시간이 있다. 오후 3시까지 점심식사 겸 휴식시간이고, 오후 작업은 7시경에 작업총화를 해서 그날 각자의 노력공수가 발표되는 것을 듣고 집에 간다. 농장원도 거의 매일 정치학습이나 회의에 참가하는데 도시와 비슷하다. 다만 농장원들은 일요일 대신에 열흘에 한번씩 휴식일 (1, 11, 21일)이 있어 쉬고, 그날에 농민시장이 열린다.

6) 조직사회 생활

북한에서는 조직생활을 빼고 주민의 생활을 이해하기는 힘들다. 북한의 청소년조직은 연령에 따라 "조선소년단"과 "사로청"이라는 단일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조선소년단은 모범적인 소년단 생활을 통해 우수한 사로청원과 당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46년 6월 6일 창설되었다. 소년단의 구체적인 설립목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키우는데 있다. 소년단은 지역별 학교별로 조직되어 현재 약 350만명의 단원을 가졌다. 소년단 가입대상은 만 6세-만 13세까지의 어린이이며 인민학교 1, 2학년(만 6-7세)어린이는 열성이 있는 일부 어린이만 가입하고 3학년(만 8세)이 되면 전학생이 의무적으로 가입 활동하게 된다.

학교소년단 밑에는 학년별로 분단(분단장, 위원 4-6명)이 있고, 학급별로 반(반장 1, 부반장 1, 분조원 10-15명)이 있다. 소년단은 소년단깃발, 소년단 휘장, 붉은넥타이, 소년단원경례 등 소년단의 상징과 의식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명예심과 성실성, 조직생활에 대한 충실성 등을 길러주고 있다.

북한은 청소년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실제로 노동을 경험하게 한다. 1959년 3월 2일 '내각결정 18호'에 의해 의무노동제를 합법화하여 인민학교는 연간 2-4주 동안 수업을 전폐하고 노동만 하게 되었다. 특별한 경우에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는 방과후 4-5시간씩 의무노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1950년부터 시작된 '좋은 일하기 운동'이란 소년단의 노력동원은 위생근위대 활동, 녹화근위대 활동, 소년단림과 사로청림을 조성하는 운동, 사회주의건설 지원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동안 실시해 온 주요 활동중에 꼬마계획이 있다. 꼬마계획은 북한의 경제계획 연도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할당된 노력을 동원 하게 한다. 공장이나 기업소, 또는 협동농장에 인민경제지표가 하달되면 이와 때를 같이 해서 파고철, 파유리, 파종이, 송이버섯 등을 수집하도록 한다. 꼬마계획의 할당량은 1인당 연간 파고철 20kg, 파유리 9kg, 파종이 5kg, 송이버섯 10kg, 싸리 상자 2 개 등으로 규정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배급쌀을 공제하든지 또는 일일총화에서 비판을 받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 훔치는 등 많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 농번기에는 소년단을 중심으로 농촌지원사업(년 2-4회)으로 3-5개월에 걸쳐 모심기, 제초작업, 관수작업, 추수 등에 동원된다.

북한 사로청은 항일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조직된 조선청년들의 공산주의적 대중적 혁명조직으로서 조선 로동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며 우리 혁명의 직접적인 계승자로 조직되었다. 사로청의 행동강령은, 첫째 봉건적 사고와 자본주의 제국주의 사상을 척결하고 남조선해방을 위해 연대투쟁하고, 정부와 헌법수호 및 통일전선을 지지하고, 둘째 민족경제부흥과 인민의 번영과 복리를 추구하며, 셋째 체력과 문화창달에 앞장서며, 넷째 군사적 무장과 국제교류에 앞장서는 등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국제사회에의 참여까지를 언급하고 있다. 사로청에 가맹하기 위해서는 '청원서'와 '소년단위원회 및 동맹원(1명)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청원서에 대한 심사는 초급단체 총회에서 실시하며 가맹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군 동맹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확정된다.

14세부터 들어갈 수 있는 사로청은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투쟁하는 자로, 맹원은 누구나 맹비를 내어야 한다. 맹원이 되면 소년단 넥타이를 풀고 맹원증을 받는다. 사로청은 청년들의 체력과 정신을 단련하는 대중적 체육문화를 솔선하여 발전시키며, 소년단과 마찬가지로 집단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적인 체력훈련을 하고 있다. 특별한 노력동원 지시가 없을 때는 학교가 파한 뒤 달리기, 체조, 구중무용 등의 체육활동을 한다. 고등중학교에서는 학업외에 분야별 학습활동을 하는데, 학과별 연구서클, 예능서클, 독후감 감상발표회, 영화감상회, 혁명전적지 답사, 창작발표회, 시낭송회, 미술전람회, 담화회, 전투영웅들과의 대화 등이 있고, 학생들은 이런 서클에 2개 정도는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7) 가정과 여가 생활

남한이나 북한이나 청소년들의 주 생활공간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이다. 특히 먼거리의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북한 사회에서 학교생활 외에 북한청소년들의 생활무대는 주로 가정과 지역사회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의식주이다. 특히 한창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먹을 것은 가장 큰 관심사이다. 북한은 1957년 11월을 기해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에게 식량배급제를 확대 실시하였다. 식량 및 생필품은 5계층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는데 계층은 주민들의 성분, 직위, 직종, 연령등을 기준으로 '매일 공급대상', '일주 공급대상', '월공급대상', '인민반공급대상'으로 구분되며 양과 질은 물론 규격까지 차등 지어져 있다. 따라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청소년들의 식생활환경이 바뀌어진다. 청소년들이 간식을 즐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농촌의 경우에는 85 %가 산악인 관계로 배가 출출하면 산에 올라가 머루, 밤, 칡뿌리 등을 따서 먹기도 한다. 도시의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으로 청량음료나 아이스크림 등을 사먹기도 한다. 유치원생들은 빵이나 강냉이 등을 간식으로 주기도 하며 평양 등 대도시는 집에 돌아갈 때 사탕이나 과자를 주기도 한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인민학생들에게 우유를 한 컵식 배급하기도 한다. 생일때는 특별한 음식보다 보통 때 먹기 힘든 쌀밥을 해주기도 하지만 미역국을 먹는 일은 드물다.

북한 주민의 의생활은 그들 사회의 폐쇄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단조롭고 획일적이다. 학생들은 매년 동복과 하복을 구입하는데 인민학교의 경우 하복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78원, 동복은 10-12원 정도이며, 고등중학교 학생은 하복이 12-13원, 동복은 16-17원정도이다. 3명이상의 학생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교복대금을 15% 할인해 주기도 한다. 그밖에 겨울에는 외투가 배급되는데. 가격은 30-40원이다. 모자, 가방, 신발 등은 3-5원정도이다. 의복은 수시로 아무 곳에서나 구입할 수 없으며 구입시기를 놓치면 일정기간 살수 없다. 학교 체육복은 흰색 옥단으로 통일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단체로 구입해서 보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 속옷도 배급에 의존하는데 제때에 충분히 배급되지 않아 철이 지나서 배급되는 경우도 많다. 무릅이 찢어진 것이나 양말이 터진 것은 기워 입는 것이 보통이다.

북한주민들은 개인소유의 주택이 없기 때문에 계층과 직위에 따라 규격화된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배정받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1호인 소규모 주택을 배정받는데 집단 주택, 농촌의 초가, 농촌 문화주택 등이 여기에 속하며, 도시 집단주택의 규모는 방 1개, 부엌 1개이고 공동변소·공동수도를 이용하고 있고, 입주대상은 일반노동자, 탄광노동자·사무원등이며, 농촌 문화주택의 경우 그 규모 역시 방 1-2칸, 부엌 1칸의 연립주택형으로 공동수도·공동변소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하류급 주택은 전체 주택의 60%가량으로서 북한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여가생활은 통제된 학교학습시간과 조직활동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북한청소년들은 충분한 여가 시간을 갖지 못 하는 것 같다. 청소년들은 가정에 돌아오면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하고, 각종 '좋은 일하기 운동'을 해야 한다. 땔감이나 구멍탄을 나르며 청소를 하는 등 집안일을 돕느라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단다. 인민반내 연금생활자 등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인민반 소속 어린이들의 방과후 학습을 지도해 주기도 한다. 또한 학습반조직이 되어 있어서 소집단별로 학습을 하기도 한다. 한 개 조직이 5-6명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녁 8시쯤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인다. 그러나 반드시 매일 하는 것은 아니며 장소가 없다든지 모이기가 힘들 때는 취소하기도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물론 고위층 자녀의 경우에는 텔레비젼 시청이나 영화관람 등 평범한 집안의 청소년이 하기 힘든 여가생활을 즐기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 청소년들은 학습이나 과제가 끝났거나 도와줄 집안일이 없을 때 보내는 휴식적 여가생활은 특 별한 형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보급이 부족한 북한에서 청소년들은 그냥 친구들과 돌아다니거나 집에서 쉬는 정도가 보통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문화활동이 개인의 자율성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생활의 형식이 매우 단조로우며, 각종 공연, 영화상영, 전시회 등은 노동당이나 정부당국의 일방적인 연간 행사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소수의 특수층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가족단위의 문화생활을 누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신문이나 잡지는 모든 가정이 한가지를 의무적으로 구독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배포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취미나 적성에 맞게 다양한 인쇄매체를 접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쇄매체의 발행부수가 적고,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서점 등 독서환경이 미흡하고, 또한 그 내용이 대부분 정치선전용이어서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TV수상기 보급률은 평양의 경우 60-70%이고 지방은 2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텔레비젼을 시청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는 것 같다. 그나마 흑백 TV가 대부분이고, TV프로그램도 시사적인 뉴스와 사상과 교양이 중심이어서 TV문화가 아직은 초기단계인 것 같다. 최근 북한당국은 TV문화의 향상을위해 TV방송국의 증설과 프로의 다양화, 컬러 TV수상기 보급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디오는 각 가정마다 유선방송의 선을 끌어 스피커를 설치하고 주로 중앙방송을 청취하게 한다. 스피커선은 전신전화소에서 무료로 설치해주나 스피커는 상점에서 배정받아 구입해야 한다. 자체에서 만든 라디오는 생산시부터 중앙방송으로 다이얼이 고정돼 있고 수입, 또는 반입된 외제는 전량 국가보위부에 등록과정에서 중아방송으로 다이얼이 고정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영화관람은 북한 서민대중이 가장 즐기는 여흥이다. 영화관은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도 1개이상 마련돼 있으며, 연극공연과 대중집회장소로 사용되는 극장도 비교적 잘 돼 있다. 평양시내에는 전승영화관, 락원영화관 등 5백 내지 1천석 정도의 큰 영화관이 6개정도 있으며 일반도시의 경우 4-6개소씩 설치돼 있다. 영화관을 주로 찾는 계층은 청소년들인데 이들은 월 2-3편 정도의 영화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과 같이 연소자 관람불가와 같은 구분은 없다.

북한청소년이 개인적으로 관광여행을 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등의 문화생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평양에 사는 청소년의 경우는 평양시 관광명소인 만경대, 평양지하철, 창광원, 소년궁전, 9.15탁아소, 김일성대학, 만수대극장, 평양산원 등 대형 시설물들을 구경할 기회가 있지만, 지방의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명소를 관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소년단이나 사로청에서 열성 맹원에게 집단적으로 그런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다. 평양에는 2천-3천석 규모의 대형공연장들이 10여개나 되는데 광복거리에 있는 평양교예극장은 일반교예, 수중교예,빙상교예,동물교예를 다할 수 있는 3천5백석 규모의 서커스 전문극장으로 89년 4월 완공되었다. 청소년들이 교외로 놀러가는 일도 거의 없다. 시골의 경우에는 산이 많으므로 가까운 산에 가서 놀기도하고, 산나물이나 열매를 따 먹기도 하지만 도시의 경우에는 등산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므로 대부분 학교나 소년단 등의 집단적인 원적(소풍)이나, 행군 등의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할 뿐이다. 때로는 학교에서 과외공부로 가까운 산이나 공원 등에 견학가는 경우도 있다.

북한청소년들이 노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1960-70년대의 모습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동네친구들이 모여서 별다른 도구없이 자연물을 이용하거나 몸으로 하는 놀이를 즐기고 있다.

2. 제 언

북한청소년들의 생활원칙은 집단주의이며 학교수업에서도 학급이나 분단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라는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고, 과외활동에서도 소년단이나 사로청조직이 거의 모든 활동을 계획하고 지도한다. 여기에 비해 남한청소년들의 생활원칙은 개인주의이며 학교에서도 대학입시준비를 목표로 삼아 같은 학년 학생들은 모두가 경쟁자가 되고, 과외활동과 여가활동도 각 가정의 경제와 지식수준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이루어진다. 북한청소년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으므로,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청소년 생활의 실상을 알리고 남한청소년들의 생활을 조정할 수 밖에 없겠다. 집단주의에 근거하여 생활하는 북한청소년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한청소년들을 이기적인 입시경쟁에서 해방시키고 수련활동같은 단체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주어야 겠다.

북한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은 학과공부와 생산노동의 결합,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학교전교육과 학교교육과 성인교육의 병진이란 원칙에 기초하였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면서 일하는 것의 어려움과 즐거움,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동체생활에서 협동과 절제, 봉사와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한다. 여기에 비해 남한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노동하는 경험을 가질 수 없어서 일하는 것의 중요성, 어려움, 즐거움,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단체생활을 할 기회가 적어서 협력, 절제, 봉사, 질서가 어째서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지를 잘 모른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특별활동과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또 직업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서 노동의 의미와 사회도덕을 배울 기회를 늘려야 겠다. 그리고 북한교육은 유치원에서 성인교육까지 일관성이 있는데, 남한교육은 그렇지 못하니 교육의 일관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군대에 나가고 대학에 가거나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소수이고, 또 대학생 중에는 군대를 제대한 사람이 제일 많고 고등중학교에서 바로 진학하거나 직장다니다가 온 사람이 적다고 한다. 여기에 비하면 남한의 고등학교 졸업생은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고, 적은 숫자가 군대에 가거나 직장에 취직한다. 또 대학생의 대부분이 고등학교에서 바로 진학한 사람이고, 군대에 갔다와서 계속 다니거나 직장에 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니다가 온 사람은 아주 적다. 그래서 북한대학생들은 남한대학생들보다 대체로 나이가 더 많고, 대부분이 군대나 직장생활을 경험하고 나서 공부한다는 점에서 남한대학생들과 다르다. 이런 사정을 남한대학생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남북학생교류같은 때에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 속의 북한 직장생활은 승진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없고, 실업에 대한 공포가 없고, 최소한의 의식주생활에 대한 보장이 있고, 임금에서 최대소득자와 최저소득자의 차이가 약 7대 1 정도로 작은 반면에,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경제여건 때문에 노력동원이 많고, 생활필수품이 부족한데서 오는 고통과 직장이나 주거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데서 오는 불편 등이 있다. 북한청소년들의 직장생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 속의 남한청소년들의 직장생활과 커다란 차이가 나므로, 남한청소년들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잘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일이 필요하다.

북한청소년들의 가난한 가정생활과 부자유스런 여가생활을 보고, 남한청소년들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생활에 감사하면서, 사치스럽고 낭비적인 소비생활과 방종적이고 퇴폐적인 오락·여가생활을 반성하도록, 북한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북한청소년에 대해 연구를 할 때에 아래 사항을 참고로 삼으면 좋겠다. 북한에서 발행된 자료에 접근하기가 이전보다는 쉬워졌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 원전을 이용하는 데 장애가 많은 것 같다. 통일원 북한자료실에 있는 특수자료를 복사하거나 대출하자면 특수자료취급인가증이 요구되는데 청소년개발원에 대한 인가가 늦게 나와 이런 자료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다. 또 일본 책방에서 북한자료를 구입하는데도 인가증이 요구되어 기회를 놓쳤다.

북한에서 최근에 귀순한 사람들을 면접하여 청소년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각자의 나이, 직업, 주거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내용이 다르고 서로 모순되기도 하여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사정도 참고했으면 한다. 북한신문이나 잡지에 청소년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아주 드물게 나오고, 청소년생활에 관한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단행본도 희귀한 상황에서, 북한소설과 시·희곡 등 문학작품에 나오는 청소년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주민생활에 관한 영화필름이나 비데오테이프를 자료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다음 연구에서는 이런 자료도 활용되어야 겠다.

남한에서 나온 북한연구논문이나 잡지기사에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앞선 연구가 나중 연구의 밑거름이 되자면 이런 관습은 고쳐져야 겠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참 고 문 헌

북한자료

경제사전1(1985), 사회과학출판사.

김일성(1993), "청년들은 당의 령도를 높이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자", 사로청 제8차 대회에 보낸 서한, (2월 22일), 천리마, (3월:9-13).

(1975),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김정일(1989),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1988년 10월 12일).

대륙연구소(1990), 북한법령집 Ⅰ-Ⅴ.

대학생(1981년 3월), 금성청년출판사.

로동신문(1989.8.24)

로동신문(1981.10.22)

백과사전(1983),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아세아문제연구소, 1983, 북한연구자료집 Ⅸ: 747-775.

아세아문제연구소(1969-92), 북한연구자료집 Ⅰ-Ⅻ.

정치사전(1973),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노동당(1968) 김일성저작선집 5권, 로동당 출판부.

(1979a) 김일성저작집 1권, 로동당 출판부.

(1979b) 김일성저작집 2권, 로동당 출판부.

(1979c) 김일성저작집 3권, 로동당 출판부.

(1979d) 김일성저작집 4권, 로동당 출판부.

(1980) 김일성저작집 10권, 로동당 출판부.

(1981) 김일성저작집 12권, 로동당 출판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1982) 김일성저작집 18권, 로동당 출판부.

(1984a) 김일성저작집 26권, 로동당 출판부.

(1984b) 김일성저작집 28권, 로동당 출판부.

(1985a) 김일성저작집 29권, 로동당 출판부.

(1985b) 김일성저작집 30권, 로동당 출판부.

(1986) 김일성저작집 32권, 로동당 출판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북한연구소(1983), 북한총람: 1784-1787.

채종완(1990), 청년사업경험, 사회과학출판사.

남한자료

NK회(김종선 역)(1991), 북한의 100문 100답, 다나.

공보처(1993), 도표로 본 북한의 오늘.

곽노익(1986), "남북한 교육비교", 박문갑외, 남북한 비교론, 문우사:295-398.

광주편집위원(1988), 북한의 경제, 광주.

국제관계공동연구소(1975), 북조선연구, 동경.

국제안보연구소(1986), 한국의 안전보장과 평화통일.

김대영(1990), "북한주민의 생활수준과 문화생활", 북한, (12월:58-67).

김동춘(1990), "북한의 교육", 강정구 외, 북한의 사회:133-170.

김동규(1989), 북한의 대학과 대학생, 민족통일중앙협의회.

김동규(1990), 북한의 교육학, 문맥사.

김동현(1992), "한 북한청년의 고백", 월간조선, (5월:120-138).

김성일(1990), "북한의 청소년 교육실태", 북한, (5월).

김순배(1993), "북한의 교육", 통일연수원 민주통일론:북한실태:135-166.

김애실(1991), "여성의 경제활동", 손봉숙 외, 북한의 여성생활, 나남.

김학준 외(1987), 남북의 생활상, 박영사.

김형찬(1988), 북한교육발달사, 한백.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김형찬 외(1990),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대북연구소(1991), 전망, (8월).

도종수(1992), 청소년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도홍열(1978), 북한청소년의 사회화실태, 국토통일원.

마레츠키(정경섭 역)(1991), 병영국가북한, 동아일보사.

문용린(1990), "교육제도와 정책", 최명 외, 북한개론, 을유문화사:383-414.

문용린외(1981), 북한의 학교교육과정 분석

민족통일중앙협의회(1991), 북한기행 8박 9일.

박길성(1992), "북한사회와 농민", 북한연구, (여름:152-174).

박문갑(1990), "북한의 교육체계와 정치사회화", 김갑철외, 북한학 개론:259-302.

박민제(1993b), "혁명이 대를 잇는다:혁명유자녀교육",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11월):112-115.

박민제(1993a), "러시아어에서 영어위주로, 북한의 외국어교육",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4월):102-105.

박완신(1989), "북한의 행정체제와 지방조직체제", 통일원, 통일문제연구, (1권 2호):93-135.

박용현(1973), 북한의 사상교육 실태, 통일원.

북한연구소(1983),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북한연구소(1991), 북한가족법과 가정실태.

서동익(1987), 북에서 사는모습, 북한연구소.

송복 외(1991), 현대사회학의 이해, 법문사.

송춘석(1991), 북한의 노동당과 사회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석사논문

안계춘(1989), 북한주민생활 실태조사, 통일원.

안동일(1992), 갈라진 45년 가서본 반쪽, 돌베개.

양성철 · 박한식 편(1986), 북한기행, 한울.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양태진 · 이서행(1983), "북한의 교육", 분단시대의 북한상황, 대왕사:153-215.

엄종식(1988), "청소년문제", 통일한국 (4월:59-61).

연구부(1982), "북한청소년의 사회화실태", 북한, (11월:61-62).

연합통신(1991), 북한 행복도 강요되는 땅.

윤미량(1991),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윤형덕(1981), 북한의 대학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통일원.

이온죽(1990), 북한사회연구, 서울대학교출판사.

이우홍(1990), 어둠의 공화국, 통일일보사.

(1991), 가난의 공화국, 통일일보사.

이윤희 · 박현선(1990),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 연구", 북한통일연구논문집, 통일원조사실:243-292.

이중(1987), "집단주의적 교육체제:그 규범과 운용", 고현욱외, 북한 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281-337.

이항구(1978), "북한학생들의 일과시간표", 북한, (6월).

이항구(1988), 북한의 현실, 신태양사.

이호준외(1989), 북한의 정치체제와 행정정책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정신문화연구원(1987), 북한체제연구, 고려원.

정현수 · 이동선(1990), "북한의 권력구조의 변동과 권력승계의 전망", 통일원, 북한 · 통일연구논문집:103-181.

제빈(엄충섭역)(1991), 평양 서울 그리고 모스크바, 동아일보사

정혜문(1988), 북한의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대학원석사.

조선일보사(1993), 월간 조선, (11월).

최영표외(1988),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최완규(1992), "인민군의 발전과정과 당-군관계", 전환기의 북한사회주의. 대왕사.

쿠르바노프(문병환역)(1990), 조선일기, 한국경제신문사.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통일연수원(1988), 민족통일론.

(1992a), "북한의 군사", 민주통일론.

(1992b),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

(1993), 통일문답.

통일원(1976), 북괴군의 정신전력 형성에 관한 연구.

(1979), 조선노동당 주요외곽단체의 조직 및 활동.

(1981), 북괴노동당 및 외곽단체 현황.

(1983), 북한주민 의식구조조사.

(1985), 북한의 대학, 대학생활.

(1986), 북한의 대학교육.

(1992a), 북한개요 92.

(1992b),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1993), 북한 방문안내.

하기하라 료(김종선 역)(1990), 서울과 평양, 다나.

한홍구(1989), "알기쉬운 북한현대사", 김남식 외,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현장문학사.

황병선 외(1993), 기자들이 가본 북한, 가나.

황석영(1993), 사람이 살고 있었네, 시와 사회.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부 록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북한귀순자 면접조사 내용

다음은 북한 귀순자의 면접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한 것이다. 면접은 10월에 이루어졌으며 지면상 전문을 실을 수가 없어서 본 보고서와 관련있는 부분만 요약해서 싣는다. 진술한 내용중에 잘못 알고 진술한 부분, 확인하기 힘든 내용도 있으며 서로 중복되거나 상반된 진술내용도 있을 것이다. 또한 녹음한 것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자료를 이용할 연구자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수정을 줄이고 그대로 싣고자 하였다. 다소 어색하거나 어법이 안맞아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심한 사투리나 문법상 어색한 것은 본래의 의미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다소의 수정을 하였으며, 구어체를 문어체에 가깝게 고쳤다. 질문내용은 생략하였으며, 진술내용은 본 보고서의 목차 순으로 각 영역별로 나누어 실었다. 면접대상자는 가나다 순으로 김남준(32세, 인민군 소대장), 김성(32세, 사회안전부원), 김영성(60세, 건축설계사), 김정민(51세, 대외무역책임자), 김창화(37세, 평양철도대학생), 안혁(26세, 정치범수용소 죄수), 어성일(37세, 외화벌이 노동자), 이창수(27세, 유도국가대표 선수), 장기홍(32세, 재소 벌목노동자), 한성호(26세, 소련유학생)이다.

김 남준(32세, 인민군 소대장)

학교 생활

아이들이 학교는 지옥으로 생각한다. 너무 통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 안갈려고 간장 한 종기를 먹고 열을 내어 꾀병을 부린 적도 있다.

개인간의 경쟁문화가 없다. 그러므로 낙제 이외의 공부스트레스는 없다. 그러나 집단경쟁은 있다. 그것도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부정적 경쟁이다. 한때는 수재론을 반대했다가 최근에는 영재교육을 강조하면서 제일고등학교가 전국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다.

학급에는 반장과 분단위원장이 있는데, 반장은 행정적 일을 맡고, 분단위원장은 소년단조직의 장으로 정치조직생활을 맡는다. 이들 학급간부들은 성분이 좋거나 선생에게 아부를 잘 하거나 집안이 좋아야 뽑힌다.

수업은 대부분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다.

군대 생활

1985년 이후 군대기피현상이 일어났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대학에 다니는 간부자녀들은 다 군대에 나가게 하였다. 이것을 3.18조치라 한다. 이들은 약 3년 6개월 후에 제대시킨다. 군대에 들어갈 때 첫째 성분조사, 둘째 정치사회단체생활 평가에 근거한 추천서 심사, 셋째 신체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군인은 하루 식량배급량이 800g이다. 대학생의 700g보다 많다.

군대보급품이 부족한데 수송이 잘 되지 않아서이다. 그러므로 산악지방이 더욱 심하다.

대대단위 도서실에 가면 사병도 노동신문을 읽을 수 있고, 주말에는 TV도 볼 수 있다. 부대마다 부업을 하는데 빈땅에 야채를 심어서 부식을 공급한다. 군대생활에서 사고가 나는데 대개 노력동원에서 일하다가 장비가 부실해서 다치는 수가 자주 있다. 예를 들면 다리 건설공사를 하다가 교각이 부러지는 일도 있었다. 연대급에는 군의소가 있고, 사단급에는 병원이 있다.

여자군인들은 의무대 같은데 많이 배치하지만 고사포대대나 통신, 수송대대에도 배치된다.

가정 및 여가 생활

대가족제도가 핵가족화되고, 평양시는 자기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다. 직장 가는 길과 화장실 가는 길밖에 모른다는 농담도 있다. 평양가야 잘 살 수 있다고 하여 각종 연고로 평양시로 들어오자, 김정일이 직접 관여하여 특히 노인들을 평양에서 내보내기 시작했다.

형제들이 같이 모이기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시간이 맞지를 않는다.

교육열은 지위에 따라 다르다. 보통 인민들은 자식의 장래를 생각할 여유도 없다. 또한 국가에서 다 해 준다고 믿고 방치한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부모나 똑같다.

시마다 아동문화회관이 있는데 단체로 공연을 보게 된다.

용돈이라는 용어도 없다. 파는 물건이 없으므로 용돈이 필요하지도 않다.

85년 남녀공학을 추구했는데 대체로 지방은 시설때문에 남녀공학을 했다. 고등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덕적으로 이성교제는 나쁜 것으로 알았다.

5-6시에 하교하면 집에는 아무도 없고 개가 반길 뿐이다. 자치기 등을 하면서 놀다가 어머니가 오시면 7-8시에 저녁을 먹는다. 숙제가 많으며 집안일도 많이 돕는다. 집안일은 석탄이나 나무해오는 것 등이다.

만경대유원지에 85년부터 전자오락기구를 들여놓았는데 단지 전시용이다.

텔레비젼은 평양에 3집에 2대꼴로 있으며 다른 도시는 12집에 1대꼴로 있다.

아이들은 만화를 좋아하는데 어른도 만화를 좋아한다.

김 성(32세, 사회안전부원)

대학 생활

내가 다닌 남포전기설계대학은 학생이 1200명인데 여자가 300명 정도 되었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다. 경쟁율은 우리가 8:1이라고 하는데 원래 대학은 성분이 좋은 아이들이 지원하므로 실제로는 5:1, 6:1정도 되는 것 같다. 우리같은 경우엔 고등학교 졸업할때 300명 졸업했는데, 대학시험을 치러 간 학생이 13명이었다. 7명중에 전문학교를 4명이 가고 3명은 5년제대학 예비과에 갔다.

우리대학에서는 공부안하고는 못배긴다. 일주일에 한번씩 시험을 쳐서 성적이 적혀있는 시험지를 전교에다 붙여놓는다. 남녀공학이니 챙피하다. 그리고 또 한 과목만 낙제를 하면 진학이나 졸업을 못한다. 심리적 압박으로 도중에 나가는 친구들도 많다. 제대군인들이나, 고등중학교까지 공부 하나도 안하고 놀다가 부모님빽으로 들어온 애들은 조직에서 계속 비판받고 하니까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나간다.

남한에 비해 북한에는 배우는 과목이 많지 않다. 음악, 미술 과목은 없고, 체육과 외국어는 있다. 외국어는 두가지를 배우고 역사는 안 배운다. 자기 전공과목 외에 불필요한 것은 안 배운다.

서클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만들어진 것에 가입한다.

북한대학에는 출학과 퇴학이 있다. 퇴학은 학교다니다가 성적이나 몸이 불편해서 그만두는 것이고, 출학은 쫓겨나는 것이다. 대학 5년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학생들이 연애하다가 잡혀서 학생총회에서 비판받기도 하고, 사상투쟁에서 걸려 쫓겨나기도 하고, 한 친구는 패싸움하다가 교화소에 들어가서 출학당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대학 3학년부터 하루 30분자기운동을 한다. 졸업논문을 쓰면 도면만 최소한 54장이 된다. 설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계산을 많이 하는데, 전자계산기가 없으므로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밤잠 안자고 논문을 써야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우리대학 기숙사는 3층짜리 하나였는데, 책상도 없고 침대도 없었다. 대학생의 절반이상이 기숙사생이었다. 기숙사가 모자라서 공장합숙장에서 다니기도 한다.

기숙사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은 따로 없고, 학생들이 숙사내에서 순번을 정해서 당번제로 청소한다.

사감은 없고 기숙사 안에 자치단체로 생활위원회가 있다. 생활위원회 위원장은 졸업반이나 상급생이 맡는다. 기숙사생활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함께 기상하고, 아침운동하고, 밥먹고, 공부하고, 취침하는 등 집단생활을 한다.

밥하고 반찬하는 것은 아주머니들이 하고, 배식은 줄서서 식권을 내고, 그릇들고 배급받는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아침을 못 먹으면 굶게 된다. 학생은 많고 먹는 좌석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시험때는 줄을 서서 책을 보기도 한다. 북한에는 학생들이 택시타고 버스타고 등하교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장학금은 전국 대학이 고정되어 있다. 4킬로이상 떨어지면 15원이고, 2킬로이상 떨어질 땐 8원이다. 대학에서 4킬로 이상 떨어지면 거의 10리 정도 되는데, 통행증이 있어야 다닌다. 이 장학금 말고는 10점을 채우고 그 학년을 나오면 김일성 장학금 45원 주는게 있다. 그 외에는 없다.

대학에서는 공책을 학기마다 배급한다. 한 사람에 10권 정도인데 거의 다 재생한 것이다. 처음엔 다 나눠주지만 다음에는 돈 주고 사야 한다. 돈은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과 집에서 보내주는 것을 쓴다.

대학에서는 자기의 전공 외에는 수강할 수 없다. 시험에 낙제하면 진급을 못하므로 후배들과 같이 공부해야 한다. 졸업하려면 졸업논문을 꼭 써야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졸업논문은 졸업시험에 합격이 되어야 쓸 수 있다. 졸업시험은 10점중에 5점 이상이 나오면 된다. 졸업장은 책처럼 되어있는데 어느대학, 어느과가 적혀있고, 사진이 붙어 있고, 이름과 생년월일이 있고, 졸업생 성적이 있다. 대학에서의 모든 성적점수가 기록되어 있다.

졸업제한기간은 없다. 휴학이라는 것은 아팠을 때밖에 할 수 없다. 대학 다니다가 군대에 갈 수가 없다. 졸업해도 나갈 수 없다. 만일 도중에 군대가면 복학할 수 없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다니는 것은 통제를 안하고 있다. 그러나 술·담배는 절대로 통제한다. 담배를 못피게 하는 이유는 김정일이 교시를 내린 때문이다. 김정일이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으므로 담배를 못피게 한다. 술은 학생들끼리 조금씩 마신다. 술 먹는 것에 대해선 사회적 문제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술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다. 맥주같은 것 조금씩 마시고. 물론 학교 안에선 못먹는다. 그러나 기숙사 안에서 드문드문 먹는다.

직장 생활

사회안전부내에 천리마운동같은 것은 없고 삼대혁명같은 것은 어느기관에나 있다. 삼대혁명이라는 것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인데,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에서는 일반사회단체에서와 같다. 그런데 기술혁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무담당상 사회안전, 업무과정을 더 많이 하다보니 특히 교통사고 없애기, 화재방지 등에 신경쓴다.

직장내에 친목단체는 없다. 당조직이 승인하지 않는 조직적인 것은 만들 수가 없다.

가정 및 여가 생활

부모가 돌아오면 반가워하고 탁아소 갈때는 안 떨어지려 하는 그런 본능적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애정은 있다. 내가 자랄때는 거의 아침만 부모님과 같이 먹었고, 저녁은 내가 9살때부터 같이 먹었다. 북한에는 부모자식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다.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다. 군복무하는 애들이 많은데 17-18살 먹어서 군대나가면 10년동안 복무하면 27-28살에 제대한다. 제대하고 집으로 배치받는 것은 20명중에 한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타지방에 배치되니까 부모와 같이 지낼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것에 익숙해 있다.

자녀가 가정일을 특별히 도와주는 것은 없고, 구멍탄 날라다 주고, 청소하고 그러는 정도가 보통이다.

자식이 부모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버지를 고발해서 아버지가 당간부에서 떨어지면 자기도 헤어날 길이 없다. 왜냐하면 성분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런 바보짓은 안한다. 그렇지만 부부사이는 문제가 생기면 고발한다. 이혼하면 성분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웃과는 사이좋게 지낸다. 북한에서는 보름치 식량 타오면 보통 10-11일 정도 먹는다. 쌀이 없으면 옆집 가서 꿔달라고 하면 꾸어 준다. 어떤 때는 빌려준 것을 못받을 때도 있다.

87년 남포시 패싸움에 한번 갔었는데 학생들이 거의 600명이 모였다. 패거리는 명칭도 다양한데 주로 지역에 관계된 것이 많다. 두목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주로 해서 같은 지역내에서도 여러 패로 갈린다. 두목은 간부자녀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아이들이 끼어 있으면 잡혀도 별로 다치지 않기 때문이다. 애를 데려다 취조할 수가 없고, 취조를 해도 깊이 내막을 파내지 못한다. 그 부모들은 법이라는게 없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아이를 빼내고 일반애들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 북한에는 정치조직 외에 인간적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많다. 패거리라든가 친구들의 친분관계라든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름이 없는 그룹과 같은 것이다. 북한에서는 정치성을 띠지 않으면 크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고위층의 자녀들이 공부를 대체로 잘한다. 왜냐하면 도시에 사니까 우선 보는 것이 많고, 두번째로 TV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TV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므로 TV를 본 학생과 안본 학생과는 공부할 때 차이가 난다. 공부 안해도 TV에 한국역사같은 경우는 보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

북한에서는 학부모가 아무리 간부라 하더라도 선생님에게는 머리를 숙인다. 학부형총회는 학기마다 한다. 성적표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학부형총회에서 학부형에게 주게 되어 있다. 자녀가 문제청소년인데 학부모가 관심이 없다면 그 직장의 당조직에 보고한다. 그러면 당조직에서 그 학부형을 비판한다. 이것은 가족혁명화와 관계된다. 북한에서는 자기만 혁명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혁명에 충실해야 한다. 학생이 처음 학교에 입학할 때 배급권을 하나 받는다. 한번 탈 때 보름치를 타는데 그 칸이 400그램으로 15칸이 있다. 만약에 하루를 결석하거나, 세번 지각 또는 조퇴를 하면 다음번 배급에서 하루치를 제외한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도 식량이 부족한데, 배급이 줄어서 속상하고, 자녀가 학교생활 잘 못하니까 속상하고, 이중적인 부담을 갖는다. 그러므로 부모한테 욕먹고, 학교가서 선생님한테 욕먹고, 각 소년단 조직에서 비판받는다. 따라서 지각이나 결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등중학교 졸업하기까지 지각이나 결석없는 학생이 100명중에 90명쯤 된다.

청소년문제에서 제일 중요한게 도둑이 많다는 건데, 큰 도둑이 아니라 가정집에 들어가서 쌀을 훔친다거나 남의 주머니 돈을 훔친다든가 찬장을 열어서 밥을 뒤져 먹는다든지 이런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아이들은 '소년교화소'에 데려가서 노동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일년동안 그 아이들을 키우는 거다. 그렇게 한 다음엔 집으로 돌려 보낸다. 계속 그럴때는 학교내에서 담당선생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님을 고정적으로 붙인다.

이성교제는 고등중학교때는 감히 생각 못한다. 왜냐하면 학교가 우선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자랄 때만 해도 여학생 한번 보기가 힘들었다. 인민학교때는 학교는 같아도 여자반 남자반이 다르고, 고등중학교로 올라가면 학교가 다르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다. 공대같은 경우는 23-24명 되는데 여학생이 3-4명 들어오고 그 20명 중에 말을 거는 학생은 없다.

북한에서는 산부인과가 다 선전부, 조직부 직속이기 때문에 결혼 안한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없다. 결혼해서 애를 날 때는 산부인과에 와서 남편이름을 묻는대로 꼭 대야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생을 망치게 되므로 애를 낳으면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청소년들은 성지식이 없다. 우리 대학다닐 때도 성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고등중학교 여학생은 여학생실습이라는 교과서에서 배우지만 남학생은 성지식이 없다.

김 영성(60세, 건축설계사)

학교 생활

성분만 문제없으면 성적에 관계없이 갈 수 있다. 다만 좋은 대학을 가는가 못가는가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대학을 갈 수 없는 성분이면 못 간다. 아이들은 소년단부터 그 사실을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청소년은 경쟁이라는 개념을 잘 모른다. 한때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을 성분을 보지않고 대학에 갈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대학생 모집과정에서 결국은 성분을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아이들도 성분이 나쁘면 어릴 때부터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므로 인재를 모을 수가 없다. 또한 인민학교부터 학교공부보다는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조직사회생활에 치중하니까 그런 인재들을 계발할 수가 없다. 즉 집단생활을 하므로 아이들의 개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양시의 아이들만 보아도 마스게임 서너달 동원되고, 모내기에 동원되고 , 건설장에 동원된다. 지방학생들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모내기에 동원되고, 가을철 추수에 동원되고, 각종 행사에 동원 되고, 그 다음에 과외생활을 집중적으로 하는 실정이다.

남한은 아이들이 경쟁하지만 북한은 부모들이 경쟁한다. 아이들은 조직활동으로 개인적인 시간이 많지 않다. 남한은 부모들이 과외비를 내든지 하여 어쨌든 아이들이 경쟁하지만 북한은 부모들이 학교나 대학에 뇌물공세를 펴면서 경쟁을 한다. 대학진학율은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단과대학을 포함한다면 15-20% 쯤은 진학한다. 대학은 외국어대학, 국제관계대학, 상업대학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외국어대학이나 국제관계대학은 외국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고, 상업대학은 실제 물건을 취급하면서 부수입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과대학, 이과대학은 선호하지 않는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노동자에 비해 5-6배의 월급을 받지만 실제로 상품을 다루지 않으므로 부수입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생활

간부는 대학졸업생 간판없이는 도저히 바라보지를 못한다.

대학생들은 성적보다는 성분위주의 선발이므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준이 안되어 있다. 대학생들은 전공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분야에서 성공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진출, 즉 당간부 등에만 관심이 있다.

기숙사생활은 완전히 병영생활이다. 밥먹으러 갈 때도 줄서서 간다. 행렬 짓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불러야 되고, 군대하고 똑 같다. 청진의 우리 동네에서도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 기숙사에만 맡기면 영양실조로 폐결핵 걸린다. 따라서 밥사먹으라고 200-300원 씩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내내 보내줘야 된다.

군대 생활

70년대초에는 군대에 가는 것을 선호했다. 왜냐하면 군대가야 입당도 하고 직장도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군대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보통 노동자들의 자녀들은 군사건설 계통에 가서 10년동안 곡괭이와 삽을 들고 중노동하다가 입당도 못하고 나오게 되었다. 또 농민의 자녀는 군대갔다 와도 고향에 배치하므로 무조건 농민이 된다.

직장 생활

대여섯명이 남아서 형광등 밑에서 밤새워 설계를 하는데 상관이 덜컥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당신네 형광등 하나에 설계원 한 열명이 모여 앉아서 해야 하는데 왜 다섯 명이서 그러고 있는가 해서, 옆 방에 있는 설계원들하고 같이 합쳐서 설계하든가 하고서는 이 불을 끄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그만큼 전기사정이 나쁘다.

아침에 출근하면 지배인 외에는 모든 직원이 다 청소한다. 안전사고는 많다. 광복거리 건설현장을 지휘했는데, 하루 평균 한 둘 씩 죽었다. 안전헬멧이 얇은 프라스틱이라 하나마나이다.

사회조직 생활

학생들이 일년에 보통 석달 이상 농촌에 나가는 데 학생들이 하는 말이 농사는 학생들이 짓고 농민들은 관리원이라고 한다. 그저 학생들을 배치하고 지시한다는 것이다.

가정 및 여가 생활

요즘 북한청소년이 과거 북한청소년과 달라졌다면 첫째 책을 안 본다는 것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다.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다. 또한 볼 책도 없다. 둘째 도덕관념이 달라졌다. 어른 공경할 줄을 모른다. 북한에서 노인들은 양식을 축내기만 하는 무용지물이므로 천대받는 계층이다. 물론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을 했고 자식들이 그것을 인정해도 우선 자기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겠는가. 셋째 옛날 청소년보다 극악해졌다. 북한에서는 웬만큼 나쁜 짓 해도 보통 사람들이 제재를 하지 않는다. 도둑질을 했다고 해도 제 물건이 아닌 이상 붙잡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싸움하게 되면 무조건 돌을 쥐니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항상 배고픈 데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줄을 서는데도 벌써 안전원이 나와야 선다.

부모들이 밤늦게 퇴근할 때가 많으니까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 그것이 세대차를 만들었다. 그래서 김정일이 빨리 퇴근하기 시작하라 한 말이 80년대 초에 나왔다. 모든 걸 간소화해서 빨리 퇴근시켜서 아이들의 가정 교육을 시행하라 하는 문제가 80년대초에 대두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김일성과 김정일 측근과 고위급 간부들의 자녀들이 벌써 그렇게 됐기 때문이고, 둘째 아이들이 기본 상식이 없어졌다. 지리적 상식, 역사적 상식, 사회적 상식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북한의 고위층 자녀들이 외교관이 되거나 해서 외국에 나가서는 상식이 없어서 망신을 당한다. 그래서 이문제가 70년도 말부터 제기됐다. 그래서 이런 상식교육이 80년대 초에 집약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북한 청소년들이 김부자 체제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다. 그러나 그것은 청소년기에 해당될 뿐이다.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한 두달만 하게 되면 자기들이 배운 것과 사회현실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 북한당국도 그것이 가장 골치꺼리이기도 하다. 특히 제대군인들이 문제다. 학생은 집단생활을 하고 서로가 통제를 하고,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정부에 대해 나쁜 말을 안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사회인이 되면 그 때는 사회실상에 대해 직접 체험하기 때문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남한에 북한상품 전시한 것 봤는데 그건 모두 파는 것이 아니고 전시용이다. 내가 청진에 15년 살았는데, 운동화 2켤레 밖에는 산 게 없다. 그것도 배당 나와서 샀다. 화장비누, 치약, 칫솔도 없다.

북한에 제일 많은 질병은 첫째는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못먹을 것을 먹으니 위장병이 제일 많고, 둘째는 60년도 중엽까지 완전 퇴치됐다는 결핵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세째로 간염, 그 다음에 특히 많은 병이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 뇌출혈, 고혈압, 심장병 등 혈액순환계통이다. 북한 평민들은 지금까지도 김일성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다. 다만 통행증이 없지, 거주 자유가 없지, 말할 자유가 없지, 노래도 제한해 놨지, 외국에 일체 못 나가지, 자녀 배고프지, 땔 것 없지, 추석날 맹물 떠놓고 제사지내지, 아이들은 자라나는데 뭐 입힐 것 없지,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양복 한 벌 못 구하지, 쌀 배급을 탈려고 해도 뭐 분토 1톤을 생산해 내라지, 그 다음에 쓰레기가 오물장에 가득차 있는데 그거 방출하는 데 돈 내라지, 모든 생활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스트레스다.

김 정민(51세, 대외무역책임자)

대학 생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가고싶은 사람은 담임선생이 학생의 성품, 학력, 체력, 소질 등을 참고하고, 본인이 원하는 학교와 학과를 제3지망까지 받는다. 담임이 학부모와 상의해서 시·군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에 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서 추천서를 써준다. 지망자가 많을 경우 학교추천위원회에서 성적순서로 조절한다. 80년대 초부터 정책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성분이 좋은 사람이 대학에 많이 갔는데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 김정일의 특별 지시로 당비서국 비준대상간부(고급간부)의 아들은 병역의무를 마쳐야 대학에 돌어가게 하였다. 성분조사에서 학생당사자 외의 부모나 친족의 잘못에 대한 평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가는 많이 완화한 셈이다.

이념공부를 우선시 해서 학생들이 지쳐있다. 당역사강좌와 김일성로작강의, 주체사상등이 강조된다. 이념공부는 매우 중요하지만 정신적 부담이 크다. 이념공부를 잘 못하면 부모의 체면에 문제가 생기므로 가족에 대해 걱정하게 된다. 그래서 전공과목에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다.

70년대 이후에 인기학과가 바뀌었다. 사회과학은 인기가 떨어지고, 자연과학은 보통이고, 대외관계학과와 외국어학과, 예술계통학과가 제일 인기있다. 대학에서 담배와 술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학생중에는 결혼한 사람(제대군인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연애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대학공부는 집단학습을 많이 한다. 기숙사같은데서도 모여서 공부하는게 보통이다.

직장 생활

북한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간부라 하는데 간부에도 여러 급수가 있다. 높은 순서로 말하자면, 중앙당비서국 비준대상자와 중앙당비서국 합의대상자가 있고, 도당비준대상자와 합의대상자, 군당비준대상자와 합의대상자로 구분된다. 비준이나 합의제도는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막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독단적으로 인사처리하지 못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군당의 책임비서, 행정경리위원장, 안전부장, 보위부장 등이 중앙당비서국 비준대상이다. 1급이나 2급기업소 간부와 군급 단위당 책임자 등은 도당비준대상이다. 3급 공장·기업소 지배인, 당비서, 서기장, 부지배인과 협동농장의 관개위원장, 리당비서 등은 군당비준대상이다.

노동시간은 8시간제로 3교대가 보통이지만 공장간 전기사용 시간이 교차되므로 거기따라 2교대하는데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월말이나 연말에 생산목표량을 못 채웠을 때는 연장노동을 한다.

직장에서 불만이 있을 때는 다음 단계 상급 당조직에 호소한다. 물론 당원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북한 노동자들의 어려움 중에서 생활 필수품들이 부족한 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다.

재산에 대한 강한 동기가 없고 경쟁이 심하지 않아서 범죄는 별로 없다.

북한서도 농촌총각들이 장가가기 힘들다. 한번 농촌에 들어가면 계속 거기서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농촌일이 도시일보다 더 힘이 드는데 보수는 더 적다고 생각한다. 또 문화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처녀들은 농촌을 기피한다.

농촌서는 보통 날이 밝기전에 일어나고 어두어져서야 집에 돌아 온다.

김 창화(37세, 평양철도대학생)

학교 생활

북한에서는 만 18살이 되어야 공민증을 받는다. 그 전에는 출생증명이 있다. 여행을 다닐 때도 그 연령에서는 통행증이 없어도 출생증만 있으면 다닐수 있다. 20대 후반까지는 북한의 체제내에서 상당히 일를 많이 하고 열심히 사회에 헌신하는 세대로 보고 사회의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한다.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남자는 30세가 넘어서 여자는 28세 이후에 결혼하라고 당에서 지시까지 내려왔다.

학생증과 같이 특별히 가지고 다녀야 하는 증은 18살전에는 출생증 이외에는 없다. 교복에는 뺏지를 달고 다닌다. 교복은 학교에 갈 때에만 입는다. 교복은 아껴서 입어야 하므로 자주 입지는 않는다. 여행갈 때는 외출복 역할도 한다. 인민학교부터 고등중학교 2학년까지는 붉은넥타이를 매고 그 후 사로청에 가입해서는 붉은넥타이가 없어지고 뺏지도 달라진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학생들의 진로는 당에서 민족간부로 양성할 수 있는 학생을 찾아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차출되어서 중앙당 연락소라든가 간첩으로 남파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특수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운이 좋아야 하고 집안환경이 좋아야 하고 부모님들의 지위가 좋아야 한다. 그것을 조사해서 일단 대학에 가는 사람들를 먼저 추천을 한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크게 진로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일단은 성분이 좋아야 한다.

군에 가는 것이 우선이냐 대학에 가는 것이 우선이냐를 따질 수는 없다. 대학보다 군에 지망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학에 가면 당에 입당하는 속도가 늦어지므로 군에 갔다 와서 입당하고 사회에 나와서 당에 입당하면 막바로 대학에 가는 아이들보다 더 빠르게 출세할 수 있다.

대학에 가는 경우는 고등중학교 졸업생의 15%정도이다.

실력이 나빠서 대학에 못 갔다는 말은 거의 없다. 실력은 좋은데 성분이 나빠서 못 갔다는 말은 있다. 그러나 역시 실력도 따진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강원도 지방교육청에서 어느 대학에 몇 명을 보내라고 지시를 한다. 그 지시를 받고 성분이 좋은 학생들 중에서 그중 성적이 좋은 학생을 차출하기 때문이다. 대개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대학 못 가고, 군에도 못 가는 학생은 성분이 최하층이다.

노동자 출신이라고 해서 다 성분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아버지가 노동자라고 해도 성분이 깨끗한 사람이 많다. 이북에서는 자녀들의 장래가 부모가 어떠한 직책에 있지 않아도 성분이 깨끗한 사람들, 즉 별다른 잘못이 없는 사람의 자제의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갈 수도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특별한 연락소라든가 김일성 부자를 친위할 수 있는 친위부대 같은 곳에 배치받을 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확실하므로 자신만 잘하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극히 적다. 악질 만행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한 경우가 아니라면 남조선 출신까지도 군대에는 갈 수가 있다.

토지개혁을 할 때 농민들은 대부분 토박이라서 옛날에 지주였던 계층이 많아 농민에 대한 대우가 나쁘다. 농민중에 성분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100명에 1-2명정도이다.

사무직의 자녀들은 괜찮은 대우를 받는다.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학에도 갈 수 있다. 사무직이라고 하면 남한의 기업에서 계장 정도이다. 서어비스업이라는 말 자체는 없다. 일반적으로 접대한다, 가이드한다, 안내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그러한 접대일을 할 경우도 사무직과 비슷하다.

어민들의 자녀도 대학에 갈 수 있지만 어부에 종사 하는 경우가 80%이다.

김현희씨의 경우와 같이 가끔 그러한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최고급 간부는 요즈음 그러한 곳에는 보내지 않는다. 특수부대는 위험하므로 자식을 해외근무에 보내기를 원한다. 해외근무는 인기가 좋다. 돈보다는 현물주의라서 해외에 가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어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학교뺏지를 보고 어느 학교 학생인가를 알 수 없다. 학년표시도 없다. 단지 학교 갈 때에는 교복을 꼭 입는다. 머리는 짧게 깍는다. 그러나 선후배간의 질서는 없다. 힘이 센 저학년이 고학년을 때리는 경우도 있다. 동창회 같은 것은 없다.

가방은 통일되어 있다. 학교의 사물함은 없다. 모두 가지고 다닌다.

매점은 대학에는 있지만 고등중학교에는 없다.

대학 생활

간부직이란 과장, 부장, 중앙당 과장 정도, 군대에서는 대대장급 정도이다. 당간부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전문직의 경우는 당의 업무만 하고 다른 행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정업무는 하지 않는다. 이것이 유급당직이다. 반유급의 경우는 당업무도 수행하고 행정업무도 하지만 그 사람의 주 임무는 행정업무이다.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의 경우, 학교에 당일꾼으로 제일 높은 학교당비서가 있다. 그리고 4개의 학부당이 있고 학부당비서가 있다. 그래서 총 5명인데 이 사람들은 유급이다. 학부당부비서의 경우는 반유급당간부이다. 이 사람들은 다른 곳의 강좌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당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공장에서는 지도원급부터는 간부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과장, 부장, 처장, 국장, 지배인, 부지배인 등이다. 학교의 경우는 교장, 교무주임이며, 대학에서는 당비서가 있어서 대학학장, 부학장, 대학당비서, 부비서, 조직비서, 선전비서, 사상비서정도이다. 교수는 실무일꾼들이고 물리학강좌, 역학강좌, 화학강좌, 외국어강좌 등 각 강좌장들까지다.

대학내에서 군대에 갔다온 사람과 갔다오지 않은 사람과의 갈등은 많다. 군에 갔다와서 대학에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학급은 50명 중에서 3명이었다. 대학은 군사체계로 되어 있다. 대학은 연대, 학부는 대대, 학과는 중대, 학급은 소대이다.

군에 갔다오면 당원이 된다. 대학에 곧바로 들어간 사람은 입당하려면 10년은 걸린다. 대학에서 직통생의 비율은 80-85%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군이나 직장에서 온다. 사회에서 오는 사람은 드물다. 이 방법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나의 경우도 사회에서 사로청위원장 직책등 고생을 하다가 겨우 들어가게 되었다. 직장에서 대학에 가는 비율은 일급기업이 만명 정도인데 대학에 가도록 하는 사람은 1년에 10-30명 안팎이다. 따라서 일을 하다가 들어오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군대 생활

8년동안 계급은 상사까지 올라갔다. 직업군인으로 제대를 했는데 같은 상사라고 해도 부류가 두 가지가 있다. 직업군인으로 된 특무상사가 있는데 장교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자동차라든가 전문직종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평상사가 있다. 특무상사는 절반이상이 대학에 갈려고 생각한다. 특무상사를 나오면 대학에 가지 않아도 특별대우를 받는데 무리배치에서 빠질 수가 있다. 윗 사람들과 잘 알게 되므로 고향에 간다거나 평양시내에 진출할 수 있는 제대 케이스가 있다.

군에 들어가는 조건은 성분이 그다지 나쁘지 않으면 들어 갈 수 있다. 신체조건이 완벽해야 한다. 고등중학교까지 졸업을 해야 갈 수 있다. 농민들도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제대할 때 농업에서 빠지기 위해 군에 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제대후 같은 농장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제대는 갑자기 부모님들이 일를 하다가 큰 잘못을 했을 경우 자식에게도 영향이 미친다. 사고나 부상의 경우에도 제대한다. 그리고 만기제대가 있다. 보통 27-28살 그리고 중간에 대학에 가는 사람은 1-2년을 앞당겨서 25-26살에 제대한다. 최고가 11년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군복무는 10년에서 11년으로 보면 적당하다.

처음에 군대에 가서 배우는 것은 도둑질이다. 그런 것을 모르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가자마자 배낭 하나씩 지워 준다. 참외밭, 과수밭, 콩밭, 도마도밭, 강내이밭 등 습격들어가서 배낭에 메고 와야한다. 실제로 훈련하다가 배가 고파서 민간 농가를 습격하다가 주인한테 붙들려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당위원회에 보고가 들어오면 부대내에서 소동이 나고 다른곳으로 전출시키기도 하고 또 생활제대를 하기도 한다.

장교의 조건은 성분이 좋아야 한다. 그러나 대학가는 정도보다 못 해도 된다. 친인척 중에 걸리는 점만 없어도 된다. 사병에서 바로 장교가 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사병에 들어왔다가 1년-2년 있으면 하사가 되는데, 성분이 그리 걸리지 않는 사람 중에서 사단에서 1차적으로 신체검사를 하고, 군단에서 면담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마치고 차출한다. 상등병은 1줄, 하사는 2줄, 중사는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3줄, 상사는 통줄이다.

장교의 경우는 민족간부이고 소위의 경우는 봉급이 70-73원이다. 소장은 280-350원 정도이다. 군단에도 장교학교들이 있는데 행정장교학교와 정치장교학교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정치군단학교에 가는 사람은 드물다. 정치장교가 하는 일은 정치교육과 사상교육이다. 정치장교들은 행정적으로는 지휘통제를 할 수 없지만 내적으로는 조직을 통제하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시하고, 보고서를 쓰고, 그 사람의 약력이나 생활자료를 적어 올려 보내므로 사실 권력이 세다.

신병교육을 시켜서 군대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 신병교육장에 가는 경우는 전문 인력 즉, 자동차, 비행기 군대의 경우는 군복을 입자마자 교육을 시켜서 군대에 넣는다. 기타 90%이상은 육해공군 3부로 나누어 배치하고 이동시킨다. 부대 참모들이 와서 인원들을 할당받아 자기네 군에 데리고 가서 분단훈련소에서 직접 훈련을 시키거나 각 사단에 보내서 훈련시킨다. 그래서 약 1개월만에 배치가 끝난다.

군대에서 배가 고픈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군복이 얇아서 춥다는 느낌은 그다지 없었다. 동복은 상당히 두껍다. 북한이 추워서 발이 많이 시렵다. 특히 밤에 강행군할 때는 더욱 그렇다. 아마 신발의 질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 솜을 넣은 신발의 경우는 20리만 걸어도 땀에 젖는다. 가죽신발도 있다.

생활하는데에 가장 큰 문제는 난방문제다. 비오는 날은 옷이 젖고, 비가 오면 말리는 곳도 없고 갈아 입을 곳도 없다. 잠자리는 어려움이 없었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 다 있다. 그러나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다. 큰 부대의 경우는 도서실도 있다. 도서실에서 책을 대여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지휘급들이 사용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10년동안 제대하기까지는 집에 못 갔다. 너무 안 보내면 탈영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므로 80년대초부터는 휴가제가 생겼다. 1년에 1개중대에서 착실한 사람 15명정도는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안다.

노력동원은 지방의 군인들도 평양시에 큰 공사가 있으면 간다. 군인들 노력동원의 기간은 공사부대가 있어서 1년내내 하기도 하고 큰 공사를 하는데 아직 작업량이 많이 남은 경우는 지원을 한다. 1년중 한두달 정도이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에 가는 사람은 최근에는 거의 없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는 있었다. 버마랑군 폭파사건이나 박정희대통령이 죽었을 때 캠페인식으로 대학생들도 마구 차출해서 군에 내보냈다. 그런 사람들은 2-3년 복무하다가 다시 복학시켜주었다.

진급기간은 전사가 8-16개월 걸린다. 상병에서 하사는 3년정도 걸린다. 하사에서 중사는 5년 걸린다. 같은 연배가 많아서 진급할 자리가 없다. 예를 들어 같은 연배가 5명인데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중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중사에서 상사는 8년 걸린다. 소위에서 소좌까지는 10-12년, 소좌에서 소장까지는 20년 걸린다. 50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 조금 빠르면 40대 초반인데 이들은 정말로 빨리 올라간 것이다. 젊은 지휘관들을 요즘 많이 양성했다.

가정 및 여가 생활

불구자에 대한 정책은 안 좋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기분 나쁘게 하고 차별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평양시에서 살수 없게 추방한다. 이유는 외국인이 왔을 때 무료교육 무상치료 정책의 효과를 선전하기 위함이다.

사생활에서 불구가 된 경우와 군대에서 불구가 된 경우는 매우 다르다. 군대 갔다가 불구가 되었을 때는 대우가 좋다. 일하다가 다친 경우는 별다른 대우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가 없다. 다만 나이가 차면 보조금이 조금 나온다. 10원-20원 정도의 돈이다. 그러나 배급쌀이 나오므로 굶지는 않는다.

밤만되면 청소년들이 담배질을 많이한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담배불을 빌리다가 들키는 아이들도 많다. 담배는 주로 부모님들의 것을 훔쳐서 피운다. 마약은 없다.

남녀의 교제는 있다. 1학기당 1-2명은 임신때문에 퇴학을 당하기도 한다. 퇴학을 당하면 졸업장을 못 받는다. 불명예스럽게 나가서 직장을 구해야 한다. 군에 갈때 신체검사를 하는데 남자가 100% 나간다면, 여자군인은 15%정도다. 신체검사때 여자의 처녀막이 없으면 탈락이다.

가출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다. 패싸움이나 도둑질을 하고 다리밑에서 잔다.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결손가정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집 아이들이 문제다. 배경도 좋고 옷도 깨끗이 입은 아이들이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몸에 문신을 많이 하고, 그런 간부집 아이들이 패싸움도 하곤했다. 그러나 요즘엔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개성, 평양, 청진 등 도시로 몰려다니면서 도둑질과 쓰리를 한다. 쓰리는 서동무, 쓰리하는 사람은 바위본당, 도둑질은 물차기, 교도소 한번 갔다오면 탕생이라고 부른다.

간식은 거의 없다. 평양시는 조금씩 공급을 해 주지만 지방은 없다. 라면은 있는데 스프는 없다. 한번 나왔는데 파동이 생겨서 돈으로는 살수 없고 양권을 주면 살수 있었다.

안 혁(26세, 정치범수용소 죄수)

학교 생활

가정의 사회적인 지위나 직책에 따라서 학생들의 생활이 상당히 다르다. 인민학교 학생이나 혹은 고등중학교 학생인 경우 특히 남자들 경우에는 아버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가 거의 중견간부인 경우엔 학급에서 간부를 많이 시키고 선생님과 학교에서 많이 내세우고, 농장원이라던가 노동자일때는 그냥 평범하게 자라면서 사회에 나온다.

북한사회에서는 돈보다도 귀한 물건같은 뇌물을 많이 준다. 여자 선생님같은 경우에는 치마, 스타킹, 옷, 화장품을 가져다 주고 여자 선생님이 살림을 할 경우에는 식기용품을 가져와 준다. 그런 만큼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신경을 쓴다. 그런 뇌물성 선물은 선전대가 사회적으로 유망해지니까 여학생같은 경우, 특히 예능계에서 많이 들어간다.

북한은 세뇌교육이 철저해서 청소년들은 김일성을 우상처럼 생각한다. 인민학교때부터 17살때까지 아침새벽에 일어나서 스스로 김일성동산에 가서 동상을 딱기도 하고, 그런 행동에 긍지감을 가지고 살아왔다.

아이들은 학교가기를 싫어한다. 학교 안나오는 아이는 사회낙오자라고 그런다. 그래서 학교에 안나오는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잡으러 다니는데, 잡으면 학생들 다 있는데다 세워 놓고 생활총화를 한다. 그러므로 북한 학생들의 출석율은 매우 높다.

인민학교때는 컨닝을 못하고 고등중학교부터는 컨닝을 많이 한다. 성적을 잘 받으려는 것보다 낙제를 하기 싫어서이다.

학교마다 다 같은 교복을 입는다.

북한의 청소년교육은 교회하고 비슷하다. 북한에서의 수요대회가 수요예배와 비슷하고, 대학생예배가 북한의 대학생활총활이고, 주일예배가 주간생활총화다. 교회에 가면 찬송가를 부르고, 북한은 김일성찬양가를 부른다. 마지막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북한에서는 김일성 아버지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그러므로 김일성에 대한 비난은 있을 수 없다.
학교에서 문제아들을 퇴학시키지는 않는다. 비판서를 써오라고 그러기도 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고, 타이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지만 퇴학시키지는 않는다.

대학 생활

김일성종합대학에서만 정치, 경제, 문학 이런 것을 몽땅 다 하고 나머지 대학에서는 전문영역을 특성화시켜서 김책공업대학은 공업부문, 건설대학이면 건설부문, 이런식으로 전문적인 대학으로 만들어 놓았다.

인기대학 서열은 북한에는 공과대학생이 제일 못하고, 예술대학은 김정일이가 좋아하니까 한때 북한에서 예술대학이 최고였다.

대학생도 국제적이나 국내적으로 행사가 있는 경우 한달동안 공부를 안하고 거기에 매달린다.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취직을 하게 되는데 학점이 문제가 아니고 뇌물이나 빽을 써야 되는게 힘들다.

군대 생활

북한의 낮은 계층 자녀들은 다른 진로를 포기하고 처음부터 군대를 가려고 한다. 북한에서는 군대에 가는 것을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한다. 평범한 집안에 특히 농촌집안인 경우에는 특히 좋아한다.

직장 생활

노동자는 사회주의체제가 일을 열심히 해도 밥을 더 주는 것이 아니니까 대충 요령껏 한다. 남한테 들키지 않으면 일도 열심히 안한다. 일하기 싫으면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1년 12달동안 김일성학습 한번도 참석 안하고 때우는 경우도 있다.

지배인이 있다면 당비서가 같이 있다. 당비서는 당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다. 지배인 밑에는 기사장, 기사장 밑에는 각부서 직장장이 있고, 과장들도 있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수 있고 여러가지이다.

출퇴근은 지역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아침 8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5시까지, 여름인 경우에는 6시정도까지이다. 퇴근하면 자기시간을 갖는다.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여기처럼 소방소는 없고, 바께스 같은 것이 있다. 산업사고는 손가락이 잘리는 경우가 많은데, 잘려도 보상이라는 게 없다. 직업병은 공해가 심한 화학공업지대에 많다.

4월-5월 정도에 모내기를 해야 겠다 싶으면 그때 김정일이나 김일성이가 한마디씩 한다. 북한에는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이 내리신 명령은 지상최대의 명령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동원된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하는 말은 나쁜 말이 하나도 없다. 인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해주겠다고 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사탕과자를 줄 수가 없지만,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부모도 못주는 밥이나 사탕과자를 쫙 돌리니까 어버이 수령님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다. 부모들도 자녀에게 남쪽의 정권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남한을 통일해야 한다는 식으로 선전을 한다. 신문에 신의주에서 몇십명이 폭동을 일으켰다 하는 이야기들은 김일성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 넘게 쌀을 안주니까 배급소에 가서 왜 쌀 안주느냐고 항의한 것이 와전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가정 및 여가 생활

북한에는 오락시설이 없어서 여기처럼 밤에 나다니고 그런 것이 없다.

과거에는 직장 퇴근시간이 늦었는데 요즈음은 사무원들이 대체적으로 5, 6시쯤이면 다 퇴근한다. 특별히 즐길 오락도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흑백 TV를 본다든가, 여자들은 세탁을 하든가 하고, 아이들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지낸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내가 교사로 있을 때 부모들이 찾아오든가 또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모시러 와서 '아, 우리 아이 이렇게 해 주어서 고맙다'고 대접받기도 했다.

부모를 잘 만나면 대학졸업증이라는 것도 일류대 아니면 대학 안 다니고도 딸수 있는데, 대학에서 필요한 것, 예를 들어 대학에서 석탄이 한 60톤이 필요하다 그러면 탄광에 가서 석탄을 사서 주면 대학졸업증도 얻을 수 있다.

부자지간 갈등은 잘 없지만 간부의 자녀들이 주먹쓰는데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싸움같은 것을 많이 한다. 김일성에 대해서 반대만 하지 않으면, 사회범죄에 대해 큰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좀 있는 애들은 유원지나 박물관같은 데를 다니고, 여자친구 사귀는 아이들은 여자친구와 만나서 음식 싸가지고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준다. 일요일날 걸레를 만들어서 오라고 그러기도 한다.

새영화가 나오면 회관의 문이 터질정도로 많이 몰린다.

북한애들이 술을 잘 먹는다. 소매치기도 잘 한다. 일반적으로 도둑질은 고아들이 많이 한다. 고아들은 수용소에서 생활하는데 먹을 것을 충분히 안 주니까 그런 짓을 한다. 북한에서는 도둑질을 상습적으로 하면 잡아가지만 한 두번은 매만 때리고 놓아준다.

북한에서는 수령님과 지도자동지 이외의 사람을 우상시한다던가, 어떤 사람을 보고 와 소리를 지르고 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남한에서처럼 연예인들에 대한 열광적인 행동은 없다.

인민학교 아이들은 별다른 놀이기구 없이 자치기도 하고, 공차기도 하고, 인사놀이도 하고 겨울엔 스케이트를 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그러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나 모치기는 지주의 놀이라고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땅따먹기도 자본주의의 근성을 심는다고 못하게 한다.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뛰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하는 것도 한다. 방학동안에는 과제를 하느라 바쁘다. 꼬마계획이라 해서 집단적으로 가서 모내주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과학청년의 달이다 해서 선전활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어 성일(37세, 외화벌이 노동자)

학교 생활

교실마다 정성함이 있다. 정성함에는 초상화 닦는 먼지떨이와 걸레를 넣어 두는데 제일 먼저 학교오는 애가 닦게 되어 있다. 서로 먼저 닦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 선생님들이 총화해줄 때 칭찬받고 싶어서이다. 교실마다 김일성 초상화가 있고, 어떤 학교는 대형 초상화를 주문해 와서 걸어 놓은 데도 있고, 학교 양 옆에다 플래카드를 달아 놓은 경우도 있다.

직장 생활

직장조직은 맨 윗조직이 당조직, 그 다음에 산업로농동맹, 아니면 직맹, 사로청으로 되어 있는데 시기별로 중앙당에서 정책을 내려보낸다. 예를 들어 중앙당에서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학습을 삼개월 공부하라고 하면 북한 전역은 지방이건 도시이건 관계없이 똑같은 시기에 같은 공부를 한다. 최근에는 소련, 중국이 개방되고 하니까 북한이 위기감을 느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수령후계자 문제를 학습한 것 같다.

최근에 이일육운동(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을 의미)을 한다. 기계관리를 잘하면 김정일이 이일육 칭호를 주고 표창장을 준다. 중국처럼 자본주의 경제체계를 대담하게 도입하지는 못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자극을 줘서 충성심을 유발한다. 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가르쳐 주신 일일 및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생산재정총화라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상담당자, 문화담당자, 노동평가 담당자 등 분담제로 해서 하루종일 똑같이 일을 해서 자기분야의 일만 총화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직장에 취미단체는 없다. 사회주의 헌법상, 당조직에서 승인한 조직 이외에는 전혀 조직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정의되어 있다. 다만 축구를 한다든지 그냥 가까운 친구들끼리 일 끝난 후에 몰려다니는 경우는 있다.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끼리 십대 이십대 차이가 나게 놀고, 질이 안 좋은 애들은 그런 애들끼리 모이기도 한다.

일 끝난 다음에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장기도 두고, 카드도 하곤 한다. 돈내기도 하고, 기숙사 생활하니까 식권내기도 하고, 양권과 담배내기도 한다.

북한에서 직장청년의 80%는 기숙사생활을 한다. 출근시간은 겨울하고 여름이 조금 다르다. 겨울에는 한 시간 늦게 간다. 한시간 늦게 해서 7시까지, 여름에는 한시간 빨리해서 6시까지. 점심시간은 한시간, 8시간노동이니까 4시경에 일을 마치고 정치학습을 하고 퇴근한다. 일주일에 정치학습날이 한두번정도 있고 혁명역사 학습날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강연회나 회의, 특별교양, 그 다음에 주말에 조직별 사상학습하고 해서 일주일에 두번정도 아무일 없이 보낸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도 옛날에는 두시간 정도 장시간 사상투쟁 공부했는데 최근에는 길게 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하여 생활총화같은 경우에는 30분 조금 못 넘게 하고, 학습은 1시간정도, 거기서도 특이한 것은 김일성의 역사혁명학습은 아침에 제일 맑은 시간에 한다고 해서 아침에 해서 일시간이 늦어진다.

퇴근후 기숙사에 와서는 밀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할일 없으면 책도 보고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한다. 일요일은 완전한 자유라고 볼순 없고 국가기획과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재건이 미달됐다고 하면 청소년 어른으로 나누어 나가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광복절같은 때는 조직적으로 모임이 있다. 또는 사회당원이라 해서 오전하루 직장 나가서 사회정화활동도 하고 한달에 한번정도는 동원되었다.

남한사람들은 아들이 연휴되면 부모를 찾아뵙고 하지만 북한은 대학갔다 하면 이젠 성인이 됐으니까 혼자 사는거다. 앞으로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군에 가도 어차피 자기 혼자 생활해야되는 거니까 청년들도 보고 싶은 것은 참지만 한 2-3년 지나면 익숙해 진다.

사고는 종종 난다. 노동안전사고도 나고 폭파사고도 난다.

농장원들도 아침 8시까지 출근한다. 겨울에는 모내기때보다는 한적하니까 아침 8시까지 출근해서 산에 가서 퇴비를 생산하다거나 인분생산, 가마니 자루, 새끼를 꼬기도 한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바쁜 철이 따로 없다. 일찍 나온 사람은 점수를 가산해서 준다. 그러면 점수만큼 돈을 좀 더 주고 쌀을 좀 더 준다.

원래 낙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도 간혹가다 공동변소 가면 쌍스러운 말로 약간 낙서해놓은 것이 있다. 애들이 장난으로 낙서해 놓은 것은 있는데 정치용어적인 낙서는 거의 없다.

출근할 때 3번 지각하면 하루치 쌀이 끊긴다. 여자들이 탁아소에 젖먹이러 가는 시간은 오전에 한번 준다. 집안일에 남자들이 특히 뭐 도와주는 것은 없다. 여자가 다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시집가서도 직장에 더 나가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직장가서 일하면 하루에 700g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실지 받는 양은 전쟁물자 2일치 빼고 그 다음에 식량사정으로 실지 받는 량은 535g 이다. 근데 집에서 노는 여자는 300g밖에 못 받는다. 월급도 없고 그러니까 가정생활하는데 참 힘든다. 과거에는 여자도 직장을 가지는 것을 장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했는데 요즈음은 시집만 갔다 하면 직장에서 내보낸다. 이젠 공장도 제한되어 있고 여자가 일할 장소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촌여자들은 다른 지역 도시에 시집가도 농촌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농촌여자가 도시남자랑 결혼했다면 농촌여자가 농촌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남자가 농촌으로 끌려와야 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농촌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조직사회 생활

소년단 때는 일중모범소년단, 이중모범소년단, 그리고 사로청때는 일중모범사로청, 이중모범사로청이라 해서 경쟁시킨다. 삼중하려면 김일성혁명사 같은 것은 1편에서 45편까지 판정원이 물어봐도 줄줄 암송할 정도는 되고, 악기도 다 다룰 줄 알고 이래야 한다. 이중모범사로청 되려면 과목성적이 최우등이 되어야 한다.

농촌 인민학교는 지방마다 다른데 우리마을 주변에서는 가까운 사람은 500m, 300m로부터 멀리서 오는 사람은 20-25리에서 오기도 한다.

졸업앨범은 없고 졸업사진정도를 하나 찍어서 주면 다행이다. 천연색 사진은 귀하고 흑백사진을 주로 찍는다. 아이들의 소유개념은 가방, 필통, 옷, 공부하는데 필요한 학용품, 교복, 신발 등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학교교실이나 책상은 학교 것으로 생각한다.

고등중학교는 교복 입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교복하고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있는데 70%는 옷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복을 입는다.

가정 및 여가 생활

신상옥감독이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우선 한국 사람들이 영화찍는 기술이 대단하다는 점과 또 자본주의 나라 사람들이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느끼게 했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다. 북한의 두 개 영화촬영사가 일년에 이십편을 만드는 반면, 신상옥은 혼자서도 이삼십편씩 영화를 만들어서 놀랐다. 또 문화적으로 볼 때, 북한 영화에서는 남녀의 야한 장면이 없었는데 '사랑사랑 내사랑아' 등의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해서 북한 사람들이 신상옥 감독의 영화가 나오면 영화관이 터질 정도로 많이 관람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볼때는 멋있는 배우 같지 않은데 신상옥 감독은 다른 배우들을 썼다. 북한에서는 여자들인 경우에 좀 얼굴도 김일성처럼 둥실하고 그런 인물을 미인이라고 하는 데 신상옥 감독은 얼굴이 작고 갸름한 계란형 같은 사람을 택하는 점이 다르게 느껴졌다.

영화배우 되려는 경쟁은 치열하다.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데 우선 예술학교 영화연극과에 뽑혀가야 한다.

청소년들이 영화배우에 대한 선망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처럼 광적인 것은 없다. 그냥 자기네 하고는 생활범위가 많이 다르고 접할 기회가 부족하고 하니까 부러워하고 또 잘생긴 여배우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도이다.

음악도 혁명가요로부터 찬양가, 송가 등 여러가지가 있다. 북한에서는 노래부르는 것도 지정되어 있는 게 많다. 당생활총화나 사로청총화 등 행사때마다 지정된 곡을 부른다. 혁명과업수행을 지향하거나 사람들의 사상관습을 이끌어나가는 좋은 가요가 생기면 당에서 중앙당 선전선동부에서 이달에는 이 노래를 배워야 된다고 지정해 주면, 일 끝난 다음에 노래학습으로 배운다. 그 외에는 젊은층에서 외국에서 부르는 노래도 좀 부르고, 한국노래도 몰래몰래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한국노래인지 모르면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몰래 부르고 배워주기도 한다.

찬양가 말고 다른 노래들은 위문용이 있다. 제대 군인들의 90%가 탄광, 광산, 군수공장, 농촌 등에 배치하면 군복무 10년동안 고생했는데 이런 곳에 배치시키냐는 등 불만이 있으니까 이를 위로하기 위한 노래를 배급하기도 한다. 또 김정일이가 외국에서 디스코가 유행이다 이러니까 풀어 주어서 디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코 형식으로 나온 노래가 많다. 공식적으로 발표도 얼마 안하고 배워주지도 않았는데 전파되는 속도는 빠르다. 북한에는 사람들이 쉴만한 데에는 김일성의 사적지, 유적지인데 1년에 한번 맘놓고 놀만한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서 구경할 생각은 안하고 디스코를 추고 그러니까 당일군들이 보기에는 김일성의 혁명전적지에서 김일성 혁명사상 따라 배울 생각은 안하고 부패하고 부르조아적인 퇴폐적인 춤만 춘다해서 한번 싹 없어졌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조직적으로 군중무용을 많이 한다.

이발소 같은 것은 시군마다 편의사업소라고 봉사기관이 있다. 이발사도 그 편의 사업소 직원으로 종사하고 있다. 받는 돈은 편의사업지구에 입금시켜야 한다.

북한애들은 간식을 거의 못먹어 보고 자란다. 배가 고프면 과외시간에 산에 올라가서 머루 따먹고 밤 따먹고 칡뿌리도 먹는 정도이다. 북한은 산악이 85%라서 자기배는 채우고 내려올 수 있다. 지방이나 농촌은 유치원다니는 아이들은 사탕과자가 없으니까 강냉이 튀겨서 한줌씩 주고, 평양시는 집에 갈 때 간식으로 사탕 3알, 과자 2개 이렇게 내준다. 애들이 와서 간식받아 먹는 재미로 늦게까지 기다린다. 평양학생들 경우에는 80년대 들어오면서 우유를, 중학생까지는 잘 배당이 안되고 인민학교때는 우유를 한 컵씩 준다. 학교에서 우유 꽁짜로 마신다하니까 컵 큰 것을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우유컵은 작은 것으로 통일시키기도 했다.

변검사는 안하고 회충구제는 많이 한다. 조직적으로 병역소나 인민병원에서 나와 한사람당 3-4알 정도를 주고, 그 다음에 볏짚이나 쑥을 절여가지고 그 물을 먹을 때 같이 먹게 한다. 파리나 번데기 잡기도 한다. 학교선생이 30마리 잡아오라 그러면 30마리 잡아온다.

학습반조직을 마을별로 다 해줬다. 학습반에 보통 한개 조직이 5-6명정도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다. 원칙은 수업과 사회동원 끝나고 저녁시간에 8시까지 학습반에 모이게 되어있다. 동네마을마다 가까운 집마다 조직되어 있는데 8명이 돌아가면서 학습반을 운영한다. 부모들도 애들이 학습하러 오면, 방은 한칸이지만 한쪽으로 비켜준다. 숙제는 원칙적으로는 과외공부시간에 하기로 되어 있다. 학교에서는 공부끝나면 일하고 농촌지원 나가고 일이 많으니까 못하고, 전반적으로 60%는 해오는데, 40%정도는 못해온다. 피곤해서 못하기도 하고 몰라서 못하기도 한다. 아침에 김일성동지 혁명학습시간에 선생님 눈 피해서 옆에 아이것 보고 베끼든가, 통 못하면 45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시간에 남의 것 보고 베낀다. 북한에서는 서로 실력경쟁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잘 보여준다.

북한애들은 학교생활에서 제일 스트레스받는다. 공부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은 거의 없고, 학교조직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오랫동안 종사시키는게 제일 스트레스받는다. 어린애들한테 너무 일많이 시키는 것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한다. 북한에서는 애들이 크지 못하는 이유를 과학자들은 물론, 일반사람들도 잘먹고 잘 자랄 시기에 먹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도 조직생활시켜서 못 큰다고 말한다. 어떤 부모들은 우리 때는 먹지는 못했어도 키는 많이 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학교에서 조직생활해가지고 피곤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들 한다.

북한은 10월 둘째주에 단체적으로 운동회를 하게 되어 있다. 그때가 아마 제일 기다려지고, 인민학교때는 원적가는 날, 그런 날이 제일 많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무슨 견학가는 날이 기다려진다.

북한에는 연소자 관람불가와 성인관람가의 구분이 전혀 없다. 그런데 학교에서 영화 보여주는 날 외에 밤에 영화 보고 싶어서 가는 애들이 있는데 갔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한대 맞고 다음날 학교 자기조직에 홍보되어 가지고 남아서 비판서 쓰기도 한다.

이성관계는 금물이다. 전반적으로 100이라 하면 99명은 거의 다 거기에 신경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을 안쓰고, 물래 하는 아이들도 여기서처럼 그렇게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자 해서 얘기하는 정도이다.

이 창수(27세, 유도 국가대표선수)

학교 생활

인민학교는 물론 고등중학교까지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다. 북한의 교육에는 고등중학교까지 2학년 몇반하고 4학년 몇반하고 같이 한 교실을 쓴다는 식으로 되어있다. 아침 8시 10분에 집에서 출발해서 모임장소에 간다. 모임장소에서 8시반에 학교로 출발한다. 교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아침모임에 몇명중 몇명 참가했다고 보고하고, 쉬엇하면 교실로 다 올라간다. 수업은 45분수업을 네시간이나 다섯시간, 때로는 여섯시간 할 때도 있다. 토요일은 두시간 한다.

체벌은 선생님마다 다 다른데, 학부모가 항의하기도 하고, 선생에게 대들었다가 퇴학을 당하기도 한다.

우리학교에 난쟁이가 있었는데 학교 몇년 같이 다니다가 없어졌다. 평양바닥엔 병신 같은게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 집이 전부 지방으로 이주했다. 지체부자유자들은 모두 평양에서 이주시켰다.

가방은 등에 메고 모자 쓰고 다니는데 좀 크면서는 들가방을 들고 다닌다. 건달기가 있는 아이들은 손잡이에 끈을 매어 어깨에다 메고 다닌다.

대부분 학교가기를 싫어한다. 특히 선생들의 편애가 심하다. 시험도 많이 친다. 학기말고사 있고, 학년말고사 있고, 매월 과목마다 계속 시험친다. 집단체조 같은 것 하면 얼마동안 공부를 못 시키지만 공부를 다 못 끝냈으면 집단체조 끝나고 다음에 몰아서 공부시킨다.

남한은 이학교 다니다가 싫으면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지만 북한은 그럴 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가 없다. 한학교에서 퇴학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부모가 특별히 권력이 없는 한 퇴학당할 수 밖에 없다.

학급장도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고 덩치가 좀 크고 애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즉 싸움잘하는 사람이 첫번째고, 두번째로서는 부모의 지위가 높은 사람, 부모가 예를 들어 담임 선생한테 자주 만나서 선물같은거 주는 사람이 반장이 되는 경우 있고, 선생님한테 아첨 잘하는 아이가 반장을 한다.

조직사회 생활

애들 때는 많이 놀고 싶은데, 못 놀게 하고 조직생활과 규율로 딱딱 잡아놓고 하니까 매우 자유롭고 싶어한다. 자유시간을 주어도 특별히 할 것도 없지만 그냥 밖에 한번 나가고 싶은 것이다.

꼬마계획이라고 해서 길바닥에 가다가도 파철조각 있으면 주어서 모은다. 나도 그것 때문에 신의주 타이어공장에 고무 가지러 한번 갔었다. 타이어 만들고 남은 찌꺼기 내다 버리는거 주워서 수매를 했다. 수매하면 수매증을 주는데 수매증과 돈을 학교에 바쳐야 한다.

모내기는 아침에 5시반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닦고, 7시에 식사하고 7시 반에 나가서 8시부터는 모내기를 시작한다. 모내기 시작하고 일을 하는데 학생도 무조건 도급제이다. 모판에 모종 묶은 것 얼마만큼 옮기고, 또는 강냉이 영양단지 얼마큼 옮기면 휴식하는 식으로 일량이 정해져 있다. 또 오늘은 얼마큼 해야한다 라는 하루의 일량도 정해져 있다. 애들은 모내기 나가서 보람이라든가 그런것은 없다. 재미라는 것은 지원물자 나올 때이다. 지원물자라고 모내기 나간 아이들이 배고파하니까 부모들이 빵도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는데 실지 잘사는 사람 같으면 쌀가지고 떡도 많이 해서 보내겠지만 식량사정이 뻔하니까 두세명을 선발해 가지고 배낭같은 것을 메고 저녁에 집집마다 다 돌면서 음식을 얻어온다. 쌀이 여유 좀 있는 집은 떡도 해 주고, 쌀 여유가 없는 사람은 집에서 전을 해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 춥다고 아버지의 동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복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속내의 보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붉은청년근위대는 학교를 몽땅 군대식으로 소대, 중대, 대대를 정하고, 학교에서 부르는 것도 소대장, 중대장 이런식으로 부른다. 대대기 앞세우고, 중대기 앞세우고 행진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복잡하므로 차도로 행진한다. 애들이 소리 작으면 다시 갔다 와야 하니까 크게 열심히 합창하는데 100% 참가해서 100% 찬성투표하자 하는 등 선거운동도 한다.

공장 기업소에 한달씩 동원보내는데 그때는 젊은 사람들 내보낸다. 젊은 사람들이 안 나갈려고 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일 안하고 병원에 누워 있어도 배급받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다.

가정 및 여가 생활

탁아소에서 자란 애들과 집에서 자란 애들은 차이가 많다. 탁아소에서 자란 아이는 탁아소에 있는 보모들이 무섭게 하니까 어려서부터 겁이 많다. 집에서 자란아이는 엄마 아빠가 곱다 곱다하니까 어리광도 부리지만 배짱이 있다. 또한 탁아소의 아이는 월요일에 맡겼다가 토요일에 찾아가니 부모의 정이란 것도 별로 없다.

숙제학습반이 조직되어 있다. 제 1학습반, 제 2학습반 등으로 7-8명으로 학습반장도 있다. 오늘은 누구네 집가서 공부하고 내일은 누구네 집가서 공부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모인다.

남한 학생들은 자기가 뭘 하고싶으면 해야한다는 생각이 많은데 북한의 아이들은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물론 복종하고 시키는대로 하지만 그런데서 한번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기도 한다.
학교에서나 친구와 놀 때도 계층차이가 많다. 야영이나, 놀러 갈 때 도시락이나 간식 가져오는 것 보면, 누구는 도시락 한다발 덜컥 싸오는 사람도 있고, 누구네 집은 김밥을 쫙 사가지고 오고, 사이다 몇병, 사과, 배, 계란 삶아오고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그런식으로 해오는 아이도 있고, 아무 것도 가져 오지 않는 아이도 있다. 다른애들이 조금만, 조금만 하고 구걸하며 따라다니기도 한다.

북한의 학생들은 집나가서 자는 경우가 많다. 집나가도 내버려 두는 부모들이 많다. 배고프면 들어오겠지 하는 식이다. 돈없고 쌀없고 어디가서 배고프면 친구집 가서 한그릇 얻어 먹고, 다음날엔 다른 친구집에서 얻어 먹고, 실컷 얻어 먹어 보라는 것이다. 한집에 두 번 못갈 것이고, 그 사람집도 쌀 모자라고 그애가 한번 와서 먹고가면 그집 엄마가 좋아하지 않을테고, 다음부터 오면 인상쓸거고 그러면 그집에 못갈 것이고 다른 집에 가서 또 며칠 있으면 인상 쓸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발로 돌아 올 것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의 생일이 15일이니까 13일날 선물을 주는데 골목 같은데 들어가면 큰 아이들이 뺏어 도망가는 경우가 많고, 또 교복같은 것 선물주면 도중에 골목 같은데서 칼 들고 옷벗으라고 해가지고 뺏어가는 경우도 많다. 여기로 말하면 파카 비슷한 것인데 안에다 솜 넣어가지고 재봉질한 겨울옷이다. 인민학교 학생들은 유치원생들이 조그만한 쌤들어있는 빵 타가지고 오는 것을 뺏어가기도 한다. 죄의식은 있는데 다른 사람도 다 하는거니까 잡히면 안된다 그런 생각은 있고 죄책감같은 건 별로 없다. 그런 약육강식의 분위기를 많이 익히게 된다.

골목대장이 있어 책가방을 안 들고 다닌다. 싸움 못하는 아이가 가방을 다섯개 여섯개씩 들고 집에까지 갖다주고 하면서 그 패거리의 보호를 받는다. 어릴 때부터 그런 패거리가 많다. 패거리끼리 어릴때부터 세력다툼을 많이 한다. 고등중학교 학생들도 패싸움 같은 것을 많이 한다. 삽, 곡괭이, 병, 돌을 가지고 싸움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도 있다. 패거리들의 두목은 고위층 자녀가 많다. 패거리 대장은 자기이름이나 별명을 따라서 돼지패, 꼬수패, 황소패 등의 이름을 붙인다. 지역다툼으로 패싸움을 하기도 한다. 대장들은 학교나 조직생활에는 매우 충실하게 해서 표안나게 패거리를 운영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애들 때는 많이 놀고 싶은데, 못놀게 하고 조직생활과 규율로 딱딱 잡아놓고 하니까 매우 자유롭고 싶어한다. 자유시간을 주어도 특별히 할 것도 없지만 그냥 밖에 한번 나가고 싶은 것이다.

장 기홍(32세, 재소 벌목노동자)

학교 생활

북한에는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마을별로 모이는 장소가 있다. 동네아이들이 다 모여서 복장검사도 하고 노래부르고 행진하면서 학교에 등교한다. 집단등교를 실시하며 개인등교는 정문에 세워놓고 못 들어가게 한다. 인원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지각생과 결석생을 알 수 있다. 사상투쟁에 의해 비판을 받는다. 공부가 끝나고 사회활동(모내기철과 가을철은 인민학생을 제외한 고등중학생들은 두 달 정도를 농촌지역에 공부하라고 집단으로 보냄)이 없는 날은 학교다닐 때에는 사회노동 즉 주로 가을철에 벼이삭을 주으러 많이 나오고, 겨울철에는 학교에도 석탄 등이 공급이 안되므로 학생들을 동원하여 땔감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회노동을 끝낸 후에 집단 하교를 하는데 집에 오면 저녁 7시, 토요일은 오후 4시쯤이 된다(인민학생의 경우 오전 오후반이 있다). 아침 8시 30분에 수업이 시작되므로 나의 경우는 7시면 학교에 가야했다.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렸다. 집단 하교와 등교는 도시에서 더 빈번하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교실의 모습은 여기와 비슷한데, 칠판 위에는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져 있다. 교실 뒤에는 아이들의 신주머니가 있다. 학교에 갈 때에는 가방과 신주머니를 들고 간다. 시골의 경우는 흙바닥이고 도시의 학교는 세멘바닥이다. 평양의 최신식으로 건설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연탄을 쓰며, 도급의 대학에서도 연탄을 사용한다. 책상에는 2명씩 앉는다. 어릴 때에는 책상에 줄을 긋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시험볼 때 책상을 검열하므로 책상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을 하얀 종이로 붙이고 울퉁 불퉁한 부분은 대패로 밀고 해서 검사를 받고 불합격을 맡으면 다시 한다.

시험볼 때 컨닝은 인민학교 때에는 드물고 고등중학교 2-3학년에 활발하다. 컨닝하는 이유는 낙제를 하면 진급할 수 없고 3년 정도 낙제를 하면 학교에서 퇴학시키기 때문이다. 성적우등을 해도 부모님들이 잘 했다고 할 뿐 특별한 상같은 것은 없다.

교사는 지시봉으로 머리를 많이 때리고 백묵을 던지거나, 화가 나면 발로 차곤 한다. 체벌은 교사의 성격에 달려있다.

아이들간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어릴 경우, 그 아이의 아버지의 지위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선생들이 그러한 아이들을 더 내세워 준다.

가을에는 운동회를 한다. 등산을 가면 보물찾기도 한다. 쪽지에 쓰여져 있는 대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해서 학습장을 타기도 한다.

학교 화장실에 낙서는 선생님의 별명 등 욕을 주로 쓴다.

청소는 돌아가면서 한다.

학급 반장은 선생님이 지명해서 뽑는다. 반장의 자격은 선도학생으로 능력도 있는, 대체로 간부의 자녀들이나 아이들을 휘어 잡을 수 있는 싸움도 잘하는 아이를 시킨다. 분단위원장이 있는데 학급 반장과 거의 동급이다.

시골에서는 거의 합반이고 군급 위에서부터는 남녀 고등학교가 따로 갈라져 있다. 86년 이후부터는 남녀공학으로 한다고 하였다. 인민학교의 경우는 1-2학년때에는 남녀를 같이 앉힌다. 학년이 올라가면 따로 앉힌다. 두 줄은 남자줄 두 줄은 여자줄이다.

고등중학교때에는 4학년에 올라가면 붉은청년근위대가 있다. 붉은청년근위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가 군사동원부에 등록이 되고 근위대에 들어가서 군사교육이 시작된다. 총들고 시작하는 것은 이때부터이다. 보름동안 총을 들고 실질적인 연습을 한다.

청소년들의 진로는 개인에게 선택권이 없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개인의 노력을 심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뒤, 군대가는 사람은 군대가고 대학가는 사람은 대학가고,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사람은 무리배치라고 해서 학급단위로 탄광이면 탄광, 광산이면 광산, 간석지면 간석지로 가게 된다. 예를 들어 군에서 배치를 한다면 먼저 군 헌병위원회 노동부에서 그 사람의 식량정지나 군사이동이나 먼저 떠어가기 때문에 개인은 따라 가야 된다. 그러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케이스가 있다면 부모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대열에서 물건을 빼내는 것 뿐이다. 결정적으로 본인한테는 진로 선택권이 없다. 그러나 이것도 성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많다. 북한의 당간부나 간부의 자녀들은 사실 자녀를 군대에 안 보낼려고 그런다. 북한은 대학에 가게 되면 대학기간에 5년중 6개월간 교도기간이라 해서 군사교육기간이 있는데 대학기간에 그것만 졸업을 하게 되면 대학 졸업할 때 예비역소대장 자격을 주면서 군대에 갔다 온것으로 친다. 따라서 당간부나 고위층 부모들은 군대를 안보내고 대학에 보낼려고 한다. 일단 무리배치가 된 뒤 6-7개월 후면 간부네 자녀들은 모두 빠진다.

국가에서 모집예상을 내려보낸다. 북한에서는 누구나 다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남자의 70%는 간다. 극히 일부분인 대학가는 사람과 불구자, 그리고 농촌의 경우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을 뽑아가면 일손이 딸리므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농촌출신들은 군대에 가고 싶어한다. 군대를 갔다 와야 직장을 가질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지어야 한다. 또한 군대를 갔다 오면 당증도 받을 수 있고 군대에 가 있는 8년 동안에는 입는 것 먹는 걱정을 안 해도 되므로 농촌 지방 사람들은 군대에 나가려고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장애자들은 번식을 막기 위해 양생원이라는 곳에서 귀가 3개라든가 즉 기형아들을 집단수용한다. 전염병환자들은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수용된다. 보통의 지체아이들은 집에서 많이 키운다. 가출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안전부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그 집 출처를 캐어서 예를 들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자식들을 불러서 혼을 내기도 한다. 그러한 집단 수용 시설은 있다.

대학 생활

대학은 6개월간 전문 공부를 안하고 학급단체로 나가서 학교와는 아무런 상관 없이 소대장까지 현역 군인들이 맡아서 군사교육만 받는다. 6개월 훈련을 받은 후 대학을 졸업하면 예비역 소대장 자격증이 주어진다.

사범대학 다니다가 자기마음대로 그만 둘 수 없다. 대학 2학년이 되면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간부등용이 된다. 국가의 밥을 먹기때문에 그만둘려면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아프다던가 공부를 못할 처지가 되었다던가. 나의 경우는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진단서를 떼어서 3개월만에 받았다.

사범대학을 나오면 고등중학교 교사가 된다. 사범대학 안에 김일성 혁명역사과가 있다. 그 곳을 졸업하면 간부로 많이 나간다. 즉 민족간부를 많이 양성한다. 그리고 교원대학이 있으며 사범대학보다 조금 낮은 부류로 인민학교 교사가 된다. 전문대를 제외하면 모든 대학은 5년제이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당시 중학교 교사라고 하면 그다지 좋지 않았다. 단 좋은 점은 당 간부인 학부모를 통해서 석탄을 받는 등 가정살림에 보탬이 되는 정도이다. 북한에서 교육은 강조하지만 교사에 대한 특별 대우는 없다.

군대 생활

군대에서 대학으로 추천받아 가는 사람도 있다. 나의 형의 경우도 군대 제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하기 전에 대학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대학에 갔다. 제대하면 나이가 27-28이다. 따라서 그때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시기적으로 늦다. 지금 고등중학교 나이가 18살, 우리때에는 19살 정도면 졸업했다. 졸업하기 전에 군사 동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발령을 받는다. 고등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군대에 가면 졸업장은 후에 보내준다.

재대한 후에도 군대로부터 배치를 받아서 귀가면 귀가, 탄광이면 탄광으로 배치받아 간다. 제대 후 80%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고 나온다. 문전이 먼저 가니깐 안 갈수가 없다.

직장 생활

기술을 연수하는 데는 없다. 일단 배치되어서 공장에 들어가면 분야별로 실습을 시킨다. 고등중학교 기간에도 특별히 시키는 기술교육은 없다.

가정과 여가 생활

저녁 7시에 들어오면 저녁은 집에 와서 먹는다. 숙제는 공부시간 중에 하고 부모님이 없어도 동네 아이들하고 논다. 가을이면 자루등을 들고 쥐구녕을 파러가기도 한다. 쥐가 옥수수를 쌓아놓으므로 쥐를 이용해서 서리를 하는 것이다. 때로는 아버지 돈을 훔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도 하는데 사실 도소재지도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 힘들다. 간식은 평양시에서는 학교에서 조금 준다고 하는데, 도급학교는 학교에 식당이라는 것도 없다. 학교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집에서 아침 먹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간다. 아이들은 돈이 있어도 사 먹을 것도 없으므로 옥수수를 훔쳐서 나가야 뻥튀기를 먹을 수 있는데 돈을 훔치면 금방 탄로가 나니깐 집에서 귀한 것 즉 어머니들 시집올 때 가져온 양복 등을 훔쳐서 옥수수와 바꾸어서 먹는 등의 도둑질은 많이 해 보았다.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사탕이 가장 먹고 싶다. 명절에는 과자, 사탕, 사과, 술 등이 들어있는 선물 꾸러미를 받는데 어른들이 아이들 몰래 먹는 일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도 있다. 집에서 먹는 음식은 일단은 아버지가 제일이다. 밥을 할 때도 옥수수는 밑에다 놓고 쌀은 위에다 놓아야 익는다. 먼저 아버지의 것을 푼다. 아들과 딸의 경우는 아들 것을 먼저 푼다. 반찬은 겨울에는 김치 한가지이다. 여름에는 오이, 가지, 냉국이다. 가끔 명태를 먹기도 한다. 실질적으로는 북한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심하다. 먹는 것, 입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 나 안 먹고 남을 주는 일은 없다.

가정에서 남녀 형제가 말은 하지만 같이 다니는 일은 드물다. 남녀 구별해서 논다.

여자들은 줄넘기, 씨차기, 자갈차기, 말타기, 소타기 등을 한다. 고민이 있으면 친구들과 주로 상의한다.

부모님께 혼나는 것은 아침에 어머니가 지시한, 예를 들면 '물을 길어놓아라', '연탄 불 갈아라', '토끼풀 모아오너라' 등을 놀다가 잊어 버리거나 아이들끼리 모여서 습격하러 갔다가 경비에게 들키면 학교나 집에 통보가 가서 매를 맞은 적도 있다.

일요일에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는 잘 없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러가는 경우는 북한 주민으로서는 생소한 것이다. 1년 중 직장이 쉬는 날은 7-8일 뿐이다. 주말이라는 말도 없다. 아이들의 경우도 오전에는 학교에 가서 사회노동을 하고 오후에 노는 경우가 많다.

고등중학생들의 고민이라면 먹는 궁리다. 그만큼 북한에는 식량이 문제다.

보통 고등중학교 3-4학년때가 나쁜 길로 빠지기 쉽다. 패를 만들어 싸움을 하기도 한다. 고등중학교 3-4학년이 그러한 싸움을 하지 못하면 남자 축에도 끼지 못한다. 그러한 패에 끼지 못하면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에게 매맞는 경우가 많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북한의 청소년비행은 학교를 안가고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다른 아이들을 시켜서 집에서 쌀이나 옥수수를 가져오도록 하고, 안 가져오면 때리는 정도이다. 나도 고등중학교때 담배를 배웠다. 담배를 안 피우면 동네대장이 때리곤 했다. 학교마다 자체 교양소가 있어서 그러한 불량 청소년들을 모아서 집에도 안 보내고 규율생활를 시킨다. 아침체조를 비롯하여 군대생활처럼 몇 달 훈련을 시킨다. 이에 부모들은 국가가 시키는 일이므로 따를 뿐이다.

북한아이들은 자존심이 여기 아이들보다 더 세다. 예를 들어 주먹싸움에 있어서도 자기가 지면 졸업할 때까지 맞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한 싸움을 많이 한다. 힘이 약한 아이들은 집단 등교할 때 가방도 들어다 주면서 주먹대장에게 아부도 한다.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패거리가 모여서 때린다.

어릴 때는 주먹싸움이 많았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칼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칼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돌이나 몽둥이를 사용한다. 싸움을 할 때는 미리 약속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 몽둥이라든가 돌를 쌓아둔다. 싸우다가 먼저 달아나는 패는 무조건 진 것이다. 싸우다가 머리가 깨지기도 한다. 진 팀의 경우 진 것이 서러워서 밤에 상대편집의 유리창을 깨기도 한다. 이를 토벌단이라고 한다.

시내 아이들은 담배를 배우는 시기가 늦고, 군급으로 내려 갈수록 많이 피는데 고등중학교 3-4학년이 되면 50%이상 핀다. 아이들이 술을 마실 기회는 그다지 없다. 마실 경우는 고등중학교 5학년 정도 되면 마신다. 담배는 길가에 담배밭이 많아서 잎을 따서 피우기도 한다.

여학생 남학생 연애사건은 잘 없다.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몰려다니며 논다. 대체로 성인들이 미성년자들을 강간해서 임신하는 일은 있어도 학생들끼리 그런 일은 드물다.
북한청소년들도 외모에 관심이 많다. 88년 이전 나팔바지가 유행이었을 때는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교복에 안감을 대어 나팔바지를 만들어 입기도 했다. 또 어떤 학생들은 교복에 달린 모자가 두줄로 바느질이 되어 있는데 모자를 다 뜯어서 한줄로만 하기도 하고, 신발의 경우는 끈을 나비모양으로 매기도 한다. 머리를 기르는 학생도 있는데 길면 학교에서 단속한다. 외모나 복장이 이러한 아이들은 대부분 말썽꾸러기다. 여자의 경우는 멩기리본이나 신발 등에 신경을 쓴다. 여자아이들의 화장은 평양은 조금 빠르겠지만 고등중학교 졸업후 2년정도 후에 한다.

청소년들은 안경을 거의 끼지 않는다.

아침에 어머니가 깨워 준다. 옷은 대체로 자기가 챙겨 입는다. 아침식사는 학교를 안 가는 한이 있어도 먹고 간다.

생일에 선물하는 것은 여기 와서 처음 보았다. 김일성 생일날 받는 것을 모두 선물이라고 한다. 친척의 집은 가까이 있어도 부담이 되므로 명절이나 그럴 때만 찾아간다.

노래는 혁명가를 많이 부르고 간혹 혁명가에 다른 가사를 붙여서 부른 노래가 유행이 되면 사로청이나 학교에서 난리가 난다. 검열도 하고 집에도 안 보내고 그 노래의 출처를 캔다. 어른과 어린이의 노래는 따로 없다. 인민학생의 경우는 동요같은 것이 있다.

조직사회 생활

소년단의 경우는 조직 생활을 익히는 단계로서 꼬마활동이라고 해서 토끼키우기 등을 하며, 사로청의 경우는 사회적인 힘든 일은 앞장서서 하는 선봉장의 역할을 한다. 북한에서는 정의부대라고 한다.

규찰대는 학교안에 소년단 위원회와 사로청년단의 간부들이 나와서 선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한 성호(26세, 소련유학생)

학교 생활

경쟁은 A급에 들어가는 애들끼리는 치열한데 그것은 뒤지기를 싫어하는 개인적 성격때문이다. 축구하자고 그래도 공부해야 한다고 혼자 따로 공부하는 애들도 많고, 그런 A급 애들만 빼놓고는 다른 아이들은 다 나가 논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성실히 한다고 볼수 없다.

입학식은 성대했다고 생각되는데, 졸업식은 그냥 그렇다. 졸업하는 마당이고, 애들도 지겨워서 하루 빨리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졸업할 때 여자애들은 울기도 하는데, 남자애들은 그런 게 없다. 오히려 지겹다, 다행이다 이놈의 학교, 드디어 졸업했구나 하는 식이다.

선후배관계는 그렇게 돈독하지 않다. 한학급 내에서만 아이들이 우리반이라는 것만 알지 타학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러나 보이는 질서는 확실하다. 한학급을 하나의 조직체로 본다. 1학년 1반하면 1반이 하나의 소년단 조직이다.

군대가서 3년만에 대학추천장 받아가지고 올 수가 있다. 군대에 가서도 2년 정도 충실히 생활해서 당원이 되고, 상부사람들에게 잘 보이며는 대학추천장을 받아 대학에 올 수 있는데 1,000명에 하나 정도는 된다.

체벌이 심하지는 않은데, 지시봉이나 빗자루로 종아리를 때리는 정도이다. 아이들은 대부분 체벌을 받아들인다. 가끔 부모들이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집안은 일반 가정이 아니고 중앙당이라든지 또는 권력을 좀 누리기 때문에 선생이 감히 우리 아들을 때려하고 항의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맞아도 집에 가서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잘 없다. 또 집에 가서 말하면 십중팔구 부모님들이 너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고 질책을 하기때문에 그 잔소리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듣기 싫어서 맞아도 오늘 안 맞았어요 하고 피한다.

1년에 학부형회의를 두 번 한다. 한학기가 끝나고, 성적표를 나눠줄 때, 학부형에게 직접 준다. 대개 저녁 8시-9시에 모이는데, 부모가 못 오면 누나나 형이 온다. 그때 성적표를 나눠주기 때문에 부모들은 성적을 잘 받았으면 그 앞에서 막 뽐내지만 만약 자녀가 낙제를 맞았으면 얼굴이 뻘개지고 집에 와서 애를 꾸짖는다. 성적은 최우등, 우등, 보통, 낙제식으로 평가한다. 보통하고 낙제하는 경우는 약 15% 정도이고 대부분 우등에 들어간다. 최우등하는 애들은 한반에 한 2-3명 정도이다. 품성에 대한 평가는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상, 중, 하로 표기한다.

북한에도 교육개발원 비슷한 곳이 있다. 그래서 거기 과학자들이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시범학교를 몇개 지정해놓고, 실험해서 좋으면 전국에 보급한다.

외국어는 한 90%가 영어이고, 10%가 노어다. 60년대 말기까지 노어를 했고, 그 다음에는 수정주의라고 해서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70년대 중반부터는 노어반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해오다가 80년대 초에 다시 노어반을 만들었다.

간부들이 사는 구역에 있는 학교는 여기로 말하면 8학군처럼 그런 분위기의 학교가 된다. 영재교육을 하는 학교로 평양제일고등중학교가 83년도에 설립되었는데, 처음 취지는 영재라든지 뛰어난 학생들을 국민학교 2-3학년때부터 선발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었다. 실험실의 모든 장비라든지, 선생님들의 수준이라든지, 그 학생들을 위해서 풀장도 만들어주고 기숙사도 좋게 지어주었다. 거기서는 성분도 어느정도 제외가 된다. 학생만 똑똑하다면 들어갈 수 있다. 실력위주로 뽑는 것이다. 그런데 간부 부모들이 학교시설과 교사가 좋으니까 압력을 가해서 처음엔 다 영재학생들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2-3개 반은 당간부 자녀들 반을 따로 만들게 하였다.

벽지에는 분교를 만들어 선생님을 파견하는 등 국가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입학식은 성대하게 한다. 전날에 학교가서 교복, 교과서, 학용품을 내주는데 물론 돈주고 사는 것이다. 아이들은 설레어서 잠도 못자고, 그 다음날 교복입고 가방메고 학용품 챙겨서 부모님 손붙잡고 가면 2-3학년 되는 애들이 학교 정문에서 꽃다발도 흔들고 색종이를 뿌리기도 하고, 고적대가 나팔도 불면서 환영해 준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축하인사도 해준다. 학급이 발표되면 부모들이 그 반에 데려다 준다. 그 다음날부터 모임장소에서 모여서 등, 하교를 한다.

오전반, 오후반 구분하는데 도시락은 오전반 아이들이 싸간다. 오전반은 점심먹고 선생님이 숙제라든지, 오늘 국어공부를 하고 집에 가라고 하든지, 키크기운동을 시키든지, 달리기라든지 국민건강체조 그러한 것을 시키기 때문에 집에 갈 수가 없다. 오후반에 교실을 비워주어야 하므로 학교마당이라든지 학교뒷마당에서 가방에 걸터앉아 가지고 공부하든지 아니면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을 한다.

유학은 누구나 다 소망한다. 부모도 마찬가지이다. 유학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분이다. 부모님들 중에 한명 정도는 당원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친척들을 본다. 친척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야 하고, 물론 크게 출세한 친척들이 있으면 더 좋다. 그 다음에는 빽이다. 성적은 중간정도면 된다. 다음은 뇌물인데, 북한에는 대학이나 학교에 간부과가 있다. 인사과와 비슷한데, 학생들의 모든 인사기록을 가지고 있다. 부모, 친척, 학생의 사상상태, 공부하는 수준 등을 다 체크하고 있다. 그걸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간부과라고 하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부모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은 뇌물을 주게 된다.

50년대와 60년대 북한에서 유학생들을 러시아나 동구권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이런 나라들에 많이 보냈다. 약 7,000명 정도 보냈다. 한국전쟁 때 북한당국에서 앞으로 전후복구도 해야겠고 경제개발을 위해 인재를 양성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냈는데, 60년대 들어오면서 러시아에서 수정주의로 나오게 되자 사태가 달라졌다. 북한에서도 그렇지만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비판하면서 동구에서 유학하던 유학생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동조하고,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유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북한당국이 당황하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을 노동계급화한다는 명목으로 탄광에 보내기도 했다. 이런 경험때문에 70년대에는 유학생을 한명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기술을 도입하지 못하고, 경제난이 생기니까 김일성이 '백명중에 한두명이 도망가더라도 우리는 유학생을 보내야 된다' 라고 하여 81년도부터 유학을 공학계통으로 한 몇십명 정도, 아주 적은 인원으로 보내다가 본격적으로 보내기 시작한 것이 84년도부터이다. 84년부터는 1년에 한 천명 정도 보냈다. 85년도에 제일 많이 나갔고 86년도부터 다시 줄기 시작해서 87년도에는 2-30명 정도로 감소했다. 그리고 90년, 91년 초에 모든 유학생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외국에서 대학원까지 유학한다는 것은 무척 힘들다. 국가예산도 부족하고, 엄청난 빽이 있어야 한다. 북한 중앙당 교육부에서 심사하기 때문이다.

나는 평양외국어학원에 다녔는데, 평양외국어대학하고 같이 지은 것이다. 같은 울타리안에 있으며 6년과정이다. 이 학원을 졸업한 95%의 학생들이 평양외국어대학을 들어가게 되어 있다. 나머지는 일부 유학가고 일부 타대학에 진학한다. 고등중학교과정이며 8과로 외국어가 전체 교육과정의 50%이상 차지한다. 전국에 한 5개정도 있는데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수준이 낮고, 평양에 있는 학교가 가장 수준이 높다.

조직사회 생활

선전활동은 '찬성 투표하자' 라는 피킷을 맨 앞에 2명이 들고, 한학급에 한 4명씩 열줄 40명이 줄을 서 가면서 선거노래를 부른다. 피킷을 맨 앞에다 들고 학교가 있는 주변을 돌면서 홍보활동을 1시간내지 2시간정도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길에 200m 또는 100m에 2명씩 배치되어 규찰활동을 한다. 학생들도 통제할 수 있고, 어른들까지 통제할 수 있다. 규찰대상을 발견하면 애들이 손을 흔들면서 그 어른을 몇십미터 쫓아 다니면서 '아저씨 이름 뭐예요?', '직장이 어디에요?' 하고 묻고 적는다. 주로 김일성 뺏지가 없는 사람, 깔끔한 외출복이 아니고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어른인데도 불량하게 머리가 긴 사람 등을 단속한다. 규찰대에 걸리면 길가는 사람이나 같이 가는 사람들 한테도 창피를 당한다. 규찰대 아이들이 조사한 것을 선생님한테 드리면 선생님이 종합해서 상부에 보고를 한다. 그게 반영되는지 그냥 시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학생들은 반영된다고 생각을 한다.

가정 및 여가 생활

평양시내는 개발이 많이 되어 산이 없다. 그러므로 놀 산도 없다. 그러니까 산에 가려면 평양시 외곽지대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엔 군대들이 지키고 있다. 차도 통제하고 있으니까 산에 간다는 생각조차 못한다.

학생들의 머리가 길면 선생님들이 가위 가져와서 머리 자를거라고 겁을 주기도 하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당기기도 한다. 머리 파마는 못하게 하고 기르든지 짧게 하든지 그건 상관없다. 머리스타일은 유행을 탄다. '이름없는 여인들'이란 영화가 인기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기자인데 머리를 매우 길렀었다. 그게 엄청나게 유행이 되어 학생들이 머리를 한참 길렀다. 그래서 82-3년도 그때부터 장발단속을 하기 시작했다. 공부 끝나고 애들을 다 마당에 모아놓고 학급별로 줄도 틀리면 안되게 서서 '손' 하면 손 딱 내밀면 손톱검사도 한다.

졸업하면 '축하한다' 이 한마디면 되지 졸업이고 생일날이고 선물은 안해준다. 선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안 서 있다. 외국에 출장가는 기회가 있으면 부담을 느끼면서도 사오고 하지만, 추석날이고 구정때고 선물이라는 게 없다. 특정한 것을 누가 좋은 것을 구했다하면 그걸 누굴 줄까 하다가 선물을 줄까, 선물주고 받는 일은 잘 없다. 아이들은 시계를 매우 갖고 싶어한다. 시계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는 외제, 세이코라든지 오리엔트 등을 좋아 한다. 그러나 그런 고급품을 가지고 있는 애는 드물다. 소형녹음기는 신기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외국음악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거 하나 가지는 게 소원이다. 그런 것은 능력이 있는 집에서나 사지 일반적으로 국내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침울하기 때문에 애들이 취미생활을 즐길 여유가 별로 없다. 영화관 가는게 아무래도 가장 큰 취미인 것 같고, 영화를 보고 집에 와서는 오후 6시부터 TV를 하니까 TV보고, 숙제 좀 하고, 애들하고 공 좀 차고, 뭐 자기 동네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유원지에 가서 놀이기구를 탈 수도 있고, 생물공부도 좀 할 수 있다. 대성산 유원지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산림돌이 많으니까 선생님하고 애들이 같이 나가서 이것은 무슨 나무다 하고 대주면서 공부를 몇시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애들하고 같이 놀이공원 비슷한 기구들을 타고 하루를 그냥 과외공부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놀이기구 타는 것은 애들이 얼마씩 가져오라고 하면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타온다. 아주 소량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가져오는 애들은 거의 없다.

아이들도 극장은 맘대로 갈 수 있다. 오전반이면 한 2-3시까지 학교에서 과외활동하고 '영화관 가자' 해서 애들끼리 영화관에 자유롭게 갈 수가 있다.

체육단복이 북에서는 부러움이 된다. 특히 외제 체육단복이면 더욱 그렇다. 이따금씩 학교에서 공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사회의 생필품 자체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단체로 맞출 수가 없다. 대부분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 체육복은 팔지 않지만 안면을 통한다든지 편법을 쓴다든지 해서 구입한다. 체육시간에 나오는 것 보면 다 다르다. 어떤 애는 아버지가 외국출장갔다가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애들이 체육복이 없어서 그냥 팬티만 입고 나오기도 하는데 남자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학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생이 팬티를 입고 나와서 달리기를 하는 것도 봤다. 그런 정도면 어느정도 부족한지 상상이 갈 것이다. 체육복의 재질은 라일론 내지 화학섬유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고, 면같은 것은 귀하다.

북한산 사이다는 단물이라고 한다. 외제 사이다는 없다. 외제는 지금 백화상점이라는데 가야 통용된다. 단물은 사카린을 어떻게 녹여가지고 하는 것인데 얼음보송보다는 아이스크림이라고 불리운다. 더우니까 많이 사먹는데, 사이다는 괜찮은데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저 그렇다. 그외에 막대기에 얼음 얼려서 단물만 쭉쭉 빨아먹기도 하는데 여기꺼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 맛이 달달하다. 강냉이는 좀 쪄가지고 파는게 있는데, 고구마는 좀 드물다. 과자같은 것은 식료품 상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뒤로 빼돌렸다 먹기도 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사먹기 힘들다.

유치원생들은 빵이나 강냉이 등을 간식으로 주기도 하며 평양 등 대도시는 집에 돌아갈 때 사탕이나 과자를 주기도 한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인민학생들에게 우유를 한 컵식 배급하기도 한다. 생일때는 특별한 음식보다 보통 때 먹기 힘든 쌀밥을 해주기도 하지만 미역국을 먹는 일은 드물다.

남한 청소년은 활발하고 자유롭게 자기의사를 표현하는 것 같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어리광도 피우기도 하는데, 북한 청소년들은 감정 표현이 극히 제한적이다. 집에 와서도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인사만 꾸벅할 뿐이지 활발한 대화가 없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들이 남한테 처지지 않은 정도로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한 학급이 한 40명-50명이라면 등수를 1등부터 40등까지 매기는 것이 아니라, A, B, C, D 이런 정도로 부류로 나눠가지고 A가 몇명, B가 몇명, C가 몇명, D가 몇명 이 정도로는 가르지, 누구 1등, 누구 2등 이렇게 가르지는 않는다. 그런면에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편이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모든 것이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칭찬할 것은 칭찬해주고 그래야지 애들이 밖에 나가서도 주눅이 들지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친구들도 사귀는데 대부분의 북한가정에서 그게 결여됐다. 그래서 밝지 못하다. 그 이유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만 말 잘못 했다가는 큰일난다는 강박관념이 머리속에 박혀 있다.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그런 교육을 꼭 시킨다. '너 어디가서 말 조심해야 된다. 어디가서 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애들 말하는 데 끼지 말아라. 돌지도 말아라.' 한번은 친구집에 가서 저녁식사를 얻어먹는 데, 친구 아버님이 중앙당에 다니는 분인데, 저녁식사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영양가 있게 식사할 수 있는 것이 다 누구 덕분이냐, 공부를 해도 수령님의 은덕을 잊지말아야 한다는 등 한 5분동안 사상교육을 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친구는 학교에서도 사상, 집에서도 사상교육, 아버지에 대해서 싫다, 지겹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공부하라'는 말과 '숙제를 다 했느냐.' 그리고 '오늘 몇점 맞았는지 보자' 라는 말이다. 아이들은 매일 점수를 받아 간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10점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과목별로 10점, 9점, 8점 이렇게 점수를 받아가면 부모님들에게 검열을 받는다. 과목중에는 아무래도 사상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때문에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동지'와 관련된 과목의 점수에 부모님들은 굉장히 신경을 쓴다. 그리고 '조직생활을 잘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조직생활이라는 것이 사상적인 측면의 하나이고, 집단이나 조직생활에서 좀 튀어나오는 사람은 안 좋게 생각한다. 사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속한 학급이라든가 분단이라든가 그러한 조직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좋다. 인민학교까지는 그래도 애들이니까 봐주지만 사로청부터는 조직생활에 나타난 어떤 결함들을 대개 엄하게 취급한다. 그게 여러번 반복되면 그 애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라든가 평가점수가 나쁘고, 그것은 졸업하고 군대를 가거나 직장을 갈때도 나쁜 평가점수를 가지고 들어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면 출세하는데 매우 지장을 받는다.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조직생활을 잘해라', '남의 말담에 오르지 마라' 고 주의시킨다.

진로문제로 부모와의 갈등은 잘 없다. 다만 아이가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데 부모가 빽이 없고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부모가 스트레스 받는 것은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현실에 순응하는 편이다. 그것은 사회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부분 그대로 따르는게 관례이다.

학부형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학교울타리를 보수해야 한다 하면 국가에서 예산이 안 나오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부형에게 부탁한다. 만약 울타리 보수하는데 시멘트가 필요하면 시멘트 쪽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형들을 우선 담임선생님이 가서 말해보고, 좀 힘들면 교장까지도 나서서 부탁한다. 공사일도 많은 학부형이 나와서 도와준다. 안나오면 애들이 집에 와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안나갈 수가 없다. 벽돌같은 것이 모자라면 아이들에게 벽돌 하나씩을 모아오라고 하는데 애들이 몰래 한두개씩 훔쳐오기도 하고, 아예 있는 담을 돌로 쳐가지고 부분만 떼어오기도 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